

大宗會報

2007年版 通卷 第19號



晉州柳氏大宗會

宗訓

順 天 應 命

天理를 따라 使命을 다 한다.
또는 天命에 順應한다.

繼 志 述 事

祖上의 뜻과 事業을 繼承하여 빛낸다.

教 子 有 方

子孫을 道義로써 教育한다.

親 親 愛 人

一家간에 和睦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徽 章 (宗章)



● 圖案說明

- ① 金色 테는 晉州의 晉字
- ② 太極위의 金色 卍字는 柳字의 篆字(전자)
①+②는 晉州柳氏
- ③ 外廓의 綠色잎은 버들가지가 밑뿌리에서 良和公派,
攄郎公派로 分派되었으나, 양쪽으로 감싸고 뻗어오름.
- ④ 中央 太極은 무궁한 발전을 상징함.

● 綜合解說

같은 뿌리 버들가지 진주에서 태어났네
二大宗派 和氣靄靄 서로 돕고 감싸면서
無窮토록 發展하여 黃金같이 빛나리라
초록잎도 싱싱하게 晉州柳氏 千歲萬歲

大宗會報

2007年版 通卷 第19號



長忠祠

표지설명

이 사진은 충북 제천시 연박리에 있는 장충사(長忠祠)이다. 1995년 9월에 건립하여 판서공(韓之濕)을 주벽으로 하여 자손 여덟분을 배향하고 매년 가을 음력 9월 마지막 일요일에 향사를 받들고 있다.



晉州柳氏大宗會



1

- 1 종수회장 인사말씀 도중 열렬히 박수를 받고 있는 모습
- 2 고사봉독 하는 창목(昌睦) 밀양 분회장
- 3 승국 명예회장의 격려사 장면
- 4 을유보 발간 기념 공로패를 받고 있는 은수 명예 회장
- 5 을유보 발간기념 공로패를 받고 있는 보형 前 부 회장
- 6 단상석 고문님들과 사회를 맡은 정득 부회장



2



4



5



3



6

7 회의진행 사항을 경청하고 있는 참석 중친 모습

8 족보 분질에 수고하신 종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중수 회장

9 박사학위 취득 종원에게 축하패를 수여하기전에 축하인사를 하시는 중수 회장

10 감사패를 수여하는 모습

11 효부 표창패 증정 광경

12 제 29년차 정기 총회를 마치고 힘찬 모습으로 만세 3창을 하고 있는 중친들의 모습 만세선창에는 최고령자이신 '지필' 종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단상에서 선창하셨다.



7



8



9



10



11



12



1



2



3



4

- 1 삼문(三門)앞에 도열한 헌관 및 제
집사들의 모습
- 2 분방발표 및 호명에 따라 집사자
들이 도열하는 광경
- 3 참출하는 모습
- 4 종수 회장 및 제관들이 배천문으
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 5 일반 참사자들이 정전 앞에 참배
를 하기 위해 도열 하는 모습
- 6 삼문 앞에 모여 있던 참사자들이
배천문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모습



5



6

7 아헌례가 시작되기 전에 헌작을 위하여 홀
창에 주목하는 헌관 모습

8 초헌례 중 독축(讀祝)하는 장면

9 음복수조례(飮福受祚禮)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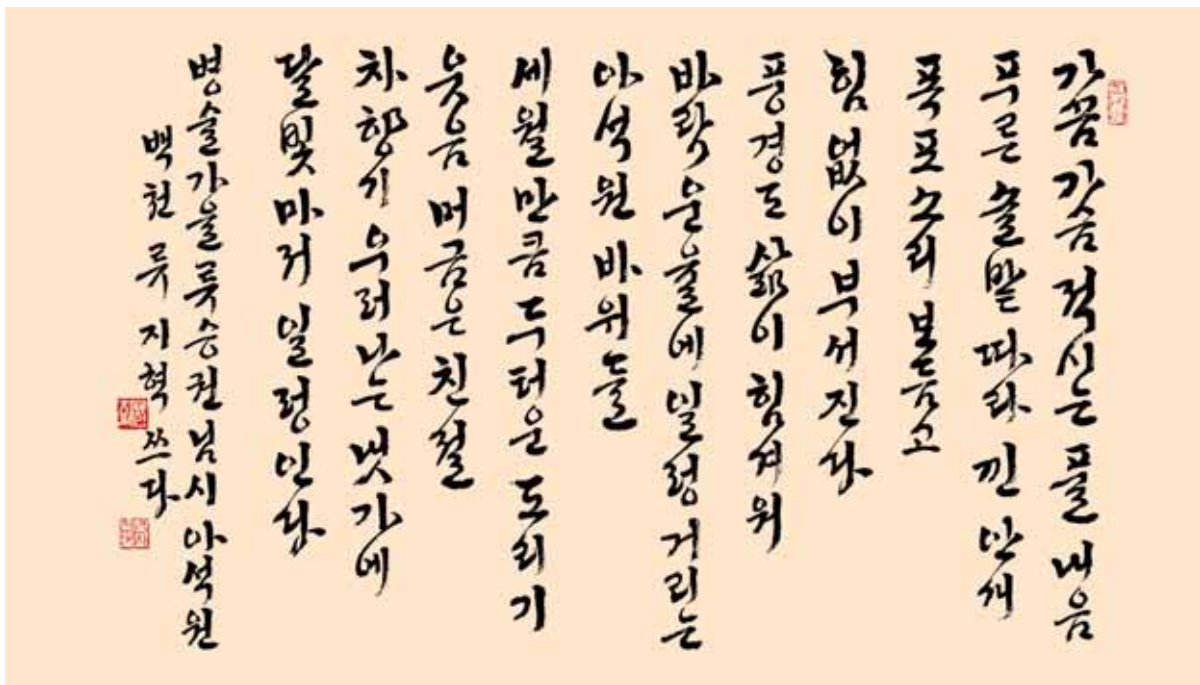
明一心 統萬法 마음 하나를 밝히면 만법이 통일됨



송월(淞月) 속명, 상목(相穆)
대사성공파 망일재공 11대손
前 주지 해인사 큰스님 양화당 寓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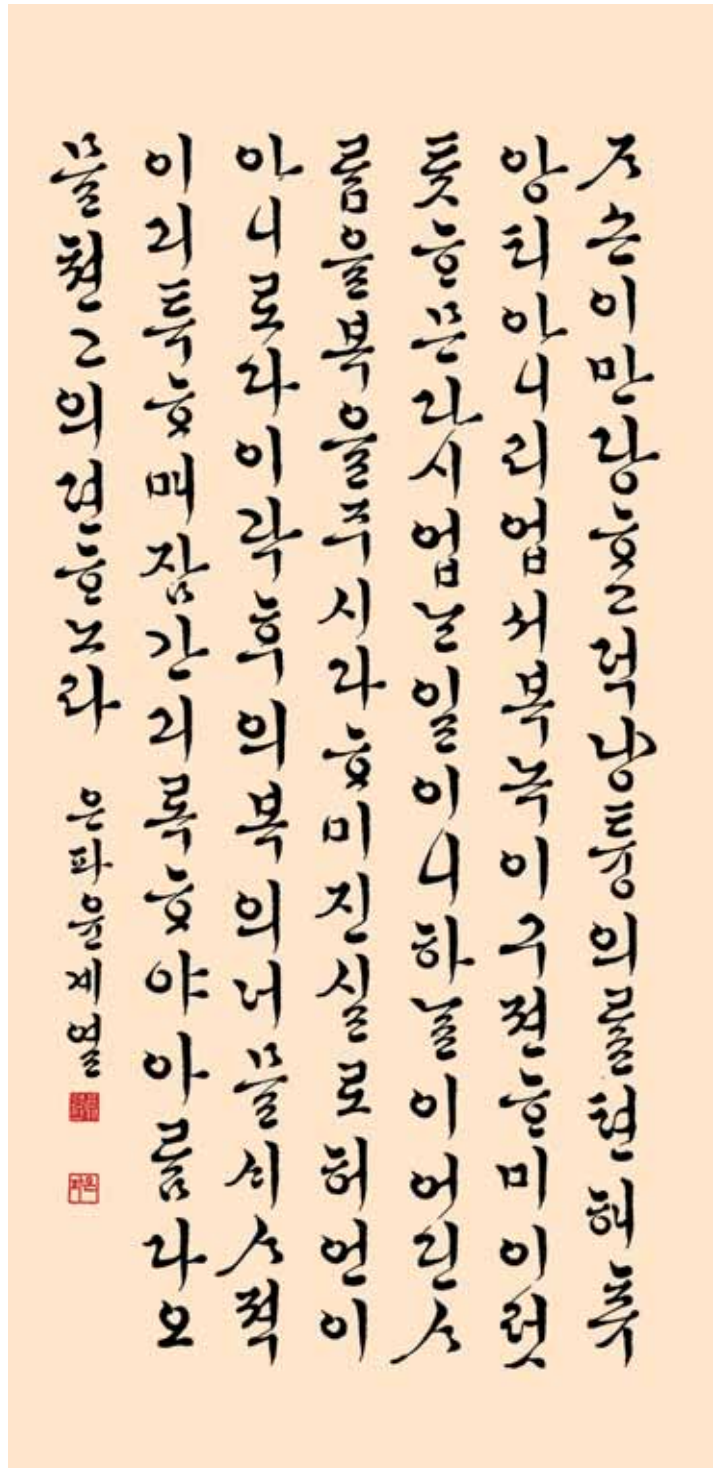
화의죽정(花意竹情)



류지혁(柳志奭) 호:백천(栢川)
진천군과 현감공 17대손/대구거주
한국서예협회 대구지회장/백천서실 운영



묵죽(墨竹)



낙성비룡

단원 미술대전 입선
백. 정언공 13대손부 윤계열(류승달 부인) 씀



고문(顧問)

(推戴順)



고문 宅馨 1929생

백:문정공 15대손 27세
경기, 안성, 마둔 출신
前 회장(4, 5대)/재정위원/행정사법고시 수석합격/前 검사/법학박사/변호사



고문 承國 1923생

백:수재공 16대손 28세
충북, 청원, 은곡 출신
前 회장(8, 9대)/재정위원/철학박사/대한민국학술원회원/前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성균관대학 명예교수



고문 海成 1925생

대:한남공 16대손 26세
경남, 진양, 수곡 출신
前 부회장/회장/재정위원/세무사사무소 경영/前 10, 11대 회장



고문 致京 1918생

계:보령공 13대손 26세
경기, 화성, 향남 출신
前 감사/상임이사/12대 회장/재정위원/대한노인회 서울강동구지회장/국민주의의식 선양회 회장



고문 海仁 1924생

백:서경공 11대손 26세
충북, 괴산, 몽촌 출신
재정위원/행정고시합격/前 상임이사/前 문교부 서기관/前 서울시 중, 고등학교장



명예회장 殷秀 1929생

판:승지공 16대손 25세
충북, 제천, 산척 출신
前 감사/前 부회장/13대 회장/재정위원/前 금강고속 상무이사

회장단(會長團)

(派順: 2006. 3. 26 改選)



회장 宗秀 1928생

대:계사정공 15대손 25세
경남, 합천, 가호 출신
동양화가



총무담당 부회장 正得 1933생

대:계사정공 17대손 27세
경남, 거제, 문덕 출신
前 해무청(도청공무원)/前 국회의원보좌관/前 화양실업(주)원양어업대표이사/前 원양어업협회 이사/前 고려대경영대학원총동창회장



백집판공파 부회장 祿馨 1934생

백:서경공 12대손 27세
충북, 괴산 출신
前 사법서사
現 백집판공파 회장



계참판공파 부회장 海超 1942생

계:보령공 13대손 26세
경기, 안성 출신(체육인)
現 대한육상연맹 국제공인심판/경기도 체육회이사/수상안전 인명구조원/해병전우회장/대학강사(체육과)
現 계참판공파 회장



인간공파 부회장 海星 1932생

안:간간공 18대손 26세
경기, 여주 출신
現 안간공파 회장



진천군파 부회장 海容 1928생

진:재신공 17대손 26세
경북, 안동 출신
前 대한노조경북도협의회의장
現 진천군파 회장



대사성공파 부회장 武林 1936생

대:백사정공 19대손 29세
경남, 산청, 정대 출신
단성향교 장의
단성향교 유도회 신안면지회장
산청문화원 이사
現 대사성공파 회장



판서공파 부회장 海章 1936생

판:승지공 17대손 26세
前 영월 철산 개발 전무(주)천마석재대표이사
現 판서공파 회장



재정담당 부회장 沃馨 1936생

대:단양백공 17대손 27세
충주 출신
충주분회장



사업담당 부회장 遠浦 1950생

대:계사정공 14대손 24세
경남, 합천, 가호 출신
대명기획 대표
재정위원



감사(監事)

(派順: 2006. 3. 26 改選)



감 사 永 喆 1951생

백:수재공 16대손 28세
서울 오류 출신
재정위원
회계사
세무사 사무소 경영



감 사 承 敦 1944생

계:보령공 15대손 28세
강서 출신



감 사 碩 馨 1951생

진:대암공 16대손 27세
경북, 상주, 무릉 출신
덕성여대 교무처장



감 사 遠 榮 1936생

대:계사정공 14대손 24세
경남, 학천, 가호 출신
재정위원
前 한국전재(주) 회장
前 대성산업(주) 사장
공인회계사



감 사 寬 馨 1946생

판:승지공 18대손 27세
서울 신내동 출신
재정위원
前 상업은행 소장
前 대종회 부회장

상임이사(常任理事)

(派順: 2006. 3. 26 改選)



天 馨 1935생

백:정언공 12대손 27세
경기, 안산 출신
前 서울은행지점장
안산문화원장 역임



在 馨 1941생

백:서경공 12대손 27세
충북, 괴산 출신
재정위원
前 성남상공회의소사무
국장



海 民 1950생

백:수재공 14대손 26세
충북 가덕 출신



快 馨 1924생

백:충찬공 16대손 27세
충북, 청원, 노산 출신
前 초등학교 교사
노산부회장



恒 馥 1931생

백:충찬공 16대손 27세
충북, 노산 출신



承 才 1936생

계:어모공 15대손 28세
안성 출신



遠 璣 1936생

계:서봉공 12대손 24세
강화 출신
前 초등학교 교장



海 高 1938생

계:보령공 13대손 26세
항남 출신



承 龍 1955생

계:사의공 15대손 28세
화곡 출신



海 權 1952생

계:직장공 13대손 26세
신천 출신



夏 林 1928생

진:대암공 18대손 29세
경북, 상주, 무릉 출신
前 대종회 부회장
前 서울시 초등학교장



炳 斗 1941생

진:재신공 21대손 30세
예천 출신



상임이사(常任理事)

(派順: 2006. 3. 26 改選)



恒雨 1935생

진:대암공 18대손 30세
경북, 상주 출신
前 상교관 유교교육원 부
회장/現 부산 제모사



元模 1932생

진:대암공 18대손 30세
경북, 상주 출신
現 상주시산림조합이사
(21년)



承寬 1947생

진:부사공 18대손 28세
경기, 안성, 서운 출신
前 한일전선협회 상임이
사/現 LG 화재보험



炳泰 1942생

진:대암공 18대손 30세
신리 출신



永馨 1942생

대:백사정공 17대손 27세
경남, 사천 출신
운영위원
진강사현정총무



炳秀 1936생

대:현남공 15대손 25세
진주, 수곡 출신



海帆 1934생

대:단양백공 16대손 26세
충북, 제천 출신
前 제천세명고등학교 교
장 직무대리/대중회 부
회장/現 제천분회장



震秀 1934생

대:계사정공 15대손 25세
경남, 합천, 가호 출신
前 벽은공 신도비건립추
진위원장/前 대사성공파
회장/前 대중회 부회장



暘明 19생

대:계사정공 16대손 26세
경남, 거제 출신
거제분회장



喆秀 1933생

대:소윤공 15대손 25세
경남, 산청, 월평 출신
前 대우문화사 대표



煥承 1946생

대:계사정공 17대손 27세
경남, 거제, 둔덕 출신
왕도개발(주) 전무



遠泰 1939생

대:계사정공 14대손 24세
가호 출신



相勳 1936생

대:계사정공 13대손 23세
경남, 합천, 가호 출신
前 국제청근무/前 대중
회 부회장/現 한마음선
원 사무국장(수필가)



喆馨 1942생

대:현남공 17대손 27세
진주, 수곡 출신
수의사



海龍 1940생

대:계사정공 16대손 26세
경남, 합천, 묘산 출신
대명상사 대표



得龍 1933생

대:계사정공 15대손 25세
경남, 합천, 유전 출신



承億 1939생

대:참의공 19대손 28세
경기, 용인 출신
前 동아건설산업(주)총무
이사



承徽 1937생

대:단양백공 18대손 28세
충북, 제천 출신
前 초등학교 교감



元馨 1936생

판:승지공 19대손 28세
충북, 제천 출신
前 제신부 근무



鎭秀 1963생

안:안간공 18대손 25세
경기, 여주 출신

역대 임원 명단

初代(1978년~1980년)

고 문 : 承國(伯) · 宅馨(伯) · 尙昊(大)
 명예회장 : 海曄(伯)
 회장 : 承源(季)
 수석부회장 : 海成(大)
 부회장 : 海德(季) · 承秀(晋) · 海益(伯) · 大馨(判)
 감사 : 俊馨(伯) · 虎秀(季) · 承鎮(晋) · 貞秀(大) · 國馨(判)
 상무이사 : 普馨(伯)
 상임이사 : 海廣(伯) · 海仁(伯) · 昌馨(季) · 晚馨(季) · 向秀(安) · 永濠(晋) · 淳睦(晋) · 斗秀(大) · 孝秀(大) · 德馨(大) · 道馨(大) · 海豐(判)

3代(1980년~1984년)

고 문 : 承國(伯) · 宅馨(伯) · 尙昊(大)
 명예회장 : 海曄(伯)
 회장 : 承源(季)
 수석부회장 : 承秀(晋)
 부회장 : 海豐(判) · 海成(大) · 大馨(伯) · 昌馨(季)
 감사 : 俊馨(伯) · 興秀(季) · 承鎮(晋) · 海陽(大) · 國馨(判)
 상무이사 : 普馨(伯)
 상임이사 : 海仁(伯) · 承瓚(伯) · 萬濟(季) · 道馨(季) · 向秀(安) · 承輔(晋) · 志潤(晋) · 斗秀(大) · 孝秀(大) · 承仁(大) · 道馨(大) · 海箋(判) · 海鎮(判)

4代(1984년~1985년)

고 문 : 海曄(伯) · 承國(伯) · 宅馨(伯) · 尙昊(大)
 회장 : 宅馨(伯)
 부회장 : 達馨(伯) · 昌馨(季) · 永吉(晋) · 海成(大) · 海豐(判)
 감사 : 滋馨(伯) · 致京(季) · 承欽(晋) · 海陽(大) · 殷秀(判)
 상무이사 : 普馨(伯)
 상임이사 : 海仁(伯) · 永先(伯) · 萬濟(季) · 承祿(季) · 亨秀(安) · 周馨(晋) · 永濠(晋) · 道馨(大) · 孝秀(大) · 斗秀(大) · 承仁(大) · 海龍(大) · 海鎮(判)

5代(1986년~1987년)

고 문 : 承國(伯) · 尙昊(大) · 承秀(晋) · 海仁(伯) · 斗秀(大)
 회장 : 宅馨(伯)
 수석부회장 : 海成(大)
 부회장 : 達馨(伯) · 昌馨(季) · 永吉(晋) · 海鎮(判)
 감사 : 滋馨(伯) · 致京(季) · 承欽(晋) · 海陽(大) · 殷秀(判)
 상무이사 : 普馨(伯)
 상임이사 : 在馨(伯) · 永先(伯) · 承珪(季) · 承祿(季) · 周馨(晋) · 永濠(晋) · 道馨(大) · 孝秀(大) · 承仁(大) · 道馨(判) · 海龍(判) · 亨秀(安)

6代(1988년~1990년)

고 문 : 承國(伯) · 尙昊(大) · 海仁(伯) · 斗秀(大)
 명예회장 : 宅馨(伯)
 회장 : 承秀(晋)
 부회장 : 喆馨(伯) · 昌馨(季) · 永吉(晋) · 海成(大) · 海鎮(判)
 감사 : 滋馨(伯) · 致京(季) · 承欽(晋) · 承祖(大) · 殷秀(判)
 상무이사 : 普馨(伯)
 상임이사 : 在馨(伯) · 永先(伯) · 萬濟(季) · 承祿(季) · 周馨(晋) · 永濠(晋) · 道馨(大) · 孝秀(大) · 遠守(大) · 承仁(大) · 然秀(判) · 馨(判)

7代(1990년~1992년)

고 문 : 承國(伯) · 尙昊(大) · 海仁(伯) · 斗秀(大)
 명예회장 : 宅馨(伯)
 회장 : 承秀(晋)
 부회장 : 喆馨(伯) · 昌馨(季) · 永吉(晋) · 海成(大) · 海鎮(判)
 감사 : 滋馨(伯) · 承元(季) · 架馨(晋) · 承祖(大) · 殷秀(判)
 상무이사 : 普馨(伯)
 상임이사 : 在馨(伯) · 永先(伯) · 萬濟(季) · 承祿(季) · 致京(季) · 海模(晋) · 承漢(晋) · 昱馨(大) · 遠守(大) · 汰馨(大) · 時馨(大) · 然秀(判) · 馨(判)

8代~9代(1992년~1996년)

고 문 : 尙昊(大) · 海仁(伯)
 명예회장 : 宅馨(伯) · 承秀(晋)
 회장 : 承國(伯)
 수석부회장 : 普馨(伯)
 부회장 : 昌馨(季) · 遠和(大) · 夏林(晋) · 殷秀(判)
 감사 : 川馨(伯) · 萬馥(季) · 或馨(晋) · 泌馨(大) · 權馨(判)
 상임이사 : 快馨(伯) · 滋馨(伯) · 信馨(季) · 承元(季) · 淳睦(晋) · 明相(晋) · 承祖(大) · 基南(大) · 柱秀(大) · 汰馨(大) · 然秀(判) · 馨(判)

10代~11代(1978년~1980년)

고 문 : 尙昊(大) · 海仁(伯)
 명예회장 : 宅馨(伯) · 承國(伯)
 회장 : 海成(大)
 수석부회장 : 普馨(伯)
 부회장 : 昌馨(季) · 或馨(晋) · 泌馨(大) · 海心(判)
 감사 : 永喆(伯) · 爽馨(季) · 承相(晋) · 基南(大) · 馨(判)
 상임이사 : 根馨(伯) · 快馨(伯) · 承元(季) · 樂馨(季) · 承杰(晋) · 兆馨(晋) · 柱秀(大) · 承基(大) · 萬浩(大) · 喆秀(大) · 海雄(判) · 道馨(判) · 海觀(安)

12代(2000년~2002년)

고 문 : 尙昊(大) · 海仁(伯)
 명예회장 : 宅馨(伯) · 承國(伯) · 海成(大)
 회장 : 致京(季)
 수석부회장 : 普馨(伯)
 부회장 : 祿馨(伯) · 海超(季) · 協秀(安) · 海容(晋) · 海昇(大) · 海帆(大) · 正得(大) · 相勳(大) · 海心(判)
 감사 : 永喆(伯) · 爽馨(季) · 承相(晋) · 遠榮(大) · 海東(判)
 상무이사 : 遠守(大)
 상임이사 : 根馨(伯) · 快馨(伯) · 承元(季) · 弼相(季) · 承杰(晋) · 厚相(晋) · 柱秀(大) · 承基(大) · 萬浩(大) · 喆秀(大) · 海雄(判) · 道馨(判) · 鎮秀(安)

13代(2002년~2004년)

고 문 : 宅馨(伯) · 承國(伯) · 海成(大) · 海仁(伯)
 명예회장 : 致京(季)
 회장 : 殷秀(判)
 부회장 : 祿馨(伯) · 海超(季) · 海容(晋) · 震秀(大) · 海東(判) · 海星(安)
 총무담당부회장 : 泌馨(大)
 재정담당부회장 : 寬馨(判)
 사업담당부회장 : 遠浦(大)
 감사 : 永喆(伯) · 海英(季) · 海鎮(安) · 碩馨(晋) · 遠榮(大) · 微馨(判)
 상임이사 : 天馨(伯) · 在馨(伯) · 炳九(伯) · 快馨(伯) · 恒馥(伯) · 弼相(季) · 遠(季) · 承權(季) · 海均(季) · 海中(季) · 學模(晋) · 承祚(晋) · 炳大(晋) · 福馨(晋) · 東馥(晋) · 永馨(大) · 錫淳(大) · 喆秀(大) · 堤馨(大) · 海이(大) · 承九(大) · 炳秀(大) · 玆馥(大) · 海祖(大) · 汰馨(大) · 海帆(大) · 承德(大) · 惇承(大) · 海雄(判) · 鎮秀(安)

14代(2005년)

고 문 : 宅馨(伯) · 承國(伯) · 海成(大) · 海仁(伯) · 致京(季)
 명예회장 : 殷秀(判)
 회장 : 宗秀(大)
 수석부회장 : 海容(晋)
 부회장 : 祿馨(伯) · 海超(季) · 昇馨(大) · 海章(判) · 海星(安)
 총무담당부회장 : 泌馨(大) · 正得(大)
 사업담당부회장 : 遠浦(大)
 조정위원 : 正得(大)
 감사 : 永喆(伯) · 承敦(季) · 碩馨(晋) · 遠榮(大) · 寬馨(判)
 상임이사 : 天馨(伯) · 在馨(伯) · 海民(伯) · 快馨(伯) · 恒馥(伯) · 承才(季) · 遠璣(季) · 海尙(季) · 承龍(季) · 海權(季) · 炳斗(晋) · 承祚(晋) · 炳大(晋) · 福馨(晋) · 炳泰(晋) · 永馨(大) · 錫淳(大) · 海帆(大) · 汰馨(大) · 滿馨(大) · 海祖(大) · 遠泰(大) · 玆馥(大) · 德明(大) · 萬鳳(大) · 海이(大) · 暉明(大) · 惇承(大) · 遠吉(判) · 國馨(判) · 鎮秀(安)

15代(2006년)

고 문 : 宅馨(伯) · 承國(伯) · 海成(大) · 海仁(伯) · 致京(季)
 명예회장 : 殷秀(判)
 회장 : 宗秀(大)
 수석부회장 : 正得(大)
 부회장 : 祿馨(伯) · 海超(季) · 海容(晋) · 武林(大) · 海章(判) · 海星(安)
 총무담당부회장 : 正得(大)
 조직담당부회장 : 正得(大)
 재정담당부회장 : 汰馨(大)
 사업담당부회장 : 遠浦(大)
 감사 : 永喆(伯) · 承敦(季) · 碩馨(晋) · 遠榮(大) · 寬馨(判)
 상임이사 : 天馨(伯) · 在馨(伯) · 海民(伯) · 快馨(伯) · 恒馥(伯) · 承才(季) · 遠璣(季) · 海尙(季) · 承龍(季) · 海權(季) · 炳斗(晋) · 恒雨(晋) · 夏林(晋) · 元模(晋) · 炳泰(晋) · 承寬(晋) · 永馨(大) · 炳秀(大) · 海帆(大) · 震秀(大) · 遠泰(大) · 喆秀(大) · 暉明(大) · 惇承(大) · 相勳(大) · 喆馨(大) · 海龍(大) · 得龍(大) · 承德(大) · 承徵(大) · 元馨(判) · 鎮秀(安)



재정위원(財政委員)

(2006. 12. 31 현재)



宅馨 1929생

백:문정공 15대손 27세
경기, 안성, 마둔 출신
前 회장(4, 5대)/행정사
법고시 수석 합격/前 검
사/법학박사/現 변호사



承國 1923생

백:수재공 16대손 28세
충북, 청원, 은곡 출신
前 회장(8, 9대)/철학박사/前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성균
관대학명예교수



海成 1925생

대:헌납공 16대손 26세
경남, 진양, 수곡 출신
前 부회장/회장/세무사
사무소 경영/10, 11대
회장



致京 1918생

계:보령공 13대손 26세
경기, 화성, 향남 출신
前 감사/상임이사/12대회장
/대한노인회서울강동구지회
장/국민주인의식선양회회장



海仁 1924생

백:서경공 11대손 26세
충북, 괴산, 몽촌 출신
행정고시합격/前 상임이
사/前 문교부서기관/前
서울시 중, 고등학교장



殷秀 1929생

판:승지공 16대손 25세
충북, 제천, 산척 출신
前 감사/前 부회장
13대회장
前 금강고속 상무이사



喆馨 1923생

백: 문정공 15대손 27세
경기, 안성, 마둔 출신
前 부회장
前 토지개발조합 과장



普馨 1927생

백:정언공 12대손 27세
경기, 안산, 부곡 출신
前 수석부회장/前 중학교사/
석유협회 상무이사/한국농
업문제연구소 연구위원역임



承鳳 1924생

백:정언공 13대손 28세
경기, 안산, 부곡 출신
前 서울증권(주) 사장



承世 1937생

백:수재공 16대손 28세
충북, 청원, 가덕 출신
前 세무서 총무과장
現 비산실업 전무이사



滋馨 1939생

백:수재공 15대손 27세
충북, 청원, 가덕 출신
前 상임이사
감사
홍익산업 대표



俊馨 1930생

백:정언공 12대손 27세
서울, 독도 출신
前 육군소장예편
성남지사
이북오도위원장



伍馨 1937생

백:문정공 15대손 27세
경기, 안성, 마둔 출신
우일산업(주) 사장



在馨 1941생

백:서경공 12대손 27세
충북, 괴산 출신
前 상임이사
성남상공회의소 사무국장



永喆 1951생

백:수재공 16대손 28세
서울 오류 출신
감사
회계사
세무사 사무소 경영



萬馨 1941생

백:정언공 12대손 27세
경기, 안산, 부곡 출신
(주)엔트컴 사장



哲馨 1952생

백:서경공 12대손 27세
충북, 괴산 출신
청주관광대학 교수



永煥 1948생

백:수재공 16대손 28세
서울 오류동 출신
덕산병원 행정부장



仁義 1940생

백:충찬공 18대손 29세
충북, 청원, 신탄진 출신
前 부장판사
변호사



承俊 1942생

백:수재공 16대손 28세
충북, 청원, 가덕 출신
(주)유림건설 사장(청주)



재정위원(財政委員)

(2006. 12. 31 현재)



炳玉 1956생

백:수재공 18대손 30세
충북, 가덕 출신
법학박사, 사시합격
前 가정법원판사
변호사



友馨 1938생

백:정언공 12대손 27세
경기 안산 출신
前 대한해운공사 이사
극동검정 사장



林馨 1936생

백:정언공 12대손 27세
경기, 안산 출신
前 국제공항관리공사 이사



根馨 1941생

백:수재공 15대손 27세
충북, 청원 출신
가덕분회장
청주, 대화운론 상임감사



潤政 1952생

백:정언공 대손 29세
안산 출신
일산제일방사선과 원장



信馨 1936생

계:하양공 14대손 27세
경기, 평택 출신
前 (주)포천그린(생수) 사
장



鳳相 1947생

계:직장공 16대손 29세
황해도, 신천 출신
초대회장 승원씨 장남
버들원목장(천원) 경영



瑛模 1922생

계:직장공 16대손 29세
황해도, 신천 출신
前 일신병원장



承國 1933생

계:현감공 15대손 28세
경기, 안성 출신
예비역육군중장, 1군단
장/합참의본부장, 병무청
장/前 한국마사회장



爽馨 1936생

계:어모공 14대손 27세
경기, 안성 출신
前 감사
前 서울시 공무원



遠衡 1926생

계:하양공 11대손 24세
충남, 대천 출신
소창한의원장(대천)



遠俊 1932생

계:하양공 11대손 24세
충남, 대천 출신
경기도 공무원(서기관)/경기
도자문위 상임위원/경기도
민회 사무처장/정학관장



興秀 1935생

계:하양공 12대손 25세
경기, 평택 출신
前 인천 제일상고 교감
前 감사



萬馥 1924생

계:세마공 14대손 27세
황해도 평산(서울)
前 감사
前 초등학교 교사
대한검도협회 이사



雲馨 생

계:사의공 14대손 27세
서울 화곡 출신
화곡분회장
화곡 새마을금고 이사장



銀相 1947생

계:어모공 16대손 29세
경기, 안성 출신
동아엔지니어링 사장



淳睦 1942생

진:현감공 18대손 28세
경남, 밀양 출신
오복상운 대표



永吉 1940생

진:재신공 19대손 28세
경북 안동 출신
前 부회장



夏林 1928생

진:대암공 18대손 29세
경북, 상주 무릉 출신
前 대중회부회장
前 서울시 초등학교장



炳國 1937생

진:대암공 19대손 30세
경북, 상주출신(일본경
부)/기모노제품 사업



재정위원(財政委員)

(2006. 12. 31 현재)



壽旺 1956생

진:현감공 17대손 27세
경남, 밀양 출신
1983년 33회 사법고시
합격 변호사



東林 1938생

진:대암공 18대손 29세
경북, 상주, 은척 출신
류소아과의원장(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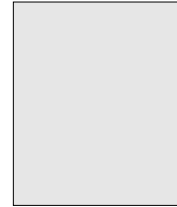
或馨 1932생

진: 대암공 15대손 27세
경북, 상주, 신흥 출신
前 감사, 前 부회장
前 보훈처 서울지방청장 보
훈심사위원장(1급관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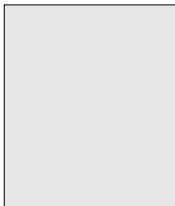
炳大 1942생

진:대암공 19대손 30세
경북, 상주 출신
前 상임이사
現 대성건설 대표(이천)



殷馨 생

진: 대손 27세
경북 군위 출신
前 동방채권 (주)대표



海乾 생

백:충찬공 14대손 25세
노산 출신
동남인쇄사 대표(대전)



東秀 생

백:충찬공 15대손 26세
노산 출신
前 초등학교 교장



宗秀 1928생

대:계사정공 15대손 25세
경남, 합천, 가호 출신
동양화가



正得 1933생

대:계사정공 17대손 27세
경남, 거제, 둔덕 출신
前 해무청(도청공무원)/前 국회의
원보좌관/前 화양실업(주)원양어
업대표이사/前 원양어업협회이사
/前 고려대경영대학원총동창회장



遠榮 1936생

대:계사정공 14대손 24세
경남, 합천, 가호 출신
감사
前 한국전자(주)회장
대성산업(주)회장/회계사



德馨 1937생

대:계사정공 17대손 27세
경남, 거제, 둔덕 출신
동량 류지진선생장 남
前 서울예술전문대학장
現 동교 재단이사장



光司 1940생

대:백사정공 20대손 30세
경남, 남해 출신
류광사여성병원 원장
前 서울시의원(강서)



又秀 1933생

대:계사정공 15대손 25세
경남, 합천, 가호 출신
부산, 동아대학 공대교수
건설문제연구소장(부산)



廷昊 1936생

대:계사정공 16대손 26세
경남, 합천, 묘산 출신
보생섬유공업사 대표



瓚馨 1929생

대:백사정공 17대손 27세
경남, 산청, 정태 출신
동광연사공업사 대표(부
산)



承允 1933생

대:백사정공 18대손 28세
경남, 산청, 정태 출신
류한약공 경영(부산)



海柱 1933생

대:헌남공 16대손 26세
경남, 진양, 수곡 출신
前 세무서 과장
세무회계사무소(부산)



萬鳳 1933생

대:계사정공 16대손 26세
경남, 거제 출신
거제건설(주)전무이사



遠和 1935생

대:계사정공 14대손 24세
경남, 합천, 가호 출신
前 부회장/예비역 육군
대령/前 도시락협동조합
/전무이사



孝秀 1935생

대:계사정공 15대손 25세
경남, 합천, 묘산 출신
前 상임이사
前 한양파이프(주)부회장



재정위원(財政委員)

(2006. 12. 31 현재)



萬浩 1935생

대:계사정공 14대손 24세
경남, 합천, 가호 출신
前 노량진수산회사 기획
실장
개인사업



洲馨 1937생

대:단양백공 17대손 27세
충북, 제천 출신
류성내화공업사 대표



昇馨 1926생

대:계사정공 17대손 27세
경남, 산청, 정태 출신
죽세공업(진주)



泌馨 1933생

대:계사정공 17대손 27세
경남, 거제, 둔덕 출신
前 감사 및 부회장/前 거
제분회장/前 서울예술대
학재단사무국장



遠浦 1950생

대:계사정공 14대손 24세
경남, 합천, 가호 출신
사업담당부회장
대명기획 대표



承宙 1937생

대:백사정공 18대손 28세
경남, 산청, 정태 출신
고대교수(문학박사)



基南 1926생

대:백사정공 16대손 26세
남해 출신
前 국철도노우회장
前 감사



萬年 1947생

대:계사정공 15대손 25세
경남, 합천, 가호 출신
前 현대건설(주)이사



時馨 1938생

대:침지공 17대손 27세
경기, 개풍, 명금 출신
前 상임이사(약학박사)
삼우화학(주)전무이사



慶富 1942생

대:한남공 16대손 26세
경남, 진주, 수곡 출신
약국경영(부산)



海鎭 1924생

판:승지공 17대손 26세
서울 신내동 출신
前 부회장
판서공파 참판공증증회장



海南 1945생

판:승지공 17대손 26세
경기 포천 출신
前 대우증권본부 사원



然秀 1928생

판:승지공 16대손 25세
경기, 포천, 일동 출신
일동분회장
前 상임이사



承德 1946생

판:서령공 19대손 28세
경기, 개풍, 신기 출신
약국경영(평택)



馨 1941생

판:서령공 18대손 27세
경기, 개풍, 신기 출신
前 상임이사
前 삼부토건 자금부장
호주이민



海源 1938생

판:승지공 17대손 26세
서울 신내동 출신
양주분회장



道馨 1945생

판:서령공 18대손 27세
경기, 풍덕, 사동 출신
김포거주
前 꽃사슴농장



海東 1935생

판:승지공 16대손 26세
서울, 신내동 출신
前 대중회부회장
감사
前 삼호레미콘 관리이사



寬馨 1946생

판:승지공 18대손 27세
서울, 신내동 출신
감사
前 상업은행 소장
前 대중회 부회장

※ 財政委員으로서 故人이 되신 분

1. 大 馨 : 1922생/백:문 정 공 27세/경기, 안성, 마둔/前 부회장, 대광다이캐스팅공업(주) 회장
2. 承 源 : 1921생/계:직 장 공 28세/황해, 신천/前 회장(1, 2, 3代), 고문, 국회의원, 육군준장
3. 承 珪 : 1925생/계:현 감 공 28세/경기, 용인, 외사/前 외사분회장, 상임이사, 삼정운륜Co. 사장
4. 昌 馨 : 1930생/계:보 령 공 27세/경기, 안성/前 부회장, 인하대학 교수
5. 志 淵 : 1914생/진:현 감 공 27세/경남, 밀양/前 진강사건위원장, 한국금속공업Co. 회장
6. 承 秀 : 1922생/진:찰 방 공 28세/경북, 상주, 구서/前 회장(6, 7代) 명예회장, 대일한의원장
7. 特 韓 : 1919생/진:재 신 공 27세/경북, 예천, 대죽/前 유한산업 Co. 회장
8. 海 瑩 : 1917생/진:대 암 공 26세/경북, 상주, 은척/前 보위부위원장, 침술의
9. 台 馨 : 1923생/대:백사정공 27세/경남, 산청, 정태/前 사당건립수석부위원장, 극동모방회사 사장
10. 致 云 : 1922생/대:백사정공 26세/경남, 남해/前 동진산업 Co. 회장
11. 尙 昊 : 1934생/대:계사정공 26세/경남, 합천/前 고법부장판사, 국회의원, 변호사
12. 斗 模 : 1925생/대:백사정공 29세/경남, 남해/前 가성석촌 Co. 사장
13. 海 沃 : 1922생/대: /경남, 수곡/前 수곡 양조장(주)
14. 國 年 : 1917생/대: /경남, 합천/前 진주양림전문대학장
15. 銀 圭 : 1931생/대:계사정공 26세/경남, 거제, 둔덕/前 상임이사, 고려예식장 상임 고문
16. 承 烈 : /대:백사정공 28세/경남, 사천/前 토목사업
17. 泰 馨 : 1938생/대:계사정공 27세/경남, 합천, 묘산/前 중앙철강상사 대표
18. 振 甲 : /대: /경남, 합천, 야로/前 재일 실업가
19. 泰 煥 : /대: /함흥/前 덕흥의원장(부산)
20. 斗 秀 : 1926생/대:계사정공 15세/경남, 합천, 가호/前 상임이사, 고문, 학교보건협회 상무이사
21. 海 珍 : 1952생/대:계사정공 26세/경남, 합천, 묘산/前 광림공업사 대표
22. 承 祖 : 1926생/대:백사정공 28세/경남, 정태/前 상임이사, 감사, 도서출판 상서각 대표
23. 致 云 : 1922생/대:백사정공 26세/경남, 남해/前 동진산업(주) 회장
24. 權 馨 : 1931생/판: /경기, 풍덕/前 감사, 한국노총 경기도협의회 儀仗
25. 吉 馨 : 1927생/판: /경기, 개풍, 신기/前 국민은행지점장
26. 完 馨 : 1939생/판:서 령 공 27세/경기, 개풍, 사동/前 사동분회장, 사업(농장경영, 기타)
27. 大 馨 : /판: /경기, 풍덕/前 대중회부회장

※ 寫眞未着 財政委員

1. 殷 馨 : 前東方債券(株)社長(晉, 慶北, 軍威, 召保出身)
2. 承 亨 : 前東亞商社 代表(大, 慶南 河東出身)

목 차

화보	2006년도 정기총회 광경	2
	2006년도 25년차 진강사 제향 광경	4

서화	송월(淞月)/지혁(志奭)/윤계열	6
----	-------------------------	---

사진	고문/회장단/감사/상임이사/역대임원/재정위원	9
----	--------------------------------	---

발 간 사	대중회보 제 19호 발간에 즈음하여	대중 회장 종수(宗秀)··· 20
-------	---------------------------	--------------------

인사말씀	바른 길 찾아가자	백참관공과 회장 녹형(祿馨)··· 22
	대중회 발전을 위한 소고	계참관공과 회장 해초(海超)··· 26
	우리과(대사성공과)의 나아갈 길	대사성공과 회장 무림(武林)··· 26

보고	2003년판(18호) 회보게재 이후의 경과 개요	28
----	----------------------------------	----

●연재물●	진주류씨 慕先錄草(제 14회: 19조편)	보형(普馨)··· 33
	진주류씨 名祖巡禮(10) 晉川君(휘頃)편	보형(普馨)··· 57
	진주류씨 선대 忠 · 孝 · 節 · 烈 行蹟記(7)	보형(普馨)··· 60
	선현유적지 탐방(1)	창목(昌睦)··· 62

특별기고	영남의 유학과 인맥	종수(宗秀)··· 68
	원효사상 엿보기	석형(碩馨)··· 72
	장충사	정득(正得)··· 76

내고장이야기	계참관공 묘지의 유래	해초(海超)··· 78
	우리고장 안산과 청문당	천형(天馨)··· 80

참배기	진강사 참배기	관형(寬馨)··· 82
-----	---------------	--------------

●인●	국화제전(菊花祭典)	해근(海根)··· 84
	망덕정(望德亭)	해근(海根)··· 84
	오솔길	준형(俊馨)··· 85
	세계화 단상	준형(俊馨)··· 85
	내 마음의 오솔길	윤모(潤模)··· 86
	바닷가 할머니	기형(淇馨)··· 87
	낙엽	기형(淇馨)··· 87
	龍門亭	해균(海均)··· 88



수 평	정년 퇴임을 맞으며	준형(俊馨)...	89
	일본인의 자존심	효수(孝秀)...	91
	금강산을 다녀와서	상훈(相勳)...	93
	한라산 등정기	만년(萬年)...	98

기행문	숲 속에 묻혀 지낸 앙코르와트 유적을 찾아서.....	하림(夏林)	103
------------	-------------------------------	--------	-----

수 상	가을 나들이.....	효수(孝秀)	109
	중용(中庸)을 선택하자	해장(海章)	110
	효경 생활 교육	원기(遠璣)	112
	죽보의 대한 의의	연수(然秀)	114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	상훈(相勳)	116
	회상(回想)	영길(永吉)	118
	봉사하는 마음과 실천하는 보람	석형(奭馨)	120
	중중의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형(時馨)	123

소감문	대종회 정기총회를 다녀와서 또 다른 비상을 꿈꾸다...	원범(遠範)	125
------------	--------------------------------	--------	-----

명단	고시합격자/표창패증정(기타부문)/박사학위 취득자		126
-----------	----------------------------------	--	-----

	우리 진주류씨와 문화류씨 및 이봉 진주류씨의 관계		128
--	-----------------------------------	--	-----

생활예절	예절의 방위와 상하석의 기준 및 좌석배치	해을(海乙)	133
-------------	------------------------------	--------	-----

일반상식	호주제 폐지 그 이후(문답)		142
-------------	-----------------------	--	-----

참고자료	2006년도 파총회 분회장 명단		146
	창립이래 년도별 파별 항목별 수입/수출 일람표		148
	2006년도 찬조금 명세서		150
	재정위원 찬조금 납부현황.....		151
	특지이사 찬조금 납부현황.....		153

● 안내말씀	보험사업 협조요망 · 인터넷 족보사업		159
● 판권			161
● 문중의자랑	통정대부 김해도호부사 진주류공 묘비 제막식 거행		162
● 광고			164

대중회보 제 19호 발간에 즈음하여

親愛하는 宗親 여러분

그동안 安寧하십니까? 歲月이 참으로 빠르다 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운과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不肖 本人이 不德한 몸으로 외람되게도 會長이란 중책을 맡은지 이연 2년여 아무것도 한일 없이 虛送한듯 하여 부끄럽고 悚懼스러운 마음으로 인사 드립니다.

중친 여러분 도리켜 보건대 우리가 창립총회를 치른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온갖 陣痛과 迂餘曲折을 겪어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진강사 건립과 임술보 간행 모선록 발행 그리고 최근에 5년동안 정성을 다하여 족보를 무사히 발간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崇祖一念과 敦宗의 정신으로 一貫된 의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感慨가 무량할 뿐입니다. 그간 物心兩面으로 아낌없는 協助와 聲援을 주신데 대하여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격년제로 發行하는 우리 대중회보를 이번에 彪大한 譜事 때문에 事勢未遑으로 1년을 미루어 왔으나 금년에 제19호를 발행키로 하였으니 모두가 倍前의 정성과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회보란 宗事運營에 대한 홍보매체가 되리라 사료되오며 문중의 情報交換과 和睦團結로서 선조님들의 위업을 후손들에게 알리며 崇祖思想을 鼓吹시키고 그것을 기반으



회장 류 종 수

로 族誼를 다지고 훌륭한 문중의 教科書로 活用 되리라 믿어 집니다.

收族敦睦과 崇祖風土를 이루고자 하는 巨視的眼目으로 우리 同祖의 孫으로서 和合과 追遠의 一念을 이룩하기 위하여 一層倍加해서 振作한다면 또한 영원한 幸榮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중은 자고로 많은 人傑이 배출되어 名門巨族의 명예를 이어왔음을 자부합니다. 靑白班族이라 세상에 일컬어 왔는데 사실 우리 晋柳의 역사를 훑어보면 이상할 정도로 醜聞을 남긴이가 드물고 대체로 조출한 선비의 規矩를 넘지 않는 것이 始祖以來 闡揚되어 마땅한 선조의 행적이었나 봅니다.

우리는 항상 조상의 蔭德아래 살고 있습니다. 비록 세월의 흐름속에서 경제와 사회변천과 함께 각처 삶의 터전에 산재하여도 崇祖敦宗하는 마음은 버릴수 없는 일입니다.

굳이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은 언제나 모든 종친은 종사에 참여와 성원 없이는 대종회의 발전도 그 존재가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19호 회보 발간에 힘써주신 각 과 회장님과 편집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2007년 1월

바른 길 찾아가자

류 녹 형
백참관공과 회장



존경하는 종친회 회원 여러분에게 祿馨(녹형) 삼가 인사드립니다.

겸하여 회장 부덕하고 지모와 역량 부족하여 소임 다 하지 못한 점 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德薄而位尊 知小而謀大 力小而任重 言不勝其任)

대종회보 발간에 즈음하여 파종회 발전 운영방안 활성화에 대한 제고 받고 집필하오니 회보 받아 보시고 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참관공과 종친회의 발족과 운영 경과를 개략 하였습니다.

백참관공과 종친회 이전에는 종종으로 칭명하여 오고 산 아래 위토와 재실 두고 봉제사 산소관리 재실 증개축 등으로 운영하여오다 대종회 창립과 동시에 백참관공과 종친회로 명명하고 발족하였다. 대종회 사업 대거 임술보발간 진강사건립 추진을 위하여 조직 체계 대종회 위주로 백파부회장 1명 상임이사 5명 재정위원 13명 특지이사 65명 각 계파별(사복시정공 · 곡산공 · 수재공 · 문정공 · 충찬공)로 분회장을 두고 회원 각인의 출연금을 징수하여 대종회에 납부하였고, 91년부터 통상회비 세대 당 1만원씩 징수에 하였으며 2002년부터 파종회 설치로 통상회비 징수를 파종회에 위임하고 우리 백좌에 징수 금액 중 대종회에 년 분담금으로 금 700만원 납부하여 오다 징수부진 하여 부담금 납부에 급급한 실정이고 을유대보 편찬에 수반하여 수단 및 수단금 납부하고 2006년 족보 분질과 동시에 족보 CD대금 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이상 대강하여 경과 보고 드리고 회원 여러분 종친회 기금이 없으니 운영 활성화 방안이 구호에 그치니 우리 다 같이 길을 찾아봅시다.

사람이 하는 일 천도의 미미한 조짐에 근본하여 발생한 것이고 천도의 그윽한 조짐에서 드러날 일을 밝힐 수 있듯이 미현이천유(微顯而闡幽) 지난 일 상고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진주류씨는 타성씨 보다 앞서 갑진보(1724년)를 비롯하여 임오, 갑자, 을사, 갑술, 무오, 임술보(1982년)와, 을유(2005년) 세보는 누구나 다 보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 전산화 족보로 우리의 전통적 역사를 보전할 역사책으로 후세대 자손에게 전수하게 되어 역사적 가치가 있다.

1. 종친회

나의 육친애로부터 근친애 종친애로 연면이 이어져 같은 조상을 모신 같은 자손이요 (同祖同孫) 일맥상통한 유일한 조직체입니다. 나의 출생이 먼 조상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自上下下) 나 세상에 태어나나니 나의 뿌리는 조상이다. 동근생이요 (同根同生) 나 조상이 낳아주시니 참으로 존엄하고 소중하다 자손인 나는 효심으로 극진이 조상을 모시니 비로서 사람의 도리를 하게 된다. 이는 보은지덕이요 본연의 가치이다.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관은 하나로 통한다.

2. 효와 윤리

효는 백행지본이라고 한다. 효는 윤리의 근본이요. 상고시대 단군의 경천애인(敬天愛人) 요제(堯帝)의 이친구족(以親九族) 구족기목(九族既睦) 공자의 인문사상 인본주의 이는 육친애 근친애 인류애의 근본인 효제로 백성을 교화하고 수기치인의 도로 나라를 덕으로 다스려 태평천하를 이루고 우리나라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나라의 국세가 쇠약하여 크고 작은 화란을 격어 오면서도 위기 모면하고 극복하여 오다. 이는 국민정서와 국가관이 확고함이요. 애친경형과 충군제장을 윤리의 상도로 삼아 정력(定力)과 정론(定論)으로 윤리관이 정립되어 동방의 예의국으로 군자의 나라로 칭송 받아오다.

3. 변화와 변하는 사회

천지음양의 조화로 화생만물한다. 이는 변화의 작용이다. 동서문물의 교류로 변화의 시대로부터 급변하는 시기에 살고있다. 교류는 변화를 가져온다. 변화는 왕래요 왕래는 굴신(屈伸)이다. 굴신은 발전을 가져온다. 과학의 발달로 물질문명의 교류와 변화속에 우리 인류사회에 물질만능의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 속에 손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익이 가져오는 부작용으로 이익보다는 손실이 크다.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인류문화의 기본질서인 윤리도덕은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변화는 항상 상반(相伴)하고 있다.

수천년 전해 내려온 도통지전 도덕사회는 자기주의적 이권사회로 변하여 자기 욕구충족과 이권 보장 추구만 하고 있다. 이해와 양보, 질서와 예의는 퇴색되어 가고 이권사회는 모험과 비방으로 갈등사회로 변하여 국가간의 갈등 기업간의 갈등 사제간의 갈등 종교간의 갈등 남녀 부부간의 갈등 노소간의 갈등 갈등은 혼탁사회로 변하여 만연(漫然) 상태이고 우리 주위를 휩박하여 오고 있다. 변화속에 발전이 오고 발전 가운데 개혁과 혁신이 오는 것이다. 격변하는 속에 불순풍조는 성행하여 인도주의적 도덕사회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이 장벽을 퇴치하고 덕화시대 오기 바라면서 회원 여러분 우리는 운명을 함께 할 공동체입니다. 동조동손이요. 동근동생으로 일맥상통한 소중한 유일한 종친회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순천자 존하고 역천자 망이라 하였습니다. 순천자 존(順天者存) 왕래굴신의 변화하는 대자연의 천리에 따라야 하고 옛 것을 알아야 새롭게 발전하는 온고지신을 상고하며 간 것을 밝혀서 오는것을 살피나가는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며(彰往而察來) 지혜와 인의와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할 현 세대 우리 모두는 구세대에서 이루어 놓은 위업승계 발전시켜 오는 미래의 후세대 자손에게 전수 할 막중한 책임 명심명심 하여 가기 전에 바른길 찾아서 갑시다.(任重而道遠) 길이란 오늘의 과제인 종친회 발전 운영방안 활성화입니다. 우리는 공동의식을 가지고 공동협력 하여 나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첫째, 우리 종친회의 조직요지를 주지선도 하여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주시고 둘째, 서로 존경하고 친애하는 참마음으로 돈목지의를 깊이하고 화합하여 주시고 셋째, 이해와 양보 성실과 신의로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여 주시고 이는 종친회 발전을 위한 덕목을 강령으로 삼아 실천궁행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충만 하시기를 빌면서 감사합니다.

대종회 발전(發展)을 위한 소고(小考)

- 종친회(宗親會)가 나아가야 할 방향 -



류 해 초
계참관공파 회장

2007년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아 고려말 상장군 진강부원군으로 계셨던 “류정(柳挺)” 시조님의 자손들로서의 긍지를 떨치고 계신 종친 여러분의 가정
에 만복(萬福)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종친회(宗親會)의 여러가지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종친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종친 여러분의 발전과 종친회의
위상(位相) 제고를 위해 단결(團結)하는 활기찬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종친회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각계 각층에서 모범적인 업적을 이루
고 계신 여러 종친(宗親)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
년 종친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종친회의 여러 사업은 종친들의 화합(和合)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推進)되
어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대소 문중(門中)에서는 파종간의 견해의 차이로 갈
등과 격론은 있을수 있겠으나 종파를 초월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단합을
이룰수 있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은 발전이 아닌 종친회의 정체와 분열(分列)을 조장할
뿐입니다. 앞으로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포용(包容)하는 인
내심(忍耐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성씨들의 종친회와 비교(比較)하여 모범적으로 운영 되어온 지난 업적(業績)을 훼손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종친들 간의 화합(和合)을 저해하는 언행(言行)을 삼가고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격려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충고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도하는 엄정한 질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품성(品性)은 스스로 갈고 닦아서 드러내야 할 것이며, 류문의 자손으로써의 긍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더욱 삼가고 선조들의 명예(名譽)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대소 문중(門中)과 지역 종친회를 이끌고 계시는 훌륭한 어른들이 계시고 희망(希望)을 설계하는 후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친 화합을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한 대화(對話)와 설득(說得)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인중유덕(忍中有德)”을 마음에 새기면서 도덕과 우애를 중히 여기며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손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진주류씨 후손(後孫)들의 젊은 세대들이 연 1~2회 모일 수 있는 방안(方案)을 검토하여 미래에 종친회 운영(運營)의 주축이 될 젊은 세대 종친에 대한 참여 동기(動機)를 부여하고 소속감을 강화시킬 필요성(必要性)을 제기하며, 진주류씨 종친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파(대사성공파)의 나아갈 길

- 조직의 활성화로 생산성 있는 파총회를 만들자 -



류 무 림
대사성공파 회장

150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영남화수회 회장에다 우리 대사성공파 회장이란 중임을 맡겨주신 종친여러분께 감사에 앞서 저의 분수에 비해 너무나 어깨가 무거워 아직까지 걸음마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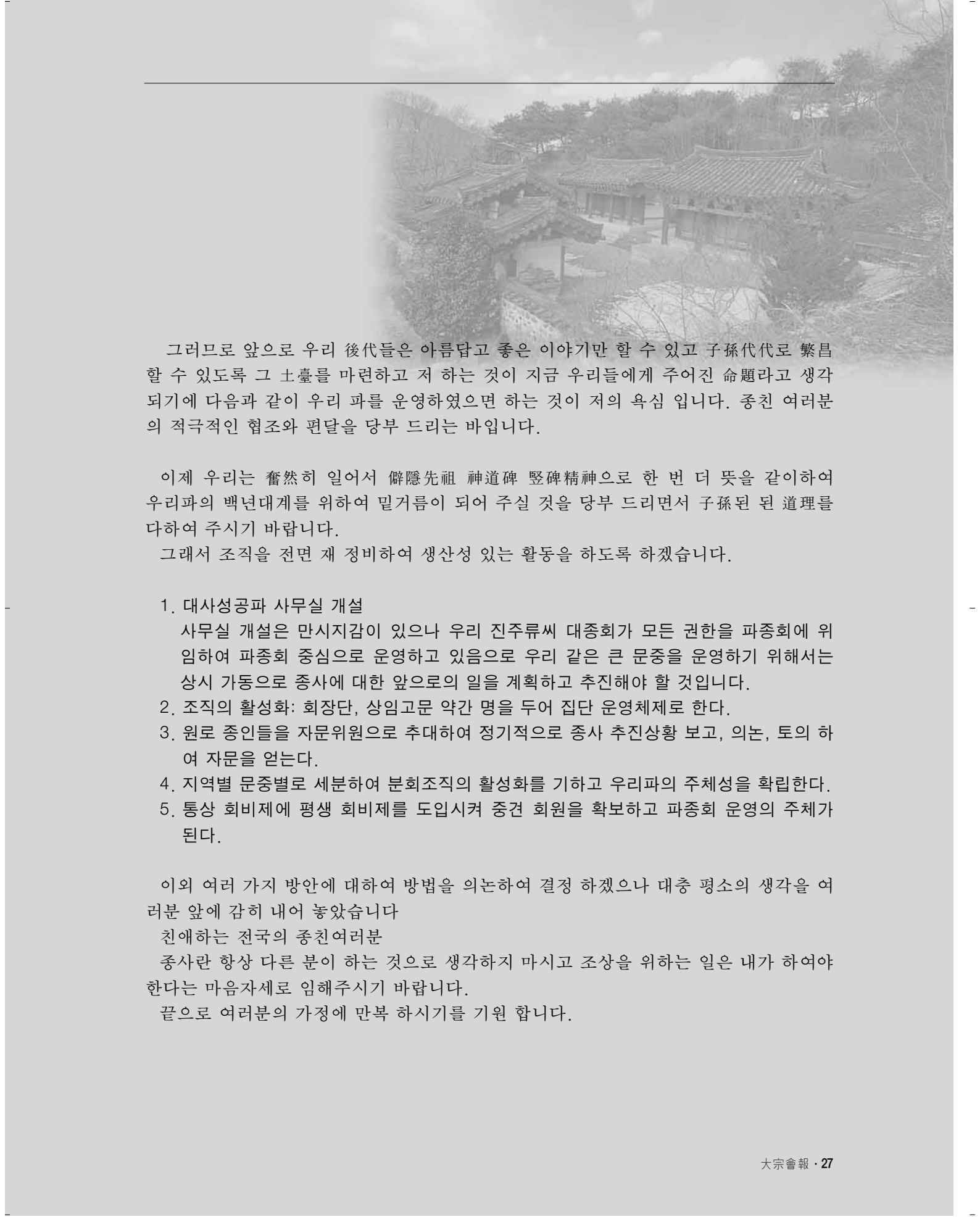
제가 취임한지 일년의 돌이 다가오고 있어, 이제 열심히 걸으려고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화수회를 책임지고 운영하여 오신 여러 족장 어른들 그리고 이에 따라주신 종친 여러분의 수고하심을 새삼 뼈저리게 느끼면서 수고 하셨다는 말 이외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派는 시조 할아버지를 모신 고장인 晉州를 비롯하여 嶺南 일대 고을마다 어디서나 先祖님들의 숨결을 들을 수 있고 魯峰祠 僻隱祖 神道碑 앞에 서면 선비로서의 節義精神의 瑞氣가 우리들의 가슴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을유보에는 멀리 영변파(휘世傑) 자손들의 입보를 같이 하게 된 기쁨을 나누어 같이 제향에도 참석 하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가진 財産은 他 派宗만 못하나 宗財 때문에 다투는 일 없고 先祖님들의 遺訓에 따라 子子孫孫 繁昌하여 祖上을 모시는데 餘他門中の 模範이 되었고 우리 진주 柳氏 여섯 派 中에서 우리 派가 절반에 다달아 大宗會 發展에도 크게 寄與하였다는 矜持를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祖上을 잘 모시고 우리 스스로 花樹의 情을 敦篤히 하고 저 옥신각신 그리고 오순도순 對話하고 있음을 祖上님들이 보시고 얼마나 기특하게 그리고 기쁘게 生覺하고, 계실까 生覺하니 가슴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後代들은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고 子孫代代로 繁昌할 수 있도록 그 土臺를 마련하고 저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命題라고 생각되기에 다음과 같이 우리 파를 운영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종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편달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奮然히 일어서 僻隱先祖 神道碑 豎碑精神으로 한 번 더 뜻을 같이하여 우리파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밑거름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子孫된 道理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직을 전면 재 정비하여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사성공파 사무실 개설

사무실 개설은 만사지감이 있으나 우리 진주류씨 대종회가 모든 권한을 파종회에 위임하여 파종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으로 우리 같은 큰 문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시 가동으로 종사에 대한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 조직의 활성화: 회장단, 상임고문 약간 명을 두어 집단 운영체제로 한다.
3. 원로 종인들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하여 정기적으로 종사 추진상황 보고, 의논, 토의 하여 자문을 얻는다.
4. 지역별 문중별로 세분하여 분회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우리파의 주체성을 확립한다.
5. 통상 회비제에 평생 회비제를 도입시켜 중견 회원을 확보하고 파종회 운영의 주체가 된다.

이외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방법을 의논하여 결정 하겠으나 대충 평소의 생각을 여러분 앞에 감히 내어 놓았습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종친여러분

종사란 항상 다른 분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상을 위하는 일은 내가 하여야 한다는 마음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2004년도

1월 10일(土) 2004년 신년교례회(37명 참석)

2월 28일(水) 회장단 회의

1.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토의 확정
2. 2004년도 사업계획안 토의 확정
3.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토의 확정
4. 2003년도 포상 대상자 추천 협의

2월 22일(日) 2003회계년도 회계감사 실시

3월 11일(木) 제50차 상임이사회

1. 2003회계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결산서 심의 의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2003회계년도 자산(미수금: 백과 및 진과 통상회비) 결손처분 심의 의결
3. 2004회계년도 사업계획서안 심의 의결
4.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토의 확정
5. 정관 개정안 심의 의결
6. 제 14대 회장 추대 예정자에 관한 의견 교환

3월 28일(日) 제 27년차(2004년도) 정기 총회 개최(강동구 유진부페 회의장)

◆ 의사 진행에 앞서 다음의 축하 패를 증명 함.

1. 효부 축하패: 高玉鑣(당 56세) 判書公派 承旨公 15대손 敬遠의 妻
2. 박사학위 취득 축하패
 - 1) 憲模(의학박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大司成公派 伯司正公 19대손
 - 2) 黃疏冕(의학박사, 아주대 대학원)
大司成公派 季司正公 16대손 炳浩의 妻
3. 고시 합격 축하 패
 - 1) 成旭(4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졸)
大司成公派 季司正公 17대손
 - 2) 東均(4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졸)
大司成公派 季司正公 17대손

◆ 의사 진행

1.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의 원안대로 의결

2. 자산 결손처분 심의 원안대로 의결

1) 미수금(백참판공과 통상회비 미수금) 144,960,000원
원 본회 정관 제 46조 제 2항에 의거 파종회에 위임.

2) 미수금(진천군과 통상회비 미수금) 127,470,000원
상동

3.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의 원안대로 의결

4. 2004년도 사업계획 원안대로 심의 의결

1) 족보전산화 편찬사업(계속사업)

5. 정관 개정(안) 심의 원안대로 의결: 자구 수정 및 보완

6. 임기 만료에 따른 14대 임원 개선

1) 회장: 4월 22일 개최하는 대사성공과 파종회 총회에서 선임하는 증원을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결 함

2) 부회장

가. 백참판공과 祿馨(유임)

나. 계참판공과 海超(유임)

다. 안간공과 海星(유임)

라. 진천군과 海容(유임)

마. 대사성공과 昇馨(신임)

바. 판서공과 海章(신임)

3) 감사

가. 백참판공과 永喆(유임)

나. 계참판공과 承敦(신임)

다. 진천군과 碩馨(유임)

라. 대사성공과 遠榮(유임)

4) 상임이사: 각 파종회에서 선임하는 상임이사는 추후에 선임 통보키로 함

4월 30일(금) 제 14대 회장 취임 인사장 발송(대사성공과 계사정공 15대손 宗秀)

5월 12일(수) 제 51차 상임이사회 및 신 구회장 업무 인수인계

1. 전임회장 인사

2. 신임회장 취임 인사

3. 신임 회장단 및 상임이사 상건례
4. 족보전산화 업무추진 상황보고 및 질의 응답
 - 1) 보록 입력일정 단축 여부
 - 2) 종람책임은 수단자의 책임으로 일원화
 - 3) 편찬비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사전 가편집의 필요성
 - 4) 대중회 임원 및 각급회의 구성원 등의 인명록은 보록과 분리 등재
5. 기타 토의사항
 - 1) 진강사 정문 지봉 누수부분 수리완료 보고(永馨 상임이사)
 - 2) 진강사 제관 제복 교체 예산 관계상 미구입
 - 3) 임원 중 공석인 조직 및 재정담당 부회장 보임 예정자 추천 요망.
- 6월 23일(수) 제 6차 세보전산화 편집위원회 회의
 1. 보록 입력 현황과 추진계획 보고
 2. 족보편집 목록 및 수권편집 서순 와 편집계획 재검토 승인
 3. 제작예산 재원조달 계획 협의
 4. 수단 초종마감일 확정(2004. 7. 31) 안내문 발송 협의(위원장 및 편집위원 공동명의로 발송)
 5. 파조미상 종친 입보 승인(伯 1, 晋 1)
 6. 보록 시정에 대한 조정협의(晋, 대암공과 竹坡 公 자손)
- 8월 24일(화) 계참판공과 대중회 직책 사직서(연명 진류계증 제 32호 2004. 8.23일자) 접수
- 8월 25일(수) 회장단 회의
 1. 갑신년(2004년) 제 23년차 진강사 제향 제관 천임
 2. 각 파종회 분담금 납부 요청
 3. 계참판공과 대중회 임원 사직서 반려하기로 협의
- 8월 27일(금) 계참판공과 파종회 대중회 직책 사직서 반려(회장, 감사 및 각 상임이사 별) 우승
- 10월 2일(토) 회장단 회의(진강사 동재 제관 분정 완료 후)

1. 한국성씨 총연합회 본회 가입 확정
2. 상동 본회 배정 편집위원 예정자 확정(普馨)
3. 상동 總鑑 게재용 원고 검토 협의 확정
4. 계과 족보전산화 편찬사업 불참 설에 대한 협의
5. 백, 계과 간의 송사에 대한 백과 향소 유보 권유
- 10월 3일(일) 제 23년차 진강사 제향 엄수
- 10월 6일(수) 10월 2일 회장단 회의 결의에 의한 계참판공과 족보사업 불참설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 요청(진류증 제 728호 04. 10. 6)
- 10월 13일(수) 진강사 제향용 유기제기 분실 사고 발생(야간)
- 10월 25일(월) 회장단회의
 1. 진강사 제향 엄수 결과보고
 2. 계참판공과 문제는 족보제작 일정에 예산상의 큰 지장이 없는 한 계속 기다린다는 방침 확인
- 12월 29일(수) 고문단 및 회장단 연석회의
 1. 족보전산화 편찬업무 진행상황 보고.
 2. 계참판공과의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3. 치경 전회장님을 주축으로 자과의 원로 종친이 집행부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 함.

2005년도

- 1월 8일(土) 신년 교례회
- 2월 19일(土) 2004년도 회계감사 실시
- 3월 10일(木) 회장단회의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의 의결
 2. 2005년도 사업계획안 확정
 3.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의 의결
 4. 2005년도 포상 대상자 심의 확정
- 3월 11일(金) 제52차 상임이사회 및 제7차 세보 편찬위원회 연석회의
 1. 2004회계년도 자산 결손처분(안) 원안대로 의결
 2.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원안대로 의결

3. 2005년도 사업계획 (안) 수정 의결(제19호 회보 휴간키로)
4.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일반회계및 특별회계)원안대로 의결
5. 보사 추진 현황보고 및 족보발간 준비에 대한 제반 사항보고

3월 27일(日) 제28년차 정기 총회 개최

2005년 새해 사업계획및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모두가 화합 단결을 하자는 결의찬 토론 끝에 최고령자 99세의 承亨종인의 만세 삼창으로 폐회 함.

4월 15일(金) 회장단 회의 개최

1. 정기총회 결의에 의거 백참관공파(이하 백파라 칭함) 계참만공파(이하 계파라 칭함) 양파 화해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치 가동키로 합의 회장을 위원장으로 각파부회장으로 구성 하되 대사성공파)에서는 정득 종을 대신하였음.
2. 4월 28일 백파와 계파의 분쟁 조정위원회를 양파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파에 통보 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아 무위로 끝남.
3. 4월 보사를 책임한 보형 종인과 종사를 담당 필형부회장의 사임으로 집행부는 공백 상태에 이르렀음.

5월 25일(水) 회장단 회의 개최

1. 계파 총무 복귀선언 이어 족보 종람원고 대중회 접수
2. 조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정득 종인을 총무 부회장으로 임명 동의하고 승원 종인을 계파 족보 마무리와 본회 전산작업에 동참키로 결의 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기로 함.
3. 진강사 제기를 계파 회장 책임 하에 마련하는데 동의함.
4. 6월 2일 정득종 총무 부회장으로 업무개시.

7월 13일(水) 제53차 상임이사회 및 제8차 보사 편찬위원회 개최

1. 정득, 승원 양종인 5월 25일 회장단추천에 전

원 동의함.

2. 집행부의 족보 제작 일정에 의거 수행하는데 각과 종회에서 적극 협조하기로함.
3. 진강사 제기마련을 계파 종인들이 한하는데 전원 찬성하다.

9월 2일(金) 관복 제기 봉람 봉정식 겸 회장단회의

1. 계파에서 마련한 제기와 관복 종람 봉정식거행 회장단 전원 참석과 진강사 영형총무, 광수, 해운, 무형, 영남 화수회 종인께 인계하다.
2. 진강사 정전의 문짝 교체가 시급을 요함으로 은수 명예회장의 승지공파(큰택과 작은택) 양문중의 적극적인 협조로 거금 500만원으로 새로 단장하기로 함.
3. 그 자리에서 회장단 회의개최
 - 1) 진강사 제향분방에 따른 헌관 추천.
 - 2) 공석종인 수석 부회장을 진천군파 해옹부회장으로 선임.

10월 3일(月) 제24차 진강사 제향 엄수

예년보다 많은 종인이 참여하여 새로 제작한 문을 활짝 열고 제단앞에 서서 새로운 관복과 새 제기로 제향하는 우리들 모습이 참 좋았으며 대사성공파 기남종이 마련한 새이불 35채로 잠자리를 할 수 있었고, 말끔이 다듬어진 잔디밭에서 식사와 컵들여 담소하는 모습은 가히 정답다 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24일(月) 제54차 상임이사회 및 보사편찬위원회 합동회의

1. 집행부의 자금동원 계획에 적극적인 협조로 대사성공파 5,000만원 계파 2,000만원 각과 1,000만씩 11월말까지 1억원을 동원한다는데 동의하고 3,000질을 확정하였으나 그후 주문수의 증가로 500질을 더하여 3,500질 CD 4,000질을 제작하였음.
2. 부록은 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코저 하였으나 많은 시간의 소요로 만부득 기존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키로 하였음.
3. 업자 건적을 근거로 제일 저렴 할뿐 아니라 우

리족보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대명기획과 11월 1일 제작 납품하기로 결의함.

4. 당초 년내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인력의 부족과 교정수정이 계속되고 있어 당초계획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나 많음.
5. 12월 7일 부록 입력이 완료되어 CD제작을 뿌리정보미디어와 계약함.

2006년도

- 1월 07일(토) 신년교례회 개최(본회 회의실)
- 1월 26일(목) 족보(을유보) 분질 개시
- 2월 01일(수) 여직원 업무인수(족보,경리업무)
- 2월 15일(수) 회장단 및 각과 총무연석회의 개최
 1. 족보 분질 수행계획(족보 분질은 각 과중회 별로 주관), 각과의 분질 계획서에 의해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분질하기로 함, 택배회사를 선정하여 배송(예상 택배료:1질=3,000원)
 2.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
 - 1) 인터넷 족보의 운영 관리
 - 2) 대중회 조직의 보완
 - 가. 결원된 조직, 자금, 부회장 선임
 - 나. 정관에 규정한 이사 선임
 - 3) 족보전산화에 대한 브리핑(뿌리정보미디어)
- 2월 25일(토) 2005회계 연도 결산 감사 실시
- 3월 14일(화) 제 55차 회장단 및 상임이사회 개최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검토 확정
 2.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안 검토 확정
 3.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검토 확정
 4. 2005년도 표창 대상자 검토 확정
 5. 임원개선 사전 협의 및 족보 분질 보고
 6. 을유보 출간 기념회에 관한 사항
- 3월 26일(일) 을유보 발간기념회 및 제29차 정기총회 개최(장소:서울 강동구민회관 회의실)

◆ 의사 진행에 앞서 다음의 축하패 증정 및 수여

1. 功勞 牌 贈呈
 - 가. 致 京 : 계참관공과 보령공 13代孫
 - 나. 殷 秀 : 판서공과 승지공 16代孫
 - 다. 普 馨 : 백참관공과 정언공 12代孫
2. 感謝 牌 授與(族譜)
 - 가. 承 俊 : 백참관공 18代孫
 - 나. 承 元 : 계참관공 18代孫
 - 다. 承 相 : 진천군과 대암공 17代孫
 - 라. 海 潤 : 대사성공과 계사정공 16代孫
 - 마. 炳 秀 : 대사성공과 헌납공 15代孫
 - 바. 海 章 : 판서공과 승지공 17代孫
3. 感謝 牌 授與(獻金)
 - 가. 雲 馨 : 계참관공 17代孫
 - 나. 爽 馨 : 계참관공 17代孫
 - 다. 炳 秀 : 계참관공 15代孫
 - 라. 文 馨 : 계참관공 17代孫
 - 마. 光 司 : 대사성공과 백사정공 20代孫
 - 바. 海 超 : 계참관공 16代孫
4. 感謝 牌 授與
 - 가. 基 南 : 대사성공과 백사정공 16代孫
 - 나. 寬 馨 : 판서공과 승지공 18代孫
5. 財政委員 牌 贈呈
 - 가. 潤 政 : 백참관공과 정언공 14대손
6. 孝婦 牌 贈呈
 - 가. 黃惠順 : 대사성공과 계사정공 17代孫(龍一의 妻)
7. 博士學位 祝賀 牌 贈呈
 - 가. 惠 慶 : 계참관공 17代孫
(理學박사 중앙대학교, 海超 宗의 長女)
 - 나. 珉 任 : 대사성공과 계사정공 15代孫
(교육학박사 대구대학교, 遠福 宗의 女)
 - 다. 遠 範 : 대사성공과 계사정공 14代孫
(경영학박사 동아대학교, 相君 宗의 子)
 - 라. 承 玉 : 백참관공과 충찬공 17代孫
(공학박사 충북대학교, 之馨 宗의 子)

◆ 의결사항

1.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심의 통과

2. 2006년도 사업계획서 원안대로 통과
 3. 임원개선은 회장, 감사(전원) 유임키로 결정함
 4. 임명직 부회장과 상임이사들은 각과의 천거에 의거 결정키로 함
 5. 진강사 제향은 각과 윤번제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가칭 진강사 수호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회장단에 일임함
- 4월 24일(월) 감사 및 회장단 회의 개최
1. 제29차 정기총회 및 을유보발간 기념회에 대한 경과보고
 2. 당연직 부회장 신임인사 및 직능별 부회장, 상임이사 선임
 3. 조직관리:접수된 갑호 양식을 정리하여 각과에 송부하고 각과에서는 소문중별로 조직망을 구축하여 회원관리 시스템을 금년내로 구축하자는데 결정함
 4. 족보 분질 정산
 5. 추정 예산 수립
 6. 정관 제31조에 의한 이사선임
 7. 가칭 문우회 조직은 집행부에 일임키로 함
 8. 홈페이지 관리 개선, 인터넷 족보개설의 준비를 족보 분질후 토의키로 함
- 5월 02일(화) 각과 회장님께 공문발송, 상임이사 선임 추천(사진,이력서첨부) 각과중회 분담금독려
- 7월 07일(금) 홈페이지(임원진,이사,재정위원)의 사진,명단 재정리 등재함
- 7월 19일(수) 대사성공파회의(합천,단합대회) 참석
- 7월 31일(월) 을유보 제작 가결산서 작성
- 8월 10일(목) 제 56차 회장단, 감사, 상임이사회 개최
1. 임원 상견례, 총회후 경과보고, 토의안건
 2. 족보 분질 내용보고
을유보 제작 가결산서(년도별)
분질현황표(참고:과중회 분담금현황)
 3.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수정안(일부항목)
 4. 대중회보 발간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함

5. 각과 조직 회원관리를 인터넷 족보관리 이전에 우선(명단, 주소) 준비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것을 계획함
 6. 진강사 영구보존 위원회 설치 규정 확정
 7. 진강사 제향 준비는 총회 결의에 의거 윤번제로 시행하므로 이번 10월3일 제향은 대사성공파에서 준비키로 하고 제향시 시도금은 전액 진강사 보존비로 적립키로 재확인함
- 8월 30일(수) 회보 발간의 원고청탁(의뢰) 공문 발송(고문, 상임이사, 재정위원)
- 8월 30일(수) (가칭) 진류동호인회 구성(20명)
- 9월 12일(화) 회장단 회의 개최
1. 진강사 제향 헌관들 선임
 2. 대중회보 발간안 결정
발행부수 : 3,500부, 제작비 1,000만원
자금동원 : (각과 150만원x 4과=600만원
대사성공파 200만원, 합계 800만원)
기타 (광고, 찬조금)
 3. 보사 편찬위원 선임
책임 편찬위원(원포)
위원(보형,하림,해장,석형,정득)
- 10월 03일(화) 제25년차 진강사 제향 엄수(시도금 6,110,000원)
- 10월 16일(월) 제19호 회보 편찬위원회 개최
11월 말까지 원고청탁과 각과 회장님들의 원고청탁(각과의 운영방안과 비전)
- 10월 20일(금) 회원 주소록 입력(진천군파,주소록 발송)
- 10월 29일(일) 대사성공파,헌납공(김해문중) 방문
(헌납공 5대손 휘 時茂 통정대부 김해 도호부사 진주류공 묘비 제막식)
- 11월 22일(수) 을유보에 수록된 세대수 통계(27세 이상 18,000세대)
- 12월 11일(월) 회원주소록 입력(판서공파, 주소록 발송)
- 12월 31일(일) 회원 주소록 입력(계참판공파, 주소

晉州柳氏 慕先錄草 (第14回:19世祖篇)



前 부회장 柳 普 馨

이 모선록은 본보 제6호(1985년 12월 발행)부터 시작하여 18호(2003년 9월 발행)까지 13회에 걸쳐 시조(始祖)부터 18세조까지 모두 551위에 대하여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번호에서는 19세조 69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술보(壬戌譜) 제1권 보록(譜錄) 제25쪽부터 390쪽까지 제7단을 참조하십시오. 2006년 발행 을유보(乙酉譜) 제2권 5쪽부터 584쪽까지, 그리고 제3권 5쪽부터 1146쪽까지 각 쪽 최상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52

十九世祖 椒園公 휘 楨(대)

1683(肅宗9년)~1733(英祖9년)

이 어른은 백참판공(伯叅判公:휘宗植)의 9대 손으로서 지난 18호 39쪽 본란(485) 퇴당공(退堂公:휘命天)의 계자(系子)입니다.

공께서는 자(字)를 군실(君實)이라 하셨으며 호를 초원(椒園)이라 하셨는데, 퇴당공께서 아드님이 없으시어 막내 아우님이신 정재공(靜齋公)의 장남이신 공을 계자(系子)로 들이시어 우리 진주류씨의 19세 대종손(大宗孫)이 되셨습니다.

공의 5대손인 모산공(帽山公:휘遠聲:1851~1945)이 남겨놓으신 가정선적습유록(家庭先蹟拾遺錄)에 의하면 “공께서는 35세때 사마시(司馬試:生員進士試)에 급제하셨으나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許積의 잘못으로 南人이 실각한 사건)으로 선후부(先後父) 3형제분이 칩거(蟄居)중이시던 불우한 때라 공께서는 우리 진주류씨의 대종손이라는 막중한 몫임을 명념하시고 폐문독서(閉門讀書)로 삼가 가규(家規)를 지키며 근신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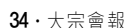
그리면서 틈틈이 계씨 서림공(西林公:휘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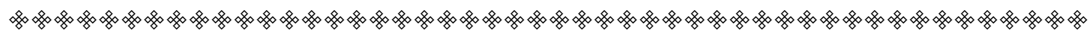
도와 선조들의 세덕(世德)을 현창(顯彰)코자 세보(世譜) 닦을것을 결심하시고 나아가 팔도 진주류씨 전체의 대보(大譜)를 창간코자 팔도제종(八路諸宗)들에게 같은 뿌리의 백대지친(百代之親)임을 일깨우시고 “종법(宗法)의 중함을 알게 되고 본지지서(本支之序:본손 즉 종손과 지존의 구별, 질서)가 환히 정연하게 밝혀질 것이니 모두 힘을 합쳐 이룩하자”고 격려하시어 마침내 1724년(경종4년) 갑진보(甲辰譜)가 이룩되었으니 이것이 우리 진주류씨로서는 실로 최초의 대동보였습니다.

또 공께서는 친히 가훈(家訓) 한 폭을 써 남기셨는데 지금은 볼 수 없다”하셨습니다.

(1993년 대중회발간 진주류씨문헌총집 제5권 4585쪽 참조)

공께서는 숙종 계해년(1683) 8월9일에 정재공(靜齋公:휘命賢)의 장자로 태어나시어 영조 계축년(1733) 향년 51세로 별세하셨는데, 초취 부인으로 좌랑(佐郎)을 지낸 전주 이현수(李玄綏)의 따님을 맞으셨으나 소생없이 28세로 조몰하셨는데,





그러나 이 글을 빌미로 이인좌의 처 자정(紫貞)이 공을 무고하여 억울하게 나포되어 친국(親鞫)에 이르렀는데, 잡혀가는 길가에서 만난 단암공(丹巖:閔鎭遠)께 백방(白放)될 길을 부탁했던 바, 단암공이 이끄기를 “내가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항상 국청(鞫廳)에 있으니 재삼 국문을 청하여 반듯이 억울함을 벗겨 주리라 의심치말라 “하였는데 그날 밤 단암공이 갑자기 광란(癡亂)이 일어나 국청에 참여치 못하게 되자 이광좌(李光佐)가 위관(委官)이 되어 국문을 주관하게 되니 참혹한 국문을 받아 마침내 장폐(杖斃:고문하는 곤장질에 죽음)까지 이르는 원통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원통하고 원통하다. 시운이 그러하니 어찌 하겠는가! 갑술옥사(甲戌獄事:숙종20년의 남인몰락사건) 이후 저들(서인들)은 항상 남인들 몰아낼 음모를 품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상은 공의 방5대손인 모산공(帽山公:韓遠聲)의 가정선적습유록(家庭先蹟拾遺錄)에서 인용한 것이며, 다음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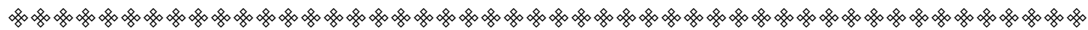
초취부인은 감사(監司)를 지낸 안동 권중경(權重經)의 따님으로 25세의 젊은 나이에 소생 없이 타계하셨는데, 공께서 대과에 급제하시기 전 어느 날엔가 꿈에 나타나시어 생시에 답소하듯 여전하시다가 갑자기 비참한 기색을 띄우시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시니 부인에게서 말씀하시기를 모년 모월 가을과거에 반듯이 급제하실 것이나 무오년에 생길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하시니 공께서 재삼 물으시자 부인은 다만 눈물을 흘리며 말씀은 못하시는지라 필시 천기를 누설치 못함인가? 꿈을 깨고 생각해보니 부인의 말씀이 귀에 완연하여 무슨 조짐인지 알 수 없었는데, 과연 모년 모월 가을 과거에 급제하시니 그 꿈이 정녕 헛된 것이 아님을 알았지만 스스로 헤아리기를 무오년에 별세하는가 했으나 공이 장폐된 것은 무신년 5월이니 어찌 무오년이 아니었을까? 이로 볼진대 천수(天數)는 결코 피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공이 일찍이 꿈에 시를 읊은 것이 있었으니, 소백산 앞에서 한번 옷을 흔들었다(小白山前一振衣)하였는데, 그 후 안동판관에 임명되었으니 도시 하늘이 정한 바라 어찌 명험(明驗)하지 않은가! 하셨습니다.

공의 후취부인은 감사(監司:종2품)를 지낸 사천 목임유(泗川睦林儒)의 손녀이신데 슬하에 1남 1녀를 두시니 아드님은 추사공(秋士公) 경농(慶農)이요, 따님은 파평 윤필극(尹弼克)에게 출가시키셨는데, 이 목씨 부인과 외동따님은 공의 원통한 죽음을 신원(伸冤)코자 가진 노력을 다 하여 기어이 신원에 성공하셨는 바, 그 경위를 공의 조카님이신 해암공(海巖公:韓慶種)께서 엮어 놓으신 천감소설록(天鑑昭雪錄)이 있으니 그 내용을 약술(略述)하여 자손 여러분의 참고에 자(資)코자 합니다.

천감소설록은 건 곤(乾坤) 2권으로 편책되어있는데, 건권 첫머리에는 이 책의 편자(編者)인 공의 조카님 해암공의 서문이 실려 있고, 다음에는 공의 세계(世系)와 약력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공은 숙종37년 25세에 사마시(司馬試=生員, 進士試)에 급제하시고, 영조2년 40세에 감제(柑製)에 장원하시어 집을 하사(下賜)받고 다음 해 3월 증광시(增廣試)에 곧바로 나가시어 급제하시고, 이어 동10월 중시(重試)에 다시 급제하시어 정6품관에 올라 성균관 전직(成均館典籍)으로 특제(特除)되어 근무 중 익년(1728)3월 이인좌(李麟佐)등의 역란(逆亂)이 일어나 역적이인좌의 처의 무함(誣陷)으로 원통하게 장폐(杖斃)되었으니 이때의 공의 나이 41이었다.” 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박사수(朴師洙)영남안무사의 종사관으로 추천되어 왕명이 내릴 때까지의 정원일기(政院日記) 발췌기록에 이어 경상감사(慶尙監司)에게 보낸 “박안무사와 류종사관을 보내니 역적 평정에 잘 협조하라”는 유지(諭旨)와 공에 대한 감란록(勘亂錄:英祖가宋寅明 朴師洙에 명하여 짓게한 朋黨 폐해를 경계한 책) 기록의 인



山李昌運), 전주 이제구(李齊龜)에게 각각 출가 시키셨습니다.

묘소는 충북 괴산 영등산 절뒤 선영에 합장으로 모셨다 했습니다.

556

十九世祖 郡守公 휘搏(박)

1651(孝宗2년)~1721(경종원년)

이 어른도 백참판공의 9대손이신데, 유명한 서경공(西峒公;휘根)의 현손(玄孫;高孫)으로서 본보 18호 본란 43쪽 (489)에서 말씀드린 선전관공(宣傳官公;휘命性)의 계자(系子)이시며 생부는 선전관공의 넷째아우님 통덕랑공(通德郎公;휘命益)이십니다. 그러니까 백부님 앞으로 입후(入后)하신 것이지요. 족보를 보면 공은 통훈대부(通訓大夫)로 대흥군수(大興郡守;중4품)와 홍양진관(洪陽鎭管)의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중4품)를 역임하셨다는 것뿐 다른 문적(文籍)은 없어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초취부인 숙인(淑人) 전주이씨는 해안군 역조(海安君 億祖)의 생1녀인채 27세로 조물하시고, 후취부인 용인이씨는 선교랑 광악(宣敎郎 光岳)의 따님인데 역시 따님 세분만 생산하시어 부득이 생가 아우님(휘援)의 외아들 진사공 휘경린(慶麟)으로 입후(立后)하여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장녀는 연안 이사장(延安李思章)에게 둘째는 전주 이양중(李養中)에게 셋째는 여흥 민찬(驪興閔贊)에게, 넷째는 무송 윤덕무(茂松尹德茂;진사)에게 각각 출가시키셨고, 공의 묘소는 충북 괴산 몽촌에 초취부인과 쌍분으로 모셨고, 후취부인은 제월리(霽月里) 고산정(孤山亭) 오른쪽 기슭 서향으로 모셨습니다.

557

十九世祖 主簿公 휘哲(절)

1656(孝宗7년)~1703(肅宗29년)

이 어른도 백참판공의 9대손이신 바, 지난 18호 (490)에서 말씀드린 사재공(思齋公;휘命才)의 외

아드님이십니다.

족보를 보면, 군자감(軍資監)의 주부(主簿;중6품)를 지내시고 승지(承旨;정3품 당상)로 증직을 받으셨다 했는데 그 근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

군수를 지낸 전주 이욱(李旭)의 손녀를 부인으로 맞으시어 2남 2녀를 두셨으니, 장남은 증호참(贈戶參)휘 경우(慶佑)요, 차는 현감(縣監)을 지낸 경전(慶全)이요, 장녀는 하동 정창윤(鄭昌胤)에게 차는 전주 이세적(李世迪)에게 각각 출가시키셨습니다.

558

十九世祖 護軍公 휘聖和(성화)

1686(肅宗12년)~1769(英祖45년)

이 어른도 백참판공의 9대손이신데, 유명한 몽암공(夢菴;휘希齡)의 장남이신 직장공(直長;휘大臨)의 5대손이십니다.

족보를 보면 호군(護軍;정4품 무관)을 지내셨다는 것뿐 다른 기록은 없고, 부인은 칠원 윤은명(漆原尹殷鳴)공의 따님을 맞아 슬하에 아드님만 3형제를 두셨으나 공으로부터 5대를 내려가 모두 무후가 되시고 말았습니다.

공의 묘소는 충북 청원군 노산 고쌍동에 모시고 부인은 덕지(德地)에 모셨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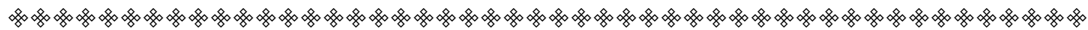
559

十九世祖 參判公 휘光斗(광두)

1657(孝宗8년)~1718(肅宗44년)

이 어른도 백참판공의 9대손으로 유명한 몽암공(夢菴公;휘希齡)의 셋째 아드님인 장사랑공(將仕郎公;휘大敦)의 5대손이신데, 지난 18호 본란 (497)에서 말씀드린 승지공(承旨公;휘相辰)의 장남이십니다. 족보를 보면 넷째 아드님(휘天桂)이 수계(壽階;壽職)로 귀히 되실 때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嘉善大夫 戶曹參判 兼同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副摠管)으로 증직(贈職)되셨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밀양 박효석(朴孝碩)공의 따님인 부인께서도 영광의 정부인(貞夫人)작호(爵號)를 증



드님만 두 분을 두셨는데, 장남은 용진거사(龍津居士)로 이름을 떨치신 휘 필경(必經)이시고, 차남은 필효(必孝)라 하셨으나 조졸(早卒)하신 듯 합니다. 묘소는 덕령(德嶺)에 부인과 합장으로 모셔져 있다 했습니다.

564

十九世祖 持平公 휘 弘錫(홍석)

1676(肅宗2년)~줄 ?

이 어른도 백참판공의 9대손으로 역시 충찬공의 8대손인 바, 삼우당공(三友堂公:휘春根)의 장손이시며 안화당공(安和堂公:휘爾惠)의 장남이 십니다. 족보를 보면 이 어른은 효행이 너무도 뛰어나 그 효행이 나라에 알려져 사헌부지평에 까지 증직을 받으셨다는 기록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지난 1998년 대중회20주년기념특집호로 발간한 본보 제16호 101쪽에 기획기사로 매호 게재하는 진류 선대 충효절열 행적록 제4편으로 소개한 “출천지효 증지평공 홍석 행록(出天之孝 贈持平公 弘錫行錄)을 원문과 번역문을 붙여 실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부인으로 죽산 박세우(竹山朴世宇)공의 따님을 맞아 슬하에 아드님만 다섯 분(必元, 必昌, 必鼎, 必厘, 必亮)을 두시고 묘소는 충북 노산 은행정(銀杏亭)에 부인과 상하림(上下窻)으로 모시고 상석과 석의(石儀)를 갖추고 비갈(碑碣)도 세워져 있다 했습니다.

565

十九世祖 掌樂院正公 휘 和錫(화석)

생 줄 ?

이 어른도 백참판공의 9대손으로 역시 충찬공의 8대손이신 바, 조보를 보면 증직(贈職)으로 통훈대부(通訓大夫) 장악원정(掌樂院正:정3품 당하)을 받으셨다 기록돼 있는데, 아마도 이 증직은 공의 증손이신 수현공(壽軒公:휘煥昌)께서 숭정대부(崇政大夫:종1품계) 동지사(同知事:종2품)로 귀히 되시므로써 은전을 입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인으로는 진주 강이무(姜以武)공

의 따님을 맞아 2남(必五, 必采)과 청주 이덕화(李德和)에게 출가시킨 1녀를 두시고, 묘소는 충북 청원군 현도면 양지리(陽地里) 대가곡(大家谷)에 부인과 합장으로 모셨다 합니다.

566

十九世祖 奉訓郎公 휘 雲根(운근)

1655(孝宗6년) ~ 1725(英祖원년)

이 어른은 계참판공(季參判公:휘陽植)의 9대손으로 보령공(保寧公:휘祖謙)의 6대손이시며, 유명한보국공(輔國公:휘後聖)의 바로 장증손이 십니다.

족보를 보면 다만 봉훈랑(奉訓郎)을 지내셨다는 기록뿐인 바, 봉훈랑은 종5품 참상관(參上官)으로 결코 하관 말직은 아닌데 벼슬 외에는 아무 기록도 없어 더 드릴 말씀없고, 부호군(副護軍)을 지낸 덕은 이영일(德恩 李英一)공의 따님을 부인으로 맞아 아드님만 형제분(遇澤, 普澤)을 두셨는데, 묘소는 청주 서면 망천변(綱川邊) 통산(通山)에 부인과 합장으로 모셔져 있다 했습니다.

자손들의 세거지는 청주망 강서(江西)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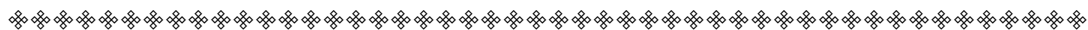
567

十九世祖 僉知公 휘 緯衡(위형)

1838(인조16년)~1721(경종원년)

이 어른도 계참판공의 9대손으로 사의공(司議公:휘祖誼)의 6대손이신데, 지난 18호 본란(500)에서 말씀드린 현감공(縣監公:휘益三)의 차남이 십니다. 족보를 보면 벼슬이 첨지(僉知)였다는 것 외에는 행적기록이 아무 것도 없어 더 드릴 말씀 없고, 다만 첨지란 벼슬은 첨지 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라는 벼슬의 약칭이라는 것과 그 품계가 결코 낮지 않은 정3품 당상관이라는 것을 참고로 적어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은 재취까지 하셨으나 따님 두 분만 두셨을 뿐 입후(立后)도 없이 절손(絶孫)이 되고 마셨습니다.



과 후취부인으로 파평 윤신교(坡平尹身敎)공의 따님을 맞아 슬하에 1남(峽)과 1녀(사위 羅州丁志彭)를 두셨는데, 공의 묘소는 내서산(內西山)에 초취부인은 외서산(外西山)에, 그리고 후취부인은 양천(陽川) 도안리(道安里) 우장산(雨裝山)에 모셨다 했습니다. 이 어른 자손들은 번족하지는 않으나 지금까지 서울 화곡동(禾谷洞)에 대대 세거(世居)하고 있습니다.

572 **十九世祖 縣監公 휘 世春(세춘)**
1681(肅宗7년)~1751(영조27년)

이 어른도 계참판공의 9대손으로 하양공(河陽公:휘祖誠)의 6대손이신데, 족보를 보면 첨지(僉知) 사천현감(泗川縣監)을 지내셨다고 기록돼 있는데, 첨지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약칭으로 위계가 정3품 당상관이고 현감은 종6품으로 지금의 면장급이니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첨지라는 기록은 뭔가 잘못 된 듯 싶습니다. 전주 이한영공(李漢英)의 따님을 맞아 2남(聖和, 鼎和)과 3녀를 두셨으니 각각 이관(李瓘), 홍육(洪堉), 김여저(金礪著)에게 출가시키셨고, 공의 묘소는 양성(陽城) 도일면 용두산(龍頭山)에 모셨다 했고, 자손들은 경기도 평택 일원에 세거(世居)하고 있습니다.

573 **十九世祖 折衝公 휘 永壽(영수)**
1704(肅宗30)~ ?

이 어른도 계참판공의 9대손으로 하양공(河陽公:휘祖誠)의 6대손이신데, 족보를 보면 가선대부(嘉善大夫) 절충장군(折衝將軍:정3품 당상관)과 행직(行職)으로 용양위 부사용(龍驤衛 副司勇:종9품 사병)을 지내셨다 기록돼 있는데, 앞뒤 위계가 너무 차이가나니 이는 아마도 공의 물년을 몰라 단정키는 어려우나 당상관직은 장수하시어 노직(老職=壽職)으로 제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주 김도형(金道亨)공의 따님을 부인으로 맞

아 오직 아드님 한 분(德明)만을 두셨는데, 이 자손들은 얼마 되지는 않으나 충남 부여군 홍산면 일원에 세거(世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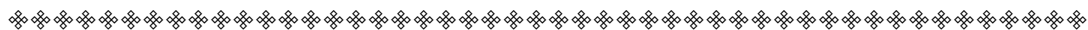
574 **十九世祖 僉知公 휘 鎮謙(진겸)**
1703(肅宗29)~1790(전조14년)

이 어른도 계참판공의 9대손으로 하양공(河陽公:휘祖誠)의 6대손이신데, 지난 18호 본보 52쪽(508)에서 말씀드린 동추공(同樞公:휘錫三)의 6남중 장남이십니다.

족보를 보면 첨지(僉知)라는 기록뿐인데, 이것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란 벼슬로 정3품관의 높은 벼슬인바, 아마도 공께서는 87세라는 드문 장수를 하시어 아버님과 같이 수직(壽職=老職)으로 제수되신 듯 합니다. 초취부인으로 역시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전주 이태등(李泰登)공의 따님을 맞았으나 30전에 조물하고 재취부인으로 공주 이박(公州 李璞)공의 따님을 맞아 슬하에 2남(珩, 瑛) 2녀(사위:趙祐泰, 徐命弘)을 두셨으며, 묘소는 경기도 이천 수정봉(水晶峰)에 모셨다 했습니다.

575 **十九世祖 同知事公 휘 元三(원삼)**
1702(肅宗28년)~1790(정조14년)

이 어른도 계참판공의 9대손으로 세마공(洗馬公:휘光國)의 6대손이신데, 족보를 보면 노직(老職:壽職)으로 절충장군(折衝將軍:정3품, 무관:정3품 당상)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종2품)에 제수되셨다 이 어른 역시 89세라는 장수를 하셨으니 당시로서는 의례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노직 또는 수직에 대하여는 본보 16호 218쪽에 정리해놓은 주석(註釋)모음 188(2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공께서는 초취부인으로 청풍 김취연(金就淵)공의 따님을 맞았으나 30에 조물하시고, 후취부인으로 삭녕 최준(朔寧 崔竣)공의 따님을 맞아 아드님만 4남(天培, 天佑, 天旭, 天佐)을 두시고 묘소는 황해도 봉산(鳳山) 봉두



족보를 보면 무과(武科)에 급제하시어 가선대부(嘉善大夫)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중2품)에 오위장(五衛將; 중2품)을 역임하셨다고 기록돼 있으니 이만한 고위직을 역임하셨다면 뭔가 행적 기록도 있으련만 아무 문적도 없으니 그저 아쉽기만 합니다.

공께서는 호조참판으로 증직된 전주 이복렴(李復廉)공의 따님을 부인으로 맞아 슬하에 1남(重和) 1녀(사위: 延日 鄭旻)를 두시고 75세로 하세하시니 위 부호군공과 같이 석교 오른편 기슭에 합장으로 모셔져 있다 했습니다.

581

十九世祖 竹坡公 휘 盛雨(성우)

1649(仁祖27년)~1711(肅宗37년)

이 어른은 진천군(晉川君; 휘之浚)의 12대손으로 대암공(臺巖公; 휘達尊)의 8대손이시며, 유명한 조계공(潮溪公; 휘宗智)의 현손(玄孫=高孫)이신데, 족보를 보면 호를 죽파(竹坡)라 하시고 효행(孝行)이 뛰어나시어 숙종22년(공48세 때) 암행어사의 추천(繡薦)으로 참봉(參奉; 중9품)에 제수되셨으나 받지 않으셨다는 기록과 함께 호조참판(戶曹參判; 중2품)으로 증직되었다는 기록이 보이는 바, 어떤 연유로 받게 된 증직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공의 손자인 군수공(郡守公; 휘文龍)이 비록 문과에 급제하시고 역전 삼읍(歷典三邑)하시고 청요직(淸要職)인 홍문관 교리(校理; 정5품)까지 지내셨다 하나 부조(父祖)에의 증직원칙은 자손이 2품관 이상의 실직(實職)을 역임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만큼 공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즉 혹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공께서는 전후 4취(四娶)를 하셨는데, 초취부인은 통덕랑(通德郎) 연일 정규승(延日 鄭奎升)공의 따님이요, 재취부인은 인천 채중주(蔡從周)공의 따님을, 삼취부인은 선산 김천석(善山 金天錫)공의 따님을, 사취부인(四娶夫人)은 상산

(商山) 김씨를 취하셨는데, 그 소생이 모두 8남 8녀에 이르는 바, 각각 어느 부인의 소생인지 분명한 기록은 없고, 공의 묘소는 경북 상주시 은척 신리(新里) 뒷산에 초취부인 정씨와 합장하여 모시고, 재취부인 이하는 신리(新里)산 이곳 저곳에 각장으로 모셔져 있답니다. 이 자손들은 오늘에 이르도록 이곳 은척(銀尺) 일원에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582

十九世祖 折衝公 휘 汀上(정상)

생 줄 ?

이 어른도 진천군(晉川君; 휘之浚)의 12대손으로 역시 대암공의 8대손이시며, 유명한 조계공(潮溪公; 휘宗智)의 현손(玄孫=高孫)이신데, 위죽파공의 4촌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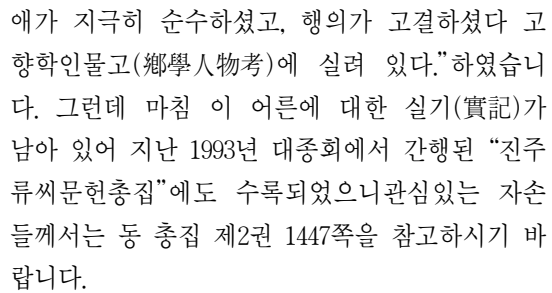
족보를 보면 생졸년도 없이 다만 절충장군(折衝將軍; 정3품 당상 무관)을 지내셨다는 기록뿐이어서 더 드릴 말씀 없고, 충의위(忠義衛)에 소속됐던 나주 박취문(朴就文)공의 따님을 맞아 슬하에 1남(연령(延齡) 1녀(사위: 黃屋滿)를 두시고 묘소는 가차곡(佳次谷)에 모셨다 했습니다.

583

十九世祖 正郎公 휘 東苾(동필)

1672(현종13년)~1722(경종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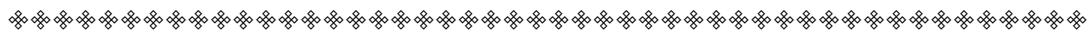
이 어른도 진천군(晉川君; 휘之浚)의 12대손으로 입암공(立巖公; 휘達年)의 8대손이시며 유명한 조은공(釣隱公; 휘澄)의 손자이신데, 족보를 보면 통훈대부(通訓大夫; 정3품 당하관)로 예조정랑(禮曹正郎; 정5품)을 지내셨다는 기록뿐 다른 행적기록이 없어 더 드릴 말씀이 없고 가선대부(嘉善大夫; 중2품) 남평 문지원(南平 文智元)공의 따님을 맞아 슬하에 1남(天萊), 3녀(사위: 李春華, 權達中, 朴智錫)를 두시고 묘소는 군위(軍威) 실촌동 시곡(實村洞 柿谷)에 모셨다 합니다. 이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경북 군위군 소보면 위성동 일원에 대대 세거(世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공의 회혼연(回婚宴:공79세 되는 1720년 늦봄)에 여러 사람이 올린 축시(祝詩) 10수와 송(頌) 1편을 수서시첩(壽瑞詩帖)이라 이름 붙여 수록하고, 공의 손자 휘 증후(增厚)께서 13세 때 공의 회혼일에 옆에서 모셨던 그리운 정을 못 잊어 60년 후인 1780년 3월 4일에 주찬(酒饌)을 약설하여 사당에 고하고 여러 자질로 하여금 시를 지어 올리게 한 다섯 수를 모아 “후경시첩(後庚詩帖)”이라 이름 붙여 수록하였는데, 여기에는 마을의 후생(後生) 이모(李某)와 공의 현손 심재공(深齋公:휘宜三)의 발문이 붙어 있는데, “내 일찍이 듣건대 갑신년에 큰바람에 실화(失火)로 선세유적(先世遺蹟)이 모두 회진되었는데, 그 후 종가(宗家)의 옛 고리짝에서 헌책 하나를 얻었으니 이는 나의 고조부 괴헌공의

다음에는 공의 7대손인 수拙당(守拙堂: 韓致佑)께서 지은 공의 가장(家狀)과, 일가인 5대후손 서강공(西岡公: 韓遠重)이 지은 공의 묘지명(墓誌銘) 및 포산 곽모(苞山 郭某)가 지은 묘갈명(墓碣銘)이 수록돼 있고, 공 하세 200년후 공을 추모하는 자손들이 공의 재실(齋室)로 탁연정(濯然亭)을 지을 때 올린 공의 7대손 기당공(畸堂公: 韓致性)의 탁연정개기문(濯然亭開基文)과 공의 방7대손 택재공(澤齋公: 韓海曄=潛)의 상량문(上樑文) 및 회봉 하겸진(晦峰河謙鎭)이 지은 “기(記)”, 그리고 후손 해성(海性)이 지은 “명(銘)”, 후손 해기(海冀: 韓晩堂)의 축시(祝詩) 1편, 공의 7대손 농와공(農窩公: 韓致慶)의 실기고성문(實記告成文)이 수록돼 있고, 권미에 공의 8대손 천려공(川藜公: 韓萬馨)과 7대손 기당공의 발문(跋文)이 붙어 있습니다.

물건을 갖고 다투지 않았으며, 아버이 섬김에
몸과 마음을 다 하셨고 형제분(아우님 晝光奎 호
槐窩)이 같은 방을 쓰면서 마음을 독실히 닦으며
몸가짐을 지극히 조심하고 움직임에 예의범절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으셨다. 부모님 상사(喪事)에



보고 손가락 잘라 피를 내 먹임)로 정성을 다해 효를 다 하셨다. 하세하시자 시묘삼년(侍墓三年)을 볼도 안 때고 세수도 얇은 채 지내셨으며, 공 35세때 조부이신 삼의헌공이 돌아가셨을 때도 부친상 때와 조금도 다름없으셨다.

기식(氣息)이 암암(奄奄)한 조부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엄동설한 속을 헤매 다니며 기어 이 잉어를 구해다 드렸으니 이는 하늘의 도움이라 이로써 공의 의연한 절의(節義)와 감천지효(感天之孝)는 더 이상 채언(贅言)이 불요하리라.” 하였습니다.

어쨌든 공은 순흥 안종서(順興安宗瑞)의 따님을 부인으로 맞아 슬하에 2남(東林, 東榮) 1녀(사위:순천朴斯恕)를 두시고 묘는 동산에 부인과 쌍분으로 모셨다 했습니다.

597

十九世祖 松窩公 휘 奎 垕 (규후)

1727(英祖3년)~1796(正祖20년)

이 어른도 대사성공(大司成公:휘之澤)의 12대손으로 계사정공(季司正公:휘升滴)의 9대손이시며, 간암공(澗庵公:휘希春)의 6대손으로 위 심재공의 재종 아우님이시며 지난 18호 본란 (526)에서 말씀드린 처사공(휘權)의 장남이십니다.

족보를 보면 공은 호를 송와(松窩)라 하셨는데, “효성과 우애가 남다르셨으며 선비로서의 행동거지가 일세의 모범이 될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평택 임계(林桂)공의 따님을 맞아 슬하에 1남(東燁) 1녀(사위:光州 金賢鍵)를 두시고 공은 병수(并樹) 구룡동에, 부인은 가산(佳山) 필독림(筆禿林)에 모셨다 합니다. 이 자손들은 경남 합천 묘산면 관기리 중촌(中村)에 세거하고 있습니다.

598

十九世祖 佳軒公 휘 奎 宋 (규송)

1737(英祖13년)~1792(正祖16년)

이 어른도 대사성공(大司成公)의 12대손으로 계사정공(季司正公:휘升滴)의 9대손이시며, 간암

공(澗庵公:휘希春)의 6대손으로 위 송와공의 4종제이십니다.

족보를 보면 공은 호를 가현(佳軒)이라 하셨는데, “문필(文筆)로 이름을 날리시어 사림(士林)의 추중(推重)을 받으셨다.”하였습니다.

파평 윤찬(尹儻)공의 따님을 맞아 슬하에 3남(東根, 東浩, 東胤) 2녀(사위:新昌表光漢, 利川徐命奎)를 두시고 하라동(下羅洞)의 같은 언덕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 자손들은 경남 합천 묘산가산리 일원에 세거하고 있습니다.

599

十九世祖 僉知公 휘 振壽 (진수)

1697(肅宗23년)~1764(英祖40년)

이 어른도 대사성공(大司成公:휘之澤)의 12대손으로 계사정공(季司正公:휘升滴)의 9대손이시며, 참봉공(參奉公:휘思春)의 6대손으로 완호재공(翫湖齋公:휘湄)의 5대손이십니다.

족보를 보면 가선대부(嘉善大夫) 절충장군(折衝將軍:정3품 당상 무관) 중추부사(中樞府事)라 기록돼 있는데, “중추부사”라고만 하면 막연하고 위 관직 위계(位階)로 볼진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고위직이라면 무언가 행적(行蹟)도 전해지련만 상고할 것이 없으니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어쨌든 공은 칠원 제시중(漆原諸時重)공의 따님을 맞아 슬하에 3남(枝瑞, 胄瑞, 光瑞) 2녀(사위:밀양孫德寬, 칠원尹興平)를 두시고 묘소는 경남 거제 법동리(法東里) 장고지에 모시고 부인은 거제 둔덕 방하리에 모셨다 했습니다.

이 자손은 대대 거제도 둔덕을 중심으로 그 일원에 세거(世居)해 오고 있습니다.

600

十九世祖 嘉義公 휘 順元 (순원)

생 줄 ?

이 어른도 대사성공(大司成公:휘之澤)의 12대손으로 계사정공(季司正公:휘升滴)의 9대손이시

며, 참봉공(參奉公; 휘思春)의 6대손으로 강산재공(講山齋公호; 휘渚)공의 5대손입니다.

죽보를 보면 수자(壽資)로 가의대부(嘉義大夫: 종2품)를 지내셨다 했는데, 생졸년도 행적 기록도 없으니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어쨌든 공은 곡성(谷城) 신응길(申應吉)공의 따님을 맞아 슬하에 3남(鳳載, 鳳弼, 鳳鳴) 1녀(新昌表戒邦)을 두시고 묘는 모태면(毛台面) 서천곡(瑞泉谷)에 모시고 부인은 모태동(毛台洞)에 모셨다 했습니다.

이 자손들은 경남 합천 반계(磻溪) 일원에 세거(世居)해 오고 있습니다.

601

十九世祖 主簿公 휘 昌業(창업)

1683(肅宗9년)~1756(英祖32년)

이 어른도 대사성공(大司成公; 휘之澤)의 12대 손으로 계사정공(季司正公; 휘升滴)의 9대손이시며, 참봉공(參奉公; 휘思春)의 6대손으로 망일재공(望日齋公호; 휘泳)공의 5대손이십니다.

족보를 보면 선무랑(宣務郎) 주부(主簿: 종6품)를 지내셨다 하고, “구보에는 벼슬기록이 없지만 공의 호구장적(戶口帳籍)에 의해 수록한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적에 대하여는 아무 기록도 없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공은 무송 유해룡(茂松 庾海龍)공의 따님을 맞아 슬하에 1남(命輝) 1녀(사위:曹景翼)를 두시고, 두모산(斗毛山) 유항령(楡項嶺)에 부인과 합장되었습니다. 이 어른 자손들도 위 자손들과 같이 반계 일원에 세거해오고 있습니다.

602

十九世祖 永慕齋公 휘 命炫(명현)

1714(肅宗40년)~1778(英祖46년)

이 어른도 대사성공(大司成公:휘之澤)의 12대 손으로 계사정공(季司正公:휘升滴)의 9대손이시며, 참봉공(參奉公:휘思春)의 6대손으로 망일재공(望日齋公:휘泳)공의 5대손이신데, 지난 18호 본란(530)에서 말씀드린 학생공(暉:再彬)의 장

남이십니다. 족보를 보면 호를 영모재(永慕齋)라 하시고, “옳고 바른 행실로 세상에 알려지셨다”고 간략한 기록만 있는데. 다행히 공의 3남 수와 공(睡窩公: 晁世彙)의 청으로 지은 병조참의(兵曹參議) 반남박효삼(潘南朴孝參)의 공 묘갈명(墓碣銘)이 남아있어 지난 1993년 우리 대중회에서 발간한 “진주류씨문헌총집” 권2 2054쪽에도 수록되었는 바, 이에 의하면 “공은 천품이 순정(純正)하여 7~8세에 이미 효경지도(孝敬之道)를 익혀 11세 때 부친상을 당했을 때 그 슬퍼하고 예법대로 상사(喪事)치름이 성인같아서 조객들이 찬탄해 마지않았다” 했으며, 흠어머님께 대한 효성은 더욱 지성스러웠다 합니다.

“공 15세때 이인좌란(李麟佐亂:1728)이 일어났는데 군내의 적도들을 피해 솔가(率家)해온 조한유(曹漢儒)를 받아드려 잘 보호해주고 그가 역당(逆黨)으로 모함을 받자 극력 변호하여 구해 주었다.

밖으로는 자제교육에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고, 안으로는 집안이 엄숙하면서도 화기(和氣)로웠으니 내외가 엄격하였다. 그리하여 공의 행의(行義)는 향리에 널리 알려져 최모려(崔茅廬;南斗) 선생 등 명사들과 도의지교(道義之交)로 서로 친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공은 함안 조익(咸安 趙翼)공의 따님을
맞아 슬하에 4남(震彙, 觀瀾齋司彙, 睡窩世彙, 三
僻齋新彙) 3녀(사위:과평尹宅震, 恩津 宋錫瑗, 진
주姜必濂)을 두시고 묘는 송림(松林) 선영하에
모셨고, 부인은 그 선영 왼편 기슭에 모셨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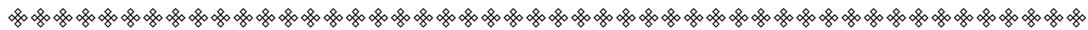
이 어른 자손들도 위와 같은 지역 부담(傳岩) 창동 일대에 새거해 오고 있습니다.

603

十九世祖 錦鋪公 휘 奎欽(규흠)

1737(英祖13년)~1811(純祖11년)

이 어른도 대사성공(大司成公)의 12대손으로
계사정공(季司正公; 휘升滴)의 9대손이시며, 통덕
랑공(通德郎公; 휘萬春)의 6대손으로 서주공(西洲



月峰)에 모시고, 초취부인은 대흥 원동면에, 후취부인은 덕산 북면 와현리(臥峴里)에 각각 모셨답니다.

이 자손들은 충남 서산 보령 아산 일원에 세거해 왔습니다.

607

十九世祖 監正公 휘 重起(중기)

생 줄 ?

이 어른도 대사성공(大司成公)의 12대손으로 참의공(參議公; 휘伯達)의 10대손이시며, 승지공(承旨公; 휘懿恭)의 6대손으로 첨정공(僉正公; 휘逢春)의 현손(玄孫=高孫)이십니다.

족보를 보면 군자감정(軍資監正; 정3품 당하관)으로 증직(贈職)되었다고 하는 바, 이는 공의 손자 휘 인환(仁桓)이 가선대부(嘉善大夫)로 동지중추부사겸 오위장(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종2품 관)이라는 고위직을 역임하신데 따른 증직은전(贈職恩典)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은 참판(參判; 종2품)으로 증직된 전주 이대번(李大蕃)공의 따님을 맞아 슬하에 외아드님(錫老)을 두셨는데, 묘소는 충북 잔천 이월(梨月) 묵동(墨洞) 뒷 기슭에 쌍분으로 모셨다 하며 이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이곳 묘하에 세거(世居)해 왔다 합니다.

608

十九世祖 同知事公 휘 重聖(중성)

1683(肅宗9년)~1754(英祖30년)

이 어른도 대사성공(大司成公)의 12대손으로 참의공(參議公; 휘伯達)의 10대손이시며, 승지공(承旨公; 휘懿恭)의 6대손으로 진사공(進士公; 휘渭)의 5대손이시며 지난 본보 18호 61쪽 (542)에서 말씀드린 참판공(參判公; 휘弼)의 장남이십니다. 족보를 보면 호를 관호(觀湖)라 하시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종2품)를 역임하셨다는 기록 밖에 없어 더 드릴 말씀없고, 현감을 지낸 나주 김소하(金韶夏)공의 따님을 맞아 3남(奎, 坤, 垠) 3녀(사위:驪興閔光

玉, 驪興陳秀一, 鎭安張鉉通)을 두셨는데, 묘소는 황해고 금천(金川) 강남면 향교동(鄕校洞)에 모시고 면각(面刻)한 상석(床石)도 있습니다.

이 자손들은 임진강 넘어 경기도 개풍군 북면 이소리 명금(鳴琴)에 세거해 왔는데 지금은 어찌 됐는지 알 길 없습니다.

609

十九世祖 沙泉公 휘 一心(일심)

1687(肅宗13년)~1730(英祖6년)

이 어른도 대사성공(大司成公)의 12대손으로 참의공(參議公; 휘伯達)의 10대손이시며, 승지공(承旨公; 휘懿恭)의 6대손으로 진사공(進士公; 휘渭)의 5대손이시며, 지난 본보 18호 61쪽 (542)에서 말씀드린 참판공(參判公; 휘弼)의 차남으로 위 동지사공의 바로 밑 아우님이십니다.

족보를 보면 호를 사천(沙泉)이라 하시고, 영조 5년 43세때 대과(大科; 文科)에 급제하시어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 정7품)를 지내셨는데 이듬해 44세를 일기로 하세하시고 말았습니다.

아무 문적(文籍)도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통정대부(通政大夫) 전주 이구(李逵)공의 따님을 맞아 슬하에 3남(垆, 垞, 垠) 3녀(사위:경주 李恒植, 전주李蔓, 순흥 安鋌)을 두셨는데, 묘는 개성 북서면 가토미(加土尾) 요옥동(饒沃洞)동산우(東山隅)에 합장되시고 면각(面刻)된 상석(床石)도 있다 했으나 어찌 됐는지 알 수 없고, 또 자손들도 위 백씨와 같이 명금 일대에 세거해 왔는데 역시 알 길 없습니다.

610

十九世祖 僉知公 휘 應心(응심)

1721(경종원년)~1794(正祖18년)

이 어른도 대사성공(大司成公)의 12대손으로 참의공(參議公; 휘伯達)의 10대손이시며, 승지공(承旨公; 휘懿恭)의 6대손으로 진사공(進士公; 휘渭)의 5대손이시며 위 사천공의 종제(從弟)이십니다.

족보를 보면 아우님(道心)과 함께 노직(老職)

名祖巡禮(10)

晉川君(휘 頌) 行蹟記

진 천 군 구 행 적 기

前副會長 柳 普 馨

이번호에서는 지난 17호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진주류씨로서는 오직 한 분이신 부원군(府院君)이시자 대제학(大提學)이신 서경공(西峒公:휘 根)의 손자이신 진천군(晉川君)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른은 임진란(壬辰亂:1592)에 이은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난 1957년 11월 23일 태어나셨는데, 아버님은 종친부 전첨(宗親府 典籤:정4품)을 지내신 휘 시보(時輔: 1998년판본보16호 69쪽(318) 참조)이시고 어머니는 수원 최전룡(崔田龍)공의 따님으로 공의 훈공으로 아버님은 증찬성(贈贊成)에 진산군(晉山君)으로, 어머니는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봉해지셨습니다.

족보에는 지난 1982년 발간된 임술보(壬戌譜)까지 지극히 간략하게 공의 행적이 기록되어 아쉽게 여겨왔는데, 다행히 2005년 발간된 을유보에는 상당 부분 상세히 기록이 되었다.

이는 다행히 공의 둘째 아드님이신 군수공(隕才)께서 지어놓으신 행장(行狀)과 숙종조의 명신인 요 대제학(大提學)으로 문명(文名)이 높았던 외재공(畏齋公:李端夏)이 지은 공의 시장(謚狀: 경상(卿相)이나 유현(儒賢)들의 시장(謚望)을 의논하여 상주(上奏)할 때 그의 생전 시의 한 일들을 적은 글발)이 있어 1993년 대중회에서 발간된 진주류씨문헌총집에도 수록되었거니와 (권1-883쪽, 권21, 378쪽 참조) 이 두 글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공께서는 어렸을 때 아버님 찬성공(贊成公:휘시輔:증1품)께 글을 배우셨는데, 공이 공부에 힘쓰지 않는 것을 늘 걱정하셨다. 어느 날 문족(門族)가운데 천하지만 관상 잘 보는 자가 와서 보고는 “소랑(少郎:도련님)이 비록 공부를 부지런히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일찍

이 귀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하며, 공에게 “우리 아이 가운데 장차 무(武)로써 이름을 드러낼 자가 있을 것이니 모름지기 노부의 말을 기억했다가 소홀이 대하지 말기 바라요” 하였다.

공이 장성하여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충목공(忠穆公:具宏)의 사위로 장가를 드셨다. 그 당시 광해군(光海君)이 모후(母后:仁穆大妃)를 유폐시키는 등 정사를 어지럽혔는데, 그 때 공께서는 시골에서 한가히 지내시다가 계해년(癸亥年:1623:광해군15년) 정월에 세배드리러 충목공을 양주(楊州)로 찾아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사직(社稷)을 바로 잡는 의논이 정해져 있을 때였다.

충목공이 은밀히 속뜻을 내 보이니 공이 팔을 걷어 올리며 말씀하기를 “이는 평소에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고 한마디 말로 서로 의기가 투합 되었다. 충목공이 공을 인도하여 인조(仁祖)를 잠저(潛邸)로 찾아뵈었는데, 인묘(仁廟)께서 “류모는 충성스럽고 미더워서 함께 일을 할만하다”고 칭찬하셨다.

거사(舉事)할 시기가 되었을 즈음에 일이 누설되어 광해가 사람들을 시켜 흥인문(興仁門:東大門)을 굳게 지켜 병장기(兵仗器)를 가지고 출입



진천군(晉川君:휘 頌)영정
(을유보 화보 28쪽 참조)



하는 자들을 엄히 색출토록 하였는데, 그 때 공께서는 많은 병장기를 나무같이 속에 섞어 싣고 이 문으로 들어왔으니 공의 대담무쌍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며 요행히도 들키지 않았으니 이 역시 하늘이 도운 것이었다.

반정(反正)이 성공한 뒤 공훈(功勳)을 의논할 때 공에게는 분충찬모정사공신(奮忠贊謨靖社功臣) 3등에 책훈(策勳)되시고, 품계를 뛰어넘어 절충장군(折衝將軍: 정3품 당상관, 최고위급 무관)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정3품 당상)에 제수되셨다.

그 당시 공은 27세였는데, 지난날의 관상을 봐 준자의 아들도 역시 무사로 출세하여 충목공을 따랐는데, 그 관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갑자년(1624년:인조2년)관서(關西)의 장수로 있던 이괄(李适)이 거병(擧兵)하여 반란을 일으켜 대가(大駕)가 남으로 피난할 때 공도 호종(扈從)하였는데, 사태가 진정된 뒤에 그 호종(扈從)한 공으로 인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종2품)로 오르셨으며, 진천군(晉川君)에 봉해지셨다.

이 당시 조부이신 진원군(晉原君:西垞公:휘根)께서 맹부(盟府:忠勳府)의 주석(主席)이 되시고, 사위인 김공(金瑩: 인조반정1등공신 후에영의정, 북재공(北渚公):공의 고모부)과 함께 부원군이 되셨으며, 김공의 아들 경징(慶徵)과 공이 뒤를 이어 맹부에 들어가시니, 진원군께서 시를 지어 읊으시기를 “모녀 둘 다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올랐는데(母女俱貞敬), 사위 훈공 장인과 또 나란하구나(甥勳竝婦翁), 친손자와 외손자가 둘이 있는데(內外雙孫在), 금초(金貂: 황제의 좌우에 시종하는 신하가 모자에 다는 장식으로 시종신(侍從臣)을 뜻함)에다 2품관작 둘이 같구나(金貂二品同)하시니, 이시가 한 때 널리 퍼졌다.

계미년(1643:인조21년) 아버님의 상을 당하여 3년상을 마치시자 다시 원래의 봉작(封爵)에 제수되시어 이 해 가을에 회맹(會盟:임금이 공신(功臣)들과 모여 산 짐승을 잡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며 단결을 맹세하는 일)에 참여하

셨으며, 가의대부(嘉義大夫:종2품上)으로 승진하셨다. 다음해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시어 3년상을 마친 후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總府副總管:종2품)을 겸임하셨다.

현종6년(1665:공69세때) 유사당상(有司堂上)으로서 충훈부(忠勳府:^{주1})의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셨는데, 조부이신 진원군(서경공)께서 일찍이 이 일을 겸임하셨었는데 공이 또 그 뒤를 이어 맡으셨으니 이 역시 흔치 않은 일이었다.

다음해(병오년:1666:현종7년)8월11일 향년 70세를 일기로 하세하시니 자헌대부(資憲大夫:정2품)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정2품)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정2품) 오위도총부 도총관(都總管:정2품)에 추증(追贈)되시고 영희공(榮禧公)이라 증시(贈諡)되셨다.

공께서는 통통한 얼굴에 키가 크셨다.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고 결백하셨으며, 사람을 대함에 온화하고 공경스럽게 하셨으나 아침하는 것을 싫어하셨다. 아버이를 섬김에는 뜻과 물건으로 봉양하기를 다 지극하게 하셨다. 아버님께서 외임(外任)으로 나가계시고 공께서 서울에서 벼슬을 하실 때에는 철을 따라 새로 나는 음식을 얻었을 경우 길이 멀어 보내드릴 수 없으면 번번이 물리치고 자시지 않았다. 또한 아버님께서 병환으로 누어계실 때에는 몸소 약탕기를 들고 약을 달였으며, 한밤중에도 피를 풀고 주무시지 않았다. 내상(內喪)과 외상(外喪)을 당해서는 장례 치르고 제사 지내는 것을 한결같이 예제(禮制)에 따라 하셨으며, 몸이 수척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자제들을 시켜 대신하게 한 적이 없었다. 선묘(先墓)가 수백리 밖에 있었는데 아무리 몸이 쇠약해져 병들어도 해마다 반드시 한 번은 가서 성묘(省墓)하셨다. 그리고 선인(先人)의 기일(忌日)을 당했을 때에는 제사에 쓰는 제수(祭需)는 반드시 선인께서 좋아하시던 것으로 올리며 슬퍼하고 사모하기를 초상 당

주1) 충훈부(忠勳府):이조 때 공신의 관부(官府). 태조 원년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둔 이래 태종 때 충훈사(忠勳司), 고종 때 기공국(紀功局)이라 했음 * 별칭: 인각(麟閣), 맹부(盟府), 훈부(勳府)



했을 때처럼 하셨다.

공께서는 성품이 베풀기를 좋아하셨으나 생업을 일삼아 재산을 불리지 않으셨으며, 훈봉(勳封)에 따라 으레 하사받는 노비를 혹 다른 사람이 차지하더라도 절대로 그와 더불어 다투거나 따지지 않으셨다. 그 당시에 훈신(勳臣)들이 차지하고 있던 제택(第宅)이 혹 서너 채씩 되기도 했는데 공께서는 끝내 한 채도 받지 않으셨다. 공께서는 번잡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방 한 칸을 깨끗하게 소제하고서는 좌우에 서책을 쌓아두었으며, 앞에는 화초를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 마주 앉아 바둑을 두거나 혹은 옛사람들의 시문(詩文)을 베끼기도 하면서 세월을 보내셨다.

단 하 차례도 권신(權臣)들의 집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았으며 혹 어떤 사람이 일을 가지고 청탁을 하면 그 때마다 거절하셨다.

부인은 정부인(貞夫人) 구씨(具氏)로 충목공(忠穆公:具宏:綾城府院君)의 둘째 따님이신데, 천성이 정숙하시어 인조반정(仁祖反正) 때는 곁에서 도우신 바가 많았다. 또한 효성과 공경으로 친당(親黨)들을 위하셨으므로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탄복하셨다.

5남5녀를 두셨는데, 장남 명성(命性)은 어모장군(禦侮將軍)으로 선전관(宣傳官)을 겸하시다 일찍(29세) 하세하시고, 둘째인 명재(命才)는 영천(永川), 안산(安山)군수를 지낸 호 사재(思齋)이시고, 셋째 명철(命哲)은 태인현감(泰仁縣監)을, 넷째 명익(命益)은 통덕랑(通德郎), 다섯째 명웅(命雄)은 가의대부(嘉義大夫)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종2품관)에 이르렀다. 장녀는 파평 윤이겸(尹以謙)에게, 다음은 순흥 안탁(安琢)에게, 다음은 전주 이제하(李齊夏), 다음은 파평 윤필성(尹弼星), 다음은 덕수 이혜(李穡:大司諫)에게 각각 출가시키셨다.

이리하여 내외의 손, 증손은 모두 50여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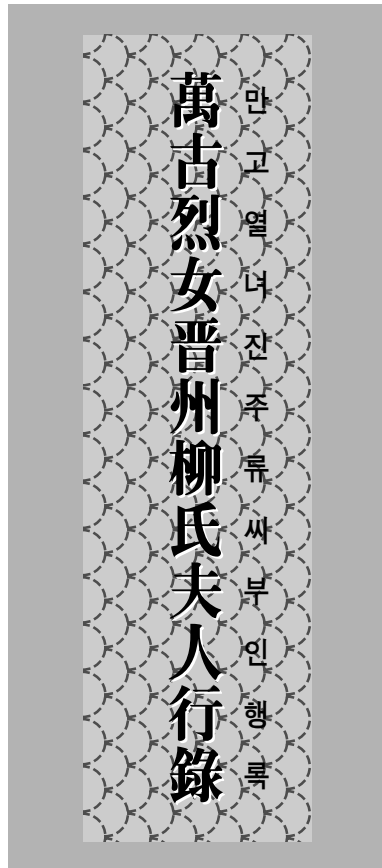
이 시장(諡狀)을 지은 외재공(畏齋公:李端夏)은 이 시장 말미를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음했으니, 즉 “아! 공께서는 명경(名卿)의 후손으로 원훈(元勳)의 사위가 되어 일찌감치 반린부익(攀麟附翼:^{주2)})하여 공신에 책봉되고, 자급(資級)이 높아졌다. 밖으로는 풍모와 자태가 수려하셨고, 안으로는 언행 일치로 꼭 차 있었는 바, 다른 사람에 비하여 무엇이 부족하셨겠는가! 그런데도 공께서는 조용하게 스스로를 지키며 오직 봉군(封君)에 따른 녹봉(祿俸)만을 가지고 일생동안 자급하셨으며, 안팎으로 일찍이 어느 한 관직도 구하여 스스로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 이에 세상 사람들도 역시 공에게 숨겨진 덕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명론(名論)에서 소홀이 취급하여 도외시하였다. 말세인 오늘날의 인물들 가운데에서는 공이 처세한 바와 같이 처신하는 자를 거의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께서는 “평안하게 복록을 누리셨으며, 자손들이 번창하였으니 하늘이 덕있는 이에게 보답해 준다는 것을 역시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 하였다.

공께서 진천군으로 훈봉되실때 충훈부에서 내린 영정(影幀) 1본이 남아있는데, 조부님이신 서경공의 영정 2본과 함께 1986년 국비보조로 건립된 문정사(文靖祠:충북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을유보 권1 화보 19쪽 참조)에 봉안(奉安)되어 있으며, 공에 관한 기록은 이조실록 인조원년 3월조부터 4개처에 보이며, 대동야승(大東野乘), 해동인물지(海東人物誌)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은 공이 반정거사(反正舉事)에 참여한 사실과 3등공신으로 책훈되는 상술 내용과 같은 것이기에 생략하고, 외재공(畏齋公:李端夏)이 지은 공의 시장(諡狀)은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에 수록되어 있다.

주2) 린부익(攀麟附翼): 용의 비늘을 잡고 봉황의 날개에 붙어서 올라간다는 말로 반룡부봉(攀龍附鳳)과 같은 말인데, 제왕에게 붙어서 공명을 이루거나 명망이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이름을 드날리는 것을 말함. 여기서는 인조(仁祖)가 반정(反正)할 때 도운 공으로 입신양명(立身揚名)했다는 뜻임.

— 晉柳先代・忠・孝・節・烈 行蹟記 (7)



전부회장 류 보 형

본보는 지난 95년판 제13호부터 충, 효, 절(節), 열(烈)로 우리 자손들은 물론, 온 국민들에게 귀감(龜鑑)이 될 행적을 남기신 우리 선대 어른들을 매호마다 한분씩 소개해드리기로 하여 지난 호까지 모두 여섯 분을 소개해드렸거니와, 이번 호에서는 백참판공(白參判公)의 5대손이신 유명한 서경공(西峒公)의 큰 따님으로 인조반정(仁祖反正) 1등공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북저공(北渚公) 김류(金瑬; 昇平府院君)에게 출가하신 류씨 부인의 열행(烈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덧붙여 말씀드려 둘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효는 누구나 익히 알고 있으나절(節)과 열(烈)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가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절”이나 “열”은 주로 남편에 대한 여자의 절개를 뜻하는 말로서, 남편이 죽더라도 개가(改嫁)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녀를 잘 키우고 집안을 세워 이어가는 훌륭한 부인을 절부(節婦)라 하며, 또 일점혈육도 없이 홀로 되어도 끝까지 시부모를 지성껏 봉양하며 정절(貞節)을 지킨 부인을 절효부(節孝婦)라 하며, 남편을 따라 자결하거나 난라가 일어나거나 도적떼들의 침입으로 위급해졌을 때 욕을 보지 않기 위해 자결하는 부인을 열부(烈婦) 또는 열녀(烈女)라 칭송합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나라를 위해 신명(身命)을 남자에게는 충(忠)을 붙여 충절(忠節) 또는 충열(忠烈)이라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류씨 부인은 위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백참판공의 5대손이신 서경공(西峒公; 白根)의 큰 따님 이야기입니다.

1985년 순천(順天)김씨 북저집(北渚集)간행위원회에서 펴낸 “북저선생집”에 수록된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선생이 지은 북저공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보면 그 부인 류씨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자세히 나옵니다. 즉 이에 의하면 “부인 류씨는 시집오기 전 친정에 있을 때부터 글을 읽어 의리(義理)가 무엇인지를 잘 아셨다.

그 아버님 진원공(晉原公; 西峒公; 白根)이 늘 말씀하시기를 “이 딸아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앞길이 한량없을 텐데”하셨다. 혼인하실 때에 부인의 사주(四柱)를 신랑 북저공(北渚公; 金瑬)께 보이니 북저공이 크게 기뻐하셨는데, 북저공이 대책(大策; 仁祖反正거사계획)을 세울때에도 많은 도움이 있었다 한다. 계해년(癸亥年; 1623) 3월 12일에 북저공이 자제와 함께 거사하려 할 때 류씨 부인은 그 아들(金慶徵)에게 오직 의리(義理)만으로 타일러 준 다음, 새 옷을 가라 입고 옆에



칼을 놓고서 성패(成敗)의 결과를 기다리셨다. 그리고 병자호란(丙子胡亂:1636;인조14년)으로 강도(江都:강화도)에 피란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묻는 이가 있으면 바로 지니고 있던 칼을 가리키며 웃으면서 “다만 이 칼이 있을 뿐이요” 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듬해 강도가 함락되자 정월 25일 문을 닫아걸고 65세의 나이로 자결하자 조정에서 정려(旌閭:홍살문)를 지어 표창하였다. (原文:配柳夫人自在家讀書識義理考晉原公根 常曰使此女而男者 所就何可量也昏禮成以時獻曆日于議政公 議政公見而大喜公建大策時多有贊 癸亥三月十二日 公父子將出以義勉其子更衣持刀 以待成敗 江都之變 有問者則指面前刀子笑曰只有此耳 竟以丁丑正月二十五日閉門引決得年六十五 朝廷旌表其門)

그런데 같은 책 말미에 사세열녀약전(四世烈女略傳)기록은 그 마지막 자결기록이 다르게 나왔으니 즉 “1636년(丙子) 12월 청군(淸軍)이 우리나라를 침입하여 서울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자 조정에서는 비빈(妃嬪)과 왕자 그리고 사대부가(士大夫家)의 부인들을 강화도에 먼저 피란케 하고 이어 인조(仁祖)께서도 여러 중신들과 같이 강화도로 피란하려 했으나 강화의 길이 막히매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가 호군(胡軍)에 저항하던 중 강화가 적에게 함락되어 왕자가 적에게 인질(人質)로 잡혔다는 비보(悲報)를 듣고 이듬해 1월 30일 굴욕적인 항복을 삼전도(三田渡)에서 하게 되었는데, 호군이 강화도에 상륙하자 많은 사대부가 부인들이 포로가 되어 욕을 당할 처지가 되자, 부인의 서 시모(庶嫗母) 평산신씨(平山申氏)도 자부(子婦)와 손부(孫婦) 증손부에게 “우리가 살아서 오랑캐에게

욕을 당하여 가문을 더럽히느니보다 죽는 것이 가하다” 하고 사세고부(四世姑婦)가 강화 앞바다에 투신 자결하였으니 때는 1637년 1월 25일이었다. 고 기록하고 조정에서 이를 아름다이 여겨 같은 해에 정문(旌門)을 세워주고 사액(賜額)까지 내려졌는데, 이 정문은 북저공의 묘소가 있는 현 경기도 안산시 와동(瓦洞)에 세워져 있는데, 1983년 안산시의 문화유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북저선생집” 앞머리에는 북저공의 영정(影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진을 실었는데 그 중 부인에게 내린 사세정문 표액(四世旌門表額) “열녀 영의정김류처 정경부인 진주류씨지문(烈女 領議政金瑬妻 貞敬夫人 晉州柳氏之門)아라는 표액(위사진참조)이 서시모와 자부, 손부의 것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중 최후의 결단을 부인의 서시모가 내린 것으로 돼 있으나 필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당시의 사대부가의 법도상 서시모의 결단에 의했다기 보다는 북저공의 정실(正室)인 부인의 결단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며, 또한 필자의 고향도 같은 안산이기에 어려서부터 내려온 구전(口傳)도 그렇게 들어왔음을 부기해 두는 바입니다.



진주류씨부인(북저공 김류의 처) 정액(旌額)



순천김씨 4세 충열문 정문(경기도 안산시 와동)

先賢遺跡地 探訪(I)

선 현 유 적 지 탐 방



柳昌睦

진천군과 현감공 18대손
밀양분회장

(I)

밀양문화원 연례 행사의 하나인 선현유적지 탐방을 금년에는 전라북도 쪽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주로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실시됐던 행사를 호남쪽의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우선 정한 곳이 춘향으로 유명해진 남원 지방과 죽세공 및 가사문학의 산실이라 볼 수 있는 담양 지방을 가자는 의견이 많아 그 쪽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2006년 6월 5일 삼문동 둔치에 130여 명이 모여 4대의 관광버스에 나누어 타고 출발한 것은 오전 8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원래는 5월 중순경으로 일정을 잡았으나 5·30 지방자치선거로 인해 6월로 미루어진 것이었다.

출발 직전에 아직 취임하지 않은 엄용수 밀양시장 당선자와 일행들이 나와 잘 다녀오라는 인사말을 해 주었다. 이런 행사까지 챙겨야 하는 시장의 마음씀씀이가 고맙긴 하지만 모두다 앞으로 밀양시정을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면 걱정어린 말을 건네기도 하였다.

모두다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었지만 관광 버스에 오른 기분은 학창시절 수학 여행을 가는 기분 못지 않았다.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근간에 있었던 얘기들을 서로 주고 받으며 함박 웃음을 짓기도 하였다. 한 고을에 살면서도 자주 만날 기회가 드문 탓이긴 하지만 가정살이에서부터 사회나 정치에 관한 얘기가 너무나 진지하였다. 유적지 탐방이 주목적이지만 문화 회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정담을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일행이 전라북도 남원시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 반경이었다. 남원하면 예향(藝鄕)이라는 생각과 함께 먼저 떠오르는 것이 춘향이었다. 비록 소설 속의 허구적 인물이지만 모두들 실화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소설 춘향전에 대한 가치가 국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여성의 정조관념을 환기시키는 교육적 효과도 크다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현대와 같은 성개방시대에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도령과 성춘향이 처음 연정을 품게 된 배경인 광한루를 찾았다.

전북 남원시 천거동에 자리 잡은 조선 중기의 목조 누각으로 보물 제281호로 지정된 이 누각은 조선조 명재상으로 알려진 황희 정승이 남원에 유배가서 1418년 현재보다 작은 규모의 누각을 지어 광통루(廣通樓)라 이름 붙였다. 그후 1434년 남원부사 민여공(閔汝恭)이 증축했고, 세종 26년 1444년 전라 관찰사 정인지(鄭麟趾)에 의해 광한루(廣寒樓)라 고쳐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란 말은 달 속의 선녀가 사는 월궁의 이름인 광한전(廣寒殿)의 「광한청허루(廣寒淸虛樓)」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후 1461년 신임 부사인 장의국(張義國)이 요천강(蓼川江)물을 끌어다 연못을 조성하고 4개의 무지개 형상의 오작교를 화강암과 강돌



로 축조하여 월궁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584년 송강 정철에 의해 수리할 때 삼신산으로 칭해지는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州)의 모습을 연못 속에 축조하여 광한루·오작교와 더불어 월궁과 같은仙境(仙境)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유재란으로 전소된 것을 인조 16년인 1638년에 중건하여 지금에 이르렀고, 춘향전에 의해 더 유명해진 곳이 되었다.

인공 정원 속에 건립된 대표적인 누각인 광한루는 앞면 5칸, 옆면 4칸인 팔작지붕의 이익공계(二翼工系) 다락집이라고 한다. 지금은 동쪽에 3칸의 부속 건물이 붙어 있고, 북쪽에 팔작지붕을 증첩한 3칸의 계단을 두어 4면의 모습이 모두 약간씩 다르다고 하는데, 아래 층의 기둥은 둥근 석주이며 의장 효과를 위해 모서리에는 네모난 석주를 세웠다.

광한루에서 오작교를 지나 앞쪽을 가니 춘향사(春香祠)가 있었는데 허구적 인물이라 해도 조선 시대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동일 인물의 화가가 그려서인지 밀양 아랑사의 아랑 모습과 거의 흡사한 점을 느낄 수 있었다. 하기야 춘향은 소설 속 인물이고 아랑도 전설 속 인물이니 허구임에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떤 여인들은 춘향의 화상 앞에 합장하여 절을 하며 추모의 정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자신의 기원을 춘향에게 빌기도 하였다.

일행 중 한 분이 이도령의 어사출도 전 춘향을 뜰 아래 꿰어 앉히고 생일 잔치를 벌인 변사또 앞에서 읊었다는 시 한 수를 그 때를 상상하며 읊조렸다.

金樽美酒千人血

금잔의 아름다운 술은 일천 사람의 피요

玉盤佳肴萬姓膏

옥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燭淚落時民淚落

촉루 떨어질 제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歌聲高處怨聲高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더라.

이어 춘향이 읊었다는 시도 한 수 읊었다.

去歲何時君別妾

지난 해 어느 때 그대가 나를 이별하고
昨已冬節又動秋

어제는 겨울이더니 또 가을이로구나.

狂風半夜雨如雪

한밤 미친 바람에 비가 눈 같더니

何爲南原獄中囚

어찌하여 남원 옥중에 갇히었나.

우리 일행은 춘향사 앞에서 머뭇거리며 제각기 춘향에 대한 평가를 한 마디씩 내뱉으면서 그 앞에 자리잡고 있는 춘향의 어머니인 월매집으로 향했다. 초가로 된 월매집에는 소설 속의 주막이라기 보다는 여염집의 집 모습이었다. 모두들 이방 저 방을 들여다 보면서 월매가 따라 주는 한 잔 술을 마시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표정이었다.

공원 경내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우리 밀양에도 이런 인조 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말을 주고 받았다. 수년 전 어떤 이가 밀양을 둘러본 후 고을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는 말을 남겼었다. 선사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남아 있는데다 신라와 백제, 그리고 가야와 점령을 이루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데다 춘정·점필재 선생이나 사명대사 같은 분들의 출생지라는 의미로 한 말일 것이다.

소설 속 춘향을 이렇게 부각시킨 남원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도 전설적 인물인긴 하지만 아랑의 전설이 있고, 점필재 선생이나 사명대사의 유적을 중심으로 관광벨트화 한다면 남원의 인조 공원보다 못할 게 무엇이겠는가.

오후 1시가 지나서야 우리 일행은 식사를 마치고 곧장 담양으로 향했다. 지나는 고속도로 옆에 민속촌처럼 한옥이 즐비한 순창 고추장 마을이



있었고, 30여분을 더 달려 담양 IC를 나와 담양읍으로 가는 길 반대편으로 담양군 남면 지곡리로 향했다. 여기서 30여분을 가니 오늘 주목적지인 소쇄원(瀟灑園)이 나왔다. 소쇄원 앞엔 넓직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주차장에서 5분 정도를 걸어가니 계곡을 중심으로 소쇄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쇄원을 꾸민 양산보(梁山甫 1503-1557)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양사원을 따라 상경하여 조광조 문하에서 수학, 17세의 나이로 현령과에 응시하는 등 어린 나이에 임금의 사랑을 받았었다. 그러나 사림의 영수 조광조가 도학의 이념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는 왕도정치를 표방, 개혁 정치를 펼치다가 보수의 무고를 받은 기묘사화로 전라도 능주땅에 유배되어 사약을 받았고, 이로 인해 스승과 뜻을 같이한 시류들이 모두 거세됨에 출세에 뜻을 버리고 자연 속에 숨어 살기 위해 꾸민 별서정원(別墅庭園)이라고 한다.

소쇄원은 주거(住居)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하나의 후원(後園)이며, 공간 구성과 기능면에서 볼 때에는 입구에 전개된 전원(前園)과 계류(溪流)를 중심으로 하는 계원(溪園), 그리고 내당(內堂)인 제월당(霽月堂)을 중심으로 하는 내원(內園)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 일원이 1,500여 평으로 제주 양씨 산보(濟州梁氏山甫)의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사적 제304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원(前園)은 대봉대(待鳳臺)와 상하지(上下池), 물레방아, 그리고 애양단(愛陽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원(溪園)은 오곡문(五曲門) 곁으로 담 아래에 뚫린 유입구로부터 오곡암 폭포, 그리고 계류를 중심으로 여기에 광풍각(光風閣)을 곁들이고 있다. 광풍각의 대 아래에는 인공의 석가산(石假山)이 있었다고 한다.

내원은 제월당을 중심으로 한 공간인데 당과 오곡문 사이에는 두 계단으로 된 매대가 있으며 여기에는 매화, 동백, 산수유 등의 나무와 기타 꽃나무가 심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쇄원은 1530년(중종 25년)에 양산보가 꾸민 조선시대 대표적 정원의 하나로 제월당(霽月堂), 광풍각(光風閣), 애양단(愛陽壇), 대봉대(待鳳臺) 등 10여 개의 건물로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몇 남아 있지 않았다.

제월당(霽月堂)은 “비 개인 하늘의 상쾌한 달”이란 뜻으로 주인을 위한 집이라고 하며, 그 아래 작은 계곡을 가로 질러 2m 정도 높이의 흙담이 있었는데, 이는 양산보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겨울 찬바람을 막는 방풍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니 그 효성이 얼마나 지극했던가를 알 수 있다고 해설자가 말해 주었다.

양산보의 벗인 김인후도 조광조의 도학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을사사화가 발발하자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 다 당시 사림들의 출처진퇴의 표상이었으니 ‘도가 있으면 나타나고 도가 없으면 은둔한다’는 공자의 말씀을 몸소 실행했던 분들이다. 양산보는 고향에 돌아와 소쇄원을 짓고 은거했으며 그와 뜻을 같이 하던 벗 김인후는 이 소쇄원에 붙여 48수의 오언절구(五言絶句)를 지었으니 이것이 바로 소쇄원 48영(詠)이다. 이 48이라는 숫자는 6효가 1괘이고, 8괘의 효가 48이니 당시 소쇄원 책상에는 항상 주돈이의 「태극도설」이 놓여 있었다고 전하듯 48은 우주 만상의 변화와 상생의 이치가 모두 들어있는 숫자라고 한다.

이 48영이 제월당 측면 위쪽에 현판으로 새겨 걸려 있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 그 시를 다 베껴 올 수가 없었던 점이 아쉽기만 하였다. 해설자에게 문집을 구할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번역 중이라고 하면서 48영에 대한 것은 개울 건너 집에서 책자를 판다고 하기에 구하긴 했으나 원문은 없고 신호열 선생이 번역하고 양재영 선생이 해제한 번역문만 있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정자 난간에 기대어(小亭憑欄)

소쇄원 속 모든 경치

어울려 소쇄정을 이루었네.



눈 높이 들면 상쾌한 바람 불어오고
귀 기울이면 영롱한 소리 들려라.

* 이 시에 나오는 영롱한 소리는 선비의 패옥 부딪치는 소리로 밝은 세상을 염원하며 성군을 기다리는 마음과 뜻 맞는 손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다고 하였다.

개울가에 누운 글방(枕溪文房)
창 밝아 침축이 초출도 하니
그림 글씨 수석에 어려 비치네
들고 남은 밝은 생각에 따르니
절묘한 조화 성현의 덕분이네.

* 이 시는 양산보의 출사와 은거 및 군자의 덕화가 널리 미치고 있음을 노래했다고 하였다.

소쇄원을 나온 우리 일행은 바로 곁에 자리잡고 있는 가사문학관으로 향했다. 소쇄원이 남면 지곡리 123번지이고 가사문학관은 남면 지곡리 319번지이니 바로 소쇄원 입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총부지 5,017평에 건물 650평, 한옥형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웅장한 건물이 우리 앞을 가로 막아섰다.

안내문을 보니 조선시대 한문이 주류를 이루던 때, 가사문학이 크게 발전하여 이서의 낙지가, 송순의 면앙정가, 정철의 성산별곡,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 18편의 가사가 전승되고 있어 담양이 가사문학의 산실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그래서 담양군에서는 이 같은 가사문학 관련 문화 유산의 전승과 보전 및 현대적 계승 발전을 위해 1996년부터 가사문학관 건립을 추진하여 2000년 10월에 완공하였다고 하는데 본관과 부속 건물인 자미정, 세심정, 산방, 토산품점, 전통찻집 등이 늘어서 있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가사문학 관련 채현도 및 유물 5,590여점과 담양권 가사 18편, 송순(宋純 · 1493-1582)의 면앙집(?仰集)과 정철(鄭澈 · 1536-1593)의 송강집(松江集) 및 친필(親筆) 유묵(遺

墨) 등 귀중한 유물들이 있었다. 송순의 대표작인 면앙정가는 무등산의 동쪽 산맥 끝에 자리한 제월봉의 벼랑에 세워진 호남 제일의 누정인 면앙정에서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아름다운 사계절 풍광을 읊은 강호가사(江湖歌辭)이다. 특히 이곳에서 현대가사 작품을 공모하고 있어 지난해에 선정된 「김치가사」란 작품이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가사문학관을 둘러본 후 밖으로 나와 걸어서 10분 거리 광주호숫가 산자락에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는 식영정(息影亭)으로 갔다. 자연석으로 만든 돌계단을 따라 오른쪽 계곡에 있는 부용당을 끼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니 자그마한 정자에 미리 와 있는 사람들이 우릴 맞아 주었다. 담양군의 시도 기념물 제1호인 이 정자는 조선시대 건물로 현재 영일정씨(迎日鄭氏) 문중에서 관리한다고 한다. 이 정자는 원래 서하당 김성원(棲霞堂 金成遠)이 석천 임억령을 위해 지은 것이라 한다. 서하당 김성원은 송강의 처외재당숙으로 송강보다 11년이나 연상이었으나 송강이 성산에 와 있을 때 같이 환벽당에서 공부하던 동문이다. 송강은 이곳 식영정과 환벽당, 송강정 등 성산 일대의 미려한 자연 경관을 벗삼으며 「성산별곡」을 창작한 것이라 하는데 정자 뒤쪽에 성산별곡 시비(詩碑)가 외로이 서 있었다.

이 외에도 담양의 환벽당과 취가정 등 찾아볼 곳이 많았으나 시간이 이미 오후 5시가 넘었기 때문에 뒷날 다시 탐방하기로 하고 모두 차에 올랐다. 시간이 늦더라도 담양 죽세공 박물관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른 계획은 모두 취소하고 아쉬움을 남긴 채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차를 밀양으로 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Ⅱ)

일차 문화유적지 탐방을 마친 후 밀양문화원 주최로 금년에「춘정 변계량 선생의 경륜과 학문」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6월 28일 개최하였다. 그 일환으로 7월 20일 변계량 선생의 유적지를 탐방하기로 하였다.



4대의 관광버스에 분승한 회원들은 여너때와 마찬가지로 들뜬 기분이었으나 장마 기간이라 잔뜩 찌푸린 하늘이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만 같았다. 그래서인지 모두들 우산을 하나씩 챙겨왔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어서 출발하여 향한 곳은 청도군 쪽이었다. 가는 길목에 있는 자계서원에 알묘(謁廟)하기로 하였다. 청도군 이서면 백곡리에 소재한 지방문화재 제83호 사액자계서원(賜額紫溪書院)은 1448년 성종 19년에 탁영 김일손(濯纓金駟孫) 선생이 25세 때 이곳에 운계정사(雲溪精舍)를 세워 수학(修學)한 곳인데, 선생 사후 1518년 중종 13년 4월 15일 장보(章甫)가 운계정사를 자계사(紫溪祠)로 개칭하여 탁영선생을 제향해 왔다.

그 후 1578년 무인 선조 11년 영남사림이 사우(祠宇)를 중수확장(重修擴張)하여 자계서원(紫溪書院)으로 개명하였고, 1615년 을묘 광해 7년에 선생의 조부이신 절효 극일(節孝克一), 장질 삼족당 대유(長侄三足堂大有) 두 선생을 병향(竝享)하게 되었고, 1661년 현종 2년에 사액(賜額)되고, 왕의 치제(致祭)와 많은 토지가 하사(下賜)되어 유림들이 춘추로 봉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미 1871년 고종 8년에 국령(國令)으로 서원이 훼철(毀撤)된 후 1924년甲子에 사림과 자손들의 협의에 의해 탁영선생의 14세손인 참봉 김용희(參奉金容禧)공이 사재(私財)로 복원하였다고 한다. 1967년 청도군수의 지원으로 원정비(院庭碑)와 탁영선생의 신도비(神道碑)가 건립되었고, 1975년에 지방문화재 제83호로 지정되었으며, 1976년 도비 보조 등으로 원외(院外)에 있는 절효선생비각(節孝先生碑閣)을 원내에 이전하였으며, 1978년 유직문(惟直門)의 건립과 서원 전체의 보수 관리 등이 지금까지 정부 당국의 재정 보조로 유지되고 있다 한다.

탁영선생은 17세에 점필재 선생 문하에 취학하여, 23세에 문과와 전시(殿試) 등에 모두 장원하여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를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쳐 춘추관 충청도사(春秋館忠淸道事), 이

조정랑(吏曹正郎) 등의 청요직(淸要職)을 10년 내외에 역임하였다.

재임중 정론직필(正論直筆)과 맡은 소임을 다하였으나 불행히도 1498년 연산군 4년 무오사화로 35세의 젊은 나이에 순절(殉節)하였다. 화를 당하던 날 청천백일(靑天白日)에 천지이변(天地異變)이 생겨 폭풍우가 쏟아지고 선생의 출생지 운계(雲溪) 앞 시내에 핏물이 3일이나 흘러 그 후부터 운계의 동명이 자계(紫溪)로 바뀌어있다고 하는데, 1506년 중종반정에 의해 신원복작(伸冤復爵)과 함께 도승지 이조판서(都承旨 吏曹判書)가 추증(追贈)되고, 그 뒤 문민(文愍)의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알묘를 마친 후 1시간 정도 경내를 둘러본 후 우리 일행은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에 있는 봉양서원으로 향했다. 자계서원에서 20여분이 채 걸리지 않은 거리에 있는 봉양서원은 춘당·춘정(春堂·春亭) 두 선생을 봉향하고 있다. 관광 버스가 들어갈 정도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저수지를 끼고 한참이나 걸어 들어가니 산자락 아래 자리잡은 봉양서원(鳳陽書院)이 나왔다. 십여 명의 밀양변씨 종원들이 대문 앞에서부터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며 서원 경내로 안내해 주었다.

사당인 숭현사(崇賢祠)에 들어서니 영정(影幀) 및 위패(位牌)가 봉안되어 있었고, 손기현 문하원장이 분향한 후 알묘하였다.

춘당 변중량(春堂卞仲良, 1345-1398)은 고려 공민왕 14년 1365년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내외직을 거쳐 밀직사 좌승지(密直司左承旨)에 이르렀으나 고려와 조선의 교체 격변기에 대학자로서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정치적 희생으로 좌절되었다고 하였다. 춘정 선생에 대한 사적은 학술대회 때 저명한 학자들이 발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하는 것은贅言에 지나지 않으리라.

1905년 봉양서당으로 시작한 봉양서원은, 1938년 중건한 후 춘당·춘정 양위를 봉안하였고, 1953년 숭현사(崇賢祠)를 창건하여 두 분 위패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영정은 1998년 4월에 봉안 고



유제를 올렸다고 하는데, 춘당 영정에 나타난 복식은 고려말 연대의 고려 관직인 당상관(堂上官) 정삼품의 관복(官服)이고, 춘정 변계량 선생 영정의 복식은 조선 세종조 연대의 당상관 정이품의 복식이라고 한다.

춘당 선생에 대한 상향축문은 「志矢存社義見衛師正學衛節圃翁一規 사직 지킬 뜻 맹세와 스승 위한 뜻 보이니 바른 학문 높은 지절 포은과 한결같네.」라 되어 있고, 춘정 선생 상향축문은 「??材望笙鏞文章經邦贊化肇煥東方 형제 모두 재망떨쳐 아름다운 문장이니 나라 경영 교화찬조(贊助) 실로 동방을 빛냈다네.」라고 되어 있었다.

12시가 훨씬 지나서야 봉양서원을 나온 우리들은 점심 겸 휴식을 취하기 위해 거창에 있는 농월정(弄月亭) 계곡으로 향했는데 이곳에 도착하니 오후 1시가 훨씬 지나버렸다. 그러나 시인 묵객들이 음풍농월하며 풍월을 즐겼다면 농월정은 몇 년전에 불타 없어져 그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장마철에 불어난 계곡 물만 무심히 흐르고 있었다. 울창한 숲과 괴석들로 가득찬 이곳에서 풍류를 읊던 선현들의 자취는 찾을 길이 없었고, 다만 유원지로 변해버린 계곡가에 뽕뽕이 들어찬 음식점에서 관광객들의 흥겨운 유행가 가락에 맞춰 막춤이 판을 치고 있었다.

여기까지 온 길에 수성대를 둘러 가자는 의견이 많아 오후 3시 가까이 되어서 우리 일행은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에 있는 수승대(搜勝臺)로 향했다. 원래는 백제 사신을 신라로 보낼 때 송별하던 곳이라 하여 수송대(愁送臺)라 부르다가, 1543년 퇴계 이황 선생이 산자수려(山紫水麗)함을 격찬하는 시를 보내온 후에 수승대(搜勝臺)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이 곳 한 쪽에 거창신씨장수지(居昌愼氏藏修地)라고 새긴 큰 돌기둥 안쪽으로 들어가니 재사와 함께 거대한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비석 하나에는 앞면에 산고수장(山高水長)이라는 큰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아마 중국 범중엄(范仲淹)의 「嚴先生祠堂記(엄선생사당기)」에서 「先生之風山高水長」이란 말에서 인용한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물어볼 곳이 없어 그냥 지나쳐 버렸다.

계곡 쪽으로 나오니 기암괴석이 마치 조물주가 꾸며 놓은 듯 아름답기만 한데 바위 군데군데 명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아름다운 시구절도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예부터 이곳의 명승을 찾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광장 쪽으로 나오니 7월말부터 시작되는 국제연극제 준비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무대와 조명시설을 설치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들은 여기서 1시간 이상 머물다가 5시가 조금 지나서야 합천으로 향할 수 있었다. 장맛비가 가끔씩 내리는 가운데 밀양변씨 시조 사당이 있는 합천군 초계면에 이르니 안내자가 없어 바깥에서 쳐다만 보았다.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새 목재로 지은 본채와 동서재가 우리를 압도하는 듯했고, 그 뒤쪽에 초계변씨 시조휘정실(草溪卞氏始祖諱庭實)공의 사당이 자리잡고 있었으나 안내자가 없어 알모할 수도 없었다. 대문 밖에는 변씨 시조에서부터 현조(顯祖)들의 사적(事蹟)을 새긴 대여섯 개의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밀양 변씨는 본관이 원래 초계(草溪)였으나 시조의 증손 변고적(卞高迪)공이 1140년 고려 인종18년경 밀양 구령리에 전거한 후 본관을 밀양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후 1570년 선조 3년경까지 약 4백 수십년간 세거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구령리 통암산 중허리에 춘정 선생의 선친 변옥란(卞玉蘭)공까지 밀양 변씨 선대 6위의 제단을 수년 전에 설치하였고, 신흥리 대구말(新湖里大龜末)에는 1944년에 건립하여 경남 문화재 자료 27호인 밀양변씨삼현유허비각(密陽卞氏三賢遺墟碑閣)이 있다.

우리 일행은 시간이 너무 늦어 후일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춘정선생을 추모하는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모두 차에 올랐다.

(2006년 7월 20일)

우리의 고유문화는 외국의 어떤 문화보다도 절대 우민(優敏)하다

영남의 유학과 인맥

嶺 南 儒 學 人 脈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 우리나라의 유학(儒學)의 뿌리는 깊고 멀다. 멀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가깝게는 오늘날까지 그 뿌리가 깊게 박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 못할 것이다. 서구문화에 밀려 우리의 전통문화가 날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실앞에 아직도 유학은 도덕적 보류요, 방패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이 있듯이 옛날것은 모두가 고루하다고 몰아 부치기에 앞서 공과(功過)의 시비(是非)를 떠나서 현대적 시각(視覺)으로 살펴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다소나마 참견이 될런지 영남의 유맥(儒脈)을 찾아 엮어 본다.

영남은 멀리 통일신라시대부터 한문학(漢文學)의 시조인 최치원(崔致遠)과 유학의 원조 설총(薛聰)에서 비롯된 후 고려의 최충(崔沖), 김부식(金富軾), 안향(安珦), 이제현(李齊賢), 정몽주(鄭夢周), 이승인(李崇仁) 등에 이어 진다.

설총(薛聰)은 고승(高僧)인 원효대사(元曉大師)의 아들로써 유학자가 되었고 정몽주는 성리학의 태두로서 불교를 멀리하고 최초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실천하였다. 이조조(李朝朝)에 들어 고려조(高麗朝)에 수절한 길재(吉再)는 향리인 선산(善山)에 돌아가서 은거하여 학문에 전력하는 동시에 인재육성에 정열을 다하였고 이 결과 영남사림의 연원(淵源)을 이루었고 이 계열에서 사육신(死六臣)과 생육신(生六臣)같은 충절지사(忠節志士)가 배출 되기도했다.

이씨왕조(李氏王朝)가 건설되면서 유학이 국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형성은 필연적이었고 지배세력이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그

인사들은 대부분이 유학자들이였기 때문에 고려국교인 불교는 배척되고 새로운 통치수단으로서 유교를 권장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때마침 이조가 들어설 무렵을 전후해서 원나라와 명나라로부터 유학 특히 주자의 성리학(性理學)이 전래됨에 수신지학(修身之學)으로 학자간에 인기가 높아 선호하였다.

그러나 신왕조(新王朝)가 건설된 후 성리학을 같이하는 유학자들이 크게 양입되는 비운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 하나는 신왕조 건설에 적극가담한 정도전(鄭道傳) 권근(權近)을 중심으로한 개국공신(開國功臣)이며 다른 하나는 고려왕통(高麗王統)을 고수하려는 정몽주 이색 길재 등 유명한 충절학자 들이다. 개국 공신들은 성리학의 수신치국(修身治國)의 논리를 내세워 신왕조 건설에 앞장섰기 때문에 관학이라 하고 정몽주를 비롯한 충절과는 성리학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忠節)을 지켰다하여 절의파(節義派)로 지칭되어 사학의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정도전(鄭道傳), 권근(權近), 하륜(河崙), 변계량(卞季良) 등 재건관료와 성균관내지 집현전으로 이어지는 관학계통의 학자들은 세조의 등극을 전후하여 득세한 훈구파(勳口派) 학자들도 뚜렷한 학파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단순한 정치적 양입보다 그 시대의 상황과 끼친 공과의 평가 하기전에 철학적 의문(疑問)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후세의 사학가(史學家)는 중요시 할 일이다. 유학 특히 성리학은 첫 수용 단계부터 분열될만한 숙명적 씨앗을 잉태되었던 것 같다. 이 숙명의 씨앗이 순수 학문상의 논쟁으로 전개될때 비약적인 성리학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나 피비린내 나는 참화로 불리 일으키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충절(忠節)을 지킨 정몽주의 학풍(學風)은 길재(吉再)로 이어져 사학(私學)의 기틀을 형성하면서 드디어 김숙자(金叔滋), 김종직(金宗直) 부자에게 계승되어 사림의 우뚝한 학맥의 줄기를 이루었다. 그 문화에서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김일손(金駟孫) 같은 대학자의 출현으로 사림세(士林勢)는 영남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장되어 갔다.

영남학파가 서서히 중앙정계로 진출하자 기성관료 세력인 훈구파에 의해 무오, 갑자, 을묘, 을사와 같은 사화가 유발되고 가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더욱 문풍을 진작시키고 사림세는 꾸준히 자기 성장을 계속하여 조광조(趙光祖), 김안국(金安國)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다. 같은 사림계열의 이언적(李彦迪)과 김안국(金安國)의 기반에서 한국 대표적학자 이황(李滉)이 나타나 거대한 학파의 거봉 영남 학파를 주도하게 된다. 유학의 계보를 보면 손소(孫昭), 손중돈(孫仲墩)의 계열에서 이언적(李彦迪)이 나오고 권발(權撥), 이현보(李賢輔)등 경상좌도(慶尙左道)

의 기반에서 이황(李滉)이 출기했고 정여창(鄭汝昌), 김굉필(金宏弼), 김일손(金駟孫) 등의 학문적 전통에서 경상우도(慶尙右道)에서 조식(曹植)이 났다. 영남학파란 용어를 가장 뚜렷하게 붙일수 있는 시기는 이퇴계(李退溪)와 이율곡(李栗谷)의 등장 이후부터다.

서양사상 가장 위대한 「프라톤」의 위치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무게인 이퇴계(李退溪)와 이율곡(李栗谷)의 성리학에 관한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이기론쟁(理氣論爭)이 영남학과와 기호(畿湖)학과를 대별시켰다. 칠년간 계속된 이 논쟁의 발단은 이퇴계(李退溪)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대하여 그의 문인 기고봉(奇高峰)이 이기공발설(理氣共發說)을 주장하여 퇴계와 고봉(高峰)사이에 오랫동안 논쟁한데서 이율곡이 기발일도설(氣發一途說)을 여기에 가담하자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 당시 사림은 주의(主義) 주장에 따라 영남과 기호로 자연히 양입 될수 있는 것은 지역적 특수성과 사우(師友)관계와 인맥으로 기인함이라 하겠다.

이기(理氣)와 사단칠정(四端七情)의 논쟁은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건전한 학문적인 의견개진(意見開進)으로서 우리나라 학술사상 그 유래 없는 장관이었다. 이 덕분에 우리의 성리학은 눈부신 발전을 하여 중국의 주자학을 능가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기도 하다. 이 이기는 쟁과 사단칠정은 그 후 유가(儒家)로서 논변에 언급을 하지아니한 사람이 없을정도로 철학상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 학파를 따라 견해를 달리하는 급기야 당쟁과도 뗄수없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영남학과는 이퇴계의 이기발수설(理氣發隨說)인 주이론(主理論)을 지지했고 기호학과는 이율곡의 기발이승설(氣發理乘說)인 주기론(主氣論)

을 견지했다. 여기에 리(理)는 현대의 철학술어로 이성(理性)이며 기(氣)는 감성일 것이다. 또 기호학과가 정계진출에 여념이없는 반면 영남학파의 인사들은 학문적인 면에 치중했다.

결국은 전유림(全儒林)이 가담한 조선조 중기 이후에 풍미한 이기논쟁은 성리학의 비약적 발전을 가졌으나 더 이상의 이론적 발전은 보지 못하고 공리공론(空理空論)에 빠진 폐단이 생기고 주의(主義) 주장에 따른 사색당쟁(四色黨爭)과 결부되어 조선조의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했다는 비판도 많이 따른다. 그러던 것이 정치적으로 학파와 문벌의 차이와 노소 신구(新舊)의 출(出)로 동인 서인의 두당으로 나누어졌다. 대체로 동인은 영남학파 속에서 학자가 주류를 이루었고 서인은 거의 기호학과와 관계를 이루었다. 그 후 동인은 남인, 북인으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다시 분파되어 대립 반복하였다. 한편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입신양명(立身揚名) 하는것보다 고향의 한적한 곳을 찾아 학문에 힘쓰는 경향이 높은 영남학파는 두줄기로 흐름이 있었다. 이황과 조식은 1501년생으로 동갑이다. 이 두 사람의 출생 생애 성격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황은 경상우도 안동이고, 조식은 경상우도의 함천에서 나 김해 산청등지에서 살았다. 학문과 도학 교육자로 당대에 쌍벽을 이루었다. 이황의 문하에서는 유성룡(柳成龍), 김성일(金誠一), 정구(鄭述) 등 그 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가 출현하고 그 뒤를 정경세(鄭經世), 이현일(李玄逸), 장현광(張顯光)이 잇따라 등장하여 퇴계학맥의 영남학파가 성립되었다.

조식의 학통은 오건(吳健), 최영경(崔永慶), 하황(河沆), 김우옹(金于顙) 등에 의해 학맥이 이어졌으나 정인홍(鄭仁弘)이 인조반정으로 몰락

되면서 학통이 붕괴되었다. 영남학파는 다양한 학맥으로 구성되어 주로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지역에 따라 영남북부 중부권 남부권으로 구별된다. 북부권은 안동과 상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안동권에는 김성일(金誠一), 장흥효(張興孝), 이현일(李玄逸), 이재(李裁), 이상정(李象靖), 남한조(南漢朝), 유치명(柳致明), 김흥낙(金興洛), 유필영(柳必永)으로 이어지는 계보로 찾아볼 수 있다. 이 안동권의 학맥이 확실하게 정립된 것은 이현일(李玄逸)에 이르러서다. 상주권을 구분하면 유성룡(柳成龍), 정경세(鄭經世), 유진(柳珍) 등으로 계승되는 학맥이 형성된다. 영남의 중부지방에서는 인동 장현광(仁同張顯光) 계열과 성주의 정구 계열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퇴계의 학설에 순수하게 집착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학설학풍을 수립한 특징이 있다. 장현광(張顯光)은 성리학설에서 이황과 이이의 학설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학설을 제시했다.

정구는 이황과 조식의 두 문화에서 수학했고 그의 제자는 영남보다는 남인학자 쪽으로 발전했다. 즉 허목(許穆) 이익(李翼)으로 이어지는 계보이다.

19세기 성주지방에서 성리학자로서 활동한 분은 이진상(李震相), 이승희(李承熙), 곽종석(郭鐘錫)으로 이어지고 19세기 후반에는 호남의 기정진(奇正鎭)의 학맥을 잇는 노사(蘆沙)학과와 같은 호남의 전우(田愚)를 추종하는 간재학과에 속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기도 했다.

조식(曹植)은 평생을 지리산에 은거하여 정치현실을 준엄하게 비판을 아끼지 않는 야인이었으며 열 두 차례나 천거에도 불응한 외골수였다. 이황은 십여차례의 중앙정계의 출사하였으나 마음은 언제나 학문과 자연에 있었다. 이황은 군신

관계를 중시하여 출사를 긍정하였으며 조식은 제왕으로부터도 선비는 자유로울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성격적으로 이황은 아랫사람의 허물도 감싸주고 옳은 말로 설득을 하는 조화주의자 였는가하며 조식은 선현의 허물까지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용납하지 않는 직설적인 비판가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황이 충실한 정주학(程朱學), 성리학(性理學)의 후계자이자 대성자(大聖者)의 적통자로 성인군자형(聖人君子形)인 반면 조식은 어릴때부터 사서오경은 물론 천문(天文), 병법(兵法), 고문(古文), 노장자학문(老莊子學門)까지 섭렵한 처사형이다. 따라서 실천적 원시 유가의 풍이 있었는데 비해 이황은 성리학의 관논의 지지한 학자였다. 이황은 해동(우리나라)의 주자답게 주리론을 첩예화 시켰는가 하며 조식은 주리론과 주기론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였다.

그의 가르침은 경(敬)과 의(義)이고 학자는 아는데 그치지 않고 아는것을 실천해 옮겨야 한다는 실천철학이다. 즉 반궁체험(反窮體驗), 지경실행(指敬實行)이다. 이와 같이 영남학파의 이대지주(二大支柱)인 이황과 조식이 처세적 차이는 그 이후 영남학맥에 지대한 영향을 가했고 이황이 그 인맥이 중세유가(中世儒家)의 보편적 인격 완성을 추구했다면 조식과 그의 문인은 임진왜란의 의병항쟁과 구한말 척사위정의 정신을 태동시켰다.

이러한 인걸들과 멀쩡하게 관련된 유학은 사색당쟁에서 빚어진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난을 만났을 때마다 보여준 높은 기개와 충절을 오늘에도 그 빛이 찬연하다.

한편 사림의 참상을 목도한 일부학자들은 정계진출을 꺼려 산림에 은거하여 학문연구에 몰두하고 기풍이 일어났다. 성리학적 학맥에 관계

없이 독자적인 유학에 공론공리에 빠져 조선조 오백년을 통한 불치의 고질이 되자 일부 유학들은 민생을 바탕으로 한 실학구시(實學求是), 이용후생(利用厚生)의 학맥의 혁기적인 인륜도덕(人倫道德)에 이르러선 유학이 시사하는 가치관은 현대인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튼 조선 유학의 특징은 일찌기 한반도의 문화형성에 있어서 정신적 일익을 담당하여 오는 동시에 벌써 중앙집권의 정치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지도이념의 구실로 하여 왔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하여 유학의 참된 면목을 한국에 찾을 수 있다고 규정(規定)하고 유학을 보다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철저히 전개시켜 강인한 실천 윤리까지 고양시키지 못하였던 것이 통탄할 지경이다. 장차 한국에 새로운 어떤 사상이 생겨난다해도 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대견없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믿는다. 요컨대 유학이 문약하고 근대화 가정에서 뒤지는 원인이었다는 비판이 없지않으나 가족제도 경로사상 상례된 생활양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서도 안될 일이다. 유학의 인본주의와 자연애호사상(自然愛護思想)을 현재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도덕타락과 물질만능 풍조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믿어진다. 외래문화에 밀려 우리의 전통문화가 날로 퇴색되고 있는 현실일지라도 숭조애종(崇祖愛宗)의 사상과 사제의례(祀祭儀禮)의 우리의 고유문화는 외국의 어떤 문화보다도 절대 우민(優敏)하다는 것을 자부하며 또 영원히 지속되기를 확신하고 기원하면서.....

류종수

계사정공 15대손 25세/경남합천 가호출신
동양화가/세계미술문화교류협회 한국이사/대중회장



여래장과 화엄은 원효사상의 중심을 이룬다

원효사상 엿보기

원효(元曉, 617~686)는 전 불교사, 특히 대승불교¹⁾를 통하여 화엄과 여래장 계통의 불전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그리고 주창한 사람이다. 원효는 중국에서 종파적 편견을 가지고 전개해 오던 불교의 사상체계를 바로 세웠으며 그는 종래의 종파주의를 지양하고 화쟁(和諍)의 입장에 섰다.

즉, 그는 교(敎)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그 특징을 밝히는 가운데 교로서 최고의 경지를 나타내는 것을 화엄사상 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 화엄의 철학에 입각하여 보살로서의 인간의 참다운 수행의 길을 밝히는 것이 바로 여래장불교(如來藏佛教)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화엄(華嚴)과 여래장(如來藏)²⁾ 사상은 모두 다 일승(一乘)으로 통한다고 보았다. 일승은 대립이 없는 원융회통(圓融會通)과 화쟁(和諍)의 주체인 우리의 진여(眞如)한 마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화엄을 일승만교(一乘滿敎)라고 하고 여래장을 일승분교(一乘分敎)라 하였다.

1) 대승佛教(Mahayana): 대승의 교리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종파(宗派)의 총칭. 삼론종(三論宗)·법상종(法相宗)·화엄종(華嚴宗)·천태종(天台宗)·진언종(眞言宗)·율종(律宗)·선종(禪宗) 등이 이에 속한다. 석가 입멸(入滅) 후 500년경(BC 100년?) 인도에서 일어난 새로운 불교운동은 그때까지 여러 파로 갈라져 자파(自派)의 주장만이 최상의 것이라고 고집하여 온 불교의 자세를 맹렬히 비판하고, 재래불교를 소승(小乘: Hinayana)이라 폄하(貶下)하는 한편, 대승이라고 칭하면서 이타적(利他的)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대승'의 어원은 큰(maha) 수레(yana), 즉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태우는 큰 수레라는 뜻으로, 일체중생(一切衆生)의 제도(濟度)를 그 목표로 하였다. 이 운동은 종래에 출가자(出家者: 승려)만의 종교였던 불교를 널리 민중에게까지 개방하려는 재가자(在家者)를 포함한 진보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불교 유적인 스투파(stupa: 墳墓)를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새로운 불교운동은 그때까지 석가에게만 한정하던 보살(菩薩)이라는 개념을 넓혀 일체중생의 성불(成佛)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일체중생을 모두 보살로 보고, 자기만의 구제보다는 이타(利他)를 지향하는 보살의 역할을 그 이상(理想)으로 삼고 광범위한 종교활동을 펴 나갔다. 이 불교운동의 전거(典據)로는 대승불교의 경전이 속속 이루어진 데 있었다. 먼저 《반야경(般若經)》이 나왔다. '공(空)'의 사상을 강조하는 《반야경》은 종래의 고정관념을 타파함과 동시에, 일체의 집착(執着)으로부터의 해탈(解脫)을 실천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어 일체를 포함하여 '일승(一乘)'을 교설(敎說)하고 구원(久遠)의 본불(本佛)을 세우는 《법화경(法華經)》, 광대한 불타[毘盧遮那佛]의 세계를 교설하는 《화엄경(華嚴經)》, 재가거사(在家居士)인 유마(維摩)가 오히려 출가자(出家者)를 교설하는 《유마경(維摩經)》, 서방정토(西方淨土) 아미타불(阿彌陀佛)의 세계를 찬탄하며 일체중생의 구제를 약속하는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 등이 이루어져 종래의 불교를 일신하는 이 새로운 불교운동을 뒷받침하였다. 이 경전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 대승이 불교의 중심세력이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거니와, 2~3세기에는 용수(龍樹)가 출현하여 이 대승불교의 사상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그는 여래장불교의 기초와 그 사상을 가장 잘 정리한 문헌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으로 보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대승기신론을 가장 중시하였고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가하였다.³⁾

허공장경(虛空藏經)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⁴⁾

“대승(大乘)이란 것은 무량(無量)· 무변(無邊)· 무애(無崖)하기 때문에 …허공과 같고 모든 중생을 포용하리 만큼 광대하기 때문에… 대승이라고 한다.

승(乘)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사섭법(四攝法)⁵⁾을 바로 믿는 것을 수레바퀴로 삼고 십선업(十善業)⁶⁾을 잘 행하는 것을 바퀴 살로 하고 …공덕과 자량(資糧)을 속바퀴로 하고, 견고하고 순박한 마음과 한결같은 의지를 수레에 바퀴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삼고… 사무량심(四無量心)⁷⁾을 멍에 채를 메운 소로 삼고 선지식(禪知識)을 수레부리는 사람으로 삼는다. 그리고 때와 때 아님을 아는 것을 이 수레가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무상(無常)· 고(苦)· 공(空)· 무아의 소리를 내며 수레는 [피안을 향하여] 달려간다.

원효가 가장 중시한 대승기신론의 대명제인 “심진여(心眞如)는 곧 일법계(一法界) 대총상법문(大總相法門)의 체(體)이다”(心眞如者卽是一法界大總相法門體)를 해석하면서 그는 즉시일법계(卽是一法界)라고 한 것은 진여문(眞如門)을 들어 소이(所依)의 체(體)로 한다는 말로 일심(一心)이 곧 일법계(一法界)라고 정의하고 있다.⁸⁾

일심(一心), 대승(大乘), 일법계(一法界)는 불도(佛道)와 함께 동의어로서 그 뜻의 용례를 원효의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에서 살펴보자.

이어 일체중생에 불성(佛性)을 인정하는 여래장(如來藏)을 교설한 《승만경(勝鬘經)》 등의 경전이 이루어졌고, 또한 일체를 마음의 흐름에 응집(凝集)시키는 유식(唯識)사상의 대두에 이어 5~6세기에는 불교논리학인 《인명(因明)》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대승불교 초기부터 일반민중의 교화를 위해 만들어진 《다라니(陀羅尼)》를 외우고 주법(呪法)을 교설하는 밀교(密敎)가 성하여 7세기 이후 불교활동의 중심이 되었는데, 밀교는 ‘대승’ 보다는 ‘금강승(金剛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대승불교는 한(漢)나라 때 중국으로 건너가 몽골·티베트·한국·일본 등 이른바 북방불교(北方佛敎)의 주류를 이루었다. 한국에는 고구려 문자왕(文咨王:재위 491~518) 때 용수(龍樹)의 《중관론(中觀論)》등 삼론(三論)을 비롯한 천태(天台), 열반(涅槃) 등의 교법이 들어와 대승불교에 대한 연구 및 교화가 활발하였다. 또한 길장(吉藏)은 삼론을 바탕으로 삼론종(三論宗)을 개종(開宗)하는 등 한국에서의 대승불교는 마침내 독자적인 노력에 힘입어 발전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 2) 一切의 衆生이 그 본성은 맑고 깨끗한 부처의 마음, 佛性,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 바탕을 갖고 있다. 如來가 될 씨요 알[藏]이다라는 사상이다.
- 3) 이기영, 한국의 불교사상(서울: 삼성출판사, 1989) 18.
- 4) 이기영, 한국의 불교사상(서울: 삼성출판사, 1989) 56.
- 5) 중생을 포섭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 布施, 愛語, 利行, 同事攝
- 6) 不殺生, 不飡肉, 不邪淫, 不忘語, 不兩舌, 不惡口, 不綺語, 不貪慾. 不瞋桂, 不邪見
- 7) 중생을 대하는 네 가지 마음가짐. 慈·悲·喜·捨
- 8) 法界라는 말은 전체의 구성원, 구성 부분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 부분들이 구성하는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전체적 구성을 통일적, 유기적인 것으로 만드는 근본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法界는 法身의 동의어이며 또는 一心의 동의어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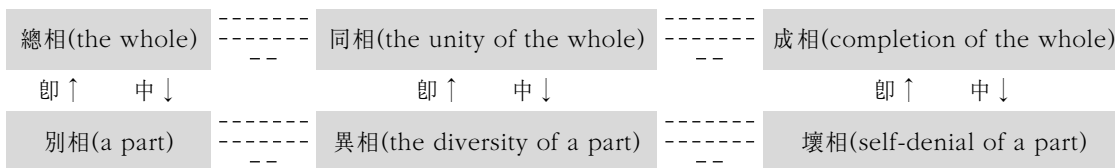
夫一心之源 離有無而獨淨
三空之海 融眞俗而湛然
湛然 融二而不一
獨淨 離邊而非中
非中而離邊故
不有之法 不卽住無
不無之相 不卽住有
不一而融二故
非眞之事 未始爲俗
非俗之理 未始爲眞也
融二而 不一故
眞俗之性 無所不立
染淨之相 莫不備焉
離邊而非中故
有無之法 無所不作
是非之義 莫不周焉
尔乃 無破而無不破
無立而無不立
可謂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矣

무릇 마음(一心)의 뿌리(根源)는 유무(有無)를 떠나 홀로 깨끗하고(獨淨)
삼공(三空)의 바다는 진속(眞俗)을 품어 담연(湛然)하다.
담연(湛然)하니 둘을 다 품었지만 하나가 아니고
독정(獨淨)하니 변(邊)을 다 떠났지만 중간이 아니다.
중간(中間)이 아니면서 변(邊)을 떠났으므로
유(有) 아닌 법(法)이 곧 무(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요
무(無) 아닌 상(相)이 곧 유(有)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하나가 아니면서 둘을 다 품었으므로
진(眞) 아닌 사(事)가 이제俗이된 것이 아니고
속(俗) 아닌 이(理)가 이제 진(眞)이 된 것도 아니다.
둘을 품었으나 하나가 아니므로
진(眞)과 속(俗)의 성(性)이 서지 못함이 없고
염(染)과 정(淨)의 상(相)이 갖춰지지 않음이 없다.
변(邊)을 떠났으나 중간(中間)이 아니므로
유(有)와 무(無)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고
시(是)와 비(非)의 의(義)가 해당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파(破)함이 없지만 파(破)하지 못함이 없고
입(立)함이 없지만 입(立)하지 못함이 없다.
가(可)히 이(理) 아닌 지리(至理)요이다.⁹⁾
연(然) 아닌 대연(大然)이라 할 것

위 인용문에는 “하나”의 의미가 정의되고 있다. 유무(有·無)를 초월해 홀로 맑은 것(獨淨), 진속(眞·俗)을 다 품어 담연(湛然: 넉넉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인간의 고요한 마음, 대자연 그 자체이다. 샘[源]과 바다[海]의 비유, 이 둘은 물이라는 하나의 근본 성질이다. 독정(獨淨)의 경지는 유무(有·無)의 대립을 넘어선 유무(有·無)의 성립의 근거인 체(體)이며, 나아가 담연(湛然)이란 경지, 곧 진속(眞·俗)을 모두 특징지우며 가치 있게 하는 상용(相·用)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즉, 일심지원(一心之源)이란 바로 인간 자체이며, 인간의 주체는 마음[一心]이다. 진여(眞如:如來)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씨알[藏]을 가진 것이 인간[如來藏]이다. 인간이 탄 수레(大乘, 一乘)이나 이것이 모습[相]과 쓰임[用]으로 나타날 때는 둘의 대립 방향으로 분산된다. 하나가 아닌 것이 둘을 품었고 둘을 품었으나 하나가 아닌(不一而融二故, 融二而 不一故) 세계(一法界) 속의 주체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9) 이기영, 원효사상연구I(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94) 568.

華嚴經(화엄경)에는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고 전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즉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이다(一中一切一切中一 一卽一切一切卽一)”로 대표되는 법계무애연기(法界無碍緣起)의 사상이 있다. 화엄경은 인간을 우주자연의 법계(法界)의 한 구성분자로 보며 다른 구성분자들과 더불어 분리할 수 없는 시간적 공간적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우주 전체를 부처로 보아야 한다는 깊고 포괄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이 부처이고 부처는 복수이자 단수이다. 육상(六相)의 도리는 화엄경 전편에 흐르는 일관된 사상이다. 그것은 총별(總·別), 동이(同·異), 성괴(成·壞)이며 이는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고 전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즉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이다(一中一切一切中一 一卽一切一切卽一)”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도리는 다수의 개별적 존재로 구성된 한 전체의 유기적 관계를 의미한다. 총동성(總·同·成)이라는 세 가지 모양(三相)은 통일성(統一性), 동질성(同質性), 완전성(完全性)의 모습이고 별이괴(別·異·壞)의 세 가지 모양(三相)은 위의 세 가지 모양(三相)과 각각 대립 항에 있는 것으로서 개별성(個別性), 특이성(特異性), 자족성(自足性)의 양상(樣相:phase)들이다. 이것을 도표로 표시해 보자.



총상(總相)은 전체의 상, 동상(同相)은 그 전체가 하나의 동질성을 이룬 것, 성상(成相)이란 그 전체가 하나로 완성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별상(別相)이란 전체의 부분 하나하나, 이상(異相)이란 그 하나하나가 특이성을 가졌으며 괴상(壞相)은 그 별개의 특이한 부분들이 전체의 완성을 위해 스스로를 포기함을 뜻한다. 여기 기와집이 있다고 하자. 그 전체를 총상(總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전체는 기와, 기둥 등 수많은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개별적인 부분이 별상(別相)이다. 총상과 별상은 기와집 하나를 두고 드러내는 두 가지 모습이다. 이는 총중별(總中別)이며 별중총(別中總)이다. 다시 말하면 총즉별(總卽別)이며 별즉총(別卽總)이다. 그리고 총(總)은 그 집 전체이므로 하나[一]이며 별(別)은 부분의 총합이므로 일체(一切)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바꾸어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고 전체 가운데 하나가 있다. 즉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이다(一中一切一切中一, 一卽一切一切卽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래장과 화엄은 원효사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류석형
진천군파 대암공 16대손/상주무릉출신
덕성여대 교무처장/분회 감사



장 충 사

長 忠 祠



장충사(長忠祠) 전경



前 회장 류 은 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은 항상 어렵고 남이 한 일은 쉽게들 생각한다. 우리들은 나혼자로 사는 세상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살다보면 남이 한 일에 대해 예사롭게 잘잘못을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중에서 특히 조상을 모시고 종친들을 위하여 종사(宗事)를 책임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를 우리는 보아 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속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자신에 대한 무욕(無慾)의 마음으로 오직 종친을 위하여 남달리 종사(宗事)에 헌신(獻身)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판서공파 진사공(諱. 秀芳) 문중을 이끌고 있는 판서공(判書公) 18대손 은수(殷秀) 종인이시고 그의 뜻에 따라 온 문중일족(門中一族)이 승조하는 마음으로 화합하고 있어 타 문중에서 감히 하지 못 하는일을 이룩 하였기에 우리 자손에게 소개하는 바이다.

어느 성씨 문중이던 조상이 남긴 재산 처분을 두고 뜻을 달리하여 이것이 분쟁으로 연결되어 일족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예를 보아 온 것과는 달리 여기 이분들은 조상에게 물려 받은 재산을 한 푼도 다른 곳에 쓰심이 없이 오로지 조상(祖上)을 위하는 일에 하나 된 마음으로 충북 제천시 연박리에 7천여 평의 토지와 고찰을 매입하여 여타 작은택 서령공 소문중의 협조를 얻어 고찰을 개, 보수 리모델링하여 장충사(長忠祠)(을유보, 1권121쪽 참조)라 명명(命名)하고 현관을 달아 판서공 이하 9위를 모신 사당으로 선조님들을 봉향하고 있으며 나아가 6천여 평의 과수원 후원에는 10대 조이하 4대조까지의 선대묘역을 조성하여 상하 나란히 모심으로서 어느 문중에서나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경사중에 경사인 큰 일을 하신 분이다.

어찌보면 쉬운 일 같지만 이분들보다 많은 종재를 지녔음에도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문중을 볼 때 가히 본받아야 될 일이 아니랴? 그러는 중에 이분들은 인천시내 복판에 비록 크지는 않으나 아담한 빌딩을 매입하여 매년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전 종친의 자녀분에게 한사람도 빠짐없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우리 柳門의 귀감(龜鑑)이라 하겠기에 이번 19호 회보에 실어 찬사와 함께 자랑하여야 할 일이다.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는 훌륭한 지도력이 있어야 하는 법... 여기서도 예외가 있을 수 없으니 조상에서 물려 받은 종재에 대하여 이분인들 어찌 욕심이 없었을까?

이를 스스로 마다하고 이러한 거룩한 일을 이룩 하였기에 앞으로 이러한 공적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그 참 뜻을 기리기 위해서 판서공과 자손의 이름으로 장춘사 앞뜰 일우(一隅)에 이분의 송덕비(頌德碑)가 세워져 있으니(을유보1권 121p, 4권 1590p 참조) 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조상을 모시면서 종원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모범이 되리라 생각한다.

혹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송덕비(頌德碑)나 하지만 산 사람에게도 예나 지금이나 송덕비(頌德碑)가 전국에 많이 있다. 우리는 보수를 사랑하는 예의(禮儀)바른 문중이다. 설혹 송덕비를 사후에 세우는 것이 내려오는 관습이라 고집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구(守舊)이지 보수는 아니라 생각한다. 保守란 옛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항상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송덕비(頌德碑)를 세워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의 공적을 알리고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세워진 것이라면 생전에 세운들 무슨 상관이나? 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

우리 여러 문중에서도 이런 분 같이 좋은 일 많이 하여 제2, 제3의 송덕비가 자주 살아생전 이곳 저곳에 세워줄 수 있는 종친이 우리 류문에서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란다. 「편집위원 정득」



송덕비



사두혈(蛇頭穴)의 묘자리로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한 계참판공(陽植)의 묘

사두혈(蛇頭穴)은 명당

계참판공 묘지의 유래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산 26번지 고삼 저수지 향림마을 뒤편에는 매를 연상케 하는 노봉산이 있고 그 줄기가 구부러져 흘러 내려오다 고삼 저수지로 뻗어 들어가 우뚝 솟은 한쪽의 수림은 영락없이 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뱀의 머리에 묘가 하나 있는데 조선조 세종때 호조참판을 지낸 10세조 계참판공(휘 양식;陽植)의 묘소이다.

고려말 상장군 진강부원군(휘 정;挺)의 9대손인 참판공께서 하세하자 아들 3형제는 장례를 지내기 위하여 지관과 함께 진주 선산으로 내려가던중 날이 저물어 손자 며느리의 친정인 청주 한씨가 모여 살고 있는 현재의 향림마을에서 잠시 쉬게 되었는데 마침 사돈집에서도 묘터를 미리

마련하기 위하여 산을 파고 있었다. 동행한 지관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켜보던 중 지관이 무릎을 탁치며 “내 일평생 이렇게 명당인 묘자리는 처음 보았구나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니 누구던 여기에 묘를 쓰면 대대손손 크게 번창하고 몇 대 후에 이곳에 물이 잠기면 용(龍)이 승천하니 이렇게 좋은 명당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지관의 말에 귀가 솔깃한 큰 아들은 생각 끝에 큰며느리 한씨에게 말하기를 시할아버지를 진주 선영에 모시려 하였으나 위낙 길도 멀고 성묘하기도 어려우니 아버님께 말씀드려 사돈댁 선산에 모셨으며 한다는 청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호히 거절당한 상주 일행은 단념하고 진주로 떠났으며 친정에 남아 있던 며느리는 한

가지 묘안을 찾았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던 머느리는 낮에 파놓은 묘자리에 물을 길어다 부었던 것이다. 다음날 날이 밝자 광분을 손질하기 위해 묘에 올라갔던 한씨 집안 사람들은 명당으로 여겼던 광분 안에 물이 가득차 있자 모두들 놀라고 말았다.

한씨 집안에서 묘를 쓰지 않기로 했다는 전갈을 받고 되돌아온 상주들은 아버지의 묘를 쓰기 위해 곧바로 땅을 파기 시작하였으나 난데없는 바위가 나오자 지관이 말하기를 저 바위는 예사로운 바위가 아니며 사두혈(蛇頭穴)로서 바위 위에 시신을 모시면 크게 번창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유복하고 번창한다 하더라도 바위 위에 부친의 시신을 모실 수 없다는 상주들의 반발로 석공을 시켜 바위를 들어 내려던 순간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일진광풍이 몰아치며 바위속의 수정 같은 맑은 물에서 봉어 한 마리가 튀어나와 펄펄뛰었던 것이다. 참판공의 묘는 지관의 말대로 명당자리가 틀림 없었던 것이었다.

그 후 아들 3형제와 사위들은 장원급제 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으며 자손 대대로 크게 번창하였다. 1831년에 세워진 공의 신도비가 있으며 3남 3녀를 두었는데 장남(휘 자빈; 自濱)은 문과에 장원하여 의정부 사인(舍人)을 지냈으며, 차남(휘 자분; 自汾) 역시 전첨사인이요, 셋째(휘 자한; 自漢) 또한 문과 장원으로 사인을 거쳐 전한(典翰) 종3품에 이르고 만사위 김수(金脩)는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정2품이요 둘째사위는 광주 김겸광(金謙光)으로 역시 장원하여 사인 참찬 정2품으로 광성군(光城君)에 봉해졌고 막내사위인 영월 신중거(申仲矩)도 사인 벼슬을 하였으니 주위 사람들이 이르기를 삼장원(三壯元) 오사인(五舍人) 집안이라고 칭송하였고 부러워 하였다. 이는 서사가정필담(棲四佳亭筆談)에 실려 있다 합니다.

공께서 별세하자 세아드님이 묘하에 움막을 짓고 죽을 먹으면서 3년 시묘(侍墓)를 하니 사람들이 감탄하여 그 고을을 거려동(居廬洞)이라 부르고 그 움막이 있던 한 모퉁이를 사인우(舍人隅)라 했다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계참판공파의 자손들도 서울, 경기 안성, 평택, 화성, 용인, 청주, 이천, 강화, 황해도 금천, 평산, 신천 일대에 산거해 왔는데 약 2300세대 정도입니다.

계참판공파 후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묘지 주변 웅벽, 울타리, 정문 공사비는 1996년, 1997년, 2002년 3차에 걸쳐 지원금 1억원을 경기도비 및 안성시로부터 지원받아 준공 되었고 이 공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천형(당시 경기도의회 부의장) 족장님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리며, 필자가 상무이사로 재직시에 숙원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잃었던 공의 묘지 부지를 지난 해에 300여평을 찾아 필자가 주관하여 수난을 거듭해온 신도비를 농업기반공사 안성지사와 적극적인 협의하여 이전하고 전 종원들의 성금 1,700만원으로 석축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도비(神道碑)



류해초
계참판공파 보령공 26세/경기안성출신
계참판공파 회장/본회 부회장

안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가옥 “청문당”

“우리고장 안산과 청문당”

安 山 清 聞 堂

1. 안산의 역사

안산은 고구려가 한강을 점유하고 있던 5세기말부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때까지 장항구현(樟項口縣)이었으며 통일 신라때는 장구현(獐口縣)이었다.

안산(安山)이라는 지명은 태조 왕건의 고려통일후 940년(태조23)에 처음 등장한다. 고려시대 안산 이웃의 현으로는 시흥 과천이 있었으며 시흥현은 현재 서울 노량진 영등포를 포함한 금천구 시흥동 일원이었고 과천현은 현재 안양시 군포시를 포함한 지역이었다. 안산은 현재 안산시와 시흥시 일부를 포함한 지역이었고 고려초 안산, 시흥, 과천이 같은 위상의 현이었으나 안산현만이 군(郡)으로 승격되어 지군사(知郡事)가 다스리게 된 것은 1308년(충렬왕 34)의 일이었다.

고려 현종초 공주 절도사였던 김은부(金殷傳:945-1017)가 거란의 2차 침입때 공주로 피난한 현종을 도와준것을 계기로 김은부의 세 딸이 현종비가 되고 이들에게서 9대 덕종, 10대 정종, 11대 문종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안산현이 군(郡)으로 충렬왕때 승격됨과 동시 김은부는 안산군 개국후(安山郡開國侯)로 추증되었다. 이처럼 안산은 세 임금의 탄생지로서 그리고 김은부가 안산군 개국후로 추증되면서 정치적 이점을 누릴수 있었고 경기도의 중서부의 농, 어업과 해상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안산군은 이와같은 위상으로 이윤의 시흥, 과천현과 함께 1000년(고려, 조선)역사를 가지고 내려오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당시 안산, 시흥, 과천군이 시흥군으로 합병되면서 같은 1000년 역사의 시흥, 과천 지명은 계승되면서 안산 지명만이 없어지게 되었다. 안산지명은 일제 강점기를 비롯하여 8.15광복이후 1986년 안산시 승격되기까지 72년간 우리 역사속에서 사라졌던 지명이었고 어쩌면 영원히 사라질변한 지명이었다.

그러한 안산지명이 어떻게 되살아날수 있었을까?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시 과거 안산, 시흥, 과천이 시흥군으로 합병될때 같은 1000년 역

사의 지명인 시흥, 과천은 계승되면서 안산 지명만이 없어지게 된 동기는 일반적인 행정구역 개편 이면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역사적 의문을 갖게된 것이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있으며 또한 왜곡되어가는 역사를 보고도 분개할 줄 모르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역사의식에서 일제강점기 안산역사를 냉철하게 재조명하게 된다. 그 결과 일제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안산군을 시흥군에 합병시킨 일반적인 사항이외에 안산지명은 너무나 무서운 악의로 말살시킨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일제가 당시 생각한 것은 안산지역은 고려때 세 임금(덕종, 정종, 문종)이 탄생한 지역임을 파악하고 안산지역은 한국인의 정기가 흐르는 곳 또한 맥이 흐르는 지역이다라는 풍수설에 입각하여 일반적인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우리민족말살 차원에서 안산지명을 말살시킨 것이다라는 어느 문헌상에도 고증이 전혀없는 역사해석을 하게된다.

안산은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제일가는 계획도시로서 출발되었으며 당시 지명은 경기도 반월출장소로서 시 승격계획 명칭도 역시 반월시였다.(반월지명은 1914년 일제에 의하여 생긴 지명임)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역사의식에서 1983년(5공화국당시)부터 1986년 안산시 승격시점까지 3년간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한 반월시 명칭을 취소하고 1000년 역사의 안산지명을 되찾아 신도시 명칭을 안산이라 명명하는 것이 당시 목천의 독립관을 건립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정신적인면의 극일(克日)로 가는 것이다라는 대정부 투쟁 끝에 살아졌던 역사적인 안산지명이 되살아날 수 있었다.

2. 청문당(淸聞堂)

청문당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안산지역의 조선 후기 문화사를 개략적으로 언급하고 또한 필자가 류씨종인 이라는 입장보다 제삼자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쓰게됨을 이해하기 바란다.



문화재 지정당시 청문당 전경



복원중인 청문당 안채 전경

안산은 18세기 조선의 학술사상과 문학예술의 진수를 보여준 유서깊은 고장이었다.

성호(星湖) 이익(李瀾)은 안산 침성리(광주 침성리 설은 왜곡된 학설임)에서 실학의 대가로서 오로지 학문과 저술과 후진양성에 힘을 써 오늘날의 근대적 개화사상의 뿌리라 할수있는 실학사상과 학문을 집대성시켰다. 그는 여러분야의 학문연구에서 불멸의 업적을 남겼을뿐 아니라 특히 그의 제자 안정복(安鼎福)은 민족사학을 완성시켰다. 그러한 관계로 안산에는 현재 성호기념관이 2002년 건립되어 많은 학자들과 관광객들이 찾고있다.

청문당(淸聞堂)은 안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가옥으로 진주류씨 16세손인 류시회(柳時會: 1562-1635)가 지었다고한다.

류시회는 아우인 류시행(柳時行:1566-1606)의 아들 적(頤:1595-1619)이 선조의 부마가 됨으로써 아우 류시행과 함께 선조가 내린 사패지(賜牌地)인 이곳(안산시 부곡동 일원)에 자리 잡게되었다.

그 후 청문당(淸聞堂)은 강원도 관찰사였던 류석(柳碩:1603-1645)이 그 처남 오준(吳竣:1587-1606)과 친우 허목(許穆:1595-1682), 채유후(蔡裕後:1599-1660), 강백년(姜栢年:1603-1681), 영의정 허적(許積:1610-1680)등과 안산의 사대문화를 가꿔주며 매화음(梅花吟)을 즐겼던 문화의 산실이었다.

또한 이 곳에는 청문당(淸聞堂)과 경성당(竟成堂)이 있었다. 당시 조선의 사대장서가(四大藏書家)는 서울의 월사고택(月沙古宅)과 진천의 이인화(李寅燁)의 고택, 그리고 안산의 류명천(柳命天)의 청문당과 류명현(柳命賢)의 경성당이였다. (판중추부사 류명천, 이조판서 류명현 형제는 류시행의 손자임) 즉 안산에는 당시 류씨문중에 두곳의 만권루(萬卷樓)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후기(英祖·正祖) 문에 부흥기에 안산의 학문과 예술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현재 학자들의 견해이다.

특히 순암 안정복의 민족사학과 류씨문중의 사위였으며 조선 예원(藝苑)의 총수였던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1713-1791)과 그 제자였던 천재 화가

김홍도(金弘道)의 예술이 안산문화의 르네상스를 꽃피웠다.

이와 같이 소중한 문화재인 청문당과 경성당, 문화재란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역사속에서 우리 조상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열이요 재산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문화재를 가꾸고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경성당(竟成堂)은 류명현 사후 그 손자인 해암 류경종(海巖 柳慶種:위 표암 강세황의 처남)이 그 맥을 이어 안산부곡의 정재곡(靜齋谷, 정재골)에 오교촌장(午橋村庄)을 건설하여 영조때의 무신란(1728) 이후 실세한 사대부들 특히 남인과 소북 그리고 일부 소론 문사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류경종을 비롯한 “안산15학사”들의 문학과 예술을 꽃피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터전마저 안산 신도시 개발로 흔적이 소실되었으며 그 터전 근처에 후손들의 뜻으로 류명현의 호인 정재(靜齋)를 빌어 정재교로 교명을 명명하는 조건으로 1960년대 중반 교지 3000여평을 정부에 기부채납하여 현재의 정재초등학교가 건립되었고 지금은 정재초등학교만이 남아서 그 명조상님들의 열과 기상이 후손들을 지켜보며 격려할 뿐이다.

앞에서 언급한 청문당은 진주류씨대종손 류승룡(柳承龍:1938-2002)의 집이며 경기도 문화재 제94호(2000. 4)로 지정되어 현재 약 7억여원의 예산을 정부에서 투자하여 복원중인데 향후 당초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이루어 지려면 수십억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니 문중 후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청되는 사항이다.

우리 다같이 청문당의 복원을 두손 모아 기원하자



류천형
백담관공파 정언공 12대손/안산부곡출신
전 서울은행지점장/안산문화원정 역임/본회 상임이사

진강사 晉康祠

참배기 參拜記



시조사당(始祖祠堂) 진강사(晉康祠) 전경

10월 3일은 나라의 개천절이요, 우리 진주류씨의 제향일이다. 우리 일족들이 선조님 앞에서 숭조 사상을 돈독히 하고 서로간의 우의를 다짐하는 우리의 날이다. “

해마다 빠짐없이 꼭 참례하리라 생각하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불참의 결례를 하여 왔고 금년에는 참례를 다짐하고 대종회에 연락하였더니 진강사 참배 이래 전통으로 하여 오던 전세버스 대절도 같이 갈 종원이 없어 안한단다. 예전엔 두대 세대도 되었는데...

참여정신이 이렇게 식었구나 생각하니 어쩐지 서운한 마음과 걱정이 앞선다.

대종회의 이야기로는 도로가 잘되어 있어 각자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는 자유로운 자가용 여행으로 친한 사람끼리 가고 오기 때문이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준비하고 있던 차 ‘정득부’ 회장으로 부터 승합차에 한 자리가 있다는 연락이왔다. 일행이 있음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2일날 아침 약속한 양재역 서초구민회관 앞에서 12인승 ‘순승’ 종의 승합차에 정득, 희섭, 해장, 종인을 비롯하여 일행 9명이 동승 진강사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다소 과속이긴 하나 세련된 운전엔 한 시간 반 만에 대전 넘어 대진고속도로 상의 “금산 휴게소”에 도착 아침 겸 점심 요기를 하였다. 마침 다른 승용차로 가시는 ‘원포’ 대부 일행 4명을 폰으로 연락 여기서 만나 동행의 즐거움 같이하게 되었다.

양쪽 다 숙달된 운전 탓으로 진강사 도착이 예정보다 너무 빠르다하여 산청군의 류의태선생 존상(동상)을 참배하기로 하고 이야기로만 듣던 현장을 물어 물어 찾아가니 산자수려한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존상(동상), 한방 박물관 등 대대적인 공원조성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일행은 경건한 마음으로 존상앞에 참배의 예를 올리고 기념촬영을 하였다.(을유보 1권 95쪽 화보 참조)

류의태 선생의 동상 앞에는 선생을 알리는 안내비문이 화강암으로 장식되어 알기 쉽게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하늘은 짐짓 술 심을 자리에 술 심는다 하더니 이 나라 제일 진산 지리산 아래 공을 태어나게 하여 백성들의 몸을 돌보게 하고 이렇다 할 여러 제자들을 길러 조선의 도규술(刀圭術)을 만방에 떨쳤다.

혹자는 일러 중국의 화타(華陀)가 얼마나 하나 공의 공적에 미치지 못 할뿐더러 공은 허준(許浚)선생을 키워 공의 뒤를 이은 동방 제일의 명의(名醫)로 만들었는데 이를 위하여 공의 육체를 선생의 해부 실습용으로 헌사하였음을 상기할 때, 제 살을 찢어 제자의 학문을 도운 일은 고금에 없으므로 공을 가히 성현이라 일러 마땅하리로다.

공의 치적이 이러하매 한 선각(先覺)이 있어 이 고장 명예를 같이 전하고 장송(長松)의 명의들이 연이어 태어나고,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지사(志士)들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이 비를 세움에 우리 모두 찬(讚)하기를 아껴 말지어다.」



류의태 선생 존영 앞에서 기념촬영

여기에 허준선생님 할머니가 우리 진주류씨이고 우리 류문의 피가 섞인 허준선생이고 보면 의술과 우리류문의 인연 있음을 생각하니 감회가 더욱 새로워 우리들 기쁨을 한층 더해 준다.

이렇듯 위대한 우리의 선조님을 뵈옵고 물러서는 우리들의 걸음이 한층 가벼워 다시 고속도로를 나와 수곡 진강사 가는 단성 I.C. 들어서자마자 “성철스님의 생가 현판”이 보였다.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고 하여 10년 좌불의 당대의 큰스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하시던 어른을 만난다는 기분에 흥분들 한다.

생가를 들어서는 순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준다. 2000여평의 경내 한 가운데 모셔진 큰스님 존상을 중심으로 맨 위쪽에 생가, 오른쪽에 대웅전이 있고, 조금 아래 유물 전시관 왼쪽엔 종무실로 배열 되어있다. 당초 생가만 복원키로 하였으나 생가의 영구 보존을 위하여는 절이 있어야 한다는 산청군과 따님 불필 스님의 정성으로 작지도 크지도 않는 아담한 사찰로 자리 잡고 절 이름을 劫外寺(겉외사)라 하였다 한다. 스님 생전에는 3000배를 해야 만나 주시던 것을 절 한번으로 스님을 만나보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하고 돌아서는 우리들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무개가 실렸다. 해인사 큰 스님 다비식엔 30만 인파가 가야산 골자기를 매웠고 고령에서 가야까지 버스가 도열되어 교통이 마비되었단다. 일행은 이 생각 저 생각들을 하면서 저녁이 되기전에 진강사에 도착하였다.

진강사를 들어서는 순간 전에 보았던 진강사와는 달리 주위는 말끔이 정리되어 있고 동서재 기와도 새로 갈아 단장된 모습이나 푸르다 푸른 진록의 잔디는 잡티 하나 없이 잘 자리 잡고 있어 우리들은 처음으로 잔디밭에 나란히 앉아 저녁을 같이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분방 전 하루 밤 잠 잘 준비를 하며 삼삼오오 각자 방을 정하고 정을 나누는 순간순간이 계속 되었다. 늦게 도착한 어느 종원, 저는 몇 대손 누구라고 하면서 동재 서재 다니면서 큰절 인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 진주류씨가 과연 양반 중에 양반이구나 하고 어깨가 올라간다.

며칠 후면 추석이고 대중회 전세 버스도 없음으로 참배객이 적을 것이라는 서울 출발 전의 나의 걱정은 하나의 기우였고 부산, 대구, 경향 각지(京鄕各地)에서 모여든 참배 종원은 생각 외로 만원이었

다. 시향은 11시에 종전과는 달리 세대교체 된 기분으로 젊은 ‘해근’ 종의 집례로 엄숙히 거행되었으며 독축에는 여든이 훨씬 넘는 판서공파 ‘해진’ 종의 독축은 많은 어른들이 염려와는 달리 무사히 봉독을 마치는 순간 모두가 한숨을 놓으면서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다.

이번 제향은 대성공파에서 제수를 마련하고 참배한 종원의 시도금을 진강사 유지보수비로 적립하겠다는 뜻을 살려 정성어린 헌금으로 종전의 기록을 깨고 610만원이라는 많은 시도금이 당일 모아졌다. 제향을 마치고는 서로 서로 인사교환과 함께 모두가 잔디 위에서나 동 서재 곳곳에서 점심을 배식 받아 소주와 막걸리를 반주삼아 배를 채우고 내년을 기약하고 각자가 제 갈 길을 떠날 준비를 한다. 서울서 동행한 우리일행은 한사람 빠짐없이 그대로 귀경길에 올랐다. 마침 청주와 체천에서 온 버스 두대가 벽은공 신도비와(을유보1권 67~69p참조) 영모각과 노봉사를 참배한다는 전갈에 우리도 동행 참배하게 되었는데 그 곳 묘하에 살고 있는 ‘해운’ 총무를 비롯한 일가들의 손님맞이 정성에 감사드리고 군의회 의장을 지냈다는 ‘무형’ 종인의 해박한 설명에 모두가 감탄 또 감탄을 연발하고 우리 대사 성공파로서는 최초의 실존 묘인 군수공(휘 백통)할아버지 묘소와 벽은공 신도비 앞에서 위대한 선조 정신의 긍지를 가지면서 숙연한 마음으로 참배의 뜻을 삭였다. 출발할 때 무거웠던 나의 마음은 어디론지 말끔이 사라지고 정말 잘 왔구나 생각하면서 많은 건문을 넓히고 고마우신 할아버지 음덕이라 생각하니 날아 갈 기분이다.

서울에 늦게 도착, 오고 감에 안전 운전애 수고하신 ‘순승’ 종인에 감사의 정을 주고 서로가 안녕을 빌면서 이틀간의 진강사 제향을 무사히 마감하며 내년을 기약하면서 헤어짐의 즐거움을 간직한 채 1박 2일의 긴 여정을 마감하고자 한다.

劫外寺: 劫(겉)은 길고긴 시간을 말할. 사방 40리나 되는 바윗돌을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그 옷자락으로 바위를 스쳐 그 바위가 닳아 없어진다는 것을 一劫이라한다. 外(외)란 기나긴 시간 밖이란 뜻이니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세계를 말한다.

류관형
판서공파 송지공 18대손/서울 신내동 출신
전 상업은행소장/전 부회장/본회 감사



류해근

대사성공파 계사정 16대손 26세/합천가호출신

菊花祭典

港都合浦菊都名
항도합포국도명

항구도시 마산시가 국화도시로 유명하네

苦節黃花不待聲
고절황화불대성

고생하며 지킨 절개로 피어난 국화는 명예로움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素月霜風當久著
소월상풍당구저

찬바람 구월에 유일하게 피어난 국화는 마땅히 오래도록 빛나리라

民繁國盛願恩盈
민번국성원은영

시민이 번성하고 나라가 번영하며 은혜로움이 가득하기를 바랄뿐이네

望德亭

常時望德俯墟亭
상시망덕부허정

언제나 德을 바라 亭子 언덕에서 굽어보며

柳葉青青柳蔭青
류엽청청류음청

앞들에 버드나무 푸르니 柳氏祖上의 蔭德으로 盛하게 하도다

述業仍孫遺百世
술업영손유백세

祖上遺業을 子孫이 紹述하여 百世토록 傳할 것이니

芝蘭郁郁滿東庭
지란옥옥만동정

뛰어난 子孫들이 茂盛히도 많으니 東山齋 뜰안에 가득 하구나

오솔길

굴참나무
아저씨는
사탕 알
토독
톡
톡

소나무
할부지는
솔잎 융단
폭신
포옥 신

소풍 온
다람쥐 부부
숨바꼭질
꼬옥
꼭

세계화 단상

〈1〉

시골 학교 화단에도 손발 묶인 토종 꽃
호시 탐탐 쑥부쟁이는 폐가 마당 점령하여
화려한 위세를 몰아 주인 노릇 한창이다.

〈2〉

개망초는 눈 막고서 조는 산야 정복하고
돼지 풀 양키 자리공은 참나리를 몰아내
마음밖 거품만 찾아 교두보를 확보한다.



류준형
진천군파 27대손 / 상주 은척 출신
제4시조 시집 「들꽃의마음」 외 많은 저서출간
부산정보대학학장 역임

내 마음의 오솔길

내 마음속 조브장한 오솔길 하나
 그 길목에 작은 밤나무 두 그루 있다
 간밤에 내린 비에
 사춘(思春)의 밤꽃 흐드러진
 오솔길 천천히 접어들면
 홀치마 같은 안개 속
 뱀딸기, 자운영, 독미나리, 쭉부쟁이 같은
 각성바지 잡풀들 모여 산다
 나른한 한낮의 권태가 모여 산다
 가다보면 따뜻한 산새알 같은
 이름 모를 무덤이 두엇
 지난 해 떨어진 마른 솔방울,
 밤송이 뒹굴고 있고
 줄음 오는 대낮의
 동공 속으로
 나비 한 쌍
 꿈결인양 날아든다
 몰래, 아무도 몰래
 내 마음속에 꾹꾹 감춰놓은
 연인 같은 길
 나는 가끔 홀로
 이 오솔길 거닐며
 고즈넉한 평온을 즐긴다.



류윤모
 경북 상주 출생
 한국 자유시인협회/울산문인협회회원/지평의시인들10집 및 「문학예술」 신인상으로 등단/울산여성신문 논설위원

바닷가 할머니

방포 바닷가에
 朴氏 할머니
 어제처럼 오늘도
 굴을 따고
 파란 하늘은
 바다에 수놓인
 쪽빛 물비늘을 걸어 올리는데
 무심한 갈매기
 물들어 온다고
 애옥살이에 지친
 박씨 할머니
 손잡고 가네

낙엽

눈물방울 떨어지듯
 한줌 바람에
 힘없이 떨어지는 슬픔

 낙엽을 밟듯
 발로 밟으며 작은 잎새에 남은
 한조각 햇살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 길
 삶의 무게에 눌러
 자꾸시리 빈 하늘만 쳐다보며
 입가에 번지는 뜻을 미소는
 누구를 향한 것이기에
 가슴이 저려오는걸까?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줍듯
 떨어지는 슬픔을 주울 수만 있다면
 오던 길 되돌아가
 발이라도 털어볼텐데



류기형
 대사성공파 단양백공 17대손
 문학창조 신인상 등단/한국시연구협회회원/오솔시 동인회회원/시집『당신에게로 가는중』

龍門亭

龍門灘 東海靑龍 예서飛天 하였던가

위막고 아래틀어 世俗을 불허터니

平海公 머무신 뜻을 赤松이야 알거니.

岳堅山 나린물이 白頭大幹 玉水인가

靑玉이 곱다 한들 이보다 더 푸를손가

三公도 不換이거늘 예서늙어 보리라.



류해균
대사성공파 서호정공 11대손
합천 가호2분회장

정년 퇴임을 맞으며

나는 얼마전 천직인 교직생활을 접고 정년 퇴임을 맞았다. 이제부터 교육자가 아닌 야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니 한편으로 두렵고 허전하고 아쉽고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고 자유롭기도 하다.

회고 해 보면 궁핍한 농경사회로 인한 지금보다 더 높았던 구직난 시대인 1950년대에 장학금 혜택과 취업이 보장된다는 국립사범대학에 진학한 것이 교단의 발을 디딘 계기가 되어 23살의 국민학교 교사로 첫발을 디딘곳이 시내에서 멀리 외진 D초등학교였다.

이 당시 이 학교는 시골학교 못지않는 변두리의 빈촌학교로 고아원이 3곳 있어 한 학급당 10여 명이 고아들인데다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가져오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했고, 학습도구나 미술 준비도 태반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머리깎을 돈이 없어서 장발로 다니는 아동들이 많았다. 페스탈로치 같은 교사가 되어 보겠다는 내 초심앞에 박봉의 미약한 의지로 구제할 수 없어 가슴 앓이만 해야 한다.

그러다가 생각해 낸 것이 ‘이발사 선생’ 되는 것이었다. 국제시장에 이발기계를 구입하여 아동들에게 머리를 깎아 주는 일이었다. 이때 학생들의 머리는 모두 박박 밀기만 하면되기 때문에 나 같은 초보자도 머리를 깎아 주는 일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었다. 되도록이면 아동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배려하면서 수업을 과한 후 2명씩 남아있게 하여 책걸상에 앉게 하고 책보로 몸을 두르게 한 다음 머리를 깎아주니 교실이 정이 어린 간이 이발소가 되었다. 이 같이 이발사 선생을 아무도 모르게 2~3년을 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고학년을 담임하고부터는 중학교 입시지도인 ‘과외수업’을 핑계로 계속하지 못한것이 나에게 큰 여한으로 남아있다. 이 때의 제자들이 4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돈독하게 사제의 정을 나누고 있다.

J초등학교 근무때는 숙직실에서 숙직을 하다가 연탄가스에 심하게 중독이되어, 황천에 갔다가 13시간만에 기적적으로 소생했다. 그러니까 나는 남들이 안가본 저승까지 구경하고 온 덤으로 사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이 후부터 초등학교 교사노릇이 싫증이 나기 시작하여 그 후 14년간의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청산하고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5년, B교육대학 강사를 거쳐 S대학 전임강사로 출발하여 B정보대학 교수로 24년 6개월을 봉직하게 되어 총 43년 6개월간을 분필가루를 마셔온 샘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인 청장년부터 노년까지 거의 반세기를 고스란히 교단의 울타리를 벗어난적이 없다. 때로는 친구나 동창들의 빠른 출세와 높은 보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직위와 박봉 초라함과 열등감에 함몰될때도 많았고, 때로는 권력과 금력의 파도앞에 너무나 나약하고 외소함을 절감하고 좌절했을때도 있었고 때로는 성공한 제자가 찾아와 건강을 염려해 줄때 그늘진 곳에서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때마다 흐뭇함을 느낄때도 많았다.

1980년대는 민주화 쟁취 과격시위로 인하여 대학 캠퍼스는 강의보다 데모로 늘 어수선했고, 나도 한때는 ‘어용교수’로 매도 당한 적도 있었으나, 지금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나의 부덕의 소치이자, 즐거운 추억거리로 각인되어 있다.

학교 당국과 후배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교육자는 모름지기 제자를 자식처럼 따뜻한 사랑과 이해와 격려와 따끔한 충고를 균형있게 행사 유지하고 꿈을 키워주며 학문적 권위를 지켜 나가야 한다. 특히 사회나 직장에 나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인으로 양성하는데만 만족하지 말고 세계와 미래와 사회를 폭넓게 읽는 힘을 갖춘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춘 교양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학생들이 인터넷 포털을 두드려 노력과 긴 독서없이 쉽고 빠르게 답을 구하는 편리추구의 단편적인 지식 획득에 빠지게 하지 말고 시련과 고통을 체험케하고 고전, 명저의 책과 씨름을 하여 올바른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이룩하도록 옆에서 도우는 역할을 하여,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깊고, 무겁고, 풍만하고, 건강하며 육체적으로 튼튼한 인성을 갖춘 교양인이 되도록 지도해 주길 바란다.

이제 나는 퇴임후 우아하게 늙어 아름다운 제2인생을 영위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우아하게 늙고 싶다면 우선 타인에 대한 사랑, 용서, 아량, 여유, 부드러움의 5가지 묘약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 아름다운 노년을 경영하기 위해 독서 삼매경과 자연과 물아 일체의 즐거움에 빠져보겠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취미에 심취하고, 노탐이 없는 마음 비우기와,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며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여행을 즐기고 싶다. 그리고 글도 열심히 쓰겠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대부 커터링은 80세가 넘어도 연구를 거듭하여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 등 매사에 적극적이었다. 83회 생신때 그의 아들이 “아버지 이제는 연구를 중단하시고 좀 편히 쉬시지요” 했더니 그는 “오늘의 편안함만 생각하는 사람은 흥하게 늙는 법이다. 나는 항상 미래를 보고 산다”라고 답했다.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 작품에서 산티아고 노인의 아름다운 노년을 경영하고 사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기에 훌륭한 소설로 남아 있다. 특히 거대한 상어와 파도와 어둠과 맞서 싸워 힘겹게 이기는 그의 초지일관의 인내심과 절제심이 산티아고 노인의 아름다운 삶일 것이다.

와인은 많은 시간속에서 숙성되고 여과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맛이 있고 향기좋은 명품 포도주가 된다. 나도 늙을수록 와인처럼 좋은 향과 맛을 지닌 삶이 되도록 많은 시간속에서 숙성되고 여과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겠다.

서쪽 하늘에 지는 저녁노을의 아름다움 황홀하게 붉게 물들여 떨어지는 단풍의 아름다움을 닮고 싶은 것은 나만의 염원일까!

류준형
진천군파 27세손/상주시은척출신
부산정보대학교수/제4시조시집『들꽃의 마음』외 많은 저서 출간



일본인의 자존심



마쓰시마 송도항 전경

먼 6세기경 백제시대부터 우리조상의 문물을 끊임없이 전수받아 그들 문화의 기초가 되었음에도 근세에 와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과학 문물을 역수입 해야 하는 역사적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어찌든 근래 역대 우리 정부는 대일무역 역조를 시정해 볼려고 안간힘을 다해도 그 불균형을 한번도 깨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첨단 산업분야의 수입의존을 피할 수 없는게 현실정이다. 얼마전 일본과의 무역업을 오래동안 지속해온 친구를 포함하여 4명이 한팀이 되어 일본문화 답사겸 관광테마(기획) 여행을 7일간 일정으로 선대(仙台-샌다이)를 중심으로 동북부지방을 다녀왔다.

일본을 상대로 30여 연간 섬유제품을 수출하는 H사장이나 전자제품(부품)을 전문으로 사업하는 K사장 역시 “비즈니스” 외에 여유있는 관광은 거의 없었다 하며 나머지 2명 또한 전직에 있을 때 해외출장 갔다 경유하는 정도였다. 그러기에 일본을 좀 알기에는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 했드시 일본국토를 5개지방을 나누어 집중 기획여행을 실행해 보자는 의도이다.

몇 년전부터 우리팀은 구주(九州)지방(7일간)을 비롯하여 사국(四國)지방(5일) 북해도(北海島)지방(7일간) 3개 지방의 답사는 이미 마쳤고 이번 선대(仙台-샌다이)를 중심한 여행은 4번째다. 일행중 2명은 일본과의 사업관계로 일어가 유창함은 물론 현지 자동차운전까지 잘하는 일본통이고 또 한분은 5개국어를 구사하는 교수 출신 D박사인데 나는 혼자일때는 모르지만 이 세친구 앞에는 주눅이 들어 일본말이 입에 나오다가도 쑥 들어가고 마는 배짱도 없이 별 쓰모없는 유치원생일 따름이다.

다행히 일행 세분이 과분하게도 나를 단장(團長)이라는 중책과 함께 여행중 공동경비 지출까지 맡으라고 부

세계 여러나라 중에 안전하고 여행하기 편한 나라를 손꼽으라면 아마 제일 먼저 일본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행자에 대한 친절함과 정직성 그리고 깨끗한 환경 등으로 어느 나라 보다 돋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지(周知) 하다시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서로 피치못할 숙명적 운명을 띤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다.



탁한다. 좀 귀찮지만 내심 일거리라도 맡겨주니 고맙기도 하다. 그래서 공동경비 1인당 10만엔씩 모두 40만엔을 거두어 넣고 첫 번째 관광코스로 仙台(샌다이)역에서 약 23km 떨어진 마쓰시다(松島)로 향했다. 이 송도는 가로 14km 세로 10km 범위내에 260개의 작은 섬이 산재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는 지정받지 못하고 지방공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일본 구주 장기(長崎)현에 있는 궁도(宮島)와 서해연안을 끼고 있는 천교립(天橋立)을 포함하여 이를 바다를 낀 일본 관광명소 “삼경(三景)”이라 불리고 있다.



일본 마쓰시다(송도) 부두에서 여행일행(필자:우측 두번째)

이곳 날씨는 약간 흐리지만 바다 물결이 조용해서 승선관광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서 출항시간에 맞추어 선임표(船賃票)를 매입키로 했다. 그런데 40만엔이 든(만엔권5천엔, 천엔권등) 항공봉투에서 4인분 선임표를 매입하려고 돈을 꺼내는 순간,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쳐 손에는 40만엔 돈이 깜짝순간에 공중으로, 바다로, 온사방에 돈바람으로 날렸다. 나는 빈봉투만 쥐고 났을 잃은채 온사방에 날아다니는 이 기막힌 상황을 보고만 있을 뿐이다.

우리 일행도 가까이 떨어진 몇장만 주었을 뿐이지 속수무책이었다. 이 망막한 순간 관광 첫날에 공금 40만엔 모두 날려 돈 변상은 차지고도 이 귀중한 여행일정을 망쳐버렸으니 큰 죄를 지은 기분이다.

이 일을 어떻게할꼬! 천우신조일까? 이 부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일사불란하게 날린돈을 줍는데 동참해 주었다. 바람과 함께 날아간돈이 부두 육지는 물론, 바다위 선박 등 어느구석엔들 가지 않았겠는가! 많은 현지인이 줏은돈을 나를 비롯 우리 일행에게 웃음으로 전하면서 위로도 해주었다.

더욱이 현지 부두노동자들이 바다위 떠있는 돈을 모두 줏어 모아주면서 위로의 인사까지 받으니 눈물겹도록 고맙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내심 저 흩어진 돈이 과연 몇% 회수될 것이며 또한 부두에 작업하는 인부들의 돈 욕심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지울수 없었다. 그런데 회수시간 약 10분~15분만에 깜짝쇼(?)는 모두 끝났다. 축축히 물 묻은 돈, 흠때 묻은돈 등 당초 거출했던 새 지폐는 한장도 없이 돈 부피는 더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승선시간이되어 밝은 표정으로 우리일행의 거동을 주시하면서 승선에 오른다. 우리 일행도 초미의 관심사인 헝크리진 돈의 액수가 과연 얼마일까? 초조한 마음으로 승선에 올랐다. 좀 창피하고 쑥스럽기도 하여 관광선 맨 뒷쪽편 사람이 없는곳에 자리잡고 만엔, 오천엔, 천엔을 구분해서 모두 집계했다. 순간 긴장을 억제하면서 초미(焦眉)의 액수발표를 서둘렀다. 나는 일어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단장이 최종집계를 발표하겠습니다. 선임(船賃)포함하여 한낱도 빠짐없이 40만엔 그대로입니다”라고 소리쳤다. 순간 박수가 터졌다. 모두 야! 기적이다!! 라고 외쳤다. 이것이 일본이구나, 미처 몰랐다! 모두 이구동성이었다. 그리고 부두노동자들에게 잠시나마 의심했던것에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일행 모두 일본인의 자존심에 감탄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자고 했다.

여행하기 좋은나라가 바로 여기 일본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7일간의 여행일정을 즐겁고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



류효수

대사성공파 계사정공 15대손 25세/경남 합천 묘산 출신
前 수출 조합 전무이사/前 상임이사/본회 재정위원

금강산을 다녀와서

금강석처럼 빛나고 굳은 산

1. 금강빌리지에 여장을 풀다

2004년 2월28일, 금강산 여행 첫날이다. 한마음선원 산악회에서 계획한 2박3일의 일정이다. 출발시간은 안양에서 아침 7시, 혹시나 시간이 늦을까봐 긴장이 되어 새벽 4시30분경에 잠이 깨었다. 마음 또한 설레었다. 글을 통하여 명승지로 익히 알고 있는 터라 적잖은 호기심도 있었지만, 50여년 같은 민족이면서도 동떨어져 살아온 북한 주민의 삶이 더욱 궁금해서였다.

토요일 아침시간 한가한 도로에 차는 시원하게 달렸다. 창밖에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노라니 어느덧 고성에 있는 금강산콘도에 도착했다. 현대직원으로부터 미리 마련해둔 관광증을 교부 받았다. 북한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관광증을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임시신분증을 훼손하면 5~100불의 벌금을 물린다거나, 원화는 통용될 수가 없으니 미화를 바꾸거나, 현대카드를 충전하여 사용하도록 준비하라는 설명도 곁들인다.

통일전망대에 자리잡고 있는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하니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사무소 안팎이 혼잡스러웠다. 당일 출입검사가 오후 3시부터 시작되니 시간 맞춰 여행객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신분 확인과 물품 검사 등 출입수속을 마치고 관문을 빠져 나왔다. 주차장에는 같은 규격, 같은 색깔로 통일된 버스들이 십 수대가 질서 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마반1조1열(마-01-01)이라는 고유번호가 기재된 임시신분증을 목에 걸고 버스에 올랐다. 모두 수속을 마치고 승차를 하니 운전기사과 안내원이 차에 올랐다. 자기 소개와 여행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끝나자, 전 버스는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순번대로 북으로 향하여 빠져나간다.

남북측 출입사무소간의 거리는 16km라고 한다. 짧

은 거리인데도 얼마나 멀게 느끼면서 살아왔는지 모른다. 남북을 왕래할 도로는 아직 공사 중에 있었다. 해서 임시도로로 지나갔다. 차창밖에는 묵은 농토가 보인다. 무성한 잡초에 짓눌려 형체마저 찾기 어렵다. 주인 잃은 농토, 반세기 동안이나 돌봐 주느니 없이, 버려진 땅에 슬픔과 외로움만이 고여 있을 뿐이다. 울부짖는 고아인양, 찬바람에 허우적거리는 역새풀마저 위안이라도 받으려는 듯 손짓을 하고 있다. 우리 헌병의 경례하는 모습을 보니 남북한계선을 통과 하는 듯하다.

얼마쯤 갔을까. 버스들이 일제히 멈춰 선다. 2열 중대로 열을 지어서 무거워지는 분위기로 보아서 북방한계선 검문소 인듯하다. 2인 1조로 편성된 북한군 3개조가 눈에 띈다. 우리 차에 두 사람이 오른다. 차 안을 훑어지게 훑어 본다. 아마 의자 밑에도 살피는 모양인지 복도에 있는 배낭을 치우라고 한다. 검문자나 피검문자나 모두 무거운 표정들이다. 오해라도 할까 봐 인사말도 건넬 수 없는 지경이다. 몹시 긴장된 순간이었다. 몇 초 안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곤혹스러웠다. 검문이 끝나자 차량은 일제히 출발한다.

차창 밖을 내다보니 별거숭이 모래산이 보인다. 군데군데 북한 군인이 한 사람씩 붉은 기를 들고 부동자세로 서있는 모습도 보인다. 먼지가 펄펄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얼마쯤 지나가니,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고성해안이다. 바다를 끼고 아스팔트 도로를 달린다. 현대에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포장한 듯하다. 곧 온정리에 있는 북측 남북한출입사무소에 도착했다. 온정리는 따뜻한 온 자, 우물 정 자 따뜻한 샘물이 나오는 곳으로 마을 이름을 온정리라 지었다고 한다. 온천 마을로도 유명하다고 한다. 철조망 너머 온정리 도로는 한가하다.

자동차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간혹 자전거 타고 다

나는 사람이나 걸어 다니는 몇 사람만 눈에 띄일 정도이다. 유명 관광지를 끼고 있는 마을로서는 너무나 조용하다. 버스가 멈춰 서자 안내원의 설명이 시작된다. 가지고 있는 짐을 모두 챙겨서 내리라고 한다. 임시 신분증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 순으로 열을 세운다. 그리고 임시신분증을 빼어 들고 번호순서대로 검사대를 통과하라고 한다. 검사관 앞에 가 서니, 안내원으로부터 미리 제출 받은 명단이 검사대에 놓여 있다. 검사관 앞에 임시신분증을 제시 하니 명단에 붙은 사진과 임시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며 면밀히 검토한 다음 확인도장을 찍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진 찍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면서 제출 받은 명단 내용과 사실여부도 확인한다. 출입사무소를 빠져 나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현대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니 긴장이 풀린다.

숙소는 금강빌리지, 콘테이너박스로 설치하여 만든 시설이다. 실망을 했지만 들어가보니 내부시설은 깨끗했다. 금강산 온천에서 피로를 풀고 현대에서 운영하는 온정각 부페식당에서 10불을 지불하고 저녁식사를 마쳤다. 내일 저녁식사는 북한 사람이 경영하는 금강원으로 예약을 했다. 식대는 25불, 코스로 나온다고 한다. 값이 부담은 되지만 북한 주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접근하고 싶어서였다. 남한 한계선에서부터 북한 땅, 온정리에 까지도 따라다니는 철조망은 그 너머 사는 북한 주민의 삶의 모습을 더욱 궁금하게 한다.

2. 금강산에 오르다

금강산,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 통천군 등 삼개군에 걸쳐있고, 동서가 40km 남북이 60km 면적은 530km

이라고 한다. 금강석처럼 빛나고 굳은 산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어 금강산이라고 부르며 화엄경에 1만2천 봉우리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실제로 봉우리를 헤아려 보았다는 사람이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어느 스님이 제자 12000명을 봉우리마다 앉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는 안내원의 설명이다. 서쪽 내금강은 만폭동의 계곡미, 동쪽 외금강은 만물상의 산악미, 해금강은 바다에 솟아 있는 섬들의 정경을 각각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둘째날은 폭포미가 세계적 절승이

라는 구룡폭포로, 셋째날은 금강산에서 그 절경이 가장 빼어나다는 만물상과 해안쪽에 있는 해금강 중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도록 일정이 잡혀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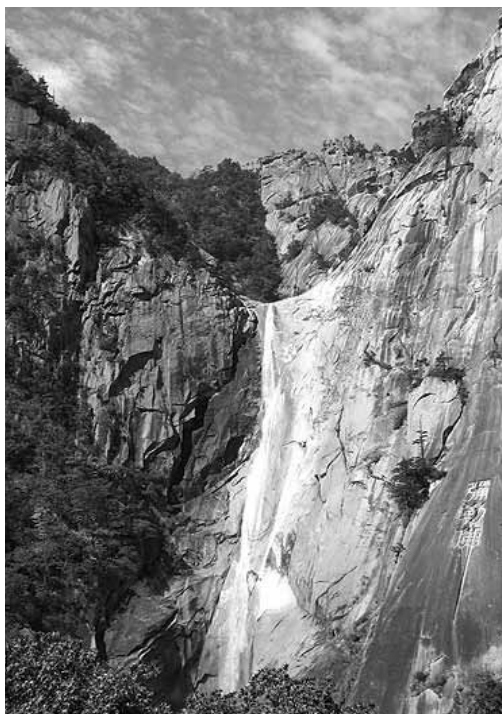
▲ 구룡폭포로 오르다.

화창한 날씨다. 어제 오후부터 내리는 비가 땅을 축축히 적시더니, 아침에는 맑게 개었다. 푸른 창공으로 솟은 산봉우리들, 해맑은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 일행을 태운 버스는 산기슭, 미끈하게 뺨은 소나무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수령이 짧게는 이 삼십년, 길게는 삼백년이 됐다는 소나무들이다. 마치 열병이라도 하는 듯, 질서 정연하게

서있다. 쳐다보니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있다. 붉은스레한 색깔이라 하여 홍송이라 하기도 하고 미인의 다리처럼 길게 쭉쭉 뻗었다고 하여 미인송이라고 한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장백산과 시베리아의 산림지대에서 자라는 소나무와 함께 세계 3대 산림종의 하나라고 한다.

조금 들어가니 절터가 보인다. 신라 법흥왕때 보존조사가 창건 했다고 전해오는 신계사 터라고 한다. 앞에는 신계천이 흐르고 있다. 깊은 골짜기에서 내려오



는 계곡이다. 거울 같은 맑은 물이 바위 사이 사이로 흐른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바위들은 맑은 물에 씻겨 온 탓인지 하얗게 바래져 있다. 신계천에서 연어가 많이 노닐어 신계사내의 분위기를 해치니 보운조사가 동해 용왕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인연으로 용왕에게 부탁하여 연어의 출입을 막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버스에서 내려 목관다리로 신계천을 건너자, 목관관이란 휴게소가 서있다. 종업원으로 보이는 북한 아가씨가 반갑게 인사하며 휴게소로 안내한다. 큰 바위를 감돌며 흐르는 신계천을 굽어보며 산책로를 따라 올라 갔다. 좌우 늘름한 산봉우리와 어우러져 흐르는 신계천 계곡의 정경이 아름답다.

옥류동에 이르러 계곡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바위에서 아래쪽을 향하여 깊은 호흡을 했다. 뒤로는 박속 같은 하얀 폭포수가 쿵쿵거리고 앞에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들이 기개를 자랑하고 있다. 나무숲과 더불어 반석, 흐르는 맑은 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절경이다. 산삼과 녹용이 녹아 흐른다는 삼록수가 시선을 끈다. 약수터가 있다고 하길래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인줄 알았는데 그냥 흘러내리는 개울물이다. 실망감이 있었으나 물병에 담아서 마셨다. 물병은 입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꿀꺽꿀꺽 얼마를 마셨는지 모른다. 처음으로 느끼는 물맛이다. 뱃속까지 상쾌한 느낌이 든다. 순수한 물의 진수가 과연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

바위 기둥에다 큰 바위가 놓여진 금강문을 지나서 왼쪽으로 쳐다보니 산봉우리에 하얀 천을 드리운 듯하다. 금강산 4대 폭포인 비봉폭포, 수직 높이 139m라고 한다. 옥류동을 지나 구룡동으로 오른다. 쳐다보니 거대한 바위의 우뚝한 틈으로 폭포수가 쏟아지는

구룡폭포가 보인다. 대반석에다 커다랗게 파놓은 구룡연으로 떨어진다. 비로봉에서 시작하여 상팔담을 거쳐 흘러온다고 한다. 구룡폭포 너머에 있는 상팔담을 보려면 구룡대에 올라가야 한다. 시간은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가파른 경사에 눈이 얼어 붙어서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애당초에는 내 건강이 좋지 못한 탓으로 자신이 없었으나 내친김에 시도해보았다. 가파른 오르막길에 돌계단을 딛고, 쇠사다리를 타고 오르기도 했다. 비탈길에 눈마저 얼어 붙어서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다. 나뭇가지를 잡기도 하고 철책에 의지하기도 하고 밧줄에 매달리기도 하며 한발자욱 한발자욱씩 걸음을 옮겨놓으니 드디어 앞이 확 트인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 150m가량 되는 낭떠러지다. 그 밑에는 여러 모양의 못들이 군데 군데 자리잡고 있다. 팔 선녀가 내려와 목욕했다는 신비의 팔담이다. 여기가 바로 “나무꾼과 선녀”라는 유명한 설화의 무대라고 한다. 아직 풀리지 않은 추위로 물이 얼어 붙어 맑은 물을 보지 못해 애석하다.

하산을 하자 금강산 온천으로 갔다. 소나무 우거진 대자봉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온천, 노천탕에 몸을 담갔다. 따듯한 햇볕을 받으며 눈앞에 펼쳐진 영봉들을 바라보니 이 또한 신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 만물상으로 향하다.

셋째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다. 우리 일행은 만물상으로, 해금강으로 나뉘진다. 나는 기암으로 이루어진 암봉들이 있는 만물상행 버스를 탔다. 150년 내지 300년이나 됐다는 미끈한 소나무들이 울창한 산기슭을 벗어나니 길이 가파르진다. ㄹ 자형을 그리는 꼬불꼬불한 길이다. 거의 180도로 꾸부러진 모퉁이를



좌,우로 정신없다싶이 차 머리를 돌려대는 기사의 운전 솜씨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모퉁이를 수 없이 돌아가니 만상정 주차장이다.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갔다.

만물상으로 올라가는 왼쪽계단을 오르면 오른쪽에 자연이 낳은 괴물 같은 암석이 우뚝 서있다. 뿔 돋은 머리, 험상궂은 얼굴을 한 것이 마치 도깨비 귀신과 비슷하다 하여 귀면암이라고 한 것 같다.

귀면암을 지나 등산길을 따라 오르니 오른쪽에 암봉 암벽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바로 기암절벽이다. 각 아자른 듯한 단애, 상하로 힘차게 뻗은 절, 그 기개가 또한 장대하다. 암봉에 있는 기암들, 역시 보기에 따라 갖가지의 모양을 한 바위들이다. 얼핏 쳐다보아도 곰의 앉은 자세, 두 마리의 원앙새, 먼산을 바라보고 있는 돼지의 자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독수리의 형상, 금방이라도 으르릉대며 달려들듯한 사자의 모양, 웅크리고 있는 거북이등, 갖가지의 모양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만물상이다.

천선대를 향하여 325계단의 쇠사다리에 올랐다. 거의 직각 상태인 가파른 오르막길이다. 내려다 보니 수백 길이 되는 절벽이다. 올라다보니 온갖 물형의 바위 조각품들이 알몸을 들어내고 하늘로 솟아 제각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이세상 만물의 온갖 형상을 여기에도 모아놓고 전시 하는 듯하다. 잘 다듬은 조각처럼 섬세하면서 웅장하여 장엄한 산악미가 넘치는 대자연의 걸작품이라 할까.

쇠사다리 계단이 거의 끝날 무렵, 바위틈 사이로 하늘 문을 빠져나오니 천선대가 기다린다. 금강산이 하도 좋아 선녀들이 내려와서 춤추고 놀았던 곳이라고 한다. 만물상 북판에 자리 잡고 있으니,올라서서 빙 돌아보면 만물상의 전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천혜의 전망대다. 천주봉 천녀봉 천진봉 우의봉 무애봉등, 너머로 이름 모를 봉우리들이 겹겹이 쌓여있다. 산봉우리의 바다라 할까, 숲이랄까, 끝없이 펼쳐지는 만경창과다. 가깝게는 바위들이 입체조각처럼 솟아나고 기묘한 봉우리들이 천태만상으로 나타나 생동감 넘치는 대자연의 조화가 극치를 이룬다.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 한단다. 이름 그대로 기암으로



이뤄진 겨울산이 제격인 듯 하다. 울긋불긋한 꽃송이도, 질푸른 녹엽도, 자랑하던 아름다움도 활활 털어버렸다. 꾸밈없이 알몸을 내미는 석산의 순수함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바위덩어리로 된 봉우리, 각박한 절벽에 뿌리를 박고 있는 생명체들이 놀랍기도 하다. 단단하게 굳어 있는 바위틈을 헤집어 뿌리를 내리고 푸르름을 자랑하는 소나무의 생명력에 위대함을 느껴본다. 세상 어디에서나 뿌리를 박을 수 있다는 생명의 힘을 그는 믿고 있었던 탓일까. 차갑고 무거운 벽을 쌓고 있는 비정, 매정하게만 느껴지는 바위덩어리지만, 한 생명이 뿌리내리려고 몸부림칠 때, 단단한 벽을 허물어 자리를 내어 주는 따뜻함이 또한 가상하기도 하다. 더불어 사는 공생의 원리를 깨닫고 있는 탓일까. 만물상에는 만물이 공존하는 자연의 세계다. 자연의 세계에서 제 근본자리를 잃지않고 순리대로 사는 모습에 숙연함을 느껴본다.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의 오만함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오관을 지녔다는 것이 부끄럽기만 하다.

3. 북한 주민과의 만남

산에 오르는 길목마다 북한 주민들이 여자 혹은 남녀들로 조를 편성 하듯 두 사람씩 서있다. 온정리 주민들 중에서 선발되어 금강산의 자연생태와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주관하는 기관은 정부나 봉사 단체인지 아니면 마을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투철한 의지가 보인다. 자연보호,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전 지역이 금연구역이며 침을 뱉거나 코를 풀어도 10~15분의 벌금을 어김없이 받는다고 한다. 해서, 환경은 깨끗하고 담배꽁초 종이조각 쓰레기 한 점 발견 할 수가 없다. 본 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싶다.

그들도 남한의 사정이 궁금한지 대화를 가졌으면 하는 표정이 엿보인다. 말을 잘 건네기도 하고 잘 받아 주기도 한다. 나중에 내려올 때에 남한의 관광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상팔담에서 만난 두 여자, 상냥스러웠다. 비탈길 얼음판에 미끄러져 이마에 상처를 입은 우리 일행을 보고는 안쓰러워한다. 상처 난 곳을 들여다 보고 위로도 한다. 남한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 말에 지금은 나이 많아서 하는 일이 없으며 젊었을 때 벌어서 먹고 산다고 하니 말이 없다. 하산 길에서 북한 주민과 여행객들간의 대화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오후 문화회관에서 북한 서커스 공연을 관람한 후 서를 버스장으로 갔다. 기다리고 있던 안내원이 어제 예약했던 식당의 방 호수를 알려준다. 버스를 타고 금강원이라고 쓰여진 북한식당으로 들어갔다. 온정리에서는 유일한 식당인 것 같다. 저녁 시간대이지만 별로 북적대지도 않고 조용하다. 방 호수를 찾아 들어가니 안내원이 문 앞에서 맞이한다. 식탁마다 2인분으로 음식이 차려져 있다. 안내에 따라 불판이 놓여있는 식탁에 자리를 했다. 돼지고기 한 쟁반도 준비되어 있다. 밑반찬으로는 작은 생선(도루묵 말린 것) 몇 마리가 꾸어져 있고 무말랭이무침과 고사리나물, 김치 그리고 된장과 소금이 준비되어 있었다. 식사 도중 안내원을 호출할 것을 대비해서 안내원의 호칭을 물으니 접대원 동무라고 한다. 풀 코스로 나온다는 저녁식사가 몹시 궁금하였다.

접대원이 불판에 불을 부쳐 준다. 돼지고기부터 불판에 얹었다. 흑 돼지라고 하는데 기름기가 없고 바삭 구워져 맛이 좋았다. 곧 접대원이 가지고 온 홍합죽을 먹고 나니 냉면이 나온다. 냉면 또한 담백하고 특유한 맛이 있었다. 메뉴 량이 적당히 짜여져 나오니 남김없이 다 먹을 수 있었다. 후식은 없는 것 같아서, 방에서 나왔다. 홀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종업원에게 후식이 없으니 커피라도 달라고 하니 돈을 내야 된다고 한다. 그냥 서비스 할 수 있다고 하는 현미차만 마시고 밖으로 나왔다.

등산 길에서나 식당을 찾아 북한주민과 대화를 해 보았지만 말을 걸어 볼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대화였다. 서로의 궁금한 일상생활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

다. 단체 행동으로 버스를 타고 움직여야 하니 행동이나 시간적 제한이 따르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언제부터인가 마음에 까지 철조망으로 가려져 있나 보다. 두 쪽으로 갈라놓은 철조망, 마음속에 까지 스며들어 가슴을 열지 못하는 벽으로 굳어졌다.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망설이기도 하고 할말 아니 할말 가리려고 신경이 곤두서기도 한다.

우리는 오랜세월 철조망이 허물어지기만을 기다려왔다. 오늘 금강산 여행을 통하여 3.8선을 넘어 북녘 땅에까지 왔지만 지긋지긋한 철망은 그냥 그대로 쫓아 다닌다. 북미대륙의 넓은 땅, 미국과 캐나다를 통과하는 국경에도 철조망은 보이지 않았다. 유럽대륙, 수많은 나라들을 넘나들어도 길을 가로막는 철망은 없었다. 헌데, 한반도 좁은 땅, 같은 민족, 같은 나라인데도 철조망이 왜 이토록 끈질기게 붙어 다니는지. 그도 모자라 마음조차 열지 못하는 장벽이 되었으니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인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우리의 현실이며 숙명이 아니던가. 이 또한 내 탓이며 내 책임이 아닌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만물상의 생명체처럼, 내 근본자리를 지키며 순리에 따라서 공생할 수 있는 지혜를 쌓아야 하지 않겠는가. 3일째 오후 북측 출입사무소에 임시신분증을 반납하고 돌아왔다. 손을 흔들어도 답례 없이 마네킹처럼 서 있는 북한군을 뒤로 하고 남한한계선을 통과할 무렵이다. 우리를 바라 보고 경례하는 한국 헌병의 웃는 모습을 보고 탄성이 터진다. 가슴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감동 했기 때문인가 싶다.

중국인 소식(蘇軾, 1036-1101, 호는 東坡)은 일생에 고려의 금강산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다(原生高麗國一見金剛山)라고 하였다 한다. 나는 일생에 금강산을 한번 보았으니 원이야 있으라마는, 이왕이면 민박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류상훈
합천 용주 가호리 출신
現 재단법인 한미음선원 사무국장/창작수필문인회 부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본회 상임이사



한라산 등정기

皙里, 백철흙(白哲欽) 선생

이번 추석에는 지금껏 시간에 떠밀리고 공간 속에 갇혀 있던 팽팽한 내 일상을 느슨한 줄로 바꿔보았네. 그 동안 가 보고 싶었던 산이지만, 내 주변에 백록담을 보고 왔다는 이를 아직 발견 하지 못하여 어떤 산인지 모르는 채 궁금타가 몸소 부딪쳐 보기로 발심(發心)하고 배낭을 챙기고 말았네. 1,950m의 높은 산을 내 체력이 당할까 몹시 걱정되었으나 그래도 마라톤 full course를 열 번이나 완주한 내가 설마 중간에 쓰러지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에 만용을 부렸네. 인생은 세월에 얹혀 흘러가는 것일진대, 더 세월이 가면 언제 내가 이곳을 오르리요. 이 산을 오르려면 언제가 좋고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무 것도 모른 채, 2005년 9월 16일(금) 밤7시. 인천 연안부두 여객 터미널에 허겁지겁 도착하였지.

각 지역 산악회에서 사람을 몇 명씩 모아주어 이 배의 여행사업부(기러기 투어)에서 전부 인수하니 125명. 모르는 이들 사이사이로 또 짧은 인생의 교호(交

互)를 연결하며 나는 으흐흐 웃었네. 밤배가 떠나는데 인천항에서 명멸하는 호화로운 불빛들이 재작년 여름 나카사키의 한 호텔 카페에서 내려다 본 황홀한 야경을 연상케 해주었기 때문일세. 여우벌 풀밭에 축축히 흐르는 밤, 나는 내 몸둥이를 조금씩 이 검은 바다에 풀어주기 시작하였네.

여객선 “오하마나”호는 정기선으로 일주일에 月水金 3일 저녁 7시에 인천에서 제주로 뜨고, 火木土는 제주에서 저녁 7시에 인천행. 배삐는 얼핏보니 46,000원인 듯하나 우리는 많이 할인이 되었겠지. 3등실 50인 혼숙 시스템인데 괜찮음. 3박4일 139,000원. 이 돈으로 남을까 몰라. 배가 크서(15,000톤) 서울 시내버스보다 더 조용히 미끄러지며 나아가는데 물안개가 낀 검은 수평선은 문득 내가 독일 근무하던 시절을 떠올렸네. 뮌헨 Leofold Strasse에 있었던 전혜린(田惠麟)의 안개에 젖은 가스등과 똑 같았네. 식당, 제에 로오제에(See Rose)의 그 아련한 추억이라

니.

13시간을 걸려 익일 아침 8시에 제주항에 도착하였는데 구름이 끼어 황홀하다는 일출을 보지 못하여 섭섭, 버스로 성판악으로 이동하여 바로 등산이 시작되었네. 이 곳은 해발 약 800m 고지로서 고구마처럼 생긴 제주도의 동편 중간 오름(제주도 말로 小山)에서 정상행. 그 뒤 백록담에선 북쪽 제주시의 관음사 쪽으로 하산토록 되어있는 코스. 어쨌든 1,150m는 걸어 올라야하니 흘러내리는 내 땀과 같이 덜컹거려왔던 내 일상(日常)도 함께 흔들리리라. 성판악 초입은 여러 곳에서 온 등산객들로 가득하더니 금새 슬금슬금 한라산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배낭이 제일 큰 듯 보였네. 이것 큰 일인데. 이는 나중에 내게 고통을 줄 전조(前兆)를 주는 것이었으나 어리석은 나는 늘 생각이 짧은 인간인지라 알 수가 없었네. 다만 내 소년시절 상경시에 어른들로 부터 들어 온 말〈산 사람 코 베어 먹는 동네, 낮도깨비 우글거리는 서울〉을 벗어 난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웠네.

흙은 하나도 없고 화산석으로만 깔린 길을 따라 오르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까마귀 울음 소리가 연이어 들렸네. 문득 황지우(黃芝雨)의 시,〈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의 몇 구절이 떠올랐네. 새들 뿐이던가. 추수가 끝난 텅 빈 들판의 허수아비같이 이제 가치가 없어진 우리 나이. 어디를 다니는 기간도, 사랑도, 목숨도 세상의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또 느끼네. 어쨌거나 수십년 겨울을 살아 넘긴 별새가 된 나는 내 이름이 다른 며칠간 만이라도 불리워지지 아니 할 이 높은 산 속으로 온 것이 얼마나 다행이라.

돌맹이들은 모두 구멍이 숭숭 뚫어진 모난 돌들이지만 들어보면 묵직하였네. 그 옆 쥐똥나무 아래 편 들국화 두어 송이가 가을냄새를 전하는데 길가로는 전부 키가 1m도 채 안되는 대나무 숲(관음죽인 듯)이 끝까지 심어져 있었네. 숲의 터널. 물푸레나무인가 어찌 똑같은 수종만 골라 심은 것인지 원래 자생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으나 지루하기 시작하였네. 길은 완만해서 오르는데 크게 힘들지는 아니했으나 끝없이 고개를 숙이고 발끝을 보며 걸어야하는 것에 슬슬 싫증이 나더민.

바닥은 전부 角진 돌이라 아차 실수로 제대로 밟지

못하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칠지도 모름. 나중에는 뒷목이 뻣뻣해 오는데 이것도 나를 힘들게 하였네. 전후좌우는 물론이고 하늘까지 나무 숲으로 덮혀 있어 마치 말레이시아 사라왁 밀림지대 같았네. 산 중턱까지 올라도 내려다보는 경치가 없으니 무슨 산이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어디가 안이고 어디가 밖인가. 내가 갇힌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가둔 것인가. 지 모르는 채, 불현듯 3년전에 내가 온 청춘을 다 바쳐 일했던 직장을 떠나야했던 기억이 떠올랐네. 출구가 잘 안보이던 시절이던가.

나와 우리 가족이 어두운 밤, 달무리 같은 은택(恩澤)을 입었던 現代建設. 거기 근무하는 동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였네. 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안목을 배웠네. 서양에서 살아보니 그들 대부분의 인생의 목적은 많은 곳을 여행하는 것이었네. 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총 근무기간 중 해외근무 10년, 귀국해서도 수많은 나라를 방문(출장)할 수 있었으니 이는 얼마나 큰 행운이었으며, 잘 몰라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직장이 한국에 있구나 하던가. 어찌보면 천수(天壽)를 다한 직장 생활이었으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든 이 직장을 떠나던 날, 내 마음은 슬픔으로 반죽되어진 진흙탕 길 이 되어 사무실 안에 남은 미련, 피할 수 없었던 운명에 눈물을 뿌리며 성마른 들짐승처럼 왔다갔다 하였었네. 내 방 앞의 내 명패를 떼어 낼 때의 그 어두운 기억이라니. 뿐이던가. 지금 조그마한 직장이라도 다닐 수 있는 것도 다 거기 근무했던 음덕(陰德)이니 얼마나 은혜를 입은 직장이던가.

한라산에 와서 무슨 이런 상념에 젖다니. 그러다 보니 한라산 중턱, 유일의 샘터에 도착하였네. 이 산은 물이 없는 산이라 했으므로 여기서 빈 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계속 산행을 하는데 슬슬 배낭의 중량감이 어깨를 내려누르기 시작하였네. 아, 내가 이리도 어리석다니. 출발전에 무게를 줄였어야 했는데 일행 중 가장 큰 무더기를 지고 왔으니 이를 어쩔담. 이제는 무릎까지 아파오기 시작하였네. 해발 1,200m 지점. 땀을 뚝뚝 발등에 흘리며 오르다가 잠시 앉아 쉬면서 옆을 보니 세상의 한 귀퉁이를 잡아보려는 인동초(忍冬草)의 가느다란 넝쿨손이 보였네. 내 때물은 손가락을 살며

시 쥐어주었지. 무성하게 오래 살으라.

오늘이 추석인데 금년은 이것이 빨리 와서 날씨가



한여름처럼 더웠네. 아름다운 봄은 왔는가 싶는데 벌써 가고 없고, 여름은 모질게도 따라 붙고 있네. 마치 우리들 청춘시절은 꿈결인듯 가고 없고 남은 삶이 얼굴의 주름살과 빠진 머리칼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같이. 인생이란 뒤죽박죽 섞인 이야기와 이리저리 튀는 에피소드로 엮어진 그물 아니겠나. 그 안에 장자(莊子)의 호접몽(胡蝶夢)이나 꿈꾸어 보세. 배낭의 중압감으로 팔까지 저려오니, 마치 내 삶의 무게 같았네. 이를 어찌 떨어내나. 내 보잘 것 없는 지식으로 지금까지 밥벌어 먹어 왔고 또한 얼렁뚱땅 행운과 남의 덕으로 살아와 이젠 염치가 없어 어디 내려놓치도 못하니 이 무게를 건디며 끝까지 지고 가야지.

정상까지 9km인데 6km지점에 이르니 몹시 힘들어 정말 움직이기가 싫었네. 거기엔 산장이 있고 산 지킴이가 외쳐대기를, 이제 부터 가파르니 힘든 분들은 돌아가라더라. 지금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올랐지만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끝없는 계단 때문이었네. 계단은 화산석으로 된 것, 길다란 나무를 깎아 만든 것들이었는데 무릎통증을 일으키더라고. 스틱을 챙겨올 것을. 그러나 돌아갈 수 있다. 늦지만 끝까지 밀고가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 세상에 소풍나와 하나라도 더 만물 구경하고 돌아가야지. 또 보통 산은 오

르며 나무도 잡고 오르거나 바위틈에 손을 끼워 넣어 당기기도 하는데 한라산은 어찌된 산인지 내 손으로 나무나 바위를 잡은 일이 없으니 나 참.

어느덧 해발1,800M에 다달았네. 갑자기 교목이 없어지고 초원이 나타났는데 그 많았던 노루는 다 어디 갔나. 흐린 날은 아닌데 구름이 끼어 전방 1km 밖에 보이질 않았네. 바다며 시가지도 안보이고 그냥 키작은 나무, 풀꽃들만 수북하였네. 차라리 역새발은 언제 오나. 마른 바람이 구름을 몰아내고 쪽빛 물감을 풀어놓을 때는 언제인가. 그러나 기다릴 수 없는 나는 체력이 거의 고갈된 몸을 이끌고 오르기 시작하였네. 정상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십리 먼 길로 느껴졌네. 원래 내가 힘들면 고통이고, 남이 힘들면 염살이 아니던가. 다 왔으니 힘을 내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욕심을 내면 화를 입기 마련이지.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백록담까지의 거리가 내 그릇의 크기일거야. 조금만 참고 올라 봐. 스스로 충전시키며 정상에 올랐네. 아, 백록담이 거기 있었네.

까마득한 옛날에 화산이 폭발하여 움푹 파여진 흔적만 있을 뿐, 물은 말라붙어 걸으로는 수심이 1m나 될까. 허무하였네. 이것 보러 이 무거운 무게를 건디고 땀을 있는대로 흘리면서 올랐는가. 분화구는 나무를 타리를 쳐놓아 못내려가게 해두었던면. 뉴질랜드의 분화구는 모두 open해 두었었는데. 문득 시간을 거꾸로 달려서 서기 79년 폭발하여 아랫 마을을 다 덮어버렸던 이탈리아, 베수비우스 산의 폼페이 마을을 생각하였네. 20여년 전 거길 처음 갔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는데, 이 백록담은 뭔가. 차라리 지금 이 순간 폭발하여 내가 화산재 속에 묻혀 미이라가 된다면 폼페이에서 만났던 그 미이라처럼 2천년 후에 우연히 발굴되어 그 때의 사람과 만나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詩는 누가 그것을 나타내어 표현하지 않으면 시가 아니듯이, 한라산도 내가 올라서 내려다보지 않으면 백록담이 아니지.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형체있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죽어 땅속에 묻히면 캄캄한 어둠속에서 우리는 또 불켜는 스위치를 찾아 얼마나 헤맬 것인가.

출발 전에 인솔자가 한 말. 정상까지 4시간, 하산에 4시간 반이 걸린다고 하였는데, 내리막 길이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높은 산이라 사람들이 모두 체력고갈로 휘청거리기 때문이라 하였네. 그런데 내가 9:30분 등산 시작하여 정상에 오후 1:30분에 도착하였으니 꼭 4시간 걸렸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희미한 햇살속에 가까이 보이는 것은 초원과 짝 찬 숲뿐. 조망은 전무하였고 흘러가는 구름밖에 안보였네. 마치 지금까지 꿈결인듯 흘러 온 내 인생처럼. <축석루의 달빛만 나무기둥을 일싸 안고> 흘러가던 고향을 떠나 서울까지 오던 <진주(晋州)라 천리 길>은 무어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오늘 올라오던 길만큼이나 험난했을까. 아, 모르겠네. 땀 닦고 쉬고 점심식사. 아무도 아는 이 없는 홀로 등산이 별로 기쁘지만은 않았지만 서둘러 내려가야지. 6시 까지 안내려 오면 그냥 떠난다는 인솔자의 여러번의 위협이 무섭기 때문이었네. (실제로 인천행 배가 7시에 떠남. 내가 늦다고 가는 배를 붙들 수 있나.)

하산길은 그래도 조금씩 멀리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였네. 정상에서 제주 쪽이니 북쪽길, 킁킁한 음지를 걷는데 한길에 넘는 갈대 비슷한 풀들이 아직 시퍼래서 차라리 시원하였네. 유일의 계곡물을 만났는데 물맛이 이상하여 버렸네. 우물에 떨어진 빗방울같이 아무 것도 아닌 내 육신도 터덜터덜 내려가며 차츰 가벼워졌네. 지치기는 했지만 물도 음식도 다 소진시키고 내리막 길이라는 가벼운 마음 때문이었네.

등산은 인간에게 무언가. 이 세상에 모든 동물은 상대를 잡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달리고 오르고 뛰는데, 우리 인간은 그냥 재미와 운동삼아 그리하니 그래도 남을 해코지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 상처입은 몸과 마음으로 신음하는 이들은 그래도 이 높은 산을 오르며 잊고, 용서하는 생각을 키우면 오늘 이 한라산 등산의 의미가 크겠다는 생각을 하였네. 등산시간 8시간 반 동안은 적어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증오와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이니까.

산속에 군데군데 벤치를 설치해 두어 지친 몸을 쉬게하는 데에는 아주 좋더라. 그런데 한번 드러누우면 너무 지쳐 일어나기가 천근처럼 몸이 무거우니 어찌 할까. 불행도 때가 되면 그치네. 그 자리에 또 행복의 햇살을 비추면 되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산하여 버스를 타면 아, 내가 해내었다는 미소가 적은 행복

아니겠나. 사실 한 평생을 쉽고 잘사는 방법이 있네. 바로 모든 일에 만족감을 느끼는 일이지. 휠체어를 탄 이는 외다리로나마 제 힘으로 걷는 이가 얼마나 부럽겠나.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외다리인 사람은 자신을 왜 두 다리로 뛰지 못하느냐고 불평하네. 이제 우리 나이는 어찌면 부록(附錄)같은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벤치에서 힘들다고 못 일어나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무덤이 되는 것 아니겠나. 부지런히 다른 이들을 따라 길을 나섰네. 그래야 이모작(二毛作)같은 삶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 그런데 아무리 내려가도 어찌나 끝이 없던지 몹시 지쳤네. 그래도 곳곳에 현위치 표시와 위험한 곳에 로우프를 설치해 두었고 남은 거리가 얼마인지를 표기하여 두어 좋았네. 다와 가는구나.

나무 숲속에는 투명한 새소리가 널려져 있고, 큰 나무는 어린 새들이 앉을 수 있도록 자기들의 빈 자리를 길게 뻗어 그대로 내어 주고 있었네. 내려갈수록 더욱 무성한 숲은 세상바다를 건너오느라 고단했던 우리들에게 그나마 휴식을 제공해 주고 있었고. 남녀 불문하고 혼자 온 이들이 많아, 말을 하면 불륜이고 안하면 로맨스인 불투명한 세상이기 때문인지 혹은 무턱대고 늪어막에 큰 자유를 구가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

끝이 다와 갈수록 하루 낮의 이 등산이 우리 어린 영혼에게 얼마나 큰 위무감을 주는지 지금 나의 피곤함과 반비례하여 마라톤의 Runner's high 같은 희열감이 솟아올랐네. 삶의 길이는 밤늦은 시간에 쫓겨놓고 술잔잔하는 시간이라면, 그것이 꺼지면 떠나는 것. 언제 다시 이 세상 구경 나오겠나. 드디어 관음사 광장에 도착하였네.

그런데 내리막 길은 어찌된 것인지 3시간 10분 밖에 안 걸렸네. 보통 4시간 반 걸린다는 코스를 나는 손살같이 뛰어 내려온 셈이지 (오후 2시 정상 출발-5시 10분 도착). 관음사 광장벤치에 축 늘어져 한참을 쉬고나니 원기회복. 사람들은 모두 한라산은 한번 올 곳이지 두번 다녀갈 곳은 못된다고 말하였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여길 다녀갔다는 이들을 별로 만나지 못하였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등산로가 돌로만 된 길, 또 끝없는 계단, 숲이 들어 차서 전망이 없을

뿐더러, 마실 물도 거의 없고, 허망한 백록담 풍경, 정상에 올라서도 늘 구름 낀 탓에 정상 조망도 없고, 내리막엔 음습한 길에다가 옆으로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길. 참으로 지루하더니 돌팍만 밝은 탓에 걸음걸이가 다소 절뚝거렸지.

그러나 산이 어디 나쁜 점만 있는 산이 있던가. 높은 산에서 온갖 풍상을 견뎌낸 고목의 아름다움이 곳곳에 배어있었고, 그리 높아도 급경사가 많지 않아 오르기 좋고, 곳곳에 벤치를 놓아 쉽 터를 마련해 두었으며, 태생적으로 돌이 많은 곳이라 부상을 막기 위한 인공적인 노력이 엿보이고, 정상 근처엔 끝없는 초원 지대와 짐승들 구경거리. 또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된 외 길에다가 친절환 이정표.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이것만으로도 한번은 가볼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이었네. 내려 온 다음에 인솔자에게 사람들이 산에 대해서 어찌고 저찌고 한마디씩 하니까 하는 말. “한라산은 겨울산이지요. 눈 덮인 한라산은 가슴터지는 환상적인 산이에요. 돌바닥이 눈으로 덮이면 밑만 보고 걷지 않아도 되고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 사람 이거 또 상술아냐?” 이런 말들이 오고 갔네.

제주시로 돌아오니 길은 호화롭고 번쩍번쩍한 관광호텔인데 온돌 방에 싱글로 온 이들 네명씩 집어 넣더라. 저녁식사 후 사람들은 밤바다 구경을 가거나 혹은 뒤의 말고기 집으로 술잔잔 하러 가는데 나는 시내 민정시찰(?)을 나갔네. 옛날의 허름하지만 정겨운 제주는 사라지고 없고 깨끗하지만 깎쟁이 같은 시가지가 이국적(異國的)이었네. 밤인데도 어찌나 날씨가 더운지 가로수를 남국의 종려나무로 심어 놓을만 하더라고. 다음 날 구경을 나섰는데 다리는 괜찮더라.

그런데 옛날에 본 천제연 폭포 무어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들이었는데, 깎아지른 듯한 해변절벽(柱狀節理)과 거대한 식물원, 하루방 공원, 영화 촬영장소(올인 및 大長今) 등이었네. 또 우리나라 최남단, 서귀포 남쪽 끝에 있어 바다가 잘 보이는 1박에 450만원 한다는 호텔 근처에도 안내되어 갔는데 거기는 누가 묵는지 몰라도 하루밤 쯤 허름한 곳에 자고 그 돈으로 저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휘어이 휘어이하며 지폐를 한웅큼 씹 뿌린다면 노숙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적선

이겠나.

밤배는 어두운 제주해협의 물살을 가르며 불을 환히 밝히며 나아가기 시작하였네. 나는 잠시 조선시대로 상상의 날개짓을 푸둑거리며 오르기 시작하였네.

그 때 감옥시스템의 개념이 없어 큰 죄를 지은 양반들을 제주도로 유배를 많이 보냈다는 것은 다 아는 바아닌가. 그때 반은 죽고 반은 살았는데, 죽은 이가 어찌 죽었는지 아는가. 육지에서 출발한 목선이 노를 저어 제주까지 가기에는 뱃사공에겐 너무나 힘든 일.

그래서 그는 새벽이 되어 햇살이 퍼지자 안에 있는 죄인에게 소리쳤네. “대감! 동이 트니 밖에 나와 창해를 보소서. “그가 밖으로 나오자 멀리에 곤죽이 된 유배자를 그만 뱃사공은 바닷물에 처넣고 말았네. 그리고는 십리도 안가고 그는 도로 육지로 돌아갔네. 뒤에 찾으면 가다가 쇠약해져서 병으로 혹은 풍랑을 만나서 죽었다는데 누가 뭐라 말할 것인가.

이 모진 시대에 자꾸 굳어지는 마음을 풀어보고저 이 제주를 찾아왔다 가네. 사실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추석에 조상님께 제사 드리려고 향을 가지 않고 홀연히 보따리를 제주도로 싣 이번의 일탈(逸脫)은 그런 것을 피하려는 의미도 있네. 이 시대에 한 가정의 아버지 노릇이 결코 만만치 않은 세월을 맞아 누구라도 우리 나이의 사람들은 부성(父性)은 사라지고 없고 의무만 다하다가 떠나네.

그들중 나중에 아버지의 고독, 가장(家長)의 고뇌가 직조(織造)된 옷을 입어보아, 사랑은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강물이 되어 바다에 가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느끼게 되겠지.

갑자기 추형도 시인의 시(詩), “빈 집”의 구절이 가물가물하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창 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잘 있거라/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나도 이제 선실 안의 불을 끄네.

잘 있게.



류만년
대사성공파 서호정공 10대손/경남 합천 가호 출신
前 현대건설 이사/분회 재정위원



“숲 속에 묻혀 지낸 앙코르와트” 유적을 찾아서

인류가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것은 헤아리기 어려운 아득한 옛날부터라고 짐작되며 수백, 수천년의 유구한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각인(刻印), 하듯 귀중한 유적을 수없이 남겼다.

9~15세기에 걸쳐 동남아의 메콩강유역에 거대하고 호장(豪壯)한 문명을 이룩한 크메르족의 유적, 수세기동안 울창한 숲으로 둘러쌓여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던 곳. 세계의 7대 불가사의로 손꼽히는 캄보아의 앙코르와트를 답사하기 위한 동남아 여행을 다녀와 소감의 일단(一端)을 적어보기로 하였다.

3월 17일 금요일 맑음

아침 기온이 섭씨 5도, 제법 쌀쌀한 날씨였다. 7시경 집을 나서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8시 20분경 공항에 도착하여 약속장소인 3층으로 올라가서 일행을 만났다. 이윽고 여행사(포커스투어) 직원을 만나 수속을 마친뒤 출국장으로 가서 짐을 부치고 신체검색대와 여권심사대를 거쳐 탑승구에 가니 시간이 한시간 삼십분이나 남았다.

면세점을 둘러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출발시간 오전 11시 25분에 맞춰 비행기에 오를수 있었다. OX301 오리엔탈타이 항공이었다. TV에서 뉴스거리가 된 항공사여서 점잖은 생각도 들었지만 오늘은 별다른 이변은 없겠지싶어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을 이룩한 비행기는 5시간정도 걸려 17시 10분 태국의 수도 방콕의

돈 무앙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현지는 우리나라와는 2시간의 시차이며 연중 고온다습 열대 몬순성 기후로 연평균 27도라 한다.

비행기에서 내리고보니 점통같은 날씨탓에 옷을 벗어들고 짐을 찾자마자 입고 간 겨울복장을 여름복장으로 갈아 입는 일이 급선무였다.

출구로 나와 현지 가이드를 만나 대기한 전용버스를 타고 바로 국경 지대로 이동하면서 낯선 이국땅의 정취를 차창을 통해 느낄수 있었다.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아카시아 비슷한 노랑꽃이 화사하게 가로수로 심어져 있었다. 아름답게 느껴져 가이드에게 물어 보았더니 태국의 나라꽃 ‘오차드’라고 하면서 나무나 꽃 이름을 물어보지 말라는 것이다. 본인도 잘 알지 못하니까.....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국경지대의 아란이 아니고 중간 지점인 방파콩시로 향하였다.

달리는 국도 양쪽에는 메마른 들판이 가도가도 끝없이 이어진다. 산은 보이지않는 지평선의 연속이다. 우기(雨期)를 기다리는 농지인데 우리 눈에는 묵히는 아까운 땅으로 비춰진다. 2시간여 달려서 방파콩시에 도착하여 '왕타라호텔'에 투숙하였다.

국경지대는 호텔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좋은 환경을 택하다보니 계획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호텔 주변은 남극의 풍경답게 열대식물이나 맑은 강물이 흘러 잘 어울리는 위치에 자리잡았구나 생각하며 이국 땅에서 첫 밤을 보냈다.

3월 18일 토요일 맑음

이곳 날씨는 평균 32도가 넘는다고 하니 날씨도 덥거니와 중간 지점에서 숙박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추어 서둘러 일어나 아침 식사를 마치고 6시 30분에 국경지대 아란으로 출발하였다.

1시간 30분정도 걸려 아란의 태국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도착하여 전세버스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가이드가 캄보디아 비자 수속을 하였다.

이곳의 국경도시는 우리의 시골 재래시장을 방불케 하는 열악한 마을이었다.

잡다한 노점상이나 품삯을 벌기 위한 누추한 옷차림의 집꾼들, 너무나 어린 맨발의 꼬마들, 인생의 밑바닥에서 교육하고는 등진 군상들! 세상에 태어나 땀 개치듯 버려진 아이들의 행각은 측은한 생각이 든다. 후진국의 한 단면이라!

차에서 내려 검색대와 심사대를 거쳐 도보로 한 200m쯤 걸어서 국경을 넘게 된다. 짐은 1달러씩 주면 손수레에 싣고 집꾼이 옮겨다준다. 도보로 국경을 넘는 동안에 '날치기꾼들이 따라 붙는다'며 가방을 앞쪽으로 메라고 가이드가 주의를 환기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국경을 넘기 직전 우르르 몰려드는 누추한 차림의 꼬마들이 여행객 대열에 끼어들면서 구걸 행각을 시작한다. 몇번 뿌리치며 거절하여도 별 때처럼 집요하게 따라붙는다. 앞으로 맨 가방까지 더듬거린다.

이윽고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땅으로 들어가면서

메고 간 가방을 살피니 자크 하나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순간 '아차!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잠시 휴식하는 장소에 가서 꼼꼼히 살펴보니 귀로의 항공권과 약간의 달러를 날치기 당했음을 알았다.

문제는 항공권이였다. 그게 있어야 돌아갈때 보딩패스(탑승권)을 받는데 걱정이 아닐수 없다. 가이드에게 알리고 가이드는 본사에 연락하고, 본인은 다음날 현지 경찰서까지 가서 분실신고를 하여 분실확인을 받고 과태료까지 지불해야 했다. 웃지 못할 경험이었다. 캄보디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도착해서도 검색대와 심사대를 거쳤다. 대기하고 있는 전세버스에 오르니 냉방이 시원하지 않고 모기가 활개치고 날아다녔다. 이 버스는 우리나라에서 중고차로 팔려간 '아시아 자동차'였다. 이 버스가 폭이 좁기때문에 이 곳 관광에 제격이라고 한다.

국경 넘어서부터는 씨엠립(Siem Reap)을 향하여 장시간 달렸다. 우리가 60년대 경제개발에 착수할 무렵만해도 국민소득이 앞선 캄보디아는 관광을 위한 교통시설이 잘 갖추어 졌었다고 한다. 그 후 오랜 내란으로 나라살림이 기울기 시작하여 허물어져가는 시설을 방치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비포장화해다 교량도 여러곳 훼손되어 우회하면서 달려야하는 불편한 현상이 되었다고 한다.

국경지대를 얼마간 벗어 나니까 전기도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 눈에 띄었으며, 도로 좌우 군데군데에 패인 웅덩이에 괴어 있는 물은 한결같이 뿌옇고, 건기(乾期)를 맞은 강바닥은 물이 흐르지 않는 모래바닥만 드러나 있었다.

도로 좌우에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농장은 태국처럼 황량하기만 하여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지루한 느낌만 줄 뿐이었다.

지난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을 지나칠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땅이 주어졌더라면...'하고 부러워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따금 마을이 나타나는데 집앞에 큰 독들을 놓아 두고 있었다. 그 용도를 알아 보았더니 엉뚱하게도 '데리고 사는 마누라의 수만큼 독을 놓아 둔다고 한다. 매우 기이(奇異)한 풍습도 있구나' 싶었다. 우리나라에서 팔려간 아시아 자동차는 한글로 된 글자도 그

대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남은 차인데도 고장없이 털털거리며 5시간만에 목적지 씨엠립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곳 씨엠립의 거리는 한글간판이 태반이다. 그만큼 우리 교민의 진출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오후에는 씨엠립의 남쪽에 있는 '툰레삽' 호수로 향했다.

차에서 내려 수상 가족 관광을 위해 배에 올랐다. '툰레삽' 호는 동양최대의 호수라고 한다. 우기(雨期)에는 메콩강에서 역류한 물이 흘러들어와 호수의 수량(水量)이 건기(乾期)에 비해 3배쯤 늘어나는 천연의 조절기능을 갖추고 있어 물고기에게는 최고의 산란(産卵)장소가 되고 사람에게는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는 어머니같은 호수라 한다.

세계적인 어획량을 자랑하는 이 호수에는 수상생활을 하는 마을이 조성되어 있어 이들의 삶을 둘러볼 수 있었다. 계절에 따른 수위의 증감에 따라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수상생활은 아주 원시적인 삶인것 같았다. 일상생활에서 대소변의 배설도 물 위에서 하고, 세수와 목욕은 물론 밥까지 지어먹는다 하니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심지어 돼지까지 두서너마리 기르는 집도 목격되었다.

한 30분쯤 배를 타고 둘러보다가 돌아나올 즈음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너댓명의 꼬마들이 각각 큰 합지박같은 것을 타고 우리의 곁으로 다가와 '원달러, 원달러' 하면서 손을 내미는 모습이 측은하여 보였다. 대부분 1달러씩 주기 마련이다.

가이드말에 의하면 배에다 아이들을 싣고 다니면서 관광선 부근에 풀어 놓고 구걸하여 오면 그 돈을 모두 회수해가는 배후가 있으니 버릇만 나빠지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날씨가 너무 더워 '툰레삽' 호 관광을 마치고 씨엠립으로 돌아와 숙소인 '노코르프놈' 호텔에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했다.

저녁식사시간에 맞추어 '압살라' 민속공연을 관람하면서 식사를 하였다. 현지식이지만 우리 입맛에도 맞아 현지의 우리 한정식보다 즐거이 잘 먹었다.



3월 19일 일요일 맑음

오늘은 이번 여행의 핵심 일정이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아침 일찍 서둘러야 했다.

6시 30분에 출발하여 맨 먼저 찾은 곳은 앙코르툰 주변에 있는 타프롬사원이었다.

① 타프롬(TaProhm)사원-불교의 수호자로 일컫는 왕, 자야바르만 7세가 앙코르툰을 만들기 전에 그의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리기 위하여 만든 불교 사원이라는데, 동서로 100m, 남북으로 600m의 주벽으로 둘러싸인 절 안에는 회랑이 중횡무진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수백년동안 방치되어 자연에 의한 침식으로 현재는 그 대부분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었다. 특히 거대하고 무성한 고목들은 그 뿌리로 무너진 축대돌을 감싸안아 형태를 지탱하고 있는것 같이 보였지만 훼손의 원흉은 거대한 고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를 제거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는 고민에 싸여 있는듯 보인다. 다음은 앙코르툰으로 향하였다.

② 앙코르툰(Ang Kor Thom)-앙코르툰은 사원이 아니고 해자(壕字-성밖으로 둘러서 판 못)로 둘러싸인 지역 전체를 의미한다. 한 변이 3km인 정사각형에 높이 8m, 너비 113m의 해자로 된 거대한 도성이라는 뜻이다.

- ③ 남대문-대문의 높이는 25m로, 높이 3m의 보살의 얼굴이 동서남북으로 향하고 있는데 각각의 표정에는 희노애락이 나타나 있으며, 빛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 표정이 시시각각 바뀐다고 한다. 이 문을 빠져 나가면 '신들의 세계'로 들어선다는 것이다. 앙코르툼에는 4개의 문이 있는데 관광객이 드나드는 문은 남대문이다.
- ④ 코끼리 테라스-12세기 후반 자야바르만 7세가 조성했다는 왕궁터 앞 광장과 접한 동쪽 정면에 열병식 할 때 쓰는 코끼리 테라스가 있다. 벽면에 코끼리 부조가 새겨지고 코끼리 신이 긴 코로 연꽃을 들어올리는 모습까지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코끼리 테라스'라고 불린다고 한다.
- ⑤ 라이왕 테라스-코끼리 테라스에서 가까이에 있는 테라스로 크메르 신화인 '라이왕의 전설'에 등장하는 라이왕의 조각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 옛날 어느왕이 밀림에서 독사와 싸우게 되었는데 그 뱀을 죽일때 피가 튀어 나병(라이)에 걸렸다는 신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 ⑥ 바이온 사원-바이온 사원의 참배도로는 아침해를 받을 수 있도록 동쪽을 향해 있다. 제1회랑과 제2회랑으로 둘러싸인 중앙에는 높이 42m의 본전이 솟아 있다. 사면체의 관세음 보살상이 사원안에 총 49체 있는데 곳곳에서 신비의 미소를 짓고 있다. 왕도에는 이 밖에도 다섯 성문에 1체씩 보살상이 있어 모두 합치면 54체가 된다. 제1회랑 부조 벽화에는 당시의 서민생활의 모습이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새겨져 있어 흥미롭다. 제2회랑 부조 벽화에는 주로 힌두교 신화나 전설을 주제로 하고 있고, 한쪽에는 '라이왕의 전설' 신화도 전개되어 있다. 바이온은 앙코르 와트보다 거의 100년후에 지어졌다고 한다.
- ⑦ 앙코르 와트(AngKor WOT)-캄보디아 관광은 앙코르 와트를 보러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술성과 웅장미에 있어서도 고대 그리스 신전과 로마의 콜로세움을 능가하고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앙코르 와트의 앙코르는 거대함을 의미하며, 와트는 사원을 뜻한다고 한다. 한 때 동남아를 지배했던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 왕조가 서기 1113년에서 1150년 사이, 약 37년만에 완공한 사원

이라고 한다. 당시의 왕 수르야바르만 2세 자신의 무덤이기도 하다. 그 규모가 웅장하여 가로 1.3km, 세로 1.5km에 거대한 해자(壕字)로 둘러 직사각형의 형태로, 해자의 폭이 200m나 되어 앙코르 와트로 들어가려면 누구나 강처럼 넓은 해자를 건너기 위해 200m 길이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이 다리에는 나가 신(물의 신)이 조각되어 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앙코르 와트의 재현은 현대의 기술로도 100년 이상 걸려야 한다니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캄보디아에서 쇼핑관광은 상항버섯 판매장이었는데 관광객을 맞느라 발전기를 가동하여 에어컨까지 작동하였지만 너무 비싸 사는 사람이 없어 기름값도 뽑지 못할 것 같다.

지금 현재 캄보디아는 험벗고 가난한 티가 줄줄 나지만 찬란했던 고대문화의 발상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상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따른다면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보전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내려찍는 폭염으로 온통 땀에 젖어 시원한 그늘 생각이 간절하다.

오늘의 일정을 끝내고 점심식사를 'VIP 한국관'이라는 한국식당에서 한정식으로 식사를 하였는데 한국 음식의 시늉만 낸것 같았다. 캄보디아 국경지대 포이펫으로 되돌아 가기 위해 전날 왔던길로 4시간정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우리가 숙박할 호텔은 다이아몬드 카지노 호텔인데 지난번 태국에서 국경을 넘어올때 잠깐 들러 쉬어갔던 곳이다. 호텔은 시설도 수준급이며 관광객도 많았다.

3월 20일 월요일 맑음

오늘은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태국의 아란으로 지난번처럼 국경을 걸어서 넘어야 한다. 지난번의 경험으로 모두 주의를 단단히 하는 것 같다.

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서도 국경을 넘을때 관광객 좌우로 따라 붙는 꼬마들의 행각은 마찬가지로였다. 국경지점까지 구걸하면서 따라오다가 국경넘을쯤해서 우~ 하고 밀쳐내며 관광객 소지품에 손대



는 일은 번개 같았다. 가방을 뒤로 메면 백발백중 자크가 열리고 만다.

국경을 무사히 넘어 태국 파타야로 가는 전세버스에 몸을 실었다. 태국의전세버스는 냉방이 잘 되어 시원하였다. 태국의 모든 자동차는 일본산이었다. 일본이 태국의 도로공사를 해주는 대가(代價)로 자동차를 수입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태국 자체에서는 한대도 만들지 못한다고 하니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한심스럽게 느껴진다. 목적지 파타야까지는 너더땀 시간이 소요되었다. 지루한 차 안에서 가이드는 태국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

태국은 병원의 +자 표식을 보기 힘들고, 병원비가 비싸서 맹장수술을 하는데도 우리돈으로 15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 태국 글자는 뱀이 기어 다니는 모양을 보고 만들어서 라면(螺麵)을 풀어 놓은것 같아, 배우기 힘들어 문맹율이 30%나 된다고 한다. 가이드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태국은 동물이 많은 나라인데 뱀, 코끼리, 악어, 원숭이, 곰 순으로 많다고 한다.

태국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 표시로 두 손을 합장하여 엄지 손가락의 위치에 따라 격상의 정도가 다른데, 턱밑에 오면 일반적인 예의 표시이고, 코에 위치하면 존경의 뜻이고, 이마에 오면 스승에게 하는 예의이고, 머리위로 오면 왕에게만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해변의 관광지 파타야로 갔다.

① 파타야(Pattaya)-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해안 도시로 조용했던 여촌이 1960년대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미군의 휴양지로 각광을 받다가,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되어 동양의 '리비에라'로 불리는 비치 리조트로 변모하였다고 한다.

② 산호섬-코란(Kolan)이란 섬을 산호섬이라고 말한다. 파타야 비치에서 쾌속정으로 20분이면 갈 수 있다. 당일치기코스도 즐길 수 있다. 배를 타려면 물이 허리까지 차는곳까지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수영복과 샌들이 필수적인 준비물이다.

산호가 있는 푸른바다와 흰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변에는 비치파라솔이 쭉 펼쳐져 있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섬에 도착하자마자 예약된 한국식당에서 준비된 삼겹살구이로 점심을 먹었으나 역시 신통치 않았다.

더위를 잊어 보려고 몇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였지만 햇볕이 너무 따가워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비치파라솔 밑에서 맥주 한잔씩 마시고 3시경에 섬에서 나왔다. 파타야에서 방콕까지 가는데 퇴근시간과 맞물려 정체현상은 매우 심하였다. 오늘 숙박할 호텔은 엠바쓰도르쑈미엔 호텔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번 여행에서 호텔과 호텔의 식사는 A급이었다. 오늘은 태국에서의 선택관광을 하는 날이다. 알카자쇼, 라이브쇼, 태국 전통지압을 선택 예약하였다.

3월 21일 화요일 맑음

낮 온도 37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에는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는 도리밖에 없다. 오늘의 첫 관광지는 농눅(Nong Nook)빌리지 관광이었다. 땅 주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수 백만평의 광대한 땅에 조성된 농눅 오키드 윈드랜드에는 선인장과 난등의 각종 열대식물이 아름답게 꽃을 피웠고 갖가지 동물의 형상을 본뜬 수목들은 흥취를 돋우었다.

또 태국 전통 민속쇼와 코끼리쇼를 관람하였는데 코끼리의 나라답게 수준높은 쇼를 펼쳤다. 관람을 마



치고 ‘교민의 집’이라는 곳에 가서 천연 고무(라텍스)로 만든 각종 제품을 구경하였는데 너무 비싼 물건들이어서 선뜻 살 마음이 나지 않았다. 점심을 한정식으로 마치고 두서너시간 걸려서 방콕에 도착하여 토산품점, 보석 무역센터 등 아이쇼핑을 대충 끝내고 밖으로 나왔다.

저녁 식사후 밤 1시 출발의 비행기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어 어제 예약한 ‘700년 전 왕실 승려로부터 전하여 왔다는 혈(血)과 기(氣)를 이용한 전통 지압을 받았다. 2시간에 40달러씩이었는데 예상보다는 효험이 신통치 않았다. 몇 년전 받았던 중국에서의 ‘발 안마’가 더 좋았던 것 같았다.

안마를 마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모든 수속을 끝내고 귀국 길에 오르게 되었다. 면세점에서 손자들에게 줄 정표의 선물을 찾아 보다가 말린 열매 과일 종합상자를 샀다. 내용물은 두리안,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등 8종의 과일이었다. 열대과일을 고루 맛볼 수 있게 만든 상품이었다.

면세점을 돌면서 ‘돈 무양’ 공항도 그 규모가 방대한 함을 알 수 있었다. 밤 12시 가까이 되서 비행기에 올라 자리를 잡고 이륙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출발해야 할 밤 1시가 지나도 비행기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한 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기내방송으로 비행기 출입문 고장으로 수리중이므로 기내에서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가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 고쳐서 가겠다는데 할 말이 없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고장 수리가 끝나지 않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항의하는 승객을 태국 경찰이 잡아가는 등 어수선한 소동이 벌어졌다. 4시간이 지나도 수리 가능성이 없자 그때서야 다른 비행기로 교체한다며 승객을 공항 대합실로 수송하기 시작했다.

대합실에선 450여명이 앉을 의자마저 부족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새벽 6시쯤 되니 모두들 배고프다고 야단들이다. 그러니까 빵 한 개와 음료수가 배달되었다. 그것으로 배고픔을 달래었다. 교체되는 비행기의 출발시간이 안내되지도 않고 답답한 시간만 흘러가니까 여기저기서 또 야단들이다. 데모라도 해야 할 판이었다.



그 때, 아침 7시 30분에 출구를 나가게 된다는 방송을 하였다. 시간이 되자 교체된 비행기로 갈아탔다. 결국 7시간 지체된 오후 3시 2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릴 때 항공회사 직원이 나와 사과방송과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었다. 응분의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하였다.

정신적 육체적 고생을 겪었지만 새벽에 시간맞춰 우는 닭의 울음 소리의 귀중함을 새삼 느꼈다.

타이머신(Time Machine)을 타고 지난 세월을 겪은 듯한 뜻 깊은 여행이었다.



류하림
인천군파 대암공 18대손 29세/상주 은척 출신
전 대중회 부회장/본회 재정위원·회보 편집위원

가을 나들이

그날 10시 정각
요즘 찬란한 단풍처럼
화사한 옷맵시에
밝고 옅은 미소를 머금고
천사(天使)처럼 약속장소에 나타난 J氏!

그 동안 기별없어 알미웠던
심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도 부처님처럼 자비로운
고운 마음씨 엮으리라.

가로수 단풍 사이로 달리는 차안에서
강원도 여행을 비롯 부산, 대구 등
오랜만에 그간의 우리들 이야기로
서로들 숨가쁘게 이어갔다.

이야기도중 가끔씩 차창밖 추색(秋色)에 홀려
연신 감탄사가 터져나온다.
야! 저것봐, 정말 아름답고 멋지다!
이야기 질서도 문란한(?)관에
어느 산 단풍놀이 길로 향했다.

시골길 꼬불 꼬불 돌아 산중턱에 차를 세워두고
한적한 산마루의 공기도 맑고 오르기엔 힘들지 않
았다.
더구나 숲사이로 뛰고 날으는 다람쥐, 청솔을 바라
보면서
틈틈히 허트러진 ‘산밤’ 줍는 재미도 쏠쏠하였다.

드디어 앞이 탁 트인 나지막한 정상에 올랐다.
사방을 휘둘러보니 온통 단풍이 절경이요,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푸른하늘과 맞닿은 산색(山色)에 어울려 완상객(玩
賞客) 또한 자연(自然)의 신비(神秘)에 빠져 상념(想
念)에 젖는다. 목말랐던 참에 다과(茶菓)맛도 일품인
데 이 분위기 놓칠세라 최상의 “모델표정”을 이모저
모 카메라에 찰카 찰카!

잠시나마 화창한 날씨에 가을 풍광(風光)을 한껏
누렸으니 풍진에 쌓였던 심신(心身)도 한결 맑고 가
벼워졌다. 시간도 잊은듯 때늦은 오찬(午餐)에는 소

문난 “옛날보리밥” 집을 찾아갔다. 싱싱한 야채, 구수
한 청국장 등 스므가지쯤의 시골반찬은 동동주 안주
에도 딱 제격이었다.

금상첨화(錦上添花)로 마주앉아 곡주 전하는 그대
의 잔잔한 미소에 어찌 취하고 싶지 않겠는가?

한잔 두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 옛 이야
기가 흥미진진하게 이어진다.

얼긋한 술취기에 마천루 창문을 활짝 열어제치니
싱그러운 공기와 함께 온 산야(山野)에 황홀한 경관
이 한눈에 와 닿는다.

별안간 옛 낭만시인(浪漫詩人)의 호기(豪氣)찬 시
(詩) 한수가 떠올랐다.

靑山綠水 我家境 인데
淸風明月 孰主張 이리오

푸른산 맑은 냇물은 나의 집 정원이데
맑은 바람 맑은 달을 누가 감히 네것이라 주장하는가?

30년전 1人當 국민소득 100 \$ 시대에서 근래
16,000 \$ 이 되어도 상대적 빈곤이니 또는 박탈감이
란 新造語가 생겨 사회적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가는
현세대에 옛 先人들의 정신적 풍요로움에 경외심이
솟는다.

역시 秋光의 瑞氣에 유혹됨인지 새로운 열정이 피
여난듯 모두 청춘으로 되돌아가는 환상에 젖어든다.

맥아더 원수가 전시중에도 애송했다는 “靑春” 시
(샤무엘울만 作) 한 구절에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라고 “Youth is not a
time of life, It is a state of mind” 했듯이 마음가짐의
실천에 따라 청춘도 행복의 길도 열릴것임을 평범한
진리에 매료된다.

아! 이 아름다운 추억의 계절이여!

멋진 風流와 행복의 꿈이 항시 이어지길 기원하면
서 귀가길에 올랐다.

2006. 10월 중순



류효수

계사정공 15대손 25세/경남, 합천 묘산 출신
前 한양파이프(주) 부회장/前 부산일보/前 삼일이사

중용(中庸)을 선택하자

인 생(人生)이란? 무상(無常)하며 세상만물(世上萬物)이 항상 그대로 있는것이 아니라 있는듯하다 없어지고 또 무(無)에서 유(有)로 생겨남이 계속되며 사람들의 정분도 좋았다 나빠지고 실재없이 변하는 것이 세상사(世上事)이다. 이른 아침 어둠을 뚫고 솟아 오르는 햇님은 온 세상을 밝게 환한 빛으로 물들고 영롱한 이슬방울을 먹음고 향기(香氣)를 내뿜는 아름다운 꽃들도 활짝피어 넘실대지만 어느새 시들어지고 초생달이 점점 커져서 두 동실 둥근달도 기울고 모든 생명에게 힘과 기운을 불어 넣던 왕성한 햇볕도 황혼역에는 어느새 지는 해를 보게 된다.

지금 현재 부유하고 권세가 있다고 빠지며 목과 어깨에 힘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알보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기득권자들이여 거만을 떨거나 오만하지 말아요, 중다반자(憎他反自)과 남을 미워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삶이 고달픈 민촌들이여! 생활이 처량하다 해서 자기를 비하하고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용기(勇氣)와 희망(希望)을 갖고 자기의 직분에 열성껏 살아야 한다. 필유조양(必有照陽: 반드시 별들날이 있다)이라 했었다. 이 세상은 공평무사하고 살만한 곳이다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이요.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라” 했으니 너무 실망해선 안됩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법이니 용기를 가집시다.

첫째, 일등을 누구나 바라보고 원하지만 그 실속은 중간이 좋은법이요.

둘째, 대(大), 중(中), 소(小) 가운데 중이 가장 중요하고 흑(黑)과 백(白) 가운데 모든 색(흑과 백을 제외한 모든색)이 중간색이므로 “중(中)”이 가장 많은 법, 중은 많고 큰 것이다.

셋째,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지만 미래보다 금생이 중요하다. “현재”를 어떻게 값어치 있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더 중요한 법이다.

넷째, 상(上), 중(中), 하(下)에서 너무 높은 자리도 낮은 자리보다는 중간쯤의 자리가 좋은것이다. 우리 몸에 좋은 인삼과 보약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毒)이 된다.

부족한듯 알맞게 먹음이 몸에 이롭고 좋은법, 모든 일에 있어서도 너무 넘치고 치우침보단 중간쯤이 좋은것이니 「중용을 선택하자」

다섯째, “인생도 물과 같다(人生如水)” 고 했던가? 물이 너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고 사람도 지극히 살피면 친구가 없어 고독하고 지나치게 깨끗함을 강조하는 결벽증은 주위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너무 더러우면 위생상 해로우며 조금은 부족한듯 모자란듯한 나사가 풀린듯한 사람이 똑똑하고 예리한 사람보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

온화한 정이 넘치는 사람! 자기자신의 결점을 찾아서 고치고 모든 일에 중용을 선택할 줄 알고 성실하며 양심껏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소중한 것이 아닐까? 한다.

사랑도 지치면 소모를 가져오고
명예도 지치면 심한 비방을 듣게 되고
기쁨도 지나치면 심한 근심을 가져온다.

모든 일에는 상대성이 있고 인과응보(因果應報)가 있으니 모든 일에 원한을 사지도 풀지도 않도록 모자람이나 지나침보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이라, 중용의 삶이 최상이다.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사랑과 겸손으로 화목하게 살아가자. 착한일을 실천하고 양심(良心) 구현으로 행복을 찾아서 성실하고 정직한 중용(中庸)의 철학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자.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고 물은 중용과 같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며 흐르다가 앞이 막히면 돌아가고 그래도 막히면 기다렸다가 서로 모이고 합하여 막힘(뚝)을 넘고 계속하여 흐르고 또 흘러간다. 또 물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모이고 다투지 않고 부드럽게 깨끗이하며 맑게 그러면서 그 땅을 기쁨지게 한다.

우리도 물처럼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살더라도 이웃에 베풀고 나누면서 그 땅을 살찌우고 그윽하게 하자. 벗(友)은 어진 사람을 사귀고 말은 믿음성 있게 천천히하며 다스림은 저절로 이루어 지도록 하고 느긋함과 기다림을 배우고 일처리는 능숙하게 패기있는 행동을 한다.

청산은 나를보고 말없이 사라하네
창공은 나를보고 티없이 사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씻어버리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하네
-나옹선사-

순리(順理)대로 중용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대자유인이다.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 그릇이 차면 넘치듯이 넘칠 만큼 소유하거나 자만심이 가득하면 재물도 권세도 몸도 상실하게 되는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익은벼가 고개를 숙이듯” 사람은 겸손하고 겸허 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 중용을 선택한 중용의 삶이라고 양심은 판단한다. 작은일에 충실하고 소외되고 약한자에 대한 애정과 기쁨을 주는 중용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자.

류해장
판서공파 승지공 26세
전 천마석재(주)대표이사/본회 부회장/회보 편집위원



효경 생활 교육

정 부수립후 각급학교에서는 한결같이 강조하며 가르쳐온 효경교육은 성과를 거두었
다기 보다는 점점 실종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어버이들은 온갖 고생을 무릎쓰고 자녀들을 키웠으며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 발전
시켰으며 사회를 지켰은 어른들로서 마땅히 젊은이나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심신의 안
정과 여생을 즐길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애지중지 키워준 자녀들로부터 소외되고 별거하며 노후의 안락한 생활을 어렵
게 보낼뿐더러 때로는 심한 학대를 받는 경우까지 있으니 이 어찌 서글픈 일이 아니겠습
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복지사회의 이상을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 어버이들의 노후생활이 고독해 진다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
니까?

까마귀는 어릴때에는 어미에게 먹이를 얻어 먹지만 어미까마귀가 늙고 병들게 되면
새끼 까마귀는 먹이를 얻어서 그 어미에게 먹여 준다고 하는 사실에서 부모에게 가특한
효성을 다하는 이를 까마귀에 비유하며 오조함정(烏鳥含情), 반포지효(反哺之孝)라고
합니다.

이렇듯 금수까지도 그 어미의 은혜를 알고 보은을 할 줄 아는데 말입니다. 예로부터 효
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으며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삼천가지의 죄목 가운데에서 불효
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유교의 경전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부터 전해지는 미담이
나 설화 심청전을 비롯한 소설등도 모두 효의 사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로
움이 담겨져 있으며 효 사상으로 응결된 한겨레 예의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타락한 서양문명의 유입은 가정질서의 문란과 파괴를 가져왔고 우리 전통
사상과 미풍양속은 빛을 잃게하고 우리 의식구조의 변화마저 강요하고 있으니 우리 주체
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해도 변해서 무방한것이 있고 변해도 아니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부
모와 부모 그리고 손자 삼대가 같이 살던 시대의 생활방식은 비록 달라져서 핵가족 사회
로 변모되었다 하더라도 부모 자식사이의 친륜에 따른 예절이나 마음가짐에 이상이 있으
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별거를 한다고 해도 항상 어버이의 뜻을 헤아려 의식생활
에 불편이 없도록 시중들고 잘 섬기며 마음을 편히 해드리며 선행과 성실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인간교육의 바탕이 가정교육에서 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글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거니와 의롭지 않으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오로지 한 자식이 효도만 있다면 자손이 많아서 무엇하랴, 이렇게 가정의 화목과 효경생활을 간절히 말하고 있으며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소망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옛날 전통 사회에서는 부모가 중병으로 임종이 가까워지면 자식은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부모를 소생시켰다는 효자들이 많았고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님 무덤앞에 초막을 짓고 삼년씩이나 시묘살이를 하였으며 거상 죄인이라하여 상립을 쓰고 부모를 추모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할수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도를 다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생활에 맞게 효개념이 재정립 되어야 함은 물론 산업사회를 살아가는데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별거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주 왕래하며 자녀들과 같이 노부모를 찾아 뵙고 인사드리며 예의를 바로하여야 합니다. 모름지기 효경교육은 이론교육이 아닌 실천교육이며 행동과 시범으로서 본을 보여주며 눈을 통해서 배우도록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에 앞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바른 사람으로 키우는 인간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과 같이 노부모를 잘 모시며 뜻을 받들고 매사를 의논하고 봉양하는 것을 꾸준히 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크게 자라며 반드시 여러분을 더 각뚱이 모실 것입니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이 나는 이치와 같습니다.

또 내 부모가 소중하면 남의 부모도 소중한 만큼 남의 부모들도 존경하는 마음씨를 지니게 하며 노인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과 예의를 갖추는 가정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효도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상례와 제례는 엄숙하게 그리고 성묘와 사초를 통하여 조상들의 유덕을 기리며 자녀들이 할 일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작은 사랑은 말이 많고 큰 사랑은 말이 없습니다. 말없는 가르침 소리없는 행동으로 어버이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효자는 늙은 부모를 봉양함에는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뜻을 어기지 않으며 그 귀와 눈을 즐겁게 하고 그 거처를 편안하게 하며 좋아하는 음식으로 정성껏 봉양한다.

류원기
계천관공파 서봉공 12대손/강화 출신
전 서울양명초등학교 교장/본회 상임이사



족보의 대한 의의

그 래 젊은 세대가 족보 본래의 참된 뜻을 몰지각한 나머지 무관심한 정도를 지나 조상의 위업이나 보록(譜錄)을 운위하는 사람을 시대착오요 현실에 역행하는 자라고 비웃곤한다. 그러한 우거(愚擧)를 볼때면 그들의 무지를 탓하기에 앞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

족보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 인식은 지난 시대에 한때 족보가 드러낸 역기능적인 측면만을 본대서 비롯한 오해이다. 족보(族譜)라 하면 신분과 상관없이 한 씨족(氏族)의 보록이라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지난 날 한때 양반이라는 특수 계층의 상징물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그래서 시대에 따라 어느 때는 족보를 상전으로 받들어 우상처럼 모시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이를 배경삼아 오만과 방종을 일삼은 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모두 족보제도 본래의 의의와 목적과는 거리가 먼 일부 시대인의 인식 착오로 인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것을 근거로 족보제도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는 지난시대 사람들의 그러한 인식 착오 이상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것ियो. 그러한 부정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족보제도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의연히 우리 문화의 전통으로서 또는 각 씨족과 가정의 보감(寶鑑)으로서 계속 높이 평가되고 보존되어야 할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

무릇 옛문화의 유산치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조상의 수택(手澤)이 어려있지 않은 것이 있을까마는 그 중에서도 족보만큼 우리들 각 개인에게 있어 직접적이고도 감회 깊은 것은 없다. 인류세계에는 세계사가 있어 인류문화의 발자취를 밝혀주고 한 국가에는 국사가 있어 선민(先民)의 정신과 사상을 다음 국민으로 하여금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씨족은 족보로써 그 혈통과 가풍을 전해가고 있는 것이다.

족보는 단순히 책자만을 전하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새 시대를 창조하는 새로운 인격과 역량이 그 속에서 찾아질때 족보의 진정한 가치는 정립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족보의 현대적 의의는 그것이 현대인의 교양으로 용해되어 새로운 조화를 얻을 수 있는 교양이란 어떤 것인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주체성과 민족적 자존심에 활발히 논의되는 것을 본다. 반갑고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개화기 이후 서구화는 곧 근대화요. 근대화는 곧 자주 독립인줄 착각하고 서두르다가 급기야 망국(亡國)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적 고배를 마신 경험에 있다. 그것은 자기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맹종할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세계화를 서두르는 시점에 서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좌표는 무엇이 이어야 하겠는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두번째 시행 착오를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서 민족의 주체성과 자존심이 활발히 논의되는 것은 더욱 반가운 것이다.

물질문명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정신적 빈곤에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혈통을 이어받은 아버지부터 시조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명의 원천을 찾은 길이 족보 사상임으로 인간의 근본을 알고 나 자신을 찾은 정신풍토 개선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조상의 생애와 위업을 알고 자신의 성과 본관에 대한 긍지를 가져 자주성 정신과 충효 사상을 자손에게 가르친다. 가족의 질서와 화목을 위해서는 가족 중심이 된 족보가 정신적 보전(寶典)이 된다. 한민족의 주체의식을 갖는데 필요하다.

근래의 문화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치곤 이름난 텔런트나 가수, 배우 이름과 그들의 출생지를 모른다면 수치로 알면서 자기 조상에 대한 생애와 업적을 몰라도 된다는 풍조가 범람하고 있으니 외래풍조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우리 전통문화와 고유문화를 외면하는 문화인은 남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역사를 알면서 자주적 정신을 길러야 한다. 족보를 부정하는것은 부모와 형제를 부정하는것과 같으며 이들은 애견(愛犬)의 족보를 잘 따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계보(系譜)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각성하며 인간의 근본된 도리를 찾는데 필요하다. 재난(災難)중 흩어진 부모형제가 동족(同族)을 만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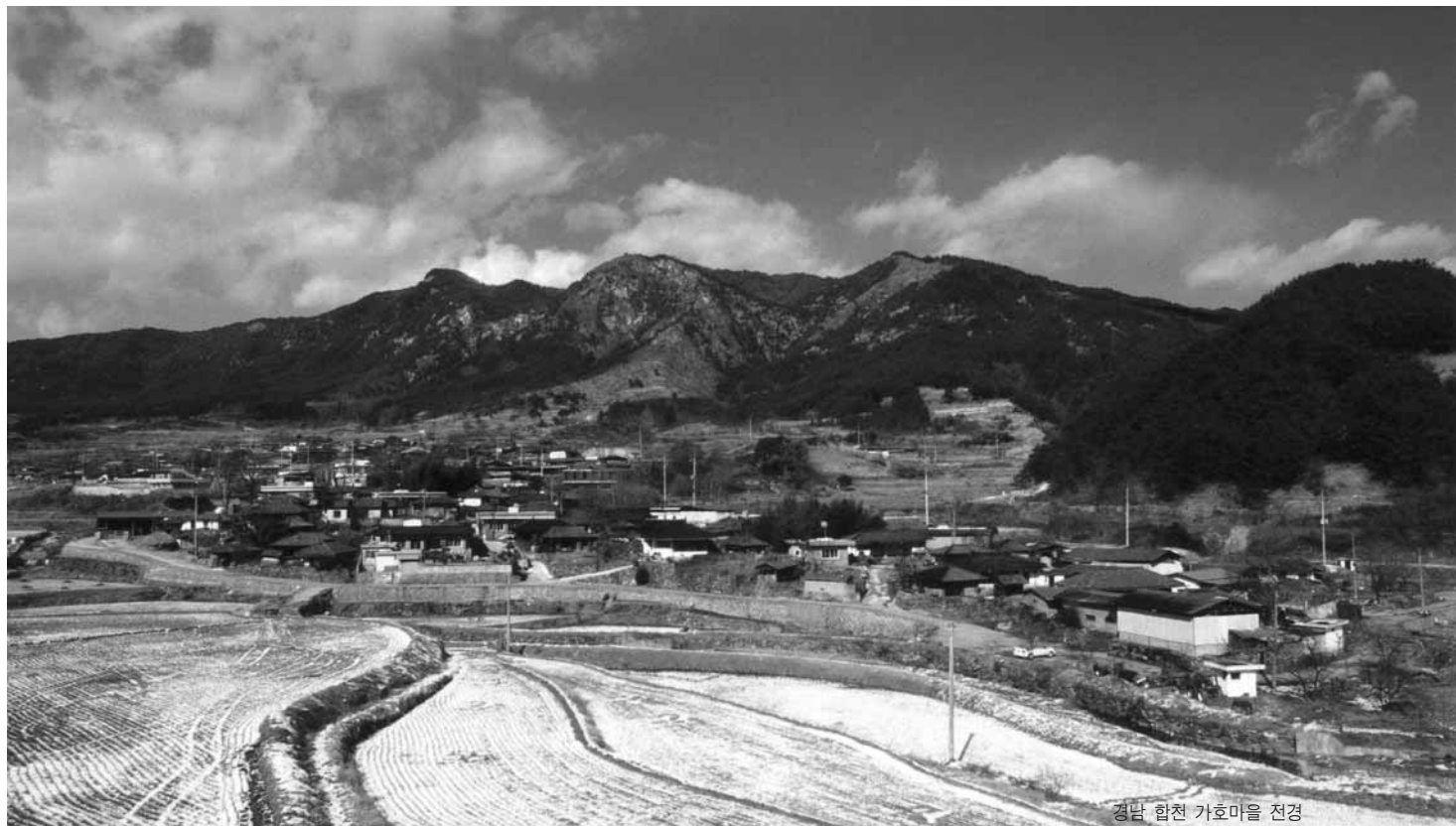
이제 젊은이들에게 우리 민족문화의 본질 파악의 한 과제로서 각자 자기 씨족의 족보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자 한다.

누구나 자기와 직접 혈통적으로 연결되는 선조의 사적과 위업을 옳게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 애착이 생기게 될 것이요, 애착이 생기면 자기가 그런 조상의 후예라는 데 대한 자존심과 긍지가 생길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존심은 자만심과는 스스로 다른 것이니 이렇게 하여 확립되는 각 가문의 자존심은 다시 민족문화의 이해를 통한 민족적 자존심으로 확대 승화될 것이니 이를 어찌 현대인의 바람직한 교양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옛 성인의 말씀에도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 했으니 이것이야 말로 옛것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가는 진정한 의미의 전통의 계승이 아니겠는가.

오직 우리 전통의 창조적 계승자로서의 새로운 지성인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이상적 지성인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합리적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학교 교육과는 별도로 선조의 행적과 유훈을 되새기게 하는 교육을 각 가정과 종친회를 통하여 병행시키는 것이다. 선조의 행적과 유훈을 알게되면 자연히 그 후예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요, 선조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게 될것이니 개인의 인격완성은 물론 나아가서 국민교육과 민족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족보를 포함한 일체의 보학(譜學)의 의의가 실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류연수
판서공파 승지공 16대손/경기포천출신
전 상임이사/본회 재정위원





경남 합천 가호마을 전경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

가끔 고향을 찾는다. 갈 때마다 아늑하고 포근함을 느낀다. 태어나 자라나면서 추억을 만든 곳이라만은 아니다. 조상으로부터 수 백 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온 역사, 내 가슴에 향수가 스며드는 고향을 가꾸며 살아오는 사람들로부터 느껴지는 정감 때문이다.

나는 각박한 세상을 벗어나 잠시라도 고향에 와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생기가 도는 듯하다. 그럴 때마다 마을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고향과 더불어 살아온 몇 분 어른들에 감사를 느낀다. 아무리 고향이 아름답다 해도 내 잘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가꾸고 지켜주는 이 없으면 폐허가 되고 말 것이 아닌가.

조선조 중종때 기묘사화가 일어날 무렵 선조(先祖)께서는 벼슬 길에서 물러나 세상을 등지고는 자연과 더불어 조용히 살고 싶어 이곳에서 터를 잡으셨다. 소룡산 기슭에 포근히 자리한 마을, 병풍을 두른 듯 좌우에는 산으로 둘러 쌓이고, 유유히 흐르는 용문강에 발을 담근, 평화스러운 마을이다.

봄이면 진달래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이면 풀 향기 실은 바람이 스치는 시원함이 있다.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들판이 있어 풍요로움을 누리기도 한다. 겨울에는 이웃간에 모여 호롱불 밑에서 이야기 꽃을 피우는 정다움이 있는 마을이

다.

내가 어릴 때만해도 사방 십 리 밖에까지 자동차 길이 없는 산골이었다. 들판이라야 겨우 산을 깎아서 마련한 계단식 전답으로 자급자족하며 살아왔다. 그나마 강수기에도 하늘에만 의지하는 천수답이다. 지금은 댐 시설 덕분에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고 마을까지 도로가 생겼으니 문명의 혜택을 입은 복된 마을이기도 하다.

옛부터 교통이 불편한 곳이었으니, 외부사람들의 출입이 잦을 수가 없었다. 해서,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하고 인정이 넘쳐 났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 농사만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벼 한 포기 목마르지 않을까 채소 한 포기도 벌레에 시달리지 않을까 하여 포기마다 어루만지는 자상한 보살핌을 지니고 살아왔다.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힘차게 뻗어나는 생명체에 사랑을 쏟아온 마을 사람들이다. 언제나 변함없는 인정, 앞다툼 할 필요 없이 조용히 지내는 편안함 그대로다. 자연의 순리에 길들여온 소박한 사람들이다.

60년대 초 전국에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잘 살기 위한 외침이 있었다. 하면 된다는 의지로 떠나 할 것 없이 열심히 뛰었다. 해서 우리 경제는 급성장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자, 농촌인구는 도시로 향하였다. 일대 변혁이었다. 우리 고향 또한 예외일 수는 없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떠났다. 허나 고향지킴이의 뜻을 버리지 않는 몇몇 어른들은 순간적 이욕(利欲)에 동요되지 않았다.

수 백 년을 두고 조상이 누려 살던 곳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들 역시 살기 좋은 도시로 가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했겠지만 마음속으로 울려오는 채찍의 소리를 외면 할 수가 없었다. 대대로 이어온 선조의 채취가 묻어있는 마을, 선조의 유골을 모셔둔 산소를 외면 할 순 없었다. 평생 동안 혼을 받쳐 가꾸어온 농토를 저버릴 수도 없었다. 이른봄, 뿌린 씨앗으로부터 피어 오르는 생명체에서 느끼는 정의(情宜)를 뗄 순 없었다. 나 하나 잘 살자고 고향을 버릴 순 없었다. 해서 그들은 배꼽 떨어진 고향마을에서 고향을 가꾸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는 일이 없다.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불평 한번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객지에서 고생이나 하지 않을까 염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키워준다. 욕심도 없고 남을 시기하는 일도 없다. 그저 일상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산다.

세월이 말하듯 그들의 얼굴에 골이 깊어지니 고향의 지킴이도 한계를 느낀 듯 하다. 허나 맑은 눈빛에 어린 지킴의 의지엔 동요가 없다. ‘썩튼 자리에서 자라 일생 동안 그 자리만 지키다가 마지막에는 한줌 거름이 되겠다’는 결의에는 변함이 없다.

며칠이 지나면 선조의 묘소에 별초하는 날이다. 그때는 꼭 가리라 마음먹어 본다. 내 나이 고회를 바라보고 또한 심장병으로 앓고 있는 몸이니 산에 오르는 것이 변변찮을 지라도, 마음에서 나마 나 또한 고향지킴이의 한 몫을 하고 싶어서이다.



류상훈
대사성공파 용호공 9대손/합천가호출신
전 국제청 근무/수필가/한미음선원 사무국장/전 부회장 역임/본회 상임이사

회상(回想)

우리 대종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종친 여러분의 협동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협동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대다수 종친 여러분의 희생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현대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로 가고 있다.

한 예로 한명의 천재가 1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오면서 고용없는 저 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령사회로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육에 집중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기술개발이 우선 순위였음을 알 수가 있다. 지금 같으면 사당 건립 기금을 서울 근교 빌딩을 구입하여 대종회 사무실도 쓰고 여분이 있으면 임대 수입으로 자질있는 종친들 자녀들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인재육성에 투자하여 그들이 국가 사회에 크게 성공하면 사당도 더 좋게 건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로 출세하면 류문의 영광이요, 대종회도 크게 발전할 것이다. 그 예로 유한양행을 설립한 류일한 박사는 우리 류문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세무 감사에서도 모범 납세자라고 평가 받았으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이며 국가에도 매년 행사도 주선하여 주고 있다.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라(존에프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남긴 말을 인용하면 대종회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지 말고 대종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후원금도 환영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선적으로 년회비를 모두 납부해 주기를 더 바랄것이다. 그래서 어느정도 자금조성이 되면 장학사업부터 해야할 것으로 본다. 이것만이 우리 모두가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훌륭한 교육의 바탕에서 모든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우선적으로 씨앗(年會費)을 뿌려놓고 추수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선진국간 사례를 보면 제일 조건이 국력과 경제력 자본과 기술이 축적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고 문화적 사회적 요인이 바로 신뢰성이며 서로 믿는 사회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믿을 수 있는 관계인가에 따라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가 좌우된다고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현재만 생각한다. 지금 내가 여기 거짓을 심으면 그 다음에 저기 가서 어떤 열매가 거두어 지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경제 연구소 공동 조사에서 IMF 환란 책임의 첫째가 정치인(46.6%), 둘째 국민 전체(29.5%), 셋째 정부관료(12.2%)로 나타났고 경제위기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식 개혁으로 나타났다. IMF로 가장 많이 잃은 것은 신뢰성이며 선진국에서는 신뢰의 게임이 활짝편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자동차를 생산하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 기술개발이다.

세계 기능올림픽 제패를 10년이상이나 연속 1등을 했다는데 스포츠 연예인 이름은 알 아도 기능인 이름은 기억할 수 없고 스포츠 투자는 하지만 기능인에 자금지원을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정치학자 KENETH E BOLDING은 20세기가 21세기의 우리들에게 남긴 과제로 전쟁 빈부격차 환경 도덕성 회복문제를 지적하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이상의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도 우리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교통문제만 몇가지 예를 들면 정지선위반, 신호위반, 차선위반, 새치기, 담배꽁초를 차창밖으로 버리는 행위 음주운전, 역주행까지 하는 등 휴가철이 지나면 바닷가 산장계곡 온천지가 쓰레기 더미로 넘치고 고속도로 주변이 쓰레기투척 산불이 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서 선진국 진입이 그렇게 쉬울까 하는 의문이 들때도 있다. 실천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가장 쉬운 일도 실천 못하고 있다.

몇가지 보이는 것들을 예를 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더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추 정도 해본다. 외화를 쓰며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녀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며 배우고 오는지 알 수가 없다.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면서 법과 질서가 일치하고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선진국을 갈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종친들이 앞장서서 더 노력하면 좋겠다.

※ 혁신에 성공한 나라들 필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 38위에서 61위로 추락

※ 잠자는 거인보다 일하는 난장이가 더 훌륭하다.

※ 양심없는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부정한 일을 한다.

※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버리면 큰 손해가 온다.

※ 완전한 소유란 없다.

※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며,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간디의 망국론(亡國論)

① 원칙 없는 정치	② 도덕 없는 상업
③ 노동 없는 부	④ 인격 없는 교육
⑤ 인간성 없는 과학	⑥ 양심 없는 쾌락
⑦ 희생 없는 신앙	

Mohandas Gandhi(1869~1948):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사상가/인도건국의 아버지

류영길
 진천군파 재산공 19대손/경북안동출신
 유일상사 대표/본회 재정위원



봉사하는 마음과 실천하는 보람

- 작은 봉사 정신의 실천으로 안성시 최우수 경로당으로 선정되기까지 -

경로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잠시 지난 세월의 기억이 떠오른다. 공직에서 정년퇴임을 몇 년 앞두고 서울시 행정의 최 일선기관인 동사무소에서 대민업무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을 때의 일이다.

일선행정 업무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제증명 발급 업무를 비롯해서 신 발생무허가건물 단속, 쓰레기 분리수거 행정지도, 각종 세금징수, 영세민관리, 불법주정차단속, 취로사업시행, 경로당, 유아원 업무관리 감독 등, 그 밖에도 시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필자도 정년이 다가오면서 자연히 경로당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 관리 책임자로서 매일 간소복에 운동화를 신고 관내 순찰을 하면서 중점 착안사항으로 거리와 주변 환경은 깨끗한가, 주택가 골목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수거는 잘 되고 있는가, 신 발생 무허가 건물은 없는지 등 각종 업무를 꼼꼼히 살피면서 거리에서 주민을 만나 현장민원을 직접 청취도 하고 경로당과 매주 2~3회 정도 순회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야 하는 일이 주요 업무중의 하나다.

경로당의 실태를 살펴보면 각 동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로당이 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단지마다 사설경로당이 예산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면 담배연기가 자욱한 좁은 공간에서 일부회원은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서로 욕설하고 다투는가 하면 일부 회원은 화투, 장기, 바둑을 두면서 소일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경로당 실내에 들어서면 먼저 향기롭지 못한 역한 냄새를 접하게 된다. 원인은 담배연기와 몸을 자주 씻지 않고 옷, 내복, 양말 등을 자주 세탁해서 입지 않고 실내 청소를 게을리 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정년퇴임 후에 경로당에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비쳐질까 하고 실망스러운 마음들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마을 젊은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지 하면서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오던 터였다.

그러다가 어느덧 1998년도 상반기에 정년퇴임을 하면서 시골 고향 마을로 귀향을 해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해 가을 추수가 막 끝나갈 무렵 어느 날 마을 경로당 총무라는 분이 찾아와서 회원으로 가입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시골은 지역정서가 도시와는 다른 면이 있고 비록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40여 년간을 고향을 등지고 떠났다가 새로 이사를 온 사람의 입장으로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곳 경로당에 나가보니 도시 경로당과는 다소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월 정기 월례회의와 거리 청소 등 봉사활동도 하고 농번기에는 바쁜중에도 봉사활동을 통해서 노는 땅을 일부경작, 콩, 고구마, 참깨 등 지역실정에 맞는 곡식을 심고 가꾸어 가을철에 수확을 해서 경로당 운영기금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등 비교적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도시경로당은 매일같이 많은 회원이 경로당에 모이는데 반해 시골에는 젊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동력의 절대 부족으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농사일을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타까운 형편이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회원들이 매일 경로당에 모일 수가 없고 다만 농한기인 동절기에 약 3~4개월 정도 전 회원들이 경로당에 모이게 되는데 이 곳 경로당에도 시청에서 연간 약간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기위한 금전출납부를 비롯한 관련 서류도 전혀 갖추어 놓지 않

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다보니 월례회의, 정기총회 때가 되면 회원들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실내 환경은 어느 누구도 쓸고 닦는 사람이 없어서 실내는 항상 불결한 상태로 선뜻 신발을 벗고 들어설 마음이 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실내에는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담배연기가 항상 자욱하고 노인들에게 나는 역한 냄새가 방안에 배어 있고 실내에 계층된 각종 게시물은 누렇게 퇴색이 된 채 제멋대로 걸려 있어 미관이란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참고로 경로당 직제를 살펴보면 전국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중앙회가 있고 산하에 각 시도 지부 연합, 각시, 군, 구지회, 동, 면, 분회, 최 일선 조직으로 마을 경로당이 있다.

그런데 우리 마을 경로당은 공식명칭이 “학구단위 대덕면분회 경로당”으로 1978년부터 인근 4~5개 마을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경로당 회장직은 반드시 이웃마을 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우리 마을 회원 중에서만 선출한다는 오랜 관행이 계속되고 있었다. 대덕면 분회경로당 산하에는 25개 마을 경로당이 1992년도부터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유독 우리 마을 경로당은 그 이름조차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평소 이와 같은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해 오던 필자는 임원진에 연유를 알아보아도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2001년 말 어느 날 몇몇 회원들과 상의 끝에 이를 규명하기 위한 시청사회복지과를 방문 내용을 알아보니 의문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동, 면 단위분회 경로당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각 마을 경로당에만 예산지원이 되는데 우리 마을도 “거청경로당”이라는 명칭으로 다른 마을 경로당처럼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대덕면 분회에서는 우리 마을로 나오는 거청경로당 예산으로 운영을 해왔으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거청경로당의 이름이 무려 10년 동안을 캐비넷 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임원진의 무관심이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남기고 말았다.

당시 평회원이던 필자는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다음해인 2002년도 초 정기 월례회의시 임원진을 비롯한 전 회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전 회원의 동의를 얻어 2002년도 정기 총회시 대덕면분회조직속에 묻혀있던 경로당명칭을 거청경로당으로 변경 운영한다는 정관도 새로 제정하고 잃어버렸던 마을 경로당의 이름을 10년 만에 다시 찾아 현판도 새로 제작 현판식도 거행하고 임원 개선시 비로서 우리 마을 회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나니 신임회장이 필자를 부회장으로 추천하면서 공식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로당을 전반적으로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자는 경로당 업무 전반을 내실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앞으로 거청경로당을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새로운 경로당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예산집행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금전출납부 수입, 지출, 결의서, 회원명부, 월회비징수부, 비품 대장 등 각종 공부를 하나하나 만들어 예산집행의 투명화를 위한 노력과 “둘째” 경로당 실내외 청소 등 두 가지는 필자가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셋째”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회원은 실내에서는 절대 금연을 할 것과 옷과, 내복, 양말을 자주 세탁해서 입고 목욕은 최소한 1주일에 한번은 하도록 전 회원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나니 일부 애연가들은 불평을 하기도 했으나 실내금연을 비롯한 실천사항은 전회원은 적극적인 협조로 해가 거듭되면서 점차 개선되기 시작 지금은 완전히 정착단계에 이르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마을회관 건물을 신축한지가 10여년이 지나도록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서 겨울철이면 난방이 잘되지 않아 방바닥이 냉방이고 도배장판도 노후되어 아무리 쓸고 닦아도 실내 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몇몇 회원들과 대책을 상의 끝에 2004년도 봄에 회원 중에 난방 공사 기술이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소요자재만을 구입 최소의 비용으로 방바닥 보일러선도 새로 교체해서 난방이 잘되게 하고, 도배장판도 하고나니 실내 환경이 새집처럼 개선되었다. 결과는 전회원이 대 만족이었다.

환경개선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나갔다. 올해부터는 예산을 더욱 절약하여 진공청소기도 구입하고, 그 다음해에는 냉장고 구입, TV구입 등 해마다 한 가지씩 필요한 물품을 구입 회원들의 복지와 환경개선을 지속해 나갔다.

그리고 오랜 전통을 이어온 마을에는 마을의 유래라든가 각종 체육대회, 경진대회, 경로당운영에 따른 상장, 상패, 트로피들이 마을회관에 진열되어 그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을 종종 본적이 있는데 우리 마을에는 마을회관에 그와 같은 것이 한 점도 관리 되지 않고 있었다. 연유를 알아보니 상장이나 상패를 수상할 때마다 개인이 집으로 가지고 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그 후 마을이장과 협의 2002년도부터는 시민체육대회, 민민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시에 수상하는 상장, 상패, 트로피를 모두 경로당으로 가져오도록 하고 번듯한 진열장을 새로 제작 경로당에 설치하고 관리해나가기 시작해서 현재는 마을의 유래, 경로당연혁과 많은 상장, 상패, 트로피가 진열돼 있어 마을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어느 경로당이든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경로당의 경우 전회원의 동의를 받아 매월 약간의 월 회비를 받고 있으며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는 마을의 어려운 이웃 4~5구를 선정해서 라면, 백미 등으로 이웃돕기 운동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한 매년 봄, 여름, 가을 등 연간 3회에 걸쳐 1일관광 등 회원 단합대회도 정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합 분위기속에서 50여명의 남녀 전회원이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온바 지난 2004년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에서는 면단위 25개 마을 경로당 종합업무평가에 우리 마을 경로당이 처음으로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한 바 있으며 지난 2004년도 연말 정기총회 시에는 필자가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경로당 업무개선은 더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마을회관 건물 양측주변에는 공지 약 100여평이 있는데 회관건립당시부터 쓸모없는 땅으로 해마다 잡초만 무성하고, 지나다니는 차량에서 밤중에 몰래

버려지는 각종쓰레기 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던 차 오랜 고민끝에 해결방안을 모색 올해부터 이곳에 꽃길을 조성하기로 전회원과 의견을 모으고 2006년도 봄에는 봉선화, 코스모스, 백일홍, 칸나 등 20여종의 각종 꽃모종을 구입도하고, 회원들의 협조로 구해다 심고, 한여름에 구슬땀을 흘리며 가꾸어 놓으니 쓰레기 무단투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덧 사라지고 봄부터 늦가을까지 피고 지는 꽃으로 꽃동산을 이루고 있어 마을회관건물이 꽃밭에 둘러쌓여 한층 돋보일뿐더러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곳을 지나다니는 이웃마을 주민등 모든 사람들로부터 마을의 이미지가 확 바뀌었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우리 마을에는 한여름에 더위를 식힐 정자나무도 마땅치 않아서 경로당이 중심이 되어 오래전부터 정자건립을 추진해오던 중 마을이장과 면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2006년 9월 26일에는 마을회관 주변 공지에 아담한 정자를 건립함으로써 경로당회원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이 내년 여름부터는 시원한 휴식공간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꽃밭속에 정자를 지어놓으니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주변 환경과도 잘 어울리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 2일 제 10회 노인의 날 행사에서는 2006년도 경로당업무 종합평가에서 안성시 400여개 경로당중 우리 마을 경로당이 영예의 최우수경로당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기쁨도 누렸다, 앞으로 우리 경로당은 전회원이 일치단결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내에서 최우수경로당이 될 때까지 환경개선, 회원복지향상과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류석형
계천관공파 어모공 14대손/안성시 대덕면 거주
전 서울시 공무원/본회 재정위원·회보 편집위원

종중의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天理를 따라 使命을 다하고 祖上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여 빛내며, 약간 크게 子孫을 道義로써 教育하고 一家間에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順天應命 繼志述事 教子有方 親親愛人) 우리 晉州柳氏의 宗訓입니다.

우리는 先代祖이신 조상님들의 崇高하신 유지를 받들고 위 宗訓을 마음속깊이 새겨 우리 宗人들의 하나됨을 보여주며 宗事를 推進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할 큰 과제이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祖上崇拜精神이나 宗人一家間의 따뜻하고 情겨운 참다운 愛情은 점차 과거사가 되어가고 이제는 宗中이라는 단어마저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宗人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몇몇 종가집을 위시한 知覺있는 사람들만이 겨우겨우 명목을 이어나가는 現狀이며 宗中은 우리가 하나라는 묶음으로 이루어진 의미 깊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宗中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남의 일처럼, 외면하면 결코 않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님들의 일을 물려받들어 우리 후손에게도 조상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주어야 할 사명과 책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중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 화합하고 종사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종중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대소 종중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아무런 재산 평가도 받지 못한 수백년 이어 내려온 종산에 대하여 현정부는 아랑곳없이 막대한 세금(재산세, 종토세)을 부과하고 있으며, 종중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유지 관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이 근자의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종중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기에 처한 종중의 위태로움을 헤쳐나갈 길을 찾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이 필요하며 더 나가 종중을 유지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일들이 시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종사의 유지 발전하는 방법으로는 宗財를 축적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합니다. 지난 과거의 종재확보는 대중회에 요직을 부여받은 분을 위시하여 재정위원 독지가의 출연금으로 운영해 왔다고 봅니다. 종사일도 하고 종재도 책임지는 일은 모순된 부분도 다소 있지 않은가? 종친회의 일을 맡아 고생하시는 분에게 종중운영에 소요되는 資金마저 부담을 주는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1992년 7월 30일 전국 分會長 및 종인들에게 발송된 서한을 보면 매년 세대당 1만원 회비 징수방법을 지로로 납입하라는 호소문을 발송, 협조를 구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입하는 종인은 극소수이고 계획대로 하면 전국에 1만 8천 여호 종인들이 년회비 1만원을 납부하면

어느 정도 재정확보가 되는 것으로 이는 진강사 재향을 비롯, 장학사업, 위선사업, 종친간의 친목도모 등을 통하여 종중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종원들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려는 계획이었다고 보나 종친들의 이해부족과 성의부족 등으로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 하다가 정관개정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며 또한 자동차 보험도 착수한 바 있었으나 이것 역시 성공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중지된 바 있었으니, 이 원인분석도 필요하다고 보며 이때야말로 중지를 모아 종재확보를 위하여 재기 분발할 때라고 봅니다.

가장 좋은 方案은 매년 1만원 통상회비를 성인 종인들에게 납부토록 하는 것입니다. 대종회 중심의 정관을 과종회 중심으로 2002년도부터 개정하였는바 세부적인 분석에 의한 재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모든 종친들의 자신이 종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금년 1월 12일 신년하례식때 대종회 재원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국의 종원 1만 8천여 세대가 자동차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 그 이득금으로 종재를 마련해 보자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었고, 이 과제는 정기총회 이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총회 인준을 받도록 논의된바 있으나 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宗員들의 자발적 동참여부에 따라서 성공 여부를 가름한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한 정부의 재산세, 종토세 부과문제는 각 종파간의 의견을 수렴, 타 문중들과 공감대를 형성, 대 정부요로에 건의, 개선점을 모색토록 희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월이 변한다고 우리 종인들이 지켜나가야 할 부분적인 변화는 있을수 있으나, 근본적인 과제와 덕목은 크게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변한다는 것은 종원들의 합심된 결집력이 어느때 보다 요구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 서로가 합하여 서로 서로 도와줄때 우리 종중도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 모두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며, 끝으로 종사일에 몸과 마음을 희생적으로 봉사하여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정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절효부(節孝婦) 묘비 입석(立石) 추석 성묘후 기념사진
(필자 부인/필자/누이 동생/장남, 차남 며느리)



류시영
청주대학동창회 이사·원로위원장/前 청주시의회 의장

대중회 정기총회를 다녀와서 또 다른 비상(飛上)을 꿈꾸다

2006년 3월 26일 대중회 정기총회에서 박사학위 祝賀牌 수여식이 있다는 대중회 사무실로부터 연락 받고, 감사하는 마음과 송구한 마음이 스쳐지 나가는 혼돈의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본적도 없고 대중회에 대해 아는 바도 없는 저로서는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 것이 柳門의 후손으로서 옳은 행동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보학에 대해 아는 지식은 가보로 보관해 오던 족보를 보고 시조할아버지부터 24세손인 저까지 직계 조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기록을 본 것이 전부입니다. 족보를 펼쳐볼 때마다 선조님들께서 이룬 빛나는 업적을 기리며, 柳門에서 태어난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는 업은 기업체의 경영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지도하는 경영컨설팅업무와 세무회계 사무소, 그리고 대학(동아대·경남정보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하는 관계로 1년 중에 3월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버지께서 축하패를 대신 받아 오셨으면 하는 간사한 마음도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마음한구석이 선조님과 문중어르신께 죄를 짓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 또 편안하지가 않아 시간상 당일 왕복 항공편으로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참석하는 대중회 정기총회라 설레임과 궁금함, 어색함이 있었지만 정기총회장 입구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신 대중회 임원들 덕분에 고향에 온 것 같은 포근함도 느꼈습니다. 참석 종친들은 각자 종파에서 나눠주시는 명찰을 달고 방명록에 기록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즐거운 마음은 잠시뿐이었으며, 한마디로 대중회에 참석하는 순간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

니다. 참석하기 전에 예상한 대로 중년과 젊은 종친들은 거의 없었으며, 연세가 지긋이 드신 종친 어르신들만 참석해서 앞으로 우리 대중회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이어져 빛나는 업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총회 시상식에서는 박사학위와 행정고시, 사법고시 등 축하패를 수여받은 인원이 5명 이상으로 기억되는데 당사자가 직접 참석한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중회 회장님으로부터 축하패를 받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면 대중회를 이끌어 주시는 고문님과 회장님이하 고생하시는 집행부 종친들께 많은 실례를 범했을 뻔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꼭 참석 해야하나 망설였지만 정말 참석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회 축하패 수여식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였더라면, 젊은 종친들을 만나 서로간 정을 나누며, 종친회 발전에 대하여 우리 젊은이들도 한몫을 할 수 있는 의논할 기회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안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날이후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하다보니 이러한 생각은 그때 뿐이었으며 벌써 한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많은 생각을 혼자 나름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잘못 전달한 내용이 있으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보발간에 노고가 많으신 종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오며 대중회의 무궁한 발전과 柳門의 찬란한 영광을 위해 또 다른 비상(雄飛)을 꿈꾸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류원범
대사성공과 계사정공 14대손/합천옹주출신
동아대 초빙교수/경남정보대학 겸임교수



고시 합격자 명단

順番	受賞者名	系 出	派 居	區 分	高試回數	施行年月日	表彰年月日	電話番號
1	春根	晉, 潮 溪 公 13代孫	聞慶 承德 子	行政	22回	1977	1980. 03. 03	
2	熙相	晉, 宰 臣 公 19代孫	醴泉 承旭 子	"	22回	1977	"	
3	甲永	大, 伯司正公 17代孫	丁台 明馨 子	行政	23回	1978	1981. 03. 29	
4	珍桓	伯, 睡 齋 公 15代孫	加德 承 子		23回		"	725-6659
5	承晚	伯, 睡 齋 公 16代孫	加德 太馨 子	行政	35回	991. 11. 23	1992. 04. 12	
6	承曄	伯, 正 言 公 12代孫	安山 天馨 子	司法	35回	1993. 10. 13	1994. 03. 20	031-413-8676
7	斗秀	季, 河 陽 公 11代孫	大川 遠俊 子	司法	36回	1994. 10. 26	1995. 03. 26	031-421-3098
8	明相	大, 伯司正公 18代孫	丁台 承烈 子	司法	11回	1994. 10. 28	"	051-864-1512
9	炳浩	大, 季司正公 15代孫	佳湖 漢秀 子	行政	38回	1994. 11. 30	"	
10	壽旺	晉, 縣 監 公 17代孫	密陽 丑奉 子	司法	33回	1989. 11	1996. 03. 31	02-534-4900
11	炯英	大, 司 直 公 18代孫	南海 承鍾 子	司法	39回	1997. 12. 18	1998. 03. 29	
12	東昊	大, 季司正公 15代孫	佳湖 遠春 子	"	41回	1999	2000. 03. 26	
13	喆浩	大, 季司正公 16代孫	佳湖 漢秀 3男	行政	44回	1999	2001. 03. 25	
14	姬承	季, 縣 監 公 17代孫	海中 長女	行政	46回	2002. 11	2003. 03. 30	016-777-7454
15	政旼	晉, 臺 巖 公 19代孫	武陵 東林 子	司法	46回	2004. 12. 24	2005. 03. 27	051-851-0525
16	成旭	大, 季司正公 17代孫	佳湖 海根 子	司法	45回		2004. 03. 28	02-532-0187
17	東均	大, 季司正公 17代孫	佳湖 洪九 子	司法	45回		2004. 03. 28	02-838-3311

표창패 증정(기타부문)

順番	受賞者名	系 出	派 居	區 分	表彰年月日	電話番號
1	承宙	季, 署 令 公 19代孫	新 基		서울 大學校 工科大學 首席合格	02-915-7550
2	德馨	大, 季司正公 17代孫	巨 濟	1980. 04. 19	1980年 4月 15日 韓國日報社 主催 第16回 映像藝術賞部門 『봄이오면 산에둘레』藝術大賞 兼 演出監督賞 受賞	
3	尙昊	大, 季司正公 16代孫	妙 山	1981. 03. 29	第 11代 國會議員 當選 (陝川)	
4	尙昊	大, 季司正公 16代孫	妙 山	1984. 03. 25	第 12代 國會議員 當選 (陝川)	
5	光秀	季, 河 陽 公 12代孫	利 川	1991. 09. 20	1991年 3月 26日 施行基礎議員 議會議員當選 및 議長被選 (利川市)	
6	天馨	季, 河 陽 公 14代孫	平 澤	"	上全 平澤市議會 議員 當選	
7	準向	伯, 忠 贊 公 16代孫	老 山	"	上全 서울시 中區 議會 議員當選	
8	光司	大, 司 直 公 19代孫	南 海	"	上全 서울시 江西區 議會 議員當選	
9	道載	大, 季司正公 17代孫	야 로	2003. 03. 30	2002 基礎團體議員 當選 (陝川郡)	
10	武馨	大, 季司正公 18代孫	妙 山	"	上全	
11	承敏	季, 司 議 公 14代孫	벽성	2005. 03. 27	2004년 8월 아테네올림픽 탁구부문 금메달	

박사학위 취득자 명단

順番	受賞者名	生年月日	系 出	派 居	學位名	取得年	取得大學	表彰年	現 職	電話番號
1	宅 馨	1928	伯, 文 貞 公 15代孫	馬屯	法學博士	80	漢陽大學校	81	변호사	02-459-7979
2	承 國	1923	伯, 睡 齋 公 16代孫	隱 谷	哲學 博士				성균관대 명예교수	010-8271-0057
3	承 宙	1937	大, 水 使 公 15代孫	丁台	文學博士	81	高麗大學校	82	고대 교수	02-915-7550
4	丙 植	1952	晉, 察 訪 公 16代孫	舊書	藥學博士		美	"	재미	
5	長 發	1945	大, 潤 庵 公 11代孫	佳山	遺傳工學博士		美뉴햄프셔대학	85	대구대 교수	053-850-6731
6	時 馨	1938	大, 僉 知 公 17代孫	鳴琴	藥學博士	82	成均館大學校	"	약국경영	02-646-3418
7	珍 馨	1931	判, 署 令 公 18代孫	新基	醫學博士		카도릭醫大	"		
8	元 馨	1955	季, 保 寧 公 14代孫	鄉南	園藝學博士		미일리노 大學			02-594-0967
9	承 文	1953	伯, 參 判 公 13代孫	鳴 谷	工學博士	"	科學技術院	"		02-252-9282
10	浩 相	1950	季, 直 長 公 15代孫	信 川	醫學博士		高麗大學校	"	고려대(안암의료원)	02-3273-0386
11	奉 煥	1937	大, 府 使 公 19代孫	泗 川	工學博士		慶熙大學校			011-763-5040
12	滢 萬	1934	大, 府 使 公 13代孫	咸 興	哲學博士			88		
13	喆 模	1931	伯, 睡 齋 公 16代孫	隱 谷	工學博士			"	서울공대 교수	010-3171-2527
14	善 模	1939	"	"	文學博士			"	경기대 교수	02-455-1007
15	一 相	1947	晉, 宰 臣 公 20代孫	醴 泉	文學博士			"	건국대 교수	011-211-7024
16	淳 馨	1944	伯, 文 貞 公 15代孫	馬 屯	保健學博士	87	延世大學校	89		02-579-7841
17	爽 馨	1948	季, 保 寧 公 14代孫	江 西	經濟學博士	88	美 인디애나大學	"		02-594-0967
18	起 相	1953	季, 禦 侮 公 16代孫	安 城	物理學博士	88	美, 디하이大學	90		
19	錫 相	1964	季, 河 陽 公 16代孫	平 澤	教育學博士	91	美, 남미시십피大學	"		031-274-8264
20	顯 模	1959	晉, 臺 巖 公 18代孫	銀 尺	치醫學博士	89	慶北大學校	91	서울대 교수	017-503-6815
21	承 益	1956	大, 丹陽伯公 18代孫	忠 州	政治學博士	90	美, 남캐롤라이나大學	"		02-847-9124
22	仁 模	1959	伯, 睡 齋 公 17代孫	隱 谷	法學博士	91	獨, 켈론 大學	"		019-556-0057

박사학위 취득자 명단

順番	受賞者名	生年月日	系 出	派 居	學位名	取得年	取得大學	表彰年	現 職	電話番號
23	錫 煥	1954	大, 司 直 公 16代孫	南 海	理學博士	87	西江 大學校	92		054-77-5293
24	承 喆	1961	判, 署 令 公 19代孫	新 基	工學博士	91	漢陽 大學校	"		3672-1459
25	憲 馨	1954	伯, 忠 贊 公 16代孫	老 山	工學博士	91	忠南 大學校	"		042-581-8454
26	承 必	1955	大, 府 司 公 17代孫	泗 川	工學博士	"	忠南 大學校	"		
27	潤 政	1952	伯, 正 言 公 14代孫	安 山	醫學博士	"	서울 大學校	"	제일방서선과	031-915-2296
28	炳 秀	1958	季, 河 陽 公 12代孫	大 川	한醫學博士	92	慶熙大學校	"		045-935-2070
29	承 勳	1957	判, 署 令 公 19代孫	仕 洞	工學博士	91	美, 뉴저지 大學校	"		031-773-2213
30	東 睦	1955	晉, 縣 監 公 18代孫	密 陽	齒醫學博士	89	慶熙大學校	90	경희의료원 치과교수	02-6285-5525
31	衡 模	1955	晉, 臺 巖 公 18代孫	銀 尺	工學博士	90	美 오레곤 주립大學	"		
32	種 睦	1953	晉, 縣 監 公 18代孫	密 陽	文學博士	91	서울 大學校		서울대중어중문학과 교수	02-898-0985
33	承 九	1947	晉, 宰 臣 公 19代孫	安 東	經營學 博士	92	啓明 大學校	"	경주 서라벌대학 학장	053-731-4885
34	在 相	1955	伯, 睡 齋 公 17代孫	梧 柳	工學博士	"	日,長岡技術科學大學	93	삼성전자 연구소	031-715-1419
35	炳 泰	1960	晉, 臺 巖 公 19代孫	銀 尺	生物學博士	"	美, 미네소타大學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42-879-8867
36	炳 九	1940	伯, 睡 齋 公 19代孫	隱 谷	哲學博士	93	成均館大學校	"		011-416-2057
37	志 九	1950	晉, 縣 監 公 17代孫	密 陽	工學博士	92	嶺南大學校	94	부경대 전자공학 교수	051-336-5600
38	海 春	1959	大, 潤 庵 公 13代孫	佳 山	文學博士	93	慶北大學校	"		054-932-6224
39	炳 鎰	1954	大, 司 直 公 19代孫	南 海	文學博士	"	東亞 大學校	"		
40	承 寬	1955	大, 郡 守 公 19代孫	孔 道	醫學博士	"	高麗大學校	"		875-5523
41	己 馨	1959	大, 少 尹 公 17代孫	月 坪	食品工學博士	92	美, 캔서스주립大學校	95		
42	泰 模	1955	晉, 臺 巖 公 18代孫	銀 尺	經營學博士	94	啓明大學校	"	부산지방(교수)	016-558-2765
43	鎬 相	1961	季, 保 寧 公 16代孫	安 城	行政學博士	"	高麗大學校	"		
44	承 逸	1958	季, 保 寧 公 15代孫	安 城	機械工學博士	"	미,N캐로라이나대학	"		031-674-1273
45	萬 馨	1940	季, 河 陽 公 14代孫	平 澤	工學博士	79	忠南大學校	96		02-477-3713
46	承 鎭	1949	季, 直 長 公 15代孫	新 川	醫學博士	85	카도릭大學	"		02-583-7720
47	海 日	1951	大, 郡 守 公 17代孫	孔 道	理學博士	92	獨, 튜빙겐大學校	97		054-822-3291
48	承 宇	1947	伯, 睡 齋 公 16代孫	加 德	經濟學博士	93	忠北大學校	"		02-426-6465
49	自 馨	1941	伯, 西 垆 公 12代孫	槐 山	牧會學博士	96	美, 애쉬랜드神學大學校	"		02-2608-1027
50	永 均	1969	大, 司 直 公 17代孫	南 海	工學博士	97	韓國科學技術院	99		054-514-4261
51	成 俱	1966	大, 李司正公 16代孫	佳 山	工學博士	97	嶺南大學校	"		051-702-2504
52	成 林	1962	晉, 聞慶 承五 子		教育學博士	98	교원대	00		053-634-3748
53	濟 龍	1968	伯, 安產 甲楨 子		工學博士	"	科學技術院	"		031-265-8030
54	湖 相	1958	晉, 銀尺 承鎭 子		哲學博士	95	美 조지아 大學校	01	영남대 교수	053-810-3134
55	承 勳	1958	季, 安城 再馨 子		工學博士	99	崇實 大學校	"		
56	霽 桓	1970	伯, 梧柳 承德 子		"	"	延世 大學校	"		011-287-6910
57	海 榮	1949	大, 提川 範秀 子		育種學博士	98	필리핀 大學校	02		011-9082-1095
58	承 道	1961	大, 僉 知 公		保健學博士		서울 大學校	03	김포환경국립연구원	011-753-5749
59	映 日	1971	伯, 西垆公 甲楨 子婦		工學博士		科學技術院	"		031-265-8030
60	麗 奉		大, 丹陽伯公 浣馨 子婦		社會學博士		미,캐로라이나 주립대	"		
61	炅 熙	1965	大, 獻 納 公 海中 女		齒醫學博士	03	서울大學校	04		
62	承 韓	1965	伯, 伯參判公 18代孫		"	02	圓光大學校			
63	承 材	1971	大, 郡 守 公 28代孫	공도	電子工學博士	98	오하이오주립대학	05		02-833-4337
64	海 雲	1959	大, 丹陽伯公 26代孫	제천	行政學博士	96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		011-393-1499
65	宗 相	1971	伯, 縣 監 公 13代孫		理學博士	05	포항공과대학교	"		031-752-9813
66	炳 錫	1974	伯, 忠 贊 公 20代孫		工學博士	"	서울대학교 대학원	"		011-9775-3554
67	錫 龍		晉, 縣 監 公 父 起睦		醫學博士					02-3391-8119
68	錫 熙		晉, 縣 監 公 父 起睦	밀양	醫學博士		인제의대졸		원자력연구원	042-362-7595
69	志 明		晉, 縣 監 公 父 敏秀	밀양	핵융합工學博士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울공대 응용연구실	031-418-4533
70	琬 貞		晉, 縣 監 公 父 敏秀	밀양	행정학박사					031-418-4533
71	志 孝		晉, 縣 監 公 父 讚秀	밀양	전기工學博士		서울대 물리학과졸		재미(아리조나대)	
72	惠 慶	1971	季, 保 寧 公 父 海超	안성	이학박사		중앙대학교식품공학과	06		031-674-3144
73	珉 任	1968	大, 李司正公 父 遠福		教育學博士		대구대학교 교육학과	"	부산여대	011-882-5240
74	遠 範	1963	大, 李司正公 父 相君		經營學博士		동아대학교 회계학과	"	경영정보컨설팅㈜	011-862-5532
75	承 玉	1940	伯, 忠 贊 公 父 之馨	노산	工學博士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	㈜다우컨설턴트	
76	道 馨	1965	大, 潤 庵 公 父 海潤		工學博士				나노기술팀장,책임연구원	011-9006-6214
77	喆 燮		大, 潤 庵 公 父 孟季		미국교육학박사				구미고등학교 교사	054-452-5974
78	海 閏	1968	大, 망 일 재 父 덕수		工學博士					016-349-9424
79	海 民	1952	大, 옹 강 공 父 宗秀		經濟學博士				부산대학 교수	017-564-2504
80	準 基	1969	大, 府 使 公 父 환길		한의학박사				원광대학원	031-712-7582
81	憲 模		大, 伯司正公		의학박사		영남대학교	04		
82	賢 秀	1956	大, 獻 納 公 父	진주	이학박사		진주 경상대학교	07		

우리 진주류씨(晉州柳氏)와 문화류씨 및 이봉(移封) 진주류씨의 관계

1. 우리 진주류씨(晉州柳氏)의 유래

가. 청천유고 소록(菁川遺稿 所錄) 진주류씨 세계도(世系圖)

우리 시조(始祖)이신 상장군공(上將軍公)이래 역대 선조들께서는 모두 현직을 지낸 분들로써 그 한 분 한분에 대한 근거(根據)와 실증(實證)이 엄연히 있으니, 비록 우리 진류(晉柳)의 최초의 대보(大譜)인 갑진보(甲辰譜)가 서기 1724년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상계(上系)는 고려말의 두문동(杜門洞) 제현중(諸賢中) 한분이며 정포은(鄭圃隱)과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은 벽은공(僻隱公) 휘 번(潘)(시조 상장군공의 7대손, 대사성공 휘 之澤의 아드님, 정포은(鄭圃隱)과는 동방급제(同榜及第)한 양경공(良景公) 휘 源의 종형(從兄))의 실기중(實記中) 세계(世系)에 뚜렷이 밝혀져 있으며, 이조초(李朝初)의 괴정공(槐亭公) 휘 문통(文通)(관사간(官司諫)·목사(牧使) 벼슬을 하였으며 문정공 휘 인숙(仁淑)의 백씨(伯氏: 1438~1498))의 소저(所著) 「청천유고(菁川遺稿)」에 게재된 세계(世系)에도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바, 이 유고(遺稿)의 서문(序文)은 유명한 학자인 문대공(文戴公) 용재(慵齋) 성현(成俔: 1439~1504)이 쓴 것인바, 이 세계(世系)의 신빙성 여부는 이조(李朝)중엽(16세기)의 쟁쟁한 보가(譜家)들에 의해 편찬된 제보서(諸譜書), 즉 정곤수(鄭崑壽)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 1938~1602)의 「진주류씨 소보(晉州柳氏 小譜)」, 허함(許涵 號 竄翁 1566~?)의 「백가보(百家譜)」 및 「진주류씨 자녀보(晉州柳氏子女譜)」, 조종운(趙從耘)의 「씨족원류(氏族源流)」를 비롯하여 동시대(同時代)의 여러 보학전문가(譜學專門家)들의 고증(考證)이 우리 갑진보기사(甲辰譜記事) 「보계변증(譜系辨證)」에 상술(詳述)되어 있는데, 상술(上述) 「청천유고세계(菁川遺稿世系)」의 신빙성을 확고히 해주고 있다.

나. 시조(始祖) 휘 정(挺) 실증(實證)

진강공(晉康公) 최충헌(崔忠獻) 묘지명(墓誌銘): (일본 제실(帝室) 박물관 소장)으로 실존인물 확인
母曰晉康國大夫人柳氏 金紫光祿大夫 中書令 上將軍 諱 挺先之女也
1982년 임술보 수보때 일본 제실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공의 외손 최충헌(崔忠獻)의 묘지명(墓誌銘)을 탁본(拓本)하여 확인한바 그 어머니는 진강국(晉康國) 대부인(大夫人) 류씨(柳氏)로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중서령(中書令) 좌우위 상장군(上將軍) 휘 정선의 따님이라고 명백히 밝혀져 있다. 또한 19세기 중엽에 발간된 벽은집(僻隱集)에 기록된 공이하 5세 봉군기록이 있다.(헌종 9년 1843년)

다. 시조 윗 대(代)는 알 수 없는가 (성씨 및 시조의 본관 유래)

· 고려 정사(正史)에는 3세조 상장군공 휘 둔식(敦植)부터 기록(고종 4년 1217)이 보인다.

- 고려 왕실 류씨(柳氏) 왕비 10人(개성왕씨 족보 참조) 왕자, 왕녀 등칭(等稱), 류성(柳姓)
- 천자수모법(踐者隋母法): 정종5년 1039년 제정 고려 15대왕 숙종비 정주류씨(7남 4녀) 질자(姪子) 연(演): 진강백(晉康伯) 문종유 차자(文宗愉 次子)
- 양정공 휘 용생(龍生): ? ~1434년 진천군 7남 정정공(貞靖公) 휘 연(淵)의 아드님이며 궁중생장(宮中生長) 족보 기록을 주목할 수 있다.
- 고려조 때는 대대로 일유명문가와 통혼(通婚)했음.

2. 문화류씨(文化柳氏)와 관계

가. 문화류씨(文化柳氏) 가정보(1562년발간) 편자(編者) 문화 류희잠(1524~1566)

문화류씨(文化柳氏)의 최초보(最初譜)인 가정보(嘉靖譜: 서기 1562년간)를 편제할 때 그 편제자인 문화 류희잠(官副正: 1524~1566)이 인용한 안동거주(安東居住) 류종례(柳宗禮)
(진천군(晉川君) 휘 지정(之淀) 8대손 조계(宗溪公: 휘 중지(宗智)의 중씨(仲氏))가장(家藏) 임씨호적(任氏戶籍: 서기 1332년)이 있으니, 임씨는 곧 문화류씨 문산군(文山君)(휘 성비(成庇), 대승공(大承公) 류차달(柳車達)의 9대손)의 처로서 그 호적(戶籍)에 「부(夫)의 부(父)는 순(淳)이요, 조(祖)는 언침(彦琛)이요, 증조(曾祖)는 공권(公權)이라」하여 부성비(夫成庇)의 선계(先系)를 문화류씨로 명시해 놓고 「딸 하나를 두었는데 부(夫)는 (즉文山君의 女壻) 류간(柳玾)이니 본은 진주(晉州)요, 부(父)는 부(搏)요, 조(祖)는 홍림(洪林), 고명(古名)은 홍문(洪文)이요, 증조(曾祖)는 둔식(敦植)이요, 외조(外祖)는 홍백수(洪百壽)로 명기하고, 아울러 직함까지 자세히 적혀있어 적년(積年)의 의심이 비로소 확연히 풀렸다」고 우리 3세조 휘 둔식(敦植)까지 확실히 밝혀 놓았으니, 이는 문화류씨(文化柳氏)와 진주류씨(晉州柳氏)의 계통을 명백히 한 일대증거(一大證據)라 할 것이며, 위 임씨(任氏) 호적 기록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으니 최근 서울대학교 도서관 규장각(奎章閣)에서 발견된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성화보(成化譜)(문화류씨 가정보(嘉靖譜)보다 87년 앞선 서기 1475년刊)이다. 이에 의하면 「고려 공조전서(工曹典書) 권윤균(權允均)의 전부인은 류씨(柳氏)요, 본은 진주(晉州)인데 그 부(父)는 번(藩)이요, 조(祖)는 지택(之澤)이요, 증조(曾祖)는 간(玾)이요, 고조(高祖)는 부(搏)라」하고 각기 직함까지 구재(具載)한바, 우리 진류보(晉柳譜) 기록과 여합부절함은 물론 전기 임씨(任氏) 호적(戶籍)과 일호의 착오도 없다.

나. 양경공(휘 源: 진천군 8번째 아들) 국조방목 4조 기록

이상의 호적(戶籍)이나 보록(譜錄)이 사실임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또 하나의 공공문헌(公共文獻)으로는 국조방목(國朝榜目)이 있으니, 서기 1961년에 국회도서관에서 영인본(影印本)으로 출간된 것을 보면, 518 페이지에 원(元) 지정(至正) 20년 경자(庚子) 공민왕(恭愍王) 9년(서기 1360년) 10월 25일에 신경(新京) 동당(東堂)에서 베풀어진 과거에 급제한 방목(榜目)이 있는바, 정포은(鄭圃隱)을 수석으로 하여 모든 사람의 사조(四祖)가 기록되어 있는데, 「진사(進士) 第 10인에 류원(柳源)이요, 나이는 20이요, 본은 평주(平州)며, 부(父)는 삼중대광(三重大匡) 진천군 휘 지정(之淀)이요, 조(祖)는 광정대부

(匡靖大夫) 김교침의평리(檢校僉議評理) 개성윤 간(開城尹玓)이요, 증조(曾祖)는 조봉대부(朝奉大夫) 군부총랑(軍部摠郎) 부(搏)요, 외조(外祖)는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시랑평장사(侍郎平章事) 치사(致仕) 김승제(金承濟) 본은 복주(福州)라」되어 있으니, 그 소목(昭穆)이나 직함까지 정정구재(井井具載)되어 역시 전개(前掲) 문헌들과 여합부절(如合符節)이었다.

다. 청주 가산에 류덕림(柳德霖) 호구장부(戶口帳簿)

천계(天啓) 4년 갑자(甲子: 1624년) 10월 25일에 발견된 청주 가산거주 류덕림(柳德霖: 안간공 휘 혜손(惠蓀)의 아드님 군자감(軍資監) 향(珦)의 8대손) 소장(所藏) 李氏 (군자감 향의 처(軍資監 珦 妻)) 호적에 기록되기를 「부는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광주목사(行光州牧使) 이복시(李復始)요, 부(夫)의 부(父)는 광정대부(匡靖大夫) 문하평리(門下評理) 겸 소부사(少府事) 상호군(上護軍) 혜손(惠蓀)이니, 본은 진주라, 조(祖)는 봉정대부(奉靖大夫) 밀직사제학(密直司提學)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상호군(上護軍) 인비(仁庇)요, 증조(曾祖)는 광정대부(匡靖大夫)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상호군시(上護軍諡) 양화공 梈이요, 외조(外祖)는 중대광(重大匡) 화평군(化平君) 시 문민공(諡文敏公) 김광철(金光轍) 본은 화평(化平)이라」 하였으니 이 역시 의심할 여지없는 일대명증(一大明證)이라 할 것이며, 당시의 제보가(諸譜家)들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제보(諸譜)편찬에 확고한 신증으로 인용하였음을 우리 진류(晉柳) 갑진보(甲辰譜: 서기 1724년刊) 서문(序文)은 밝혀 놓고 있다.

라. 진류 보계변증기사(서림공: 휘 래(徠) 편저 갑진보 소록(所錄))

이봉진주류씨보(移封晉州柳氏譜) (이봉진류(移封晉柳)의 최초 보는 우리 갑진보(甲辰譜)보다 32년뒤인 병자보(丙子譜)로서 1756년 출간)를 보면, 전기(前記) 이씨 호적을 이렇다할 반증제시도 없이 「가산위적(駕山僞籍)」이라 하고, 판사사공(判寺事公) 휘 인비(仁庇)가 문화류씨 9세손 순(淳)의 아드님으로 되어 이봉진주(移封晉州)의 중시조(中始祖)로 모시고, 아드님 군사공(郡事公) 휘 혜방(惠芳)과 안간공(安簡公) 휘 혜손(惠蓀)위에 우리 진류(晉柳)의 양화공(良和公) 휘 자(字)인 옥(楸)과 비슷한 유(洧)란 분이 있어(官職도 배위(配位)도 묘소(墓所)도 없이 오직 휘 자(字)만 기록되어 있음) 조손간(祖孫間)이 되었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뿐 아니라 전기(前記) 일항고거(一項考據) 임씨호적도 문화 류희잠(柳希潛) (1524~1566)이 문류(文柳) 가정보(嘉靖譜)를 편제할 때 이를 인용한 것을 「가정보소설(嘉靖小設)」이라 폄(貶)하고, 정서천(鄭西川)의 「진류소보(晉柳小譜)」와 함께 「문진의단(文晉疑端)을 비롯케 한 것」이라 비난했으니 이 또한 그 의도가 나변에 있었음인지 모를 일이며, 또 그 보서(譜序)에는 대승공(大丞公)의 7세손 문간공(文簡公) 휘 공권(公權)때부터 진주(晉州)로 이봉(移封) 했다고도 하고, 그 아들 밀직공(휘 언침(彦琛)=沈)에 이르러 진주(晉州)로 이봉(移封)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현재의 모든 문화류씨 자손(분적된 모든 류씨를 포함하여)은 진주(晉州)로 호관(呼貫)해야 할 것이니, 이는 분명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밀직공(密直公) 언침(彦琛)의 장손(문산군(文山君) 성비(成庇)을 비롯한 6형제중(가정보(嘉靖譜)에는 4형제뿐임) 오직 계씨 판사사공(判寺事公) 휘 인비(仁庇)만이 진주로 이봉(移封)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 도무지 모를 일이며, 위 판사사공(判寺事公)께서 진산군(晉山君)으로 봉작(封爵)되어 진주로 이봉(移封)됐다는 설도 가정보(嘉靖譜)에는 없는 사실이니 언제부터 그런 확증자료가 나와 기재 되었는지 또한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우리진류는 시조 상장군공(上將軍公) 휘 정(挺)으로 부터 2세조 휘 숙(淑), 3세조 휘 돈식(敦植), 4세조 휘 홍림(洪林)에 이르러 두 아드님을 두시어 큰아드님은 양화공(良和公) 휘 옥(楸)이요, 작은아드님은 총랑공(摠郎公) 휘 부(搏)이니, 이로써 우리 진류의 분파(分派)가 비롯되었거니와 양화공(良和公)께서 두 아드님을 두시어 장남이 판도총랑(版圖摠郎) 휘 인무(仁茂)이요, 차남이 판사사공(判寺事公) 휘 인비(仁庇)이니, 이분이 곧 이봉 진주류씨(移封晉州柳氏)에서 중시조로 받드는 분이요, 총랑공(摠郎公) 휘 부(搏)는 아드님 한분을 두셨으니 이분이 곧 문화문산군(文化文山君) 휘 성비(成庇)의 여서(女婿)인 개성윤공(開城尹公) 휘 간(玓)이시다. 따라서 위의 제고증(諸考證)으로 보아 판사사공(判寺事公) 휘 인비(仁庇)는 문화류씨가 아니라 우리 진주류씨 5세조 양화공(良和公) 휘 옥(楸)의 둘째 아드님이 틀림없다는 심증을 굳히기에 충분한 것이며, 다만 이를 확증할 고거자료가 인멸되어 선뜻 제시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차류대종회(車柳大宗會)의 대종보(大宗譜) 편집주간 류재하(柳在河)씨가 소위 「취성록(聚星錄)의 정체(正體)를 추적한다」는 소고(小考)를 발표한 일이 있었는데(1982년판 차류대종보 통권 제9호 p.74) 그 「취성록(聚星錄)」 자체(自體)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점은 고사하고라도 그 제시된 필사본 자료 중 적어도 우리 진주류씨에 관한 부분은 거의 일고의 가치도 없는 황당무계한 내용이다. 따라서 구차스럽게 일일이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거니와, 요컨대 4세조 이하는 전개고거(前掲考據) 1항에서 4항까지 증명을 열거하였다.

- ① 고려 18대 의종(毅宗) 3년(서기 1149년)에 출생하여 23대 고종(高宗) 6년(서기 1219년)에 서거한 일세의 거웅(巨雄) 진강공(晋康公) 최충헌(崔忠獻)의 묘지명(墓誌銘)이니, 이 묘지명은 그가 서거한(9월 20일) 3개월후에 봉황산 서남록에 매장할 때(12월 24일) 함께 묻은 것으로서 현재 일본의 제실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바, 그 지문(誌文)은 조선총독부 발간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상권 440면에서 445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지난번 발간된 임술보(壬戌譜) 상대 보록(譜錄) 앞에 붙인것이 바로 이 지석(誌石)의 탁본 축소판이다.(誌石: 길이 2尺 2分, 가로 3尺 6寸, 자경(字徑) 4分, 해서(楷書)) 이 지문(誌文)을 보면 「……母曰 晋康國大夫人柳氏 金紫光祿大夫 中書令上將軍 挺先之女也」라 하였다. 따라서 고증자료로서 가장 신빙성을 두는 이 금석문(金石文)은 우리 시조인 상장군공(上將軍公)이 최충헌(崔忠獻)의 외조부임을 명백히 한 귀중한 고거(考據)인 동시에, 전기 인용지문(引用誌文)중에 보이는 「진강국(晋康國)」이란 진주의 당시 명칭인바, 최충헌(崔忠獻)의 모부인 진강국대부인류씨(晋康國大夫人柳氏)라 하였음은 그 외조부인 우리의 시조 금자광대부중서령(金紫光大夫中書令) 상장군공(上將軍公) 휘 정(挺)께서 이미 진주를 본관으로 삼고 계셨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며, 또한 최충헌(崔忠獻)에게 내려진 봉군작호(封君爵號)가 그 외향명(外鄉名)을 딴 「진강공(晋康公)」이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우리 시조집안이 명분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임술보(壬戌譜)에도 이 사실을 첨기하게 된 것이다.

- ② 또한 2세조 휘 숙(淑)께서는 최충헌(崔忠獻)과 남매간이 되시니, 우리 진류세보에 기록되기를 「부

인은 우봉최씨(牛峰崔氏)요, 부는 증 시중(贈侍中) 원호(元浩)라」하였는바, 최원호(崔元浩)는 곧 최충헌(崔忠獻)의 부(父)요, 우봉최씨(牛峰崔氏)의 시조임이 우봉최씨보(牛峰崔氏譜)에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시조 상장군공(上將軍公)께서는 외손녀를 자부(子婦)로 맞아 들이셨으니 당시의 근친혼(近親婚) 풍속으로서는 흔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 ③ 위 2세조 휘 숙(淑)께서 최충헌(崔忠獻)과 남매간이라는 또 하나의 고거(考據)는 3세조 휘 돈식(敦植)의 고거(考據)와 함께 정사(正史)를 통하여 명증(明證)할 수 있으니, 즉 서기 1450년에 간행된 동국병감(東國兵監) 하권 제 22 고종 4년 8월 조(條) 및 동년(同年) 발간 고려사절요 권지십오(高麗史節要 卷之十五) 고종안효대왕(高宗安孝大王) 2년 정축(丁丑) 4년 8월 조(條)를 보면, 3세조 휘 돈식(敦植)께서 글안군(契丹軍)토벌을 위하여 후군병마절도사(後軍兵馬節度使)로 활약하신 내용이 소상히 나오는데, 그 글중에 3세조 휘 돈식(敦植)을 「최충헌(崔忠獻)의 외생(外甥)」이라 명기하고 있으니 더 이상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 ④ 천계(天啓) 4년 갑자(甲子: 1624년) 10월 25일에 발견된 청주 가산거주 류덕림(柳德霖: 안간공 휘 혜손(惠孫)의 아드님 군자감(軍資監) 향(珦)의 8대손) 소장(所藏) 李氏(군자감 향의 처(軍資監 珦妻)) 호적에 기록되기를 「부는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광주목사(行光州牧使) 이복시(李復始)요, 부(夫)의 부(父)는 광정대부(匡靖大夫) 문하평리(門下評理) 겸 소부사(少府事) 상호군(上護軍) 혜손(惠孫)이니, 본은 진주라, 조(祖)는 봉정대부(奉靖大夫) 밀직사제학(密直司提學)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상호군(上護軍) 인비(仁庇)요, 증조(曾祖)는 광정대부(匡靖大夫)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상호군시(上護軍諡) 양화공 梈이요, 외조(外祖)는 중대광(重大匡) 화평군(化平君) 시 문민공(諡文敏公) 김광철(金光轍) 본은 화평(化平)이라」 하였으니 이 역시 의심할 여지없는 일대명증(一大明證)이라 할 것이며, 당시의 제보가(諸譜家)들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제보(諸譜)편찬에 확고한 신증으로 인용하였음을 우리 진류(晉柳) 갑진보(甲辰譜: 서기 1724년刊) 서문(序文)은 밝혀 놓고 있다.

이상 우리 진류(晉柳)의 상계(上系)를 낱낱이 밝혔거니와 시조(始祖) 상장군공(上將軍公) 이상의 선대(先代)를 밝혀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고거(考據)가 하루속히 발견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할뿐이며, 또한 우리의 연구과제라 할것이나, 요컨대 우리 진주류씨(晉州柳氏)는 상계연원(上系淵源)이 문화류씨(文化柳氏)라는 확증이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 진주류씨(晉州柳氏)와 문화류씨(文化柳氏)는 별개의 계통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니, 개인적인 친분은 돈독히 함이 좋겠지만 계보상(系譜上)으로는 엄연히 구분해야 할 것인즉 우리 진주류씨(晉州柳氏)에 관하여만은 우리는 물론 이봉진주류씨(移封晉州柳氏)를 포함한 모든 류씨(柳氏)는 부질없는 의심이나 논쟁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풍성하려(風聲鶴唳)로 왈가왈부함은 삼가야 할것이다.

예절의 방위(方位)와 상하석(上下席)의 기준 및 좌석배치(座席配置)

제1절 예절의 방위(方位)

1. 예절의 동서남북(東西南北)

일상생활이나 의식행사에 방향을 말할 일이 많은데 예절에서 방향을 말하려면 전후좌우(前後左右)라 하지 않고, 동서남북이라 한다. 여러 사람이 각기 향한 곳이 다르면서 전후좌우라 말하면 누구의 전후 좌우인지 분간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예절에서 말하는 동서남북은 자연의 동서남북과 관계없이 예절을 하는 장소에서 제일 윗자리(上席)가 북쪽이고, 상석의 앞이 남이며, 왼쪽이 동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된다. 그 이유는 상석에 웃어른이 앉아야 하는데 언제든지 웃어른은 남향해 앉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 ㉠ 제의에서는 신위를 모신 곳이 북쪽이고,
- ㉡ 혼인예식에서는 주례가 있는 곳이 북쪽이고,
- ㉢ 사무실에서는 제일 상급자가 있는 곳이 북쪽이고,
- ㉣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계신 곳이 북쪽이고,
- ㉤ 행사장에서는 단상(壇上)이 북쪽이 되고,
- ㉥ 묘지에서는 그 묘지가 어디를 향했든지 북쪽에서 남향한 것으로 보고,
- ㉦ 모든 건물은 어느 쪽을 향했든 북쪽에서 남향한 것으로 보아 동서남북을 정한다.

2. 예절방위의 특례

일반적으로 예절에서의 방위는 동서남북으로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다.

- 가. 특정 자연인(사람)을 기준으로 말할 때는 ‘누구의 왼쪽’, ‘누구의 오른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연인을 기준으로 말하면 혼동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주인의 왼쪽, 오른쪽)
- 나. 특정 자연인을 기준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좌우나 전후라 말할 때는 웃어른(尊長), 즉 상석의 전후이며 좌우를 의미한다. (左右則 尊長之左右)

제2절 남좌여우(男左女右)는 남동여서(南東女西)

1. 공수(拱手)할 때의 남좌여우

우리가 흔히 남좌여우란 말을 많이 쓴다. 공손한 자세를 취하려고 공수할 때 평상시에 남자는 왼손이 위이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인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공수는 남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상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된

다.

동쪽은 해 뜨는 곳이니까 양(陽), 즉 남자이고, 서쪽은 해 지는 곳이니까 음(陰), 즉 여자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왼손을 위로하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하는 것이다. 남좌여우란 바로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이



〈사진 1〉 공수할 때와 남녀합석 때의 남좌여우

란 말이다. 혼자서 하는 공수는 자기 기준으로 남자는 좌측이고, 여자는 우측이면 된다.

2. 의식행사 장소에서의 남좌여우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의식장소에 참석할 때의 위치를 남좌여우라고 해서 각자의 좌우에 기준 하게 되면 혼란을 야기한다. 분명히 이때의 좌우는 특정의 자연인을 기준으로 말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장소의 상좌의 좌측이 거기에 참석한 모두의 좌측이고 상좌의 우측이 모두의 우측이 된다.

따라서 특징기준이 없이 좌우라고 말할 때는 좌는 동쪽을 의미하고 우는 서쪽을 가리키는 것이다. 상좌의 좌측이 동쪽이고, 상좌의 우측이 서쪽이기 때문이다(家禮 居家雜儀). 실제로 남좌여우(男左女右)라고 하지만 손을 맞잡는 공수의 경우와 같이 자기 자신에 국한할 때는 자기의 좌우를 의미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석하는 의식장소의 좌석 배치는 남자가 동쪽이고 여자가 서쪽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동서는 상좌의 좌측이 동이고 상좌의 우측이 서쪽으로 설정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손의 절을 받기 위해 북쪽에서 남향해 앉을 때 남자인 아버지가 동쪽에 앉고 여자인 어머니가 서쪽에 앉으며, 전통 혼인례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는 위치도 남자인 신랑이 동쪽이고 여자인 신부가 서쪽이며, 제례를 올릴 때 자손들이 북쪽의 신위를 향해 설 때도 남자 자손이 신위의 좌측인 동쪽



〈사진 2〉 남좌여우의 좌석배치(어른이 기준이다)

에 서고 여자 자손이 신위의 우측인 서쪽에 선다. 남좌여우는 남동여서(南東女西)임을 알 수 있다.

제3절 상하석(上下席)의 기준

같은 장소에 합석하는 사람은 당연히 상하의 위계가 있게 마련이다. 위계가 정해지면 앉거나 설 때의 위치도 위계에 의해 차례를 맞춰야 할 것이다. 웃어른이 상석이고 아랫사람이 하석에 앉든지 서야 위치에 의한 위계질서가 지켜진다. 그렇다면 상석은 어디이며 하석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동(東)쪽과 서(西)쪽은 산 사람은 동쪽이 상(上)이다.

좌석을 동과 서로 배치할 때는 동쪽이 상석이고, 서쪽이 하석이 된다. 동쪽은 해가 뜨고 밝음이 오는 곳이라 양(陽)이고, 서쪽은 해가 지고 어둠이 깃 드는 곳이라 음(陰)에 해당된다. 산 사람은 당연히 해가 뜨는 곳을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동쪽을 상석으로 하는 것이다.

2. 중앙과 양단(兩端)은 중앙이 상이다.

좌석을 중앙과 양쪽 날개로 배치할 때는 중앙이 상석이고, 양쪽 날개가 하석이 된다. 실제로 중앙에 웃어른이 앉고 그 좌우에 아랫사람이 앉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로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중앙이 상석이 되는 이유는 북방상천설(北方上天說)에 근거한다. 못 별 중에서 가장 높은 별은 북극성(北極星)인데 북극성은 중심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북극성보다 낮은 주변의 별들이 북극성의 주위를 회전한다. 그러니까 중앙이 높고 주변이 낮은 것이다.

3. 북(北)쪽과 남(南)쪽은 북쪽이 상이다.

북쪽에 앉으면 남쪽을 향하게 되고 남쪽의 좌석은 북쪽을 향하게 된다. 북쪽을 상(上)으로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바, 그 첫째는 북방상천설(北方上天說)로서 우주의 회전축이 북극성이고 회전축이 가장 높은 중심이며 그 회전축인 북극성이 북쪽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태양광선은 생명의 원천인 바 북쪽에 위치해야 남쪽을 향할 수 있어 태양광선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도 북쪽을 위로하고, 제례의 신위를 북쪽에 뒀다는 이유도 북쪽을 상으로 해서이다.

4. 높은 곳과 낮은 곳은 높은 곳이 상이다.

웃어른이 높은 곳에 앉고 아랫사람이 낮은 곳에 위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다. 의식행사장을 설치할 때 단상(壇上)과 단하를 구분하고, 단상에 웃어른이 위치하는 이유도 높은 곳을 상으로 해서이다.

5. 앞쪽과 뒤쪽은 앞쪽이 상이다.

좌석의 배치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쪽이 목표에 가깝고 뒤쪽이 목표에서 멀게 된다. 당연히 목표에 가까운 앞이 상이 된다. 또한 웃어른이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것이고 앞에 있어야 모두를 거느릴 수 있기 때문이다.

6. 편리와 불편은 편리한 곳이 상이다.

웃어른을 편리한 곳에 모시고 아랫사람이 불편한 위치에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승용차에 탈 때도 타고 내리기 편리한 자리가 상석이고, 관광여행에는 경치를 구경하기 편리한 창 쪽이 상석이고, 달리는 차에서는 달리는 쪽을 등지는 것보다 향하는 것이 편리하다.

7. 깊은 안쪽과 얕은 바깥쪽은 깊은 쪽이 상이다.

사무실에 좌석을 배치할 때도 안쪽에 높은 사람이나 책임자가 출입문을 향해 앉고 그 바깥 출입문 쪽으로 아래 직원들의 좌석이 배치된다. 이것은 웃어른이 안쪽에서 아랫사람을 관리하면서 바깥쪽을 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8.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은 안전한 곳이 상이다.

웃어른을 안전하게 모시는것이 당연한 공경의 도리이다.

9. 상석에 가까운 곳이 상이다.

여러 개의 좌석을 배치함에 있어서 최 상위자를 상석에 모시고, 그 다음 차례의 순위자가 앉는 자리도 위계에 의한 차례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석에서 먼 곳보다 가까운 곳이 상석이 된다.

10. 남자와 여자는 남자가 상이다.

남녀가 좌석에 위치할 때 남자가 상(上)인 것은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남자와 여자로서가 아니라 양(陽)과 음(陰)으로 해석해야 한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며, 양인 하늘이 위에 있고 음인 땅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양이 상이고 음이 하라는 의미이다.

남자인 아버지가 동쪽에 앉고 여자인 어머니가 서쪽에 앉으며, 전통혼례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는 위치도 남자인 신랑이 동쪽이고 여자인 신부가 서쪽이며, 제례를 올릴 때 자손들이 북쪽의 신위를 향해 설 때도 남자 자손이 신위의 좌측인 동쪽에 서고 여자 자손이 신위의 우측인 서쪽에 선다.

남좌여우는 남동여서(男東女西)임을 알 수 있다.

11. 상하석의 기준이 상충되면 목적에 맞게 한다.

위에 설명한 상하의 기준에 맞춰서 위치를 정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든 상석의 위치가 다른 기준으로든 하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때는 그 좌석 배치의 목적에 맞는 기준을 선택해서 배치한다. 동쪽과 서쪽은 동쪽이 상이므로 웃어른을 동쪽에 위치하게 하려니까 편리와 불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오히려 상석이 불편한 위치가 된다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12. 생자(生者)와 사자(死者)는 다르다.

이상의 상하석은 산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상하석을 정해 위치한다는 것은 죽은 자의 경우도 있으므로 그 기준도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위에 설명한 나, 향부터 차, 향까지는 생사(生死)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동쪽과 서쪽의 경우는 생자와 사자가 정반대가 되어 죽은 사람이나 무생물(無生物)은 서(西)쪽을 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산 것은 살았다는 사실이 양(陽)이므로 양의 방위인 동(東)쪽을 상으로 하지만, 죽은 것은 곧 음(陰)이므로 음의 방위인 서(西)쪽을 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산 사람은 밝은 세상(陽界)에 있으니 해가 뜨는 동(東)쪽을 상으로 하지만 죽은 사람은 어두운 세상(陰府)으로 갔으니 해가 지는 서(西)쪽을 상으로 한다. 때문에 제례에 신위를 모실 때와 묘지에 시체를 매장할 때에는 서(西)쪽을 상으로 해 웃어른의 신위나 시체를 서쪽에 모신다.

제4절 좌석배치(座席配置)의 실제

예절의 방위를 알고 바른 위치와 상하석의 기준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의 예의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좌석의 배치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참석하는 손님을 불쾌하게 한다. 위계와 석차가 일치하면 바른 손님 대접이 되어 주인과 손님이 모두 즐겁고 떳떳하지만, 위계와 석차가 뒤죽박죽이 되면 손님이 영성하고 무례한 대접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고 주인도 민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통의식에서 어떻게 좌석배치를 했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것을 현대의식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살피고, 다음에는 현행 각종행사에서의 좌석배치와 석차를 어떻게 해야 바른 것인지와 일상생활상의 석차를 알아보기로 한다.

■ 전통의식에서의 좌석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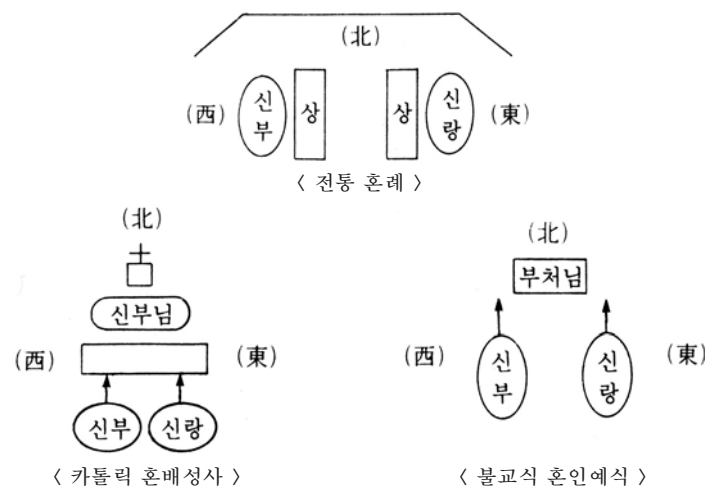
전통의식이라면 관. 혼. 상. 제의 의례절차를 말하는데, 엄격하고 정확하게 위 제3절에서 말한 위치의 상하원칙이 지켜지고 있어 매우 합리적이다.

1. 혼인예식에서의 신랑, 신부의 위치 <그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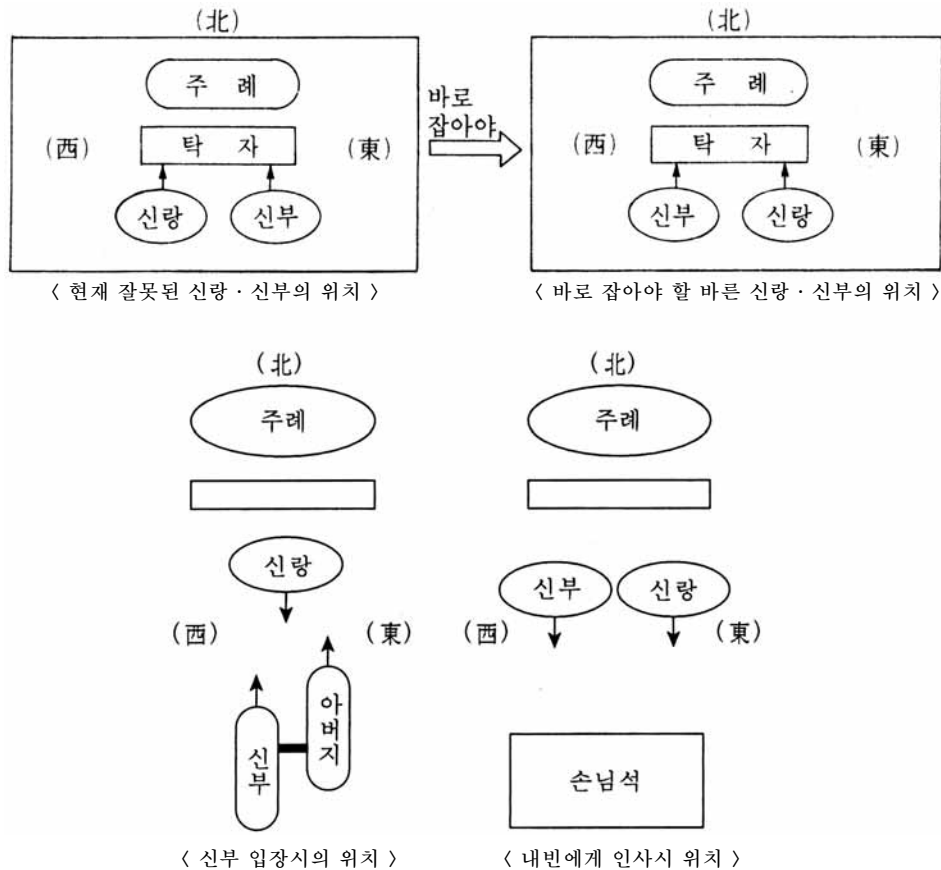
동양의 전통혼례뿐 아니라 가톨릭의 혼배성사나 불교식 혼인예식 등도 신랑이 동쪽이고 신부가 서쪽에 위치한다. 이와 같이 동서양과 종교 의식이 모두 남자를 동쪽 여자를 서쪽에 위치하게 하는 까닭은 어디에서나 해가 동쪽에서 뜨고 해뜨는 곳이 양이며 양이 남자이기 때문이다.

또 동서의 기준은 동양의 전통혼례에서는 신랑. 신부가 선 위치, 즉 병풍을 친 곳이 북쪽으로 간주되고, 카톨릭에서는 성좌(聖座)가 상좌이며, 불교에서는 불좌(佛座)가 상좌이므로 그곳을 북쪽으로 간주해 설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양의 전통혼례와 기타 지역의 관습 및 종교의식이 모두 상좌를 북쪽으로 간주해 신랑이 동쪽이고, 신부가 서쪽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신식 혼인예식은 신랑이 서쪽, 신부가 동쪽으로 정반대로 되었다.

남자가 서쪽, 여자가 동쪽에 위치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경우임은 뒤에 설명하는 신위와 시체의 위치에서 밝혀지듯이 현재의 신식 혼인예식장에서의 신랑과 신부는 죽은 신위, 또는 묘지에 매장된 시체의 남녀 위치인 것이다. 당연히 바르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요 근래에 시내의 일부 혼인 예식장에서는 바른



<그림 1> 전통·종교 혼인예식의 좌석배치



〈그림 2〉 신식 혼례시 신랑 · 신부의 위치

혼인 예식을 하는 곳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되며 빠른 시간 내 바뀌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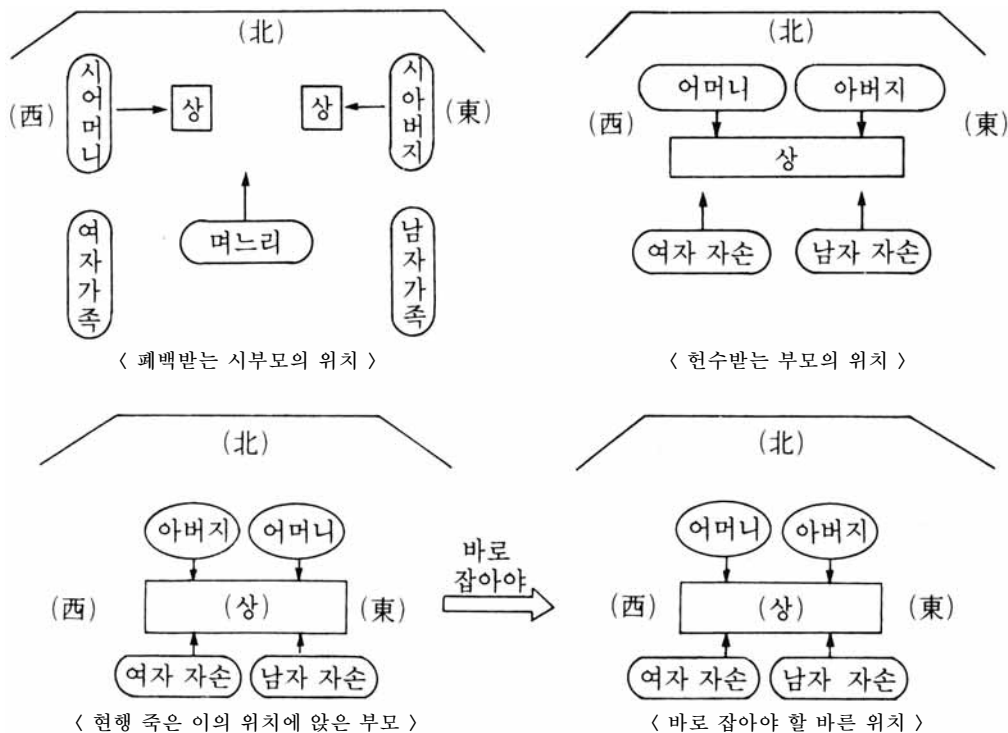
2. 부모가 절 받는 바른 위치 〈그림 3〉

㉗ 며느리의 현구고례(폐백)를 받는 시부모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상좌에 앉는데 시아버지(舅)가 동쪽이고 시어머니(姑)가 서쪽이다”라고 현구고례(見舅姑禮)조에 명시되어 있다. 역시 상좌가 북쪽으로 간주되어 상좌의 좌측이 동쪽이고 상좌의 우측이 서쪽이다.

㉘ 생신이나 명절에 어른(부모)이 자손에게서 송수를 받는 데도 아버지가 동쪽이고 어머니가 서쪽에 앉는다. “좌측에 남자 우측에 여자가 위치하는데 좌우란 어른(상좌)의 좌우를 말한다”고 규정해, 역시 상좌의 좌측인 동쪽에 아버지가 앉고 상좌의 우측인 서쪽에 어머니가 앉는다. 당연히 상좌가 북쪽으로 간주된 좌석 배치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좌를 북쪽으로 간주해 상좌의 좌측인 동쪽에 남자가, 상좌의 우측인 서쪽에 여자가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묘사이이의 폐백 드리는 곳이나 회갑잔치에서 보면 남자가 상좌의 우측인 서쪽, 여자가 상좌의 좌측인 동쪽에 앉아 신위나 시체와 같은 위치에 있다. 어찌 살아 계신 부모를 죽은 신위나 묘지의 시체와



〈그림 3〉 신식 혼례시 시부모 · 부모의 절 받는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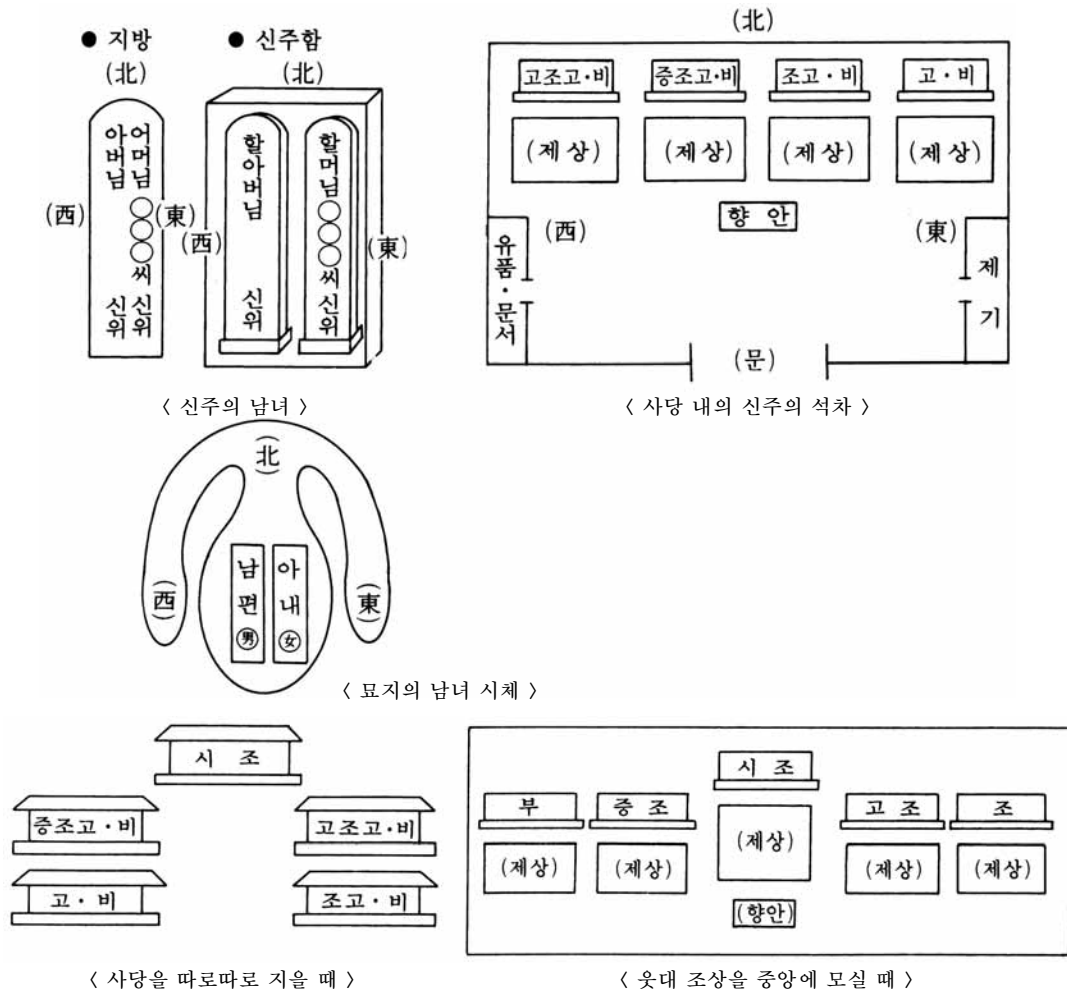
같은 위치에 앉으시게 하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예절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3. 죽은 신위와 시체의 위치 〈그림 3~4〉

산 사람의 남자와 여자의 위치는 남자가 동쪽이고, 여자가 서쪽이며, 동쪽이 상석이고 서쪽이 하석이지만 죽은 사람의 위패나 묘지에 시체를 매장할 때는 산 사람과 반대로 서쪽에 남자, 어른이 위치하고 동쪽에 여자, 아랫사람이 차례로 위치한다. 산 사람은 양계(陽界)에 살고 있으니까 양의 방위인 동쪽을 상석으로 하지만 죽은 사람은 음부(陰府)에 있으니까 음의 방위인 서쪽을 상석으로 하는 이서위상(以西爲上)의 석차로 한다.

하나의 지방에 남자 조상과 여자 조상을 나란히 쓸 때나 하나의 신주함(櫃·독)에 내외분의 신주를 함께 모실 때는 서쪽에 남자의 위패 동쪽에 여자의 위패를 쓰고 모신다. 집안의 형편이 넉넉지 못해 조상의 위치를 한 채의 사당(祠堂). 남골묘에 모실 때는 옷 대 조상을 서쪽에 모시고 아랫대 조상을 차례로 동쪽에 모신다.

그리고 묘지에 부부의 시체를 합장할 때는 남편인 남자를 서쪽에 묻고 아내인 여자를 동쪽에 묻는다. 조상 산소에 세운 묘비(墓碑)에 보면 여자 조상의 표기 밑에 '부좌(附左)' 라고 써서 '왼쪽에 붙였다' 는 뜻을 담았는데, 왼쪽이란 바로 남자의 왼쪽이란 의미이며 그들 자신이 상좌이므로 그 왼쪽인 동쪽이다. 이상 설명한 내용은 같은 열에 한줄로 모시는 경우인데, 형편이 넉넉해서 사당채를 조상에 따라 따로 짓거나 아니면 제일 옷대 조상을 중앙에 모시고 아랫대 조상을 그 좌우 양쪽으로 모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그림 4)와 같이 모신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당을 모시는 집은 거의 없고 가족 남골묘를 많이 건립 하는데 참



〈그림 4〉 지방, 신주함, 사당신주석차, 묘지남녀 위치

조하면 될 것이다.

아래에 그린 석차는 중앙과 양단(양쪽)은 중앙이 상석이라는 위 제3절 나항의 취지에 맞춘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일 웃대 조상인 시조를 중앙이나 북쪽에 모신 것은 이해되는데, 죽은 자는 서쪽이 상석이라면서 왜 증조보다 웃대인 고조를 동쪽에 모시고 아랫대인 증조를 서쪽에 모시느냐는 문제와, 아버지를 제일 상석인 서쪽에 모시고 할아버지를 그 다음에 모시느냐는 문제가 부각된다.

여기에서는 중앙이 상이고, 상석에 가까운 곳이 먼 곳보다 상이라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중앙이 상석이라는 말은 그 좌우에 다른 순위자가 있을 때에 중앙이 상석이지 그 좌우의 한 쪽이 비어 있으면 상석을 중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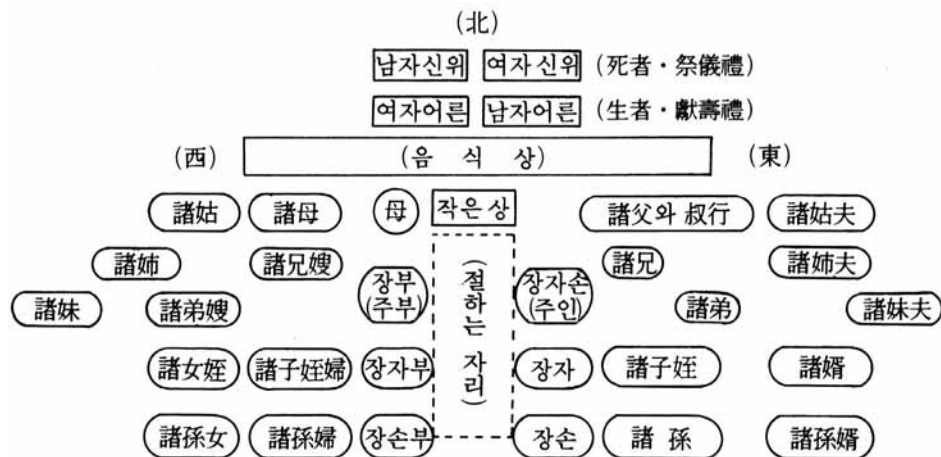
만일 고조를 그림의 증조의 위치에 모시고서 시조와 고조를 보면 고조가 서쪽이고 시조가 동쪽이 되어 고조가 시조보다 상석이 된다. 그래서 고조를 시조의 동쪽에 모셔야 시조와 고조를 보았을 때도 시조가 상석이 되기 때문이다. 증조를 시조보다 서쪽에 모시더라도 그때는 시조의 좌우가 모두 채워졌으므로 시조

4. 자손들이 의식에 임하는 위치

당연히 남자 자손은 상좌의 좌측인 동쪽에 위치하고 여자 자손은 상좌의 우측인 서쪽에 위치하며, 상좌에게 가까운 앞쪽이 상이고 상좌에서 먼 뒤쪽이 하석이고, 남녀가 좌우로 갈라섰을 뿐 아니라 중앙에 의식을 행하는, 절하는 자리가 마련되므로 중앙이 상이고 양단이 하석이 된다.

또 남자는 동쪽에 섰으므로 같은 세대에서는 중앙인 서쪽에 연장자가 서고 동쪽으로 내려가면서 연하자가 차례대로 서야 한다. 만일 사위가 참석할 때는 혈친들의 다음에 차례대로 서야 할 것이다.

여자의 경우는 서쪽에 있으므로 같은 세대에서는 중앙인 동쪽에 연장자인 며느리 그리고 딸들이 서고 서쪽으로 내려가면서 연하자인 며느리와 딸들이 선다.



위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위치가 분명한데도 계속 죽은 시체의 위치에서 혼인 예식을 올리고 폐백을 받을 것인지는 각자의 나침이겠지만 예법을 알고서도 예법을 따르는 것이 옳은 도리일 것 같아 적어 보았습니다.

5. 墓地에서 山神祭를 지내는 위치

또한 같은 장소에 여러분의 조상의 묘지가 있더라도 산신제는 한 곳에서 한번만 지낸다.

가족(家族) 해체 가속화를 우려한다

지금 우리는 가족 해체를 막고, 그 구성원들 간의 결합을 다지는 쪽으로 가야 할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호주제를 폐지하여 전통 가족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 가족 해체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 확실하다. 교육이 100년 대계(大計)라면 가족제도도 천년 대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수천년 내려온 전통 가족제도도 주저없이 바꿔버렸다. 가족해체의 가속화가 가져온 부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걱정이다.

호주제(戶主制) 폐지 그 이후

「姓을 바꾼 아이가 生父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등 많은 사안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 ▶ 혼인신고때 어느 姓 따를지 결정
- ▶ 쌍둥이도 姓 달라질 수 있어
- ▶ 繼父의 姓을 따르면 親子로 기록

호주제(戶主制)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개정된 민법 중 가장 크게 바뀐 案은 ▲호주제(호주로 대표되던 家族제도) 폐지 ▲夫婦합의 시 母系 姓(성) 승계 ▲父母 또는 子의 청구에 의한 姓 변경 가능 ▲친양자제(親養子制: 養父의 姓을 따르고 호적에 親生子로 기재) 신설이다.

호주제 폐지로 호적 등·초본이 폐기되고 새로운 양식의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1인1籍 가족부制」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각 제시한 가족부 제도는 개인당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만들도록 1인1籍을 기본으로 삼고, 가족 사항을 기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다. 신분등록부에는 본인의 출생·혼인·입양 정보와 함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등 가족의 신분관계가 표시된다.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민법 개정에 따른 궁극점을 정리했다. 호주제 폐지를 주도했던 여성계 지도자, 반대에 앞장섰던 가족법 전문가, 기타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문답(問答) 형식으로 구성했다.

인터뷰에 응해 준 원로학자 김주수(金疇洙·77) 경희대(大)법학과 객원교수는 호주제 폐지를 한문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광배회(郭培姬·56) 소장은 지난 30년간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 왔다.

김준원(金俊源·63) 광주대(大) 법학과(가족법) 교수와 정환담(鄭煥淡·64) 전남대 법학과(가족법) 교수는 각종 공청회에서 호주제 폐지 반대측의 변론인으로 참여했다.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공동대표인 구상진(具相鎭·56) 변호사는 「호주제 위헌소송」에서 호주제 폐지 반대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혼가정 문제를 연구해 온 권정혜(權貞慧)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와 「김정일 정신과」의 김정일(金正日) 전문의의 의견도 참조했다.

1. 새 민법에 따르면 「夫婦 합의下에 자녀의 姓을 정한다」고 돼 있다. 결혼할 여성이 태어날 아이에게 자신의 姓을 부여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답: 『일단 夫婦가 혼인신고할 때 어느 쪽 성(姓)을 부여할 지 합의해야 한다. 이걸 혼인신고 때 기록하도록 하고, 장부로 만들어 비치해 둬으로써 법적 다툼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증명서의 효력 문제는 법원이 판단 할 것이다. 2008



년까지 이러한 문제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 대법원 호적사무담당자 -

『새로 마련되는 1인1籍의 신분등록부에 「나는 내姓을 아이에게 주겠다」고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김준원 광주대 법학과 교수 -

2.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까지 夫婦간에 어느쪽 姓을 따르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

답: 『혼인은 할 수 있다. 합의가 안되면 일반 부계 姓을 따라야 한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夫婦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여성이 가정법원에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 김준원 교수 -

3. 자녀의 姓은 언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답: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결혼時 夫婦합의에 의해서 어머니 姓을 선택할 수 있고, 再婚 여성 자녀의 경우는 신설된 親養子 제도에 따라 재혼하는 남자의 姓을 따를 수 있다. 親養子 입양의 요건(자녀가 15세 미만일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법 781조(子の 복리를 위해 父母나 子の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를 따를 수 있다. (개정 민법)

4. 개정 민법에 따르면, 再婚女의 자녀가 계부의 姓을 따를 수 있다. 계부의 姓을 따랐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生父의 姓을 다시 가질 수 있는가? 혹은 生父가 자기 자녀의 바뀐 姓을 자신의 것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가?

답: 『한 번 변경된 姓은 찾기가 쉽지 않다. 親養子로 갔다가 破養을 하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개정 민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가정법원의 판결로 해결해야 한다』

- 정환담 전남대 법학과 교수 -

『개인은 20세가 넘으면 완전한 행위 능력이 되므로 법률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生父의 姓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놓아야 한다』 - 김준원 교수 -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고, 새 남편의 호적에 아이를 넣을 때는 生父와의 관계가 정리된 후의 일일 것이다. 生父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설 일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다. 生父가 아이에 대한 집착이 그 정도로 강하다면 아이를 아내에게 키우라고 내주겠나? 소송을 통해서라도 찾을 것이다』

- 광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5.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자·손녀 姓 변경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답: 『姓의 변경은 부모의 합의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다. 따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자·손녀의 姓 변경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 김준원 교수 -



『姓 변경은 본인과 부모의 의사에 맡길 일이다. 할아버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 姓을 물려받고 싶으면 받는 것이고, 아니면 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본인들의 선택사항이다』

- 김주수 경희대 법학과 객원 교수 -

6. 계부의 姓을 따른 자녀가 生父가 사망했을 경우, 生父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가?

답: 『현재 민법에서는 生父가 사망하면 養子로 간 자식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개정 민법에서는 親養子와 生父는 법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봐야한다. 姓과 本이 다르면 혈족이 아니다. 「姓을 바꾼

자녀라도 상속할 수 있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 김준원 교수 -



7. 개정 민법은 「親養子가 될 자는 16세 미만일 것」이라고 되어 있다. 15세 미만인 아이가 계부의 姓을 받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 『姓 변경은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본인이 싫다고 하면 姓변경이 안 될 것이다. 「자와 관계된 양육결정은 子の 이익을 최선으로 한다」는 것이 가족법의 원칙이다. 법원이 子の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 김준원 교수 -

개정 민법 「親養子 입양제도」에서는 親養子로 될 자의 의사를 직접 묻지않고 입양이 가능하다. 「현재의 입양과 달리 친족관계를 단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미성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 국회 법사위 민법개정안 검토보고서 -

8. 아주 어릴 때 어머니의 의사에 의해 姓이 변경된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자기 生父의 姓을 찾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답: 『개정된 민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미성년이면 혼자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는데, 법률상의 부모가 반대하면 본인 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김준원 교수 -

9. 이혼 직후 남편이 생활고로 잠적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접촉이 안 될 경우 자녀의 姓변경은 再婚하는 여성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답: 『위 질문과 같은 경우는 아이 할아버지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아버지의 대리인을 선임한다든지, 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자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生父가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분등록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신분등록법에 정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대법원 판례로 결정된다』 - 김준원 교수 -

10. 親형제 사이에 姓이 달라질 수 있는가?

답: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해서 자녀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기르고, 한 명은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再婚을 할 경우 친형제도 姓이 달라질 수 있다』 - 김준원 교수 -

『앞으로 너무 姓에 집착하면 안 된다. 미국 사람들은 姓이 달라도 형제자매는 가깝게 느낀다. 우리도



이종사촌 · 고종사촌은 姓이 달라도 가깝게 지낸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 김준원 교수 -

11. 어머니가 계부와 이혼하거나 파양(破養)을 하면 그 자녀의 姓은 어떻게 되는가?

답: 『여성이 再婚때마다 親養子 입양을 반복하는 문제는 이에 대한 관련조문이 없으므로 이론상 가능하다』 - 국회 법사案 검토보고서 -

『어머니가 계부와 이혼을 하면 그 아이는 어머니 姓으로 돌아갈 것인지, 生父 姓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계부였던 사람의 姓을 쓸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새 계부의 姓을 따라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 정환담 교수 -

『현재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성인인 경우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게 해야 한다. 아니면 「破養과 함께 生父의 本으로 돌아간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가족법은 관습 · 전통 · 보수성을 가지는 것이다』 - 김준원 교수 -

12. 개정 민법에는 同姓同本 금혼 규정 대신 「8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혈족이 姓이 달라 결혼할 경우는 어찌 되나?

답: 『형의 자녀는 형의 姓을 따르고, 동생의 자녀는 부인 姓을 따르며 삼촌과 조카 간에 姓이 달라지게 된다. 이 경우 자녀들은 4촌 간이기 때문에 姓과 本이 달라도 혈족은 혈족이다. 하지만 姓이 다르기 때문에 異族에 해당할 수 있고, 이들이 사회에서 만나 아기를 낳을 수도 있다. 법적으로 혼인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 - 김준원 교수 -

『누가 자기의 一家인지, 가족인지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한다. 이것을 꼭 법으로 줄을 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친혼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지만 법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다. 儒林측에서는 「同姓同本 금혼 규정이 폐지되면 금수의 세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다 되었지만 지금 그들이 우려하던 세상은 오지 않았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광배회 소장 -

13. 어머니의 再婚에 따라 아이의 姓이 자주 변경되면 아이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답: 『이혼과 재혼이 반복될 경우 親養子 관계의 반복 설정 또는 姓의 변경이 반복되어 신분관계의 안정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자녀의 인격적 · 사회적 동일성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국회 법사案 검토보고서 -

『아이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잘 기르기 위해서 어머니가 姓'을 바꾸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이가 약간의 혼란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머니를 이해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개인의 차이일 것인데 법에서 이런 개인 차이를 감안할 수는 없다』

- 광배회 소장 -

14. 호주제가 폐지되면 족보와 가문(家門)은 없어지나?

답: 『족보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 그것을 유지하면 된다. 호적은 가문을 표시하는 제도가 아니다. 개인 기호에 따라 가문을 잇고 싶은 사람은 잇고,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지 않으면 된다』 - 김주수 교수 -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은 존재할 수 없다. 헌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효력을 가진다. 憲裁 위헌 판결문에 「家を 구성하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家 개념 및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했다. 호주는 家 개념에 종속된 도구개념이다. 家제도 없이는 姓과 가문·족보를 유지할 수 없다.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단체들이 줄줄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구상진변호사 -

15. 계부와 姓이 달라서 고민하는 이혼녀나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

답: 『한 달에 1000건 이상, 한 해에 약 1만 건의 청소년 상담을 하지만 계부와 姓이 다른 문제로 상담을 한 사례는 지난 수년간 한 건도 없었다. 청소년의 따돌림 사례만 모아 놓은 사례집에서도 그러한 경우로 고민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 서울의 한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

『2004년 3만 3500건의 상담 중, 재혼가정의 姓문제 상담이 522건이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원 -

16. 계부의 姓으로 바뀌주면 아이는 더 행복해지는건가?

답: 『이혼가정의 아이 문제는 親아버지나 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계부가 따뜻하게 대해 준다면 姓이 문제될 게 없다. 親부모들이 잘 챙겨주면 계부와 姓이 다른 것은 아이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가 아이들과 꾸준히 접촉을 하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서로 원수가 되지 않게 이혼에 따른 준비작업을 하면 아이들은 맑게 적응한다. 아이들은 姓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 권정혜 고려대 심리학 교수 -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과 사별에 큰 상처를 받는다. 재혼가정의 아이들이 새로운 자식관계를 형성하고, 양부와 친밀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법이 바뀌는 데 찬성한다. 아이들은 이기적이다. 姓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생존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 일관된 사랑을 주는 사람, 편하게 대해 주는 사람을 따

르게 된다』 - 김정일 정신과 전문의 -

17. 2008년 1월 이전까지 새로운 신분등록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 『개정 민법의 세부 절차법이 없어서 자식을 낳으면 출생신고 할 곳이 없다. 때문에 2008년 1월 이전까지 새로운 신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이때까지만 유효하다. 서둘러야 할 문제다』 - 김준원 교수 -

18.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안한 신분등록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 『대법원은 고아나 결손가정이 신분등록부에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사망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상속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 이를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기관은 모두 일반 이력·혼인·입양 등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신분등록부의 등본 발급은 엄격히 제한하여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 대법원·법무부 새 신분등록제안 -

19.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나 장인·장모·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

답: 『개정 민법에서 가족 개념

은 호주제 폐지에 따르는

일부 국민의 정서적

상실감을 보강해

준다는 의미 이

상은 없다. 새로

가족으로 묶이

는 사람들 사이

에 어떤 권리 의무관

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 국회 법사案 검토보고서 -



20. 남들이 나의 이혼 사실을 알 수 있나?

답: 『신분등록부에는 본인의 신분 변동사항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 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부모의 이혼·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는 親子로 공식된다』 - 새 신분등록제안, 개정 민법 -

2006년도 파종회 분회장 명단(1)

파	순번	분회명	분회장	분회 소재지	자택번호
伯參判公派	1	천원	海 東	충남 천안시 신부동 503-23 19/6	041-567-3405
	2	오류	承 鎬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오류오피스텔 관리실	019-366-6138
	3	괴산	承 大	충북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	043-832-8542
	4	은곡	承 乾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402-5	043-215-1730
	5	곡산	日 馨	정평군 도안면 송정리 212 CMB	011-484-3147
	6	가덕	承 旭	청원군 가덕면 삼항리 349	043-297-7728
	7	노산	快 馨	충북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1구 640	042-932-3543
	8	신탄진	永 文	충남 대덕구 신탄진동 91	042-932-2500
	9	부평	承 國	대전시 유성구 반평동 644 대덕테크노빌라 109-404	041-936-0895
	10	금광	玄 秀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25 대광다이캐스팅 (주)	011-257-4928
季參判公派	1	안성	承 才	경기 안성시 대덕면 삼한리 539	031-676-7088
	2	안성	茂 馨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 242	031-676-7093
	3	청주	재 형	충북 청주시 흥덕구 평동 106	010-3221-5315
	4	향남	海 高	경기 화성시 향남면 도이리 41	031-535-0631
	5	안성	海 東	경기 안성시 대덕면 삼한리 378	031-676-7251
	6	안성	鵠 馨	경기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 474	031-676-7059
	7	평택	海 敏	경기 평택시 동삭동 547	031-655-8443
	8	대전	夏 秀	충남 보령시 대관동 376-3	041-932-3057
	9	이천	忠 秀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158	031-638-2418
	10	강화	茂 馨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송뢰리 447	032-934-6917
	11	신천	曰 馨	경기 과천시 문원동 115-426	031-504-0823
	12	서울	萬 馥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2-19	02-877-2803
	13	화곡	雲 馨	서울시 강서구 화곡3동 1091 대우A 128-601호	02-269-0785
	14	금천	慶 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6-34	02-543-4903
安簡公派	1	여주	鎭 秀	경기 여주군 여주읍 연라리 59	031-884-5510
	2	교현	協 秀	충북 청주시 교현1동 1015	043-842-9988
晉川君派	1	봉화	浩 馨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2리 242	054-673-1988
	2	구서원	炳 午	경북 상주시 외남면 구서리 420	054-542-9765
	3	두곡(은척)	元 模	경북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 321	054-541-5918
	4	밀양(운정)	錫 英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685-9 유창기계	051-866-6565
	5	의성월소	炳 喆	경북 의성군 안사면 월소3리 1095	054-862-2095
	6	예천대죽	相 基	대구시 중구 남산2동 239	053-254-1779
	7	소보화실	惠 馨	경북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563	054-382-4167
	8	대구	承 彥	대구시 동구 신서동538-1 대경 맥스빌 107-1105	053-963-2345
	9	안동구담	渭 馨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536	054-853-2927
	10	안동도양	永 旭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2동 667	054-854-2799
	11	음 성	海 榮	서울 중랑구 신내동 441-2 대창빌라 303호	02-432-1230
	12	서 울	炳 斗	서울시 동대문구 회경동 57 주궁A 101-702호	02-2243-8490
	13	용인마평	伯 馨	경기 용인시 마평동 586-3	031-335-4933
	14	안성대덕	麟 基	경기 안성시 양성면 필산리	031-692-1593
	15	안성오촌	承 寬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148-1 동진연립 C동101	031-441-2122
	16	무릉(함창)	海 命	경북 상주시 은척면 장암리 120	054-541-5823
	17	무릉(서울)	세 형	서울 도봉구 방학동 740 동양크레오A 103-1104	02-956-7078
	18	신 흥	成 林	경북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934	054-541-2459
	19	신 리	崇 林	경북 상주시 은척면 하흘리 343	054-541-8385

2006년도 파종회 분회장 명단(2)

파	순번	분회명	분회장	분회 소재지	자택번호
大 司 成 公 派	1	유포	文 馨	강원 춘천시 사북면 고성1리 523	033-243-5125
	2	대병	相 秀	경북 고령군 고령읍 본관2동 126	055-955-2003
	3	도연정	慶 秀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1리 (도연정)	055-931-8319
	4	웅기	海 謙	경남 합천군 묘산면 웅기리 816 (사우재)	055-932-6465
	5	광산	昌 秀	경남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이로재)	055-932-6455
	6	서호정	海 均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2리 (서호정)	055-933-3183
	7	중촌	茂 馨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중촌 일원재)	055-932-6210
	8	가산	東 秀	경남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노강재)	055-931-6362
	9	약산	海 秀	경남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462	055-754-4653
	10	명금	文 馨	서울 중랑구 상봉동 74-28	02-434-4404
	11	하빈	海 寬	경남 합천군 소로면 하빈리 (미양재)	055-932-6959
	12	충주	汰 馨	충북 충주시 교현리 대가미 635-23	043-847-3786
	13	도곡	殷 模	충북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	043-647-0898
	14	남해	환 涉	경남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055-862-6884
	15	가동	承 茂	부산 금산진구 전포3동 504-49 12/3	051-806-1240
	16	웅인	承 億	경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583 효성A.1502-1504	031-922-6396
	17	화령	進 馨	서울 강동구 천호1동 천호 우성A.1-1006	02-489-0696
	18	연윤	潤 馨	충북 충주시 문화동 741-13 유진 여인숙	043-844-0893
	19	강천	極 模	부평구 청주동 48-420 계림시티빌 B동 102호	
	20	정태	武 林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정태 탁연정 상정)	055-972-0859
	21	청주	德 馨	충주시 상당구 탑동 297-26 1통 5반	043-256-7982
	22	원주	壹 馨	강원 원주시 단계동 122-4 4통 5반	033-747-1247
	23	황간	東 馨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106	043-742-4252
	24	옹호정	相 業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옹호정)	055-933-3708
	25	홍천	龍 雲	홍천군 홍천읍 회망8리 3반 382 (구소방대 입구)	033-434-7055
	26	가회	海 이	경남 합천군 가회면덕촌리	055-932-9182
	27	거제	良 明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10-12호	02-702-2831
	28	제천	海 帆	충북 제천시 의림동 24-32 소망주택 A동 202	043-644-5227
	29	사천	煥 守	경남 사천군 사천읍 두량	055-854-7675
	30	김해	喆 馨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578	055-758-5007
	31	합덕	甲 秀	충남 당진군 합덕읍 대전리 (관동)	041-362-0876
	32	진주	承 九	경남 진주시 대안동 6-10(제일침구상회)	055-741-4115
	33	공도	海 旭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182 부원빌리지 506-401	031-705-3845
	34	진천	承 玉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9 5반	043-533-4028
	35	미양	俊 馨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102-240	02-697-3443
	36	대병	得 龍	경남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055-933-7277
	37	운수	洪 植	경북 고령군 운수면 월산2리 (강산재)	055-954-9054
	38	거창	祚 馨	경남 거창군 거창읍 월평리 1021	055-943-8533
	39	함흥	甲 鏞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099-7	02-693-0665
	40	울수정	海 柱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울수정)	055-933-3178
	41	구의	承 洲	서울 광진구 구의동 78-14	02-453-1083
	42	술곡	海 榮	경남 합천군 봉사면 술곡리	055-933-6770
	43	포산재	中 秀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807-49	016-830-2352
	44	마곡	永 馨	경남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476	055-754-5005
	45	야정	치 규	경남 산청군 신안면 야정	055-972-0963
判 書 公 派	1	일동	然 秀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한진A 110-903호	02-2689-2660
	2	산척	海 眞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재현	043-652-6909
	3	양주	海 源	서울 노원구 공릉1동 400-1 호현아트빌 101호	02-972-0197
	4	사동	郁 馨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1-21	02-379-2181
	5	괴산	承 萬	인천 남구 관교동 쌍룡A 6-308호	032-421-6610
	6	유천	海 巖	서울시 마포구 중동 390 청구A 101-1805호	02-3783-8678
	7	신기	承 元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79 세종A 205-507	032-677-0454
	8	임한	甲 馨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동아A 8-503호	032-514-7244
支 會	1	부산종친회	瓚 馨	부산 연제구 연산2동 1564-2	051-852-0365
	2	대구종친회	承 權	대구시 수성구 상동 396-4 24/5	053-768-7272
	3	청주종친회	承 俊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22-16 유림건설	043-267-2470

창립이래 년도별 파별

區 分	入會金및分擔金 (世帶當10,000원)	贊 助 金				總會參席會費	利 子 其他收入	族譜代 (83年 發刊)	運營會費 (世帶當1回10,000원)
		財政委員	特志理事	一般贊助	計				
年 度 別	1978년	3,205,000	500,000	2,570,000	726,000	3,796,000	712,000	33,729	합관본: 25천원 복사본: 5만원 진강사 건립자금 조 달책으로 84년 신설 하고 93년 총회에서 미수금 결손처분
	1979년	9,355,000	9,500,000	3,780,000	140,000	13,420,000	274,000	47,792	
	1980년	17,184,000	13,600,000	6,300,000	400,000	20,300,000	537,000	144,861	
	1981년	22,069,000	8,505,000	2,680,000	397,000	11,582,000	573,000	490,686	205,000 31,127,900 61,987,100 14,013,300 10,200,000
	1982년	11,239,300	9,000,000	6,250,000	1,000,000	16,250,000	2,139,000	2,088,889	
	1983년	1,689,900	6,800,000	3,250,000	905,000	10,955,000	552,000	1,389,920	
	1984년	195,400	8,240,000	1,750,000	190,000	10,180,000	633,000	1,516,010	
	1985년	40,000	17,210,000	4,250,000	182,000	21,642,000	573,000	628,654	
	1986년	270,000	3,050,000	3,037,000	2,036,000	8,123,000	453,000	429,643	1,770,000
	1987년	30,000	22,500,000	7,420,000	3,219,000	33,139,000	357,000	1,379,567	1,175,000
	1988년	20,000	16,800,000	1,600,000	215,000	18,615,000	411,000	729,554	1,150,000
	1989년	-	16,231,000	2,490,000	2,910,000	21,631,000	735,000	1,558,166	1,300,000
	1990년	-	1,395,000	1,800,000	510,000	3,705,000	780,000	2,705,128	-
	1991년	-	9,214,000	6,350,000	447,000	16,011,000	1,440,000	2,507,458	-
	1992년	-	7,605,000	4,200,000	1,970,000	13,775,000	1,300,000	2,002,131	-
	1993년	-	16,898,000	7,420,000	9,330,000	33,648,000	1,630,000	3,421,633	-
	1994년	-	3,070,000	1,340,000	1,020,000	5,430,000	1,560,000	2,338,420	-
	1995년	-	6,240,420	2,107,000	1,470,000	9,817,420	1,140,000	3,158,838	-
	1996년	-	13,489,580	6,520,000	1,230,000	21,239,580	1,220,000	1,627,344	-
	1997년	-	13,060,000	10,350,000	1,230,000	24,640,000	1,050,000	2,903,243	-
	1998년	-	11,590,000	5,410,000	5,990,000	22,990,000	1,410,000	6,394,735	-
	1999년	-	4,850,000	5,080,000	1,975,000	11,905,000	1,000,000	3,800,111	-
	2000년	-	109,400,000	3,684,000	4,040,000	117,124,000	1,010,000	2,384,691	-
	2001년	-	2,130,000	1,340,000	1,990,000	5,460,000	1,150,000	2,271,851	-
	2002년	-	2,200,000	1,710,000	2,770,000	6,680,000	1,030,000	892,673	-
	2003년	-	1,570,000	820,000	2,058,000	4,448,000	1,010,000	781,447	-
	2004년	-	2,770,000	680,000	1,800,000	5,250,000	1,400,000	1,809,870	-
	2005년	-	4,880,000	1,120,000	2,080,000	8,080,000	1,780,000	15,582,338	-
	合 計	65,297,600	342,298,000	105,308,000	52,230,000	499,836,000	27,859,000	65,019,382	108,038,000
派 別	伯參判公派	12,302,600	57,690,000	15,720,000	5,257,000	78,667,000	-	-	6,120,000
	季參判公派	9,520,000	139,720,000	16,237,000	5,593,000	161,550,000	-	-	6,420,000
	安 簡 公 派	320,000	-	580,000	124,000	704,000	-	-	70,000
	晋 川 君 派	9,635,000	56,080,000	15,210,000	5,907,000	77,197,000	-	-	6,220,000
	大司成公派	30,690,000	79,157,000	28,760,000	15,462,000	123,379,000	-	-	14,203,300
	判 書 公 派	2,760,000	26,638,000	6,584,000	6,577,000	39,799,000	-	-	1,320,000
	派祖未詳	70,000	-	-	10,460,000	10,460,000	-	-	-
	合 計	65,297,600	359,285,000	83,091,000	49,380,000	491,756,000	27,859,000	65,019,382	108,038,000

창립이래 년도별 파별

項 目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會 議 費	總 會 費	654,050	299,100	426,990	976,010	1,289,540	564,500	490,100	684,100	602,140	657,300	1,033,850	1,145,000	1,383,800
	其 他 會 議 費	53,720	58,780	26,000	8,480	582,830	285,060	146,800	7,400	283,860	322,100	423,850	124,800	50,000
事 業 費	計	707,770	357,880	452,990	984,490	1,872,370	849,560	636,900	691,500	886,000	979,400	1,457,700	1,269,800	1,433,800
	譜 事 費	221,940	1,335,380	2,889,600	3,345,470	6,625,830	59,968,700	9,472,970	1,400	-	-	-	-	-
	祠 堂 建 立 費	50,300	10,704,200	33,614,970	12,927,584	17,210,662	1,064,170	19,333,130	39,405,035	17,228,190	21,891,130	-	-	-
	晋康祠位查買入費	-	-	-	-	13,327,200	7,540,800	-	-	-	-	16,670,000	-	-
	晋康祠祭享費	-	-	-	-	1,272,700	688,900	658,860	456,330	582,840	7,586,700	783,000	812,600	1,052,800
	晋康祠管理費	-	-	-	-	-	-	-	-	-	354,675	308,250	48,000	52,210
	晋康祠柱聯費	-	-	-	-	-	-	-	-	-	-	-	-	-
	故承源會長功績碑費	-	-	-	-	-	-	-	-	-	1,169,290	290,000	-	-
	大宗會報發刊費	170,000	-	770,000	240,000	230,000	-	450,000	500,000	450,000	550,000	800,000	665,000	650,000
	褒 賞 費	-	-	175,000	180,000	65,000	100,000	295,000	523,000	285,000	361,000	810,000	45,000	276,000
	宗 事 支 援 費	-	-	300,000	-	-	100,000	-	-	300,000	-	-	-	-
	文獻編輯刊行費	-	-	-	-	-	20,000	-	-	-	915,800	4,652,610	5,543,200	1,366,790
	晋柳便覽發刊費	-	-	-	-	-	-	-	-	-	-	-	-	-
	保 險 事 業 費	-	-	-	-	-	-	71,480	156,130	211,440	1,269,530	1,901,400	1,811,070	1,805,160
	尋 墓 事 業 費	-	-	-	-	-	-	-	-	-	-	-	463,580	-
	分 會 巡 訪 費	-	-	-	-	-	-	-	-	-	-	-	-	-
	計	442,240	12,039,580	37,749,570	16,693,054	38,731,392	69,462,570	30,229,960	40,957,245	19,002,160	30,600,170	6,102,295	25,344,860	9,844,650
合 計	事務室買入費													
	事 務 費	2,986,735	6,448,495	5,164,176	5,533,760	3,147,045	6,476,303	8,633,693	5,885,760	5,663,140	6,609,010	7,135,660	14,113,508	10,560,495
	借入金償還													
	合 計	4,136,745	18,845,955	43,366,736	23,211,304	43,750,807	76,788,433	39,500,553	47,534,505	25,551,300	38,188,580	14,695,655	40,728,168	21,838,945

항목별 수입 일람표

2006. 12. 31 현재

通商會費(世帶 當 每年10,000원)	運營委員 會費 (30만~100만원)	文獻總輯 分軼收 入(帳當 8만원)	會報12, 13호 및 合本代	便 覽 代 (郵當 3천원)	位 番 收 入	保 險 事 業 收 入	借 入 金	譜 事 收 入 (特別會計)	合 計
(91年設定)	※ 本項目은 96年 度부터 施行한것 으로서, 다만 參考	(83年發刊)	(每年發刊)	(96年發刊)	-	-	-	-	7,746,729
-	-	-	-	-	-	-	-	-	23,096,792
-	-	-	-	-	-	-	-	-	38,165,861
-	에資키 위하여 設 欄 한것임. 따라서	-	-	-	-	-	-	-	34,919,686
-	本 欄計數는 贊助	-	-	-	-	-	-	-	62,845,089
-	金欄에 各已區分	-	-	-	617,100	-	-	-	76,573,920
-	計上해 놓았으므	-	-	-	647,900	224,130	-	-	34,397,810
-	로 總計欄에는 計	-	-	-	686,400	1,366,720	-	-	36,035,684
-	上치않음.	-	-	-	793,500	2,997,314	-	-	20,368,763
-	-	-	-	-	892,540	5,597,224	-	-	42,511,381
-	-	-	-	-	1,034,150	7,836,867	-	-	27,525,318
-	-	-	-	-	1,485,000	7,770,718	-	-	34,195,183
-	-	-	-	-	-	-	-	-	16,445,846
4,181,000	-	-	-	-	1,485,000	7,495,639	-	-	33,140,097
13,820,000	-	-	-	-	1,485,000	6,239,660	-	-	38,621,791
26,050,000	-	22,254,500	-	-	-	5,051,344	-	-	92,055,477
16,370,000	-	10,400,000	-	-	-	6,337,435	-	-	42,435,855
14,105,000	-	800,000	4,312,000	-	-	5,906,092	-	-	39,239,350
17,890,000	16,600,000	2,160,000	2,666,000	2,914,000	-	5,560,843	-	-	55,277,767
38,450,000	21,600,000	240,000	121,00	4,724,000	-	2,706,610	-	-	74,834,853
16,250,000	3,200,000	160,000	-	144,000	-	97. 6. 13廢業	-	-	47,348,735
23,960,000	8,600,000	240,000	-	378,000	-	-	-	-	41,283,111
27,088,000	10,494,000	80,000	-	90,000	500,000	-	23,000,000	11,300,000	182,576,691
76,170,000	1,600,000	160,000	-	39,000	500,000	-	-	59,647,831	145,398,682
28,486,000	-	160,000	-	48,000	500,000	-	2,000,000	10,663,548	50,460,221
50,232,640	-	480,000	8,000,000	156,000	500,000	-	-	29,350,707	94,958,794
27,384,600	-	240,000	-	48,000	500,000	-	-	45,438,819	82,071,289
40,585,600	-	160,000	-	39,000	500,000	-	-	125,650,326	192,377,264
421,022,840	0	37,534,500	15,099,000	8,580,000	12,126,590	65,090,596	25,000,000	282,051,231	1,666,908,039
100,140,600	13,300,000	-	-	-	-	-	-	-	-
46,350,000	15,450,000	-	-	-	-	-	-	-	-
1,500,000	300,000	-	-	-	-	-	-	-	-
73,252,640	7,500,000	-	-	-	-	-	-	-	-
129,663,000	20,820,000	-	-	-	-	-	-	-	-
28,761,000	4,724,000	-	-	-	-	-	-	-	-
770,000	-	-	-	-	-	-	-	-	-
380,437,240	₩ 62,094,000	37,534,500	15,099,000	8,580,000	12,126,590	65,090,596	25,000,000	282,051,231	1,666,908,039

항목별 지출 일람표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總計
1,148,050	2,154,200	1,928,600	1,516,600	1,505,500	1,569,200	2,154,700	1,826,600	1,552,200	1,774,700	1,511,600	1,623,600	1,677,110	1,530,000	35,442,240
157,000	57,200	196,830	536,420	612,550	663,000	881,500	319,750	543,580	2,156,100	1,472,000	1,334,950	1,543,410	2,233,190	15,140,260
1,305,050	2,211,400	2,125,430	2,053,020	2,118,050	2,332,200	3,036,200	2,146,350	2,096,780	3,930,800	2,983,600	2,958,550	3,220,520	3,763,190	50,582,500
-	-	-	-	-	-	-	-	14,716,060	10,228,170	18,846,190	47,431,230	38,588,630	141,089,650	354,761,220
-	-	-	-	-	-	-	-	-	-	-	-	-	-	173,429,271
-	-	-	-	-	-	-	-	-	-	-	-	-	-	37,538,000
1,323,100	1,518,200	1,641,100	1,595,660	1,566,700	2,547,800	1,677,000	1,699,800	1,715,000	1,785,000	2,840,000	3,522,440	3,822,930	6,453,710	48,693,770
10,610,780	19,859,000	31,139,940	6,128,170	1,392,540	3,744,690	1,317,780	1,267,390	11,542,530	2,072,900	835,240	1,210,000	2,305,000	5,840,000	100,029,095
-	-	6,949,150	-	-	-	-	-	-	-	-	-	-	-	6,949,150
-	-	-	-	-	-	-	-	-	-	-	-	-	-	1,459,290
-	-	3,292,700	6,789,600	5,000,000	5,002,200	10,053,200	-	6,000,000	-	-	8,009,860	-	-	49,622,560
660,000	660,000	860,000	360,000	670,000	520,000	691,600	900,700	591,200	430,700	390,000	4,261,400	500,800	720,000	15,728,400
-	-	-	-	-	-	-	-	-	-	-	-	-	-	700,000
2,443,400	22,447,250	-	-	-	-	-	-	-	-	-	-	-	-	37,389,050
-	-	-	46,800	6,892,800	-	-	-	-	-	-	-	-	-	6,939,600
1,535,900	1,222,060	1,523,200	1,374,344	1,267,840	576,210	-	-	-	-	-	-	-	-	14,725,764
-	-	-	-	-	-	-	-	-	-	-	-	-	-	463,580
-	-	-	-	-	1,243,350	173,900	1,423,900	834,780	352,200	-	-	-	-	4,028,130
16,573,180	45,706,510	45,406,090	16,294,574	16,789,880	13,634,250	13,913,480	5,324,600	35,399,570	14,868,970	22,911,430	64,434,930	45,217,360	154,103,360	852,456,880
-	-	-	-	-	-	-	-	118,153,000	-	-	-	-	-	118,153,000
14,979,576	21,779,472	19,157,986	30,320,495	33,132,744	36,593,760	31,366,830	41,810,170	42,617,334	50,596,720	32,402,900	31,143,730	26,681,770	36,968,810	551,207,343
-	-	-	-	-	-	-	-	13,378,739	10,160,219	2,000,000	-	-	-	25,538,958
32,857,806	69,697,382	66,689,506	48,668,089	52,040,674	52,460,210	48,316,510	49,248,310	211,644,423	79,556,709	60,297,930	98,537,210	75,119,650	194,835,360	1,597,938,681

창립 이후 총수입 1,666,908,039

창립 이후 총지출 1,597,938,681

2005년도말 잔고 68,969,358

2006년도 찬조금 명세서

재정위원 찬조

위원명	파거지	파	찬조금	비 고
熙 涉	영 변	대	2,000,000	
소 계			2,000,000	

일반 찬조

성 명	파거지	파	찬조금	비 고
喆 馨	안 성	백	300,000	
海 章	서 울	판	70,000	
소 계			370,000	

정기총회 찬조

성 명	파거지	파	찬조금	비 고
宗 秀	가 호	대	2,000,000	
遠 浦	가 호	"	600,000	
兆 馨	안 동	진	100,000	
基 南	서 울	대	30,000	
영남하수회	합 천	"	1,000,000	
계찬판공파		"	1,080,000	
백참판공파		"	80,000	
진천군파		"	80,000	
대사성공파		"	80,000	
판서공파		"	80,000	
소 계			5,130,000	

진강사 시도금 찬조

성 명	파거지	파	찬조금	비 고
致 京	하 남	계	1,000,000	
殷 秀	서 울	판	1,000,000	
宗 秀	가 호	대	1,000,000	
正 得	거 제	"	820,000	
光 秀	합 천	"	20,000	
海 均	"	"	20,000	
海 龍	부 산	"	20,000	
海 点	"	"	20,000	
武 林	정 태	"	100,000	
海 潤	중 촌	"	30,000	
且 秀	김 해	"	100,000	
遠 榮	서 울	"	100,000	
遠 浦	"	"	100,000	
원 제	수 곡	"	20,000	
熙 涉	인 천	영변	500,000	
承 億	웅 인	참의	50,000	
相 勳	서 울	대	30,000	
中 秀	가 호	"	30,000	
철 규	가 호	"	30,000	
昇 馨	진 주	"	30,000	
得 龍	대 병	"	30,000	
相 秀	고 령	"	20,000	
海 이	가 회	"	20,000	
海 根	마 산	"	20,000	
焯 承	부 천	"	30,000	
遠 泰	인 천	"	30,000	
海 仁	합 천	"	30,000	
景 秀	"	"	30,000	

진강사 시도금 찬조

성 명	파거지	파	찬조금	비 고
海 乙	합 천	대	30,000	
武 馨	"	"	30,000	
東 秀	가 호	"	20,000	
小 秀	"	"	20,000	
응 수	"	"	30,000	
棕 秀	"	"	30,000	
正 馨	사 천	"	30,000	
海 倫	묘 산	"	30,000	
海 祖	"	"	20,000	
해 중	대 구	"	30,000	
해 철	"	"	30,000	
海 成	서 울	"	20,000	
基 南	"	"	50,000	
奇 馨	진 주	"	30,000	
大 年	일 본	"	100,000	
弼 相	서 울	계	30,000	
海 均	이 천	"	50,000	
澤 秀	"	백	30,000	
祿 馨	청 주	"	30,000	
儀 馨	"	"	30,000	
承 俊	충 북	"	50,000	
快 馨	노 산	"	20,000	
恒 馨	"	"	30,000	
瑾 模	청 원	"	30,000	
勳 模	청 주	"	30,000	
承 眞	가 덕	"	100,000	
吉 舊	현 도	"	50,000	
普 馨	군 포	"	100,000	
玄 秀	안 성	"	100,000	
泰 馨	"	"	30,000	
承 德	청 주	"	30,000	
名 模	두 곡	진	30,000	
慶 模	"	"	30,000	
炳 模	"	"	30,000	
海 坤	"	"	20,000	
志 奕	대 구	"	50,000	
海 容	"	"	100,000	
錫 源	"	"	50,000	
昌 睦	밀 양	"	50,000	
海 鎭	서 울	판	60,000	
진(봉화)			100,000	
진(상주분회)			240,000	
판(진,휘수방)			100,000	
판(진,휘 수)			100,000	
대(단양백공)			100,000	
대사성공파			1,070,000	
대사성친목회	서 울		500,000	
계참판공파			700,000	
청주종친회			100,000	
대구종친회			100,000	
합계			10,000,000	

※ 2006년도 찬조금 합계액 17,500,000원

재정위원 찬조금 납부현황 (1)

(派別・納入順)

2006. 12. 31 現在

派	順	委員名	固有番號	派居	現居	本 會 任 職	職 業	既 納 額	2006年納入額	未納額	備考
伯 參 判 公 派	1	滋馨	47-611	菊田	서울	前 常任理事, 前 監事	弘益産業 代表	1,300,000			
	2	宅馨	49-50	安城	〃	前 會長 顧問	前檢事 辯護士, 法博	15,000,000			
	3	大馨	49-47	安城	〃	前 副會長(亡)	前大光다이케스트工業 會長	2,000,000			
	4	承鳳	6-133	安山	〃		前서울證券Co. 社長	2,800,000			
	5	윤정	6-133	安山	〃	위 承鳳 子	분당 방사선과병원 원장	2,000,000			
	6	承世	43-493	三項	〃		庇産實業(株) 專務理事	7,500,000			
	7	承國	29-131	隱谷	利川	前 會長, 顧問	前韓國精神文化研究院長, 哲博	3,330,000			
	8	海仁	18-156	槐山	龍仁	顧問, 前 常任理事	前서울九老高等學校 校長	1,310,000			
	9	俊馨	5-89	蘆島	서울		陸軍小將豫編, 咸南知事, 以北五道委員長	1,800,000			
	10	伍馨	51-89	安城	〃	金光分會長	宇一産業 Co. 社長	1,130,000			
	11	在馨	15-78	槐山	〃	前 常任理事	城南商工會議所 事務局長	2,430,000			
	12	普馨	2-8	安山	〃	副會長 譜事委員長	前大韓石油協會 常務理事	1,790,000	100,000		
	13	喆馨	50-69	安城	〃	前 副會長	前 土改組 課長	1,100,000	300,000		
	14	萬馨	8-169	安山	仁川		(株)엔트캠 社長	1,300,000			
	15	哲馨	15-70	槐山	濟州		濟州觀光專門大學 教授	1,200,000			
	16	永煥	34-258	梧柳	서울		德山病院 行政部長	1,200,000			
	17	仁義	60-206	老山	〃		前部長判事 現辯護士	1,000,000			
	18	承俊	37-338	加德	淸州	伯參判公派 總務	裕林建設 代表	2,020,000			
	19	根馨	42-466	加德	〃	常任理事, 前 加德分會長	大貨軍輸 監事	2,000,000			
	20	永喆	34-259	梧柳	서울	監事	會計士, 稅務士	1,100,000			
	21	友馨	5-94	安山	安養		極東檢定 社長	1,200,000			
	22	炳玉	38-374	加德	서울		前家庭法院判事 現辯護士	1,700,000			
	23	林馨	2-25	安山	〃		前國際空港管理公團理事	1,150,000			
	24	海乾	77-542	老山	大田		東南印刷社 代表(大田)	1,300,000			
	25	東秀	79-606	老山	〃		前 初等學校 校長	1,080,000			
合 計								59,740,000	400,000		
季 參 判 公 派	1	承源	162-80	信川	서울	前 會長(亡)	前 國會議員 陸軍准將	3,000,000			
	2	信馨	141-13	平澤	〃	前 常任理事	(株)抱川그린(二東生水)社長	1,450,000			
	3	承珪	96-99	龍仁	城南	前 外四分會長, 前 常任理事	三井運輸 Co. 社長	2,650,000			
	4	昌馨	115-17	安城	서울	前 副會長(亡)	前 仁荷大學 教授	2,800,000			
	5	鳳相	162-80	信川	龍仁	(故 承源會長 長男)	머들원 牧場主(天原)	3,730,000			
	6	瑛模	161-41	信川	仁川		前日新病院長(金浦)	2,800,000			
	7	致京	126-60	鄉南	河南	前 會長, 常任理事, 監事	韓國老人會 江東支會長	110,730,000	1,000,000		
	8	承國	98-140	安城	一山		前韓國馬事會長(陸軍中將豫編)	1,000,000			
	9	奭馨	108-82	安城	安城	監事	前서울市 公務員	2,160,000			
	10	遠衡	148-3	大川	大川		蘇昌韓醫院長(大川)	2,200,000			
	11	遠俊	148-8	大川	서울		京畿道民會事務處長	1,800,000			
	12	銀相	107-60	安城	仁川		東亞엔지니어링 社長	1,800,000			
	13	興秀	142-47	平澤	〃	前 監事	仁川第一商高 校監	1,600,000			
	14	萬馥	159-2	平山	서울	前 監事	大韓劍道協會 理事	1,000,000			
	15	雲馨	135-8	禾谷	〃	禾谷分會長	禾谷새마을金庫理事長	1,100,000			
合 計								139,820,000	1,000,000		
晋 川 君 派	1	志淵	231-49	密陽	釜山	前 祠建委員長(亡)	韓國金屬工業 Co. 會長	12,000,000			
	2	承秀	244-23	尙州	서울	前 會長, 名譽會長(亡)	前大一漢醫院長	25,000,000			
	3	淳睦	231-48	密陽	〃	前 常任理事	五福商社 Co. 社長	1,500,000			
	4	特韓	261-37	體泉	〃	(亡)	柳柳産業 Co. 會長	1,000,000			
	5	東林	214-207	尙州	釜山		柳小兒科醫院長(釜山)	1,700,000			
	6	海瑩	217-272	尙州	서울	前 譜委副委員長(亡)	鍼術醫	1,300,000			
	7	永吉	270-273	安東	〃	前 副會長	柳一商社(複寫業) 代表	2,330,000			
	8	殷馨	226-40	軍威	〃		前東方債券 代表	3,300,000			
	9	夏林	214-201	尙州	城南	前 副會長	前校洞初等學校長	1,600,000			
	10	炳大	218-305	尙州	利川		大成建設 代表(利川)	2,350,000			
	11	炳國	206-159	尙州	日本		在日實業家(着物製品業)	1,650,000			
	12	壽旺	240-275	密陽	서울		辯護士	1,600,000			
	13	彥馨	214-167	尙州	〃	前 副會長	前報勳處 一級管理官	1,180,000			
合 計								56,510,000			

재정위원 찬조금 납부현황 (2)

(派別・納入順)

2006. 12. 31 現在

派	順	委員名	固有番號	派居	現居	本 會 任 職	職 業	既 納 額	2006年納入額	未納額	備考
大 司 成 公 派	1	台馨	291-74	丁台	釜山	前祠建委首席副委員長(亡)	前極東毛紡 Co. 社長(亡)	2,000,000			
	2	廷昊	385-337	妙山	"		普生纖維工業社 代表	1,000,000			
	3	海成	336-29	水谷	서울	前 會長, 顧問	稅務士, 韓國稅務士會 理事	4,880,000	20,000		
	4	致云	331-380	南海	"	(亡)	東珍產業 Co. 會長	5,500,000			
	5	尙昊	385-335	妙山	"	顧問(亡)	前高法部長判事, 前國會議員, 辯護士	4,700,000			
	6	正得	399-167	巨濟	安養	副會長, 巨濟分會長	前(株)斗陽產業 會長	1,650,000	820,000		
	7	斗模	317-24	南海	서울	(亡)	前加星石材 Co. 社長	1,100,000			
	8	海沃	346-58	金海	水谷	(亡)	前水谷釀造場主	1,020,000			
	9	德馨	393-23	巨濟	서울	前 常任理事(亡)	前서울 藝術專門大學長, 現理事長	1,800,000			
	10	國年	387-384	妙山	晋州	(亡)	前晋州農林專門大學長	1,000,000			
	11	銀圭	394-34	巨濟	서울	前 常任理事	高麗禮式場 常任顧問	4,050,000			
	12	瓊馨	290-46	丁台	釜山		東光撚絲工業社 代表	1,150,000			
	13	承允	291-57	"	"		柳漢藥局 經營	1,500,000			
	14	承烈	314-218	泗川	水谷	(亡)	土木事業	1,000,000			
	15	海柱	336-31	水谷	釜山		前稅務署 課長 現稅務士	2,630,000			
	16	泰馨	376-106	妙山	서울	(亡)	中央鐵鋼商社 代表	1,500,000			
	17	振甲	389-447	冶爐	日本	(亡)	在日實業家	1,000,000			
	18	泰煥	482-57	咸興	釜山	(亡)	德興醫院長(釜山)	1,300,000			
	19	承亨	281-122	河東	"		前 東亞商社 代表	1,200,000			
	20	遠榮	457-87	佳湖	서울	監事	韓國電子 Co. 名譽會長, 前會長)	3,000,000	100,000		
	21	光司	320-90	南海	"		產婦人科醫院長 前서울市議員(江西)	5,500,000			
	22	斗秀	443-362	佳湖	"	前常任理事, 顧問(亡)	前學校保健協會 常務理事	1,000,000			
	23	又秀	408-431	"	釜山		東亞大學校 工大教授	1,700,000			
	24	宗秀	451-161	"	서울		東洋畫家	4,470,000	3,000,000		
	25	遠和	435-144	"	"	前 副會長	前韓國도시락食品工業協組專務豫陸大領	1,320,000			
	26	孝秀	383-297	妙山	"	前 常任理事	前漢陽파이프 副會長	1,020,000			
	27	海珍	387-401	"	"		光林工業社 代表	1,000,000			
	28	洲馨	364-428	堤川	"		柳成耐火工業社 代表	1,100,000			
	29	萬鳳	395-76	巨濟	"		巨星建設(株) 專務理事	5,670,000			
	30	泌馨	393-17	"	"	副會長, 前 巨濟分會長	前서울 藝術大學 財團事務局長	2,200,000			
	31	時馨	497-189	鳴琴	"	前 常任理事	三友化學(株) 專務, 藥學博士	1,000,000			
	32	承祖	297-236	丁台	"	前 常任理事(亡)	圖書出版 尙書閣 代表	1,400,000			
	33	萬浩	431-33	佳湖	"	前 常任理事	商業(可樂市場)	2,060,000			
	34	萬年	452-163	"	"		現代建設 理事	2,840,000			
	35	昇馨	297-213	丁台	晋州		商業(竹細工品)	1,307,000	30,000		
	36	承宙	286-247	"	서울		高大教授(歷史・文博)	1,100,000			
	37	慶富	336-34	水谷	釜山		藥局經營	1,200,000			
	38	遠浦	456-55	佳湖	서울	副 會長, 大宗會報 編輯委員	大明企劃 代表	1,260,000	700,000		
	39	基南	330-355	남해	의정부	운영위원, 전감사	전국철도노우 회장	1,230,000	80,000		
	40	熙涉		영변	인천		산곡운수 회장		2,500,000		
合 計								81,357,000	7,250,000		
判 書 公 派	1	權馨	180-15	豐德	仁川	前監事(亡)	前韓國勞總 京畿道 議長	1,100,000			
	2	殷秀	173-37	山尺	서울	前副會長, 前監事, 會長	前 金剛運輸 Co. 常務理事	7,908,000	1,000,000		
	3	吉馨	191-78	豐德	"	(亡)	前銀行支店長	1,500,000			
	4	完馨	180-14	"	仁川	仕洞分會長(亡)	事業(農場經營, 其他)	1,200,000			
	5	海鎮	176-16	楊州	서울	前 副會長	前高校教師	1,660,000	60,000		
	6	大馨	191-55	豐德	"	前 副會長(亡)		3,000,000			
	7	海東	176-23	楊州	"	副會長, 前 監事	三湖레미콘 管理理事	1,270,000			
	8	海源	177-31	"	"	楊州分會長		1,110,000			
	9	海南	179-82	抱川	"		大宇證券 Co.	2,000,000			
	10	馨	189-25	豐德	濠洲	前監事, 前常任理事	前정화에너지(株) 社長	2,400,000			
	11	道馨	181-44	"	金浦	常任理事	꽃시금牧場經營(金浦)	1,160,000			
	12	然秀	177-46	抱川	富川	前常任理事, 一東分會長		1,280,000			
	13	承德	189-20	豐德	平澤		藥局經營(平澤)	1,050,000			
	14	寬馨	173-30	山尺	山本	財政擔當 副會長	前商業銀行次長	1,000,000			
	合 計								27,638,000	1,060,000	
總 計								365,065,000	9,710,000		

특지이사 찬조금 납부현황 (1)

(派別・納入順)

2006. 12. 31 現在

派	順	委員名	固有番號	派居	現居	本 會 任 職	職 業	既 納 額	2006年納入額	未納額	備考
伯 參 判 公 派	1	海廣	2-25	안산	서울	亡 前 상임이사		130,000			
	2	世馨	7-137	"	"	(亡)	前주택은행 지점장	100,000			
	3	大楨	4-59	"	"	(亡)	前 삼성전자대리점 사장	100,000			
	4	海曄	3-34	"	안산	前명예회장(亡)	前안산문화원장	150,000			
	5	承龍	2-1	"	용인	(亡)	前서라벌식품상무이사 兼공공장	700,000			
	6	源馨	2-11	"	일산		前영풍건설 Co. 이사	530,000			
	7	浩楨	4-64	"	안산	前상임이사	前한국중기Co. 전무이사	300,000			
	8	天馨	7-147	"	"	상임이사	前안산문화원장.前서울은행지점장	350,000			
	9	凡楨	6-121	"	서울	(亡)		100,000			
	10	承華	6-131	"	안양		신일기업 대표	400,000			
	11	承範	17-111	"	서울		前신광사(중고차매매)대표	300,000			
	12	濟哲	16-91	"	"		前상업	600,000			
	13	承煥	17-124	"	"	(亡)	族館業	100,000			
	14	時馨	8-163	"	"		서점경영	250,000			
	15	泰楨	4-61	"	"		前농협 지점장	200,000			
	16	文馨	3-34	"	안산	(亡)	前대림공전 기획관리과장	530,000			
	17	馥馨	5-100	"	"	(亡)	부동산소개업	300,000			
	18	承敦	5-106	"	"	안산분회장	前 안산시의원	600,000			
	19	海權	3-46	"	"		농업	300,000			
	20	鳳楨	6-125	"	안양		우림건축사무소장	350,000			
	21	福馨	2-12	"	안산	前안산분회장(亡)	농업	100,000			
	22	澤馨	2-3	"	인천		前철도청공무원	100,000			
	23	旻相	6-123	"	안산		노루표 대리점경영	200,000			
	24	濟英	3-53	"	군포	(亡)	대림산업	100,000			
	25	敏馨	7-152	"	인천			150,000			
	26	喆馨	1-20	명금	서울		前국방부조달본부부이사관	200,000			
	27	海益	15-78	괴산	"	前부회장(亡)	前괴산우체국장	100,000			
	28	川馨	18-146	"	"	前감사	前초등학교교장	650,000			
	29	市馨	19-166	"	청주		前충북상고 교감	150,000			
	30	利馨	17-115	"	서울	(亡)	前상업	200,000			
	31	儀楨	16-95	"	"	(亡)	前음식점 경영	200,000			
	32	祿馨	14-45	"	청주	부회장	前사법서사	320,000	30,000		
	33	東馨	19-177	"	서울	(亡)	前부동산소개업	100,000			
	34	玉馨	19-182	"	"		前한미연합사 문관	300,000			
	35	承大	13-1	"	괴산	괴산분회장	농업	250,000			
	36	健馨	14-33	"	"	(亡)	"	100,000			
	37	聖德	9-207	"	서울		前삼성생명보험 상담설	100,000			
	38	承寬	17-132	"	"		사업가	100,000			
	39	承浩	5-89	독도	서울		(주)다솔개발 사장	500,000			
	40	誥模	57-1	노산	노산			100,000			
	41	甲楨	16-107	"	"		前 체신청 공무원	200,000			
	42	弘秀	23-47	청안	천안	(亡)		100,000			
	43	承眞	46-568	가덕	국전		가덕농협조합장 (3선)	180,000	100,000		
	44	達馨	37-337	"	노동	前부회장(亡)	前면장	100,000			
	45	仁秀	25-22	"	인천	(亡)	前고등학교 영어교사	100,000			
	46	公模	31-178	음곡	청주	(亡)	前충북보건연구소장	100,000			
	47	承潤	32-209	"	"		청주시청	100,000			
司 諫 公 派	48	賢模	29-110	"	"		축산업	130,000			
	49	昌模	29-119	"	"		대양건설 대표	150,000			
	50	元模	29-129	"	"		전 사법대서소 사무장	100,000			
	51	泰模	31-168	"	"			100,000			
	52	炳九	29-114	"	"	운영위원, 상임이사	대학교 교수(문학박사)	650,000			
	53	鍾秀	51-103	마운	광주			100,000			
	54	承億	50-79	"	서울	운영위원		450,000			
	55	承根	33-220	음곡	청주			100,000			
	56	承元	46-575	국전	서울		백제약국 경영	220,000			
	57	承宇	37-344	가덕	"	(경제학박사)		100,000			
忠 贊 公 派	58	觀模	29-128	음곡	"	운영위원		300,000			
	59	準向	63-177	노산	"	前감사	새마을금고연합회장 前서울시의원	750,000			
	60	永先	69-348	"	노산	前상임이사	농업(전변장)	190,000			
	61	承澤	57-1	"	"	(亡)		100,000			
	62	快馨	87-823	"	"	상임이사	前초등학교 교감	360,000	20,000		
	63	台馨	71-381	"	대전	(亡)운영위원	前초등학교 교감	350,000			
	64	永烈	87-823	"	노산			300,000			
	65	承澹	83-705	"	서울			310,000			
	66	承玉	71-398	"	청주			100,000			
	67	현수		안성					100,000		
合 計								16,150,000	250,000		

특지이사 찬조금 납부현황 (2)

(派別・納入順)

2006. 12. 31 現在

派	順	委員名	固有番號	派居	現居	本 會 任 職	職 業	既 納 額	2006年納入額	未納額	備考
縣 監 公 派	1	夏馨	96-94	용인	성남		대보건설 Co. 회장	500,000			
	2	武馨	97-116	〃	용인 (亡)		前 백암 축협 조합장	100,000			
	3	斗馨	97-122	〃	서울 (亡)		前유일가구점 경영	300,000			
	4	承默	100-199	안성	〃		前서울 전자사장	200,000			
	5	之馨	98-145	〃	〃		前동양인쇄잉크 Co. 전무	127,000			
	6	天馨	98-154	〃	〃			200,000			
	7	承安	99-183	〃	〃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100,000			
樂 侮 公 派	8	承寬	106-30	〃	안성 (亡)		농업	100,000			
	9	承哲	106-37	〃	〃 (亡)		〃	100,000			
	10	華相	〃	〃	서울		前동아일보 송파지국장	130,000			
	11	弼相	106-30	〃	〃	상임이사	E-Com 세상 대표	560,000			
	12	承夏	107-60	용인	용인 (亡)		농업	200,000			
	13	起相	107-57	안성	진해	운영위원	물리학 박사	400,000			
	14	益相	107-56	〃	안양	운영위원		700,000			
保 寧 公 派	15	承元	107-70	〃	서울	상임이사 前감사	예비역 육군중령.상업	180,000			
	16	承學	106-48	〃	〃		도일건축설계사무소장	250,000			
	17	承泌	107-79	〃	안성			200,000			
	18	時馨	110-49	강서	청주	운영위원청주총친회장	청주시의회의원(2선).의장	880,000			
	19	寶馨	110-51	〃	서울		삼부건설 Co. 건축부장	400,000			
	20	承祿	109-1	〃	강서 (亡) 前상임이사		농업	460,000			
	21	承冕	109-23	〃	〃	강서분회장(亡)	〃	280,000			
季 參 判 公 派	22	承珪	114-137	〃	서울 (亡)		도서출판 유신각 대표	100,000			
	23	爽馨	110-42	〃	〃	경제학박사	前 보람은행 경제연구실장	100,000			
	24	世馨	110-37	〃	〃		한국전력 송변전건설처 부장	130,000			
	25	海德	117-72	안성	〃	前부회장(亡)		100,000			
	26	煜馨	120-147	〃	안성 (亡)		前협진건설 Co. 회장	220,000			
	27	建馨	115-12	〃	〃			100,000			
	28	承俊	115-9	〃	〃		前안성군축산협동조합장	100,000			
公 議 司 公 派	29	文馨	115-20	〃	서울		선일금속 대표	550,000			
	30	完馨	121-78	진천	진천	前 진천분회장(亡)	前초등학교 교감	100,000			
	31	春秀	126-77	항남	용인			100,000			
	32	承權	115-6	안성	안양	운영위원		300,000			
	33	樂馨	118-10	〃	서울	前상임이사	前정보경제관	930,000			
	34	海?	119-121	〃	〃			100,000			
	35	海超	119-128	〃	안성	부회장	용인대 체육 교수	300,000			
河 陽 公 派	36	海燦	133-54	김천	서울		목축업(성진)	200,000			
	37	萬濟	133-73	〃	〃	前상임이사(亡)	前진해빛테리 상사.회장	100,000			
	38	海軾	132-47	〃	〃 (亡)		前교회장노	100,000			
	39	承眞	132-28	〃	구리 (亡)		前초등학교 교장	100,000			
	40	順馨	132-48	〃	서울		前한일개발 Co. 차장	420,000			
	41	承宅	131-7	〃	〃		지물포경영	100,000			
	42	達馨	131-8	〃	포천 (亡)			100,000			
直 長 公 派	43	承龍	131-1	〃	서울	前안성읍분회장		100,000			
	44	潮馨	139-99	안성	〃		前농협지점장	200,000			
	45	福馨	138-62	음성	〃		뉴-에이스 상사 대표	500,000			
	46	敬相	132-32	김천	〃	운영위원	미국상	770,000			
	47	炳運	129-1	벽성	대구	〃	치과기공사	430,000			
	48	海島	127-103	화성				100,000			
	49	承龍	135-3	화곡				100,000			
安 簡 公 派	50	錫相	147-166	평택	서울		교육학박사	100,000			
	51	華馨	145-119	〃	〃		자영업	600,000			
	52	海敏	142-34	〃	평택	평택분회장	농업	300,000			
	53	昭馨	142-32	〃	서울		前삼경래지산업 대표	150,000			
	54	遠永	148-1	대천	대천	대천분회장		100,000			
	55	赫秀	150-25	이천	이천	이천분회장	前동부고속 이천영업소장	200,000			
	56	海均	152-73	〃	서울	운영위원	공인관리사	650,000	50,000		
安 簡 公 派	57	天馨	147-177	평택	평택	운영위원	前경기도의회 부의장	300,000			
	58	承琳	165-140	신천	서울		前신흥제분 Co. 이사	100,000			
	59	煥春	160-18	〃	〃		영화사업(美이민)	100,000			
	60	東馨	163-84	〃	인천		前인천지하상가 회장	200,000			
	61	道馨	163-87	〃	서울	前상임이사		100,000			
	62	曰馨	164-117	〃	과천	신천분회장		240,000			
	63	燦馨	164-120	〃	서울			100,000			
	64	承乾	162-56	〃	대전			100,000			
	65	禹馨	165-138	〃	부산		한국에너지개발연구소장	150,000			
	66	貞姬	162-811	〃	서울		(故 승원회장따님)	100,000			
	67	浩相	162-81	〃	〃		고대의대교수(醫博)	100,000			
合 計								16,607,000	50,000		
安 簡 公 派	1	亨秀	168-19	청주	서울	前상임이사(亡)		100,000			
	2	協秀	170-14	충주	충주	부회장 교현분회장		100,000			
	3	海觀	168-19	청주	청주	前상임이사,운영위원	前고등학교 교장	380,000			
合 計								580,000			
良 和 公 派 合 計								33,337,000	350,000		

특지이사 찬조금 납부현황 (3)

(派別・納入順)

2006. 12. 31 現在

派	順	委員名	固有番號	派居	現居	本 會 任 職	職 業	既 納 額	2006年納入額	未納額	備考
臺 嚴 公 派	1	泰禎	206-159	은척	일본	(亡)	일본 경도거주, 실업가	100,000			
	2	海允	217-276	"	부산			100,000			
	3	海模	216-269	"	서울	前상임이사(亡)		100,000			
	4	承鎭	206-152	"	함창	前감사(亡)	前면장	100,000			
	5	新馨	215-230	"	부산			100,000			
	6	承逸	201-15	"	함창	운영위원	농업	400,000			
	7	奉安	205-121	"	서울		前 제주 경찰청장	100,000			
	8	久雄	204-92	"	함창	운영위원	토목업	720,000			
	9	靜雄	204-93	"	서울		중개업	350,000			
	10	承相	202-48	"	은척	前감사,은척분회장	농업	340,000			
	11	海尙	215-241	"	"	前무릉분회장	前총대의원	240,000			
	12	春馨	208-2	"	서울	(亡)		100,000			
	13	崇林	218-317	"	은척	신리분회장		370,000			
	14	海成	217-271	무릉	서울			600,000			
	15	正基	201-24	문경	부산			100,000			
	16	吉相	206-147	은척	은척		농업	100,000			
	17	碩馨	215-241	"	"	前상임이사, 감사	덕성여대 교무처장	180,000			
	18	武成	209-53	"	"	운영위원	삼성항공(株)사장	300,000			
	19	承杰	212-130	"	"	前상임이사		130,000			
	20	元模	204-106	"				100,000			
	21	承倫	220-372	지동	청주	운영위원	거신건설(株) 대표	300,000			
立 義 公 派	22	東根	228-95	군위	포항		자혜의원장(포항)	300,000			
	23	洙馨	228-86	"	서울		상업	300,000			
晉 縣 監 公 派	24	志奕	233-94	밀양	대구			160,000	50,000		
	25	志泳	231-52	"	부산	(亡)		200,000			
	26	敏睦	232-57	"	서울	(亡)	(한학자,서예가)	100,000			
	27	傳睦	231-39	"	부산			100,000			
	28	錫基	232-57	"	서울		태광산업 Co. 전무이사	500,000			
	29	漢睦	231-38	"	"		대영기름집 경영	200,000			
	30	昌成	241-51	봉화	봉화	(亡)	양조장 기타	200,000			
	31	槩馨	242-32	"	"	前봉화분회장	농업	130,000			
	32	鎭馨	243-74	"	"	(亡)		100,000			
	33	浩馨	241-16	"	"	봉화분회장	삼성전자,봉화중앙대리점주	780,000			
察 訪 公 派	34	興植	244-26	구서	구미	운영위원	홍익한의원원장	950,000			
	35	根植	244-14	"	서울		신광사(금은시계포)	320,000			
府 使 公 派	36	周馨	254-1	안성	안성	前상임이사, 오촌분회장	농업	100,000			
	37	光瑯	253-18	화남	서울	前화남분회장(亡)		100,000			
	38	東植	253-7	"	"		청송산업 Co. 상무이사	100,000			
	39	舜馨	254-16	안성	안양			130,000			
	40	善根	251-7	보은	서울	운영위원	상업	600,000			
	41	承漢	255-34	안성	"	前상임이사(亡)	前초등교 교장	100,000			
	42	祥綠	255-37	"	"		제일은행 지점장	100,000			
宰 臣 公 派	43	永濠	266-163	의성	"	前상임이사		100,000			
	44	承默	266-188	"	천안	(亡) 운영위원	초등교 교장	450,000			
	45	承惠	267-190	"	도산	운영위원	금성전자 도산대리점 경영	700,000			
	46	大馨	269-251	안동	부천	(亡)		250,000			
	47	永旭	271-304	"	안동	안동분회장	농업	120,000			
	48	承漢	269-270	"	서울		우단약국 경영	310,000			
	49	海成	273-356	"	안동			100,000			
	50	海容	269-248	"	대구	부회장,화수회회장	前노총 경북협의회 의장	280,000	100,000		
	51	世馨	271-317	"	안동	前안동분회장(亡)		100,000			
	52	永奎	271-306	"	"	(亡)		200,000			
	53	泓模	261-28	예천	의정부	前감사	슈퍼점 경영	100,000			
	54	承택	268-220	의성	청주		前금마항공여행사 사장	100,000			
	55	明相	264-131	"	서울	前상임이사(亡)	초등학교 교사	510,000			
	56	進東	275-433	"	"	前감사	경기일보 안양분실차장	270,000			
	57	兆馨	269-245	안동	"	前상임이사,운영위원	유미상패 대표	350,000	100,000		
	58	永友	261-44	예천	제천	운영위원	유림상회主(의류상)	300,000			
	59	春馨	273-376	의성	"	(亡) 운영위원	음식점 경영	300,000			
	60	一相	261-49	예천	서울	운영위원	(문학박사) 대학교수	300,000			
	61	炳勳	260-1	예천	서울		농업	100,000			
								15,440,000	250,000		

특지이사 찬조금 납부현황 (4)

(派別・納入順)

2006. 12. 31 現在

派	順	委員名	固有番號	派居	現居	本 會 任 職	職 業	既 納 額	2006年納入額	未納額	備考
大 司 成 公 派	1	承權	290-41	정태	대구	진류대구중친회장	미8군부산대구지역연수원장	230,000			
	2	昱馨	286-263	"	서울	前상임이사(亡)	前중학교 서무과장	300,000			
	3	承烈	298-241	"	부산		부산철도공작장 주사	200,000			
	4	承宇	286-248	"	서울		前 관세청 과장	300,000			
	5	永斗	286-250	"	"		상명여대 교수(文博)	600,000			
	6	點馨	300-291	"	정태		농업	100,000			
	7	承善	296-209	"	청현		"	100,000			
	8	致澈	300-309	"	"	(亡)	"	100,000			
	9	連馨	300-311	"	정태		"	100,000			
	10	鍾相	314-238	"	진주		"	100,000			
	11	德相	295-174	"	정태			100,000			
	12	承九	293-119	"	진주	진주분회장	제일 침구상회	150,000			
	13	元相	297-236	"	서울		도서출판 상서각 전무	100,000			
	14	在馨	279-73	단계	부산		前중학교장	100,000			
	15	漢秀	286-247	단계	진주	(亡)		120,000			
	16	克榮	322-138	남해	부산			100,000			
	17	榮鈺	317-17	"	"		영도계량소 경영	200,000			
	18	基鳳	330-352	"	대전	(亡)	前한밭공론사 감사	500,000			
	19	錫皓	330-356	"	포항		동영산업(株)회장(울산)	100,000			
	20	炳浩	321-113	여주	서울		세무사	100,000			
	21	孟林	306-5	사천	사천	(亡)	농업	100,000			
	22	承昌	312-187	"	부산		상업	100,000			
	23	德林	308-73	"	서울		토건업	100,000			
	24	煥奉	307-53	"	"		승전대학교,산업대학원장(工博)	300,000			
	25	必九		"	사천			100,000			
	26	承正	313-201	"	부산	(亡)	진성기업사 대표	100,000			
	27	永馨	316-272	"	수곡	진강사현장 총무	농업	100,000			
	28	奇馨	316-274	"	진주		금은방(금옥당) 경영	100,000	30,000		
	29	演台	307-47	"	사천			100,000			
	30	廣川		"	"			100,000			
	31	道相	306-8	"	부산	前부산중친회장	前교수	110,000			
	32	承都	282-148	하동	인천		前중부생명보험회사차장	100,000			
	33	承杓	282-151	"	울산		슈퍼 경영	200,000			
	34	鳳烈	317-21	남해	창원	운영위원		600,000			
	35	炳淳	319-66	"	남해			100,000			
	36	承德	279-69	단계	부산	운영위원		300,000			
	37	海星	286-247	승산	서울	운영위원		300,000			
	38	益秀	341-164	수곡	수곡	前진강사건위부위원장(亡)	前 면장	300,000			
	39	光秀	336-43	"	부산			150,000	20,000		
	40	漢秀	338-90	"	"		사법서사 (부산)	600,000			
	41	秀吉	338-98	"	서울			100,000			
	42	章秀	336-41	"	부산		농업	100,000			
	43	炳秀	341-176	"	진주		금 은 시계포	100,000			
	44	重秀	341-180	"	수곡		농업	100,000			
	45	海雄	336-52	"	"		농업	100,000			
	46	遠煥	341-188	"	"	前약산분회장(亡)		100,000			
	47	遠淑	338-100	"	"	(亡)		100,000			
	48	遠溪	340-157	"	"			100,000			
	49	遠應		"	"			100,000			
	50	遠在	338-104	"	"			100,000			
	51	鍾皓	339-19	"	서울	(亡)	前 부평세관장	400,000			
	52	聖秀	338-92	"	수곡			100,000			
	53	良秀	343-219	"	"			100,000			
	54	孟秀	342-211	"	"			100,000			
	55	烈秀	338-99	"	"			100,000			
	56	連秀	343-224	"	"			100,000			
	57	淵秀	338-84	"	"	(亡)		100,000			
	58	雄秀	338-89	"	"			100,000			
	59	正秀		"	"			100,000			
	60	晚秀	342-209	"	"			100,000			
	61	海晟	341-168	"	진주			100,000			
	62	海文	336-49	"	수곡			100,000			
	63	海周	338-94	"	"			100,000			
	64	秀川	339-132	"	"			100,000			
	65	桂秀	341-174	"	서울	前상임이사	前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310,000			
	66	海德	345-52	김해	부산		한영 신용금고	200,000			
	67	堤馨	346-56	"	수곡	운영위원 (亡)	진양군산림조합장	400,000			

특지이사 찬조금 납부현황 (5)

(派別・納入順)

2006. 12. 31 現在

派	順	委員名	固有番號	派居	現居	本 會 任 職	職 業	既 納 額	2006年納入額	未納額	備考
丹陽伯公派	68	沅馨	358-251	청풍	충주	운영위원	법무사	520,000			
	69	대형	366-465	"	"	상임이사	충주농수산부매시장 사장	240,000			
	70	潤馨	364-419	"	"	운논분회장		100,000			
	71	元馨	371-610	"	음성	음성분회장		170,000			
	72	道馨	360-323	"	충주	前상임이사,충북지회장(亡)		180,000			
	73	海根	357-230	"	청주	前청주분회장		170,000	20,000		
	74	澤秀	360-299	"	제천	前용곡분회장		100,000			
	75	吉馨	349-1	"	양평	前양평분회장(亡)		100,000			
	76	殷模	352-96	"	도곡	도곡분회장		100,000			
	77	海天	367-500	"	제천		전파사 경영	100,000			
	78	德馨	356-199	"	청주	청주분회장	前제천부군수	360,000			
	79	承煥	354-157	"	충주			100,000			
	80	海帆	370-575	"	제천	상임이사	前제천 세명고등교 교감	130,000			
	81	日馨	"	"	서울			100,000			
	82	海昌	370-569	"	도산	(亡)	제일기업사 대표	500,000			
	83	海說	356-214	"	충주	前문화분회장(亡)		100,000			
	84	炳植	351-68	"	제천	(亡)		100,000			
	85	承龜	356-197	청주	서울	운영위원	중기협중앙회 이사	300,000			
	86	承基	365-439	충주	충주	운영위원,前상임이사	제중환의원 경영	700,000			
	87	亓模	360-316	단양	단양	운영위원		320,000			
	88	海平	367-499	제천	제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300,000			
大成公司正公派	89	海陽	376-101	묘산	서울	前감사	前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부장	130,000			
	90	光年	426-895	"	대구	前대구분회장(亡)		200,000			
	91	海祚	426-909	"	"		상업	120,000			
	92	海俊	387-387	"	서울		청구목재 Co.이사	200,000			
	93	武馨	376-98	"	묘산	중촌분회장	농업	210,000	30,000		
	94	德明	404-306	거제	서울	거제분회장	단호무역 회장	130,000			
	95	材馨	394-34	"	"		醫博,中大의대교수	100,000			
	96	致眞	393-23	"	"	(亡)	극작가,드라마센터,서울예대창설자	100,000			
	97	萬碩	395-78	"	거제	(亡)	농업	130,000			
	98	鐵權	394-52	"	서울		죽림기업소장	100,000			
	99	泰元	401-236	"	거제	(亡)	제일가스 대표	100,000			
	100	允秀	435-161	가호	서울		前 서영고역장	100,000			
	101	遠博	449-105	"	부산		건제상	300,000			
	102	遠玉	382-246	괴산	"		세무사	300,000			
	103	遠春	437-204	가호	마산		前마산시 과장	330,000			
	104	相勳	455-48	"	서울	前부회장	한마음 선원 총무부장	580,000	30,000		
	105	槓根	450-135	"	"		前경무관,경우회공제회 사무국장	300,000			
	106	遠守	454-23	"	성남	前상무이사,상임이사	前서울시 구청공무원	610,000			
	107	遠志	"	"	가호	(亡)	농업	100,000			
	108	遠千	441-300	"	"	(亡)	농업 前총대의원	100,000			
	109	遠泰	439-257	"	"	운영위원	삼립식품 신길대리점 대표	400,000	30,000		
	110	遠奉	433-101	"	부산	(亡)	행정대서사	100,000			
	111	震秀	431-35	"	대구	운영위원	한약방	680,000			
	112	日秀	443-359	"	가호	(亡)	농업	100,000			
	113	淳秀	"	"	진주			120,000			
	114	海根	447-43	"	가호		법무사	250,000			
	115	允植	434-124	"	서울	(亡)	도서출판"흥진"대표	450,000			
	116	遠澤	469-277	야로	"		삼산산업 Co. 사장	300,000			
	117	長發	389-437	가산	대구		대구대교수 (유전공학박사)	100,000			
	118	桂成	399-177	거제	서울	운영위원	대우건설 전문이사	330,000			
	119	長春	389-436	가산	대구		초등학교 교장	100,000			
	120	海点	418-694	대병	부산			180,000			
僉知公派	121	承亨	479-192	명금	서울		前경기중학교장,삼악회장	630,000			
	122	承仁	479-194	"	"	前상임이사(亡)	前서울시 양정과장	200,000			
	123	貞秀	479-204	"	"	前감사(亡)	前은행원	100,000			
	124	魯秀	478-184	진천	진천	(亡)	前진천초등학교장	100,000			
	125	京泰	474-54	서산	일산		신형건설 대표	100,000			
	126	基馨	472-27	춘성	춘천	前유포분회장	농업	100,000			
	127	鎔浩	480-1	함흥	서울	(亡)		100,000			
	128	興甲	484-113	"	"	(亡)		100,000			
	129	盛馨	480-27	홍천	홍천	홍천분회장	농업	100,000			
	130	溱辰	482-60	함흥	서울		양친회병원 상무이사	100,000			
	131	承億	470-14	묘봉	"	용인분회장		410,000	50,000		
	132	甲鏞	481-31	함흥	"	함흥분회장	수의사	100,000			
	133	文馨	472-10	춘성	"			200,000			

특지이사 찬조금 납부현황 (6)

(派別・納入順)

2006. 12. 31 現在

派	順	委員名	固有番號	派居	現居	本 會 任 職	職 業	既 納 額	2006年納入額	未納額	備考	
大司成公派	少尹公派	134 東馨	491-34	황간	황간	황간분회장	충북영동군황간면장	100,000				
	135 喆秀	490-17	월평	서울	상임이사,운영위원	인쇄소 경영	500,000					
	136 海容	490-7	"	부산	운영위원	한국의장 이사	300,000					
	137 海益	490-3	"	하남		건축 하청업	200,000					
	138 鎭馨	496-37	안성	안성		前세계관광 Co. 사장	300,000					
	139 致馨	496-37	"	서울	(亡) 前미양분회장	前경제, 소방서장	200,000					
	140 明秀	497-24	"	안성	(亡)		200,000					
	141 承寬	496-34	"	서울		내과병원장(공릉동)의학박사	500,000					
	142 俊馨	496-51	미양	서울			100,000					
	143 武林		정태	산청	대사성공파회장	산청문화원 이사		100,000				
	144 大年		대병	일본		일본		100,000				
	145 且秀			김해				100,000				
	合 計								28,150,000	510,000		
	判書公派	承旨公派	1 載馨	172-11	산적	제천	(亡)	농업	100,000			
		2 遠先	175-89	"	산적	(亡)	농업	100,000				
3 遠一		178-72	이천	서울		前 이레크린에어 대표	500,000					
4 承烈		176-1	양주	"	(亡)	前현대이주개발공사 동두천지사	100,000					
5 海錫		177-34	"	"			100,000					
6 海觀		176-18	"	"		신내동마을금고 이사	100,000					
7 海先		177-29	"	"		전기공사업	100,000					
8 海淳		179-83	포천	포천		농업	150,000					
9 海雄		179-85	"	의정부	前상임이사	용달업	304,000					
10 海章		176-20	신내	서울		前 천마석제대표이사	100,000	70,000				
11 承祿		183-5	토산	"		前한일개발 차장	220,000					
12 朝馨		183-21	"	인천	前토산분회장(亡)		100,000					
13 炳圭		183-23	"	와부	(亡)	부동산 소개업	270,000					
14 海得		183-16	"	온양	(亡)		100,000					
15 菊馨		187-72	유천	인천	유천분회장(亡)	대서업,부동산소개업	150,000					
16 海莚		185-10	"	서울	前상임이사(亡)	인쇄업	100,000					
17 培馨		186-42	"	김포		농업	130,000					
18 海心		189-1	신기	인천	前부회장	법무사,㉠천창건기,현대사 회장	140,000					
19 海豐		190-33	"	서울	前부회장	양품점 경영	600,000					
20 來馨		191-63	"	"		前 카다르대사,델타항공㉠사장	200,000					
21 周馨		191-65	"	"		충남방직Co. 부회장	100,000					
22 海振		189-16	"	"	(亡)	前성동공업사 전무	200,000					
23 海龍		190-40	"	"	前상임이사	前철도청 전기과장	100,000					
24 徽馨		192-84	"	"	운영위원,前감사	前서울지방국세청조사국장,서장	650,000					
25 承馥		191-72	"	"		前 아시아나항공 전무이사	300,000					
26 國馨		191-60	"	"	상임이사	前 경위	200,000					
27 道馨		189-20	"	"	前상임이사	前초교 교감	100,000					
28 承喆		191-59	"	"	운영위원	공학박사	400,000					
29 元馨		193-15	임한	"	前임한분회장		200,000					
30 承勳		180-14	사동	인천		공학박사	100,000					
31 承哲		182-65	"	안산		신기금속 Co.사장(안산)	500,000					
32 海巖		185-6	유천	서울			100,000					
合 計								6,614,000	70,000			
摠郎公派 合計								50,204,000	830,000			
總 計								83,541,000	1,180,000			

안 내 말 씀

보험사업 협조 요망

대중회 재정확보와 자립운영을 위하여 보험사업을 개설코저 하오니 종친여러분께서는 본회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하시어 대중회 운영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1. 보험 종류
 - 1) 자동차 보험
 - 2) 화재 보험
 - 3)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2. 동원 인력
 - 1) 본부 1명(류원태)
 - 2) 각파 1명(총무 또는 선정자)
 - 3) 1,000대 달성되면 직원 1명 채용
3. 보험 가입 방법
 - 1) 각파에서 대중회(본부)로 보고한다.
 - 2) 파종회 책임자와 본부에서는 각 분회를 순회하여 자동차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이 해시킨다.
 - 3) 보험 가입 비율의 50%는 각파의 활동비로 지급한다.
4. 목표 : 월 90대(년: 1,080대)
5. 파종회별 책임 가입 차량대수
 - 1) 백참판공파 : 205대 (월 17대)
 - 2) 계참판공파 : 162대 (월 14대)
 - 3) 진 천 군 파 : 162대 (월 14대)
 - 4) 대사성공파 : 485대 (월 40대)
 - 5) 판 서 공 파 : 86대 (월 7대)

합계 : 1,100대

안내 말씀

인터넷 족보의 사업

1. 인터넷 족보 운영의 필요성

- 1) 세계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이란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다. 이제 족보도 인터넷이란 사이버 공간에 구축하여 줌으로써 젊은 후손들이 보다 친숙하고 빠르게 족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인터넷 족보란? 전국 방방곡곡, 세계 어느 곳이든 인터넷이 연결되고 컴퓨터가 있으면 이름 입력 즉시 자기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족보라 할 수 있다.
- 2) 따라서 우리 진주류씨에서도 을유보 발간시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보하지 못한 종친들이나, 추가해야 할 종친들에게 전산화된 족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족보 전산화가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피 땀어린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에 을유보의 잉여금중 일부를 한자와 족보를 잘 모르는 후손들이 재미있고 신속하게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투자해야 할 것이다.

2. 인터넷 족보의 주요기능과 기대효과

- 1)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름 입력 즉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 2) 한자 옆에 한글 음이 있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 3) 족보를 보면서 가족사진, 묘소, 묘비, 재실, 훈장, 표창장 등 각종 사진을 함께 볼 수 있다.
- 4) 이름 입력 즉시 일가간의 촌수 계산과 직계 검색이 된다.
- 5) 책보기에서 건강, 견하, 入出系 연결 페이지가 클릭 한 번으로 찾아감.
- 6) 족보책과 인터넷족보의 서체가 화면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 7) 자손록은 텍스트(PDF) 화일로 구성되어 검색 속도가 빠르고 깨끗하다.
- 8) 족보 내용이 계속하여 추가 됨으로써 향후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승보(가첩), 파보, 대동보 제작시 편집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 9) 언제든지 生, 卒, 결혼, 행적 변경 기록을 수정 할 수 있다.
- 10) 인터넷족보 구축시 유료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관리비 및 사무실 운영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
- 11) 친숙하고 흥미롭게 조상의 업적과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보급하면 족보와 한자를 잘 모르는 젊은 후손들에게 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종원들의 종친회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3. 인터넷 족보구축 개설 소요경비

을유보 약 5,500페이지 인터넷 족보 구축비 및 장비(씨버)임대, 구축 비용 등 기술개발과 수단 접수 상황에 따라 기간과 비용이 산정되므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행코저 한다.

4. 인터넷 족보의 운영 방안

- 1) 인터넷 족보 구축시 유료 회원제(초기 가입시)
- 2) 신규 수단비
 - ① 추가 수단비(입보, 生, 卒, 결혼, 행적 변경 등)
 - ② 사진 등재비(본인, 가족사진, 묘소, 묘비, 재실, 훈장, 표창장 등)
- 3) 광고 수입비
- 4) 가승보(가첩), 파보 제작
- 5) 상품, 특산물 판매 코너 개설

● 편집 위원 ●

책임편집위원 원 포 (대사성공파)

편집위원 보 형 (백참판공파)

하 림 (진 천 군 파)

해 장 (판 서 공 파)

석 형 (계참판공파)

정 득 (대사성공파)

大 宗 會 報

〈2007년판 통권 제19호〉

2007년 3월 20일 인쇄

2007년 3월 30일 발행

발행인 柳 宗 秀

발행처 晉州柳氏大宗會

인쇄처 大 明 企 劃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일성오피스텔 5층 503호)

TEL . 474-0485 · 473-0485 FAX. 473-0485

홈페이지 www.jinjuryu.net/ 한글도메인 진주류씨대종회



영모재 전경



회장 류 철 형

통정대부 김해도호부사 진주류공 묘비 제막식 거행

진주류씨 대사성공파 헌납공 김해문중의 경사

지난 2006년 11월 9일 대사성공파 헌납공 할아버지 김해문중(회장 喆馨)에서는 대종회 종수(宗秀) 회장을 비롯하여 각파 회장과 많은 영남 화수회 종인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통정대부 김해도호부사(휘 時茂=헌납공 5대손)공의 묘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2002년 김해 밀양간 국도 확장공사로 인하여 이곳에 모셔 놓은 선조 묘소 두분을 이분하게 되어 차제에 재실(齋室)과 분암(墳菴)을 지어 산재된 선조의 묘소를 이곳으로 모시자는 후손들 뜻을 모아 2004년 영모재(永慕齋)와 영모당(靈慕堂)을 완공 하였으며 또한 공의 묘를 이분하여 이곳에 묘역을 조성하고 2006년 11월 9일 묘비 제막식을 엄숙히 거행하였다.

이에 문중의 뜻이 담긴 와비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는 바이다.

여기 無隻山麓 陽地 바른 곳 丹青 기와집이 있으니, 이는 오래 동안 散在한 祖上님들의, 塋墓를 2002년 國道工事로 不得이 移墳하게 되어, 宗義를 모아 此際에 齋舍와 墳菴을 지어 永保之計를 세워, 無窮토록 傳承함으로서, 追遠報本の 道理를 다 하는 것이라 믿고 2004년 竣工하게 되니, 비록 三架四櫟의 規模가 작고 壯麗하지는 못하나, 整齋하기에는 適合하리라 믿고, 永慕齋라 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聖域이라 모두가 敬虔한 마음으로, 길이길이 保存함으로서 後孫萬代에 榮華 있으리라.

2006년 월 일
진주류씨 헌납공파 김해문중



묘역 전경



영모당



교지

通政大夫金海都護府使晉州柳公墓碣銘

故通政大夫金海都護府使晉州柳公依履之職在金州之北吾西
山東履負厚配淑夫人奉化琴氏同封焉舊有隧通顯刻而歲久
磨泐不能詳焉則將伐石改堅叙其姓系源流及履歷顯職而垂諸
悠久不亦宜乎公諱時茂字用大初諱元宗避章陵廟號而改之柳
氏肇祖于高麗上將軍封晉康君諱拱自後世顯諱淑神虎衛中郎
將封晉寧君諱敷植高宗朝以後軍兵馬使討平契丹連獲封晉厚
君諱洪林戶部尚書遷老于晉之元壙至今有遺址贈平章事晉陽
君諱樸軍機處郎晉興君諱玠評理晉城君諱之澤實文閣大司成
諱藩密直司使晉川君三使皇明竭忠對揚麗邑杜門著節號稱粹
隱先生入享睿憲院諱伯通仕我朝獻納知平海郡事諱升漢獻納
知製誥定公之五世祖也高祖文王忠順衛曾祖祐生判官祖濟察
訪考自春軍資監參奉妣昌山會氏別座宏女公有志略不拘小節
始以武藝薦授司僕萬曆癸卯登武第辛亥為效力副尉以內禁衛
復加奮勇副尉甲寅拜三陟萬戶戊午移大捕權管署如兼節教勇
忠毅果毅等校尉又陞禦侮昭威建功諸將軍常帶職禁衛已未為
武臣宣傳官尋遷授龍驤衛副司搏為副司正及副司果者二仁廟
癸酉出為海南縣監戊寅復入為副司果己卯除渭原郡守不就尋
資通政以義興衛副司直拜金海府使明年轉授忠佐衛移肅川府
使我朝當宣仁之際國家多難慮內而典司政本外而折衝禦侮人
材之各適顯用又無如此時則公之歷職顯要褒獎為當世之器
可想也琴氏父淑己江陰縣監殉節廣亂二男再新宣教郎又新宣
略將軍大新殉出宣教男相廷宣略男相景相繼噫今距公三百有
年之久而子孫又寥寥凡家傳文獻已杞宋矣其不可得以詳者非
強揣而誣之其中存而傳者止此則并依舊碑前面大刻改鑄而崇
奉之使州人百世之下猶記其鄉先生崇公之城而過必式焉

歲己未十一月 日

情後孫 達重 謹撰

二〇〇六年丙戌閏七月 日 暨

教子有方操履得中

伯 參 判 公 派 宗 親 會



고 문	승 국	수재공파
	택 형	문정공파
회 장	녹 형	서경공파
부회장	해 인	서경공파
"	승 건	
"	현 수	
"	쾌 형	충찬공파
총 무	승 준	수재공파

季 參 判 公 派 宗 親 會



고 문	치경, 천형, 치형, 무형, 문형 승국, 일형, 승원
회 장	해초
부회장	해중, 승재, 재형, 해중, 해동 변형, 해민, 무형, 만복, 월형
이 사	인형, 석형, 승만, 최형, 해설 해국, 승룡, 원형, 일수, 승건
감 사	원기, 낙형, 승돈 청 년 회
회 장	승갑
부회장	보형
총 무	승윤
감 사	남형

安簡公派 宗親會



회 장	해 성	현감공파
부회장	연 수	현감공파
총 무	해 진	현감공파

晋川君派 派宗會



고 문	해 상	대암공파
"	승 상	대암공파
"	서 형	현감공파
회 장	해 용	재신공파
부회장	해 명	대암공파
"	원 모	대암공파
"	태 형	현감공파
"	창 목	현감공파
"	덕 형	입암공파
"	승 환	재신공파
감 사	지 혁	현감공파
"	향 우	대암공파
총 무	병 두	재신공파

大司成公派 派宗會



고	문	기	수	묘
"	"	광	수	호
"	"	상	수	고
"	"	해	승	령
"	"	진	수	진
"	"	승	형	주
회	장	무	림	진
부	회	득	룡	주
"	"	영	형	산
"	"	해	언	청
"	"	인	형	대
감	사	정	득	병
총	무	해	윤	수
				곡
				묘
				산
				하
				빈
				서
				울
				묘
				산

判書公派 宗親會



진사공파	회	장	은	수
(휘 秀芳)	총	무	관	형
진사공파	회	장	해	관
(휘 秀薰)	총	무	진	형
서령공파	회	장	해	암
	총	무	승	종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뿌리정보미디어가 만들면 틀립니다.

- ♥ 정서 작업없이 족보편집(자유자재로 데이터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
- ♥ 족보와 사진을 함께 볼 수 있다(본인사진, 가족사진, 묘소, 묘비, 비석, 훈장, 표창장 등 모든 사진)
- ♥ 입력된 족보데이터를 활용하여 언제든지 책으로 만들 수 있다.
- ♥ 미려한 화면디자인, 빠른 검색속도, 다양한 검색기능으로 홈페이지와 인터넷족보를 구축한다.

뿌리정보미디어는 13년간 족보 관련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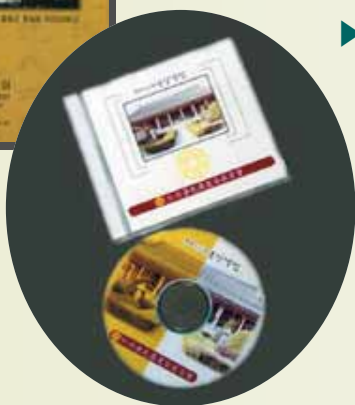
대한민국 여러 종친회에서 저희 회사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여 인터넷족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족보 전용 편집 프로그램 도입 종친회

동래정씨종친회/청주한씨중앙종친회/인천이씨대종회/청송심씨대종회/순흥안씨3파종회/진주류씨대종회/여흥민씨대종중/단양우씨예안군파종회/밀양박씨돈재공파종회/김녕김씨충의공파대종회/안동권씨대종회/경주김씨한림시어사공파

※ 기타 여러 종친회 및 족보 전문 제작업체에서 자사의 족보 편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족보편집 및 전산화 작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족보 편집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 족보 편집 및 인쇄 · 제본

▶ 古書, 文集, 불경서적 편집 · 인쇄

▶ 전자(CD-ROM)족보 제작

▶ 인터넷족보 구축

▶ 종친회 홈페이지 제작

▶ 서체개발(48,000여자 개발완료)

▶ 각종 도서 CD 제작

족보제작전문회사

뿌리정보미디어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52-1 메트로디오빌 3010호

전화 02-716-1521 · 716-0790

홈페이지 www.jokbo.cc



대표 유 조 형
진천군파 장사랑공 11대손
경북 안동 출신



유 미 상 패

취 급 품 목

상패 골프트로피 우승기 근조기
명패 행사리본 기념품 페난트
현수막 행사기념품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118-2)

전화: (02) 2274-8644, 8643 팩스: (02) 2274-8642

H.P: 011-272-8642

E-mail: yumi2274@hanmail.net 홈페이지: www.yumisangpae.com



대명기획



대표 유 원 포
대사성공파 계사정공 14대손
경남 합천 가호 출신

광고기획 · 건축실측보고서 · 사보편집
카다로그 · 수첩 · 팜플렛 · 고급 인쇄

서울시 중구 인현동1가 36-1호 203호

전화: (02) 2279-3835

팩스: (02) 2278-4695

H·P: 011-273-3835

E-mail: you3835@korea.com



유광사여성병원은 현대적 시설과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산부인과 · 소아과를 One-stop Service로 진료하는 여성과 아기를 위한 전문병원입니다.

+ 진료시간

평 일	오전8시~오후9시	직장인을 위한 진료시간 연장
토요일	오전8시~오후4시	
일요일	오전9시~오후1시	소아과 휴진

※ 분만 및 응급환자는 24시간 진료



의학박사/산부인과 전문의
병원장 류 광 사(柳光司)
대사성공파 사직공 19대손/경남, 남해 출신
前 서울시의원(강서)/본회 재정위원

문의: 02-2608-1011~9로 전화하신 후 안내음성이 나오면 114번이나 210번(야간)을 누르세요.



전화 02-2608-1011~9/팩스 02-2608-1019
서울시 강서구 화곡5동 1031-12(지하철 5호선 화곡역 1번출구 100m)
www.yookwangsa.co.kr

소아 알레르기 · 성장 전문 청담 아이누리 한의원

따뜻한 아이들의 세상

청담 아이누리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원장 소개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원
- 경희대학교부속 한방병원 수련의과정
- KAIST(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컨설턴트 과정(AIC) 수료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사회교육원 교수
- 한방약침학회 정회원
- 청담아이누리한의원 외국인 전담 주치의
- 육아잡지 <베이비> 상담자문위원
- 육아잡지 <앙팡> 상담자문위원
- 한국 MENSA 정회원

류은경(柳恩卿)
대사성공파 계사정공 19대손
경남 거제 외 증복 차녀

진료 시간

• 365일 진료 •

월요일~토요일 : 오전 10:00~오후6:00
일요일 및 공휴일 : 오전 10:00~오후5:00
점심시간 : 오후 12:30~오후2:00

전화예약

02.548.0380

세살건강 여든까지



전문 한의사가 분야별로 치료합니다.

청담아이누리한의원 의료진은 소아 한의사들과 임상영양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진료노하우로 아토피, 비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은 물론, 감기, 성장부진, 식욕부진 등 전문분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최고의 약재만을 사용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쓴 약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달콤한 향과 맛으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약재 관리 한의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최고의 약재 만을 처방합니다. 이 밖에도 캐릭터 월드 인테리어, 주한 외국 어린이를 위한 한방 진료 실시 등 특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아이들을 돌보는 청담 아이누리한의원은 아이들의 질병 예방과 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학대와 착취, 가족으로부터의 격리와 방임, 소외와 차별 등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사회병리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의료 실천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24시간 인터넷 진료상담 및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한방피부과" 또는 "한방이비인후과"를 입력해 보세요.

청담 아이누리 네트워크

청담 · 강동 · 목동 · 일산 · 분당 · 의정부 · 천안 · 대전 · 부산